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9-14

# 비산동

비산동은 경수대로와 관악대로 사이의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1970년대 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며 도시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안양종합운동장과 다양한 상권이 자리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다.



제14권  
비산동



##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contents

---

### 1 비산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비산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008

제2장 비산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8

### 2 비산동의 마을과 전통문화 / 084

제1장 관악산 자락에 터 잡은 내비산과 외비산 / 086

제2장 문중자료를 통해 본 근대 비산동의 생활문화 / 118

제3장 매봉산산신제의 전승 / 152

### 3 비산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과 변천 / 172

제1장 비산동 아파트지구의 형성과 변화 / 174

제2장 비산동 아파트 단지의 분포와 특성 / 206

제3장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생애 / 236

제3장 비산래미안아파트의 주민생활 / 262

---

## 4 비산동을 다채롭게 만드는 시설들 / 286

제1장 아이들을 위한 평화의 터전, 평화보육원 / 288

제2장 도시와 함께 성장한 학교, 안양동초등학교 / 314

제3장 비산동 교육의 요람, 대림대학교 / 342

제4장 안양종합운동장의 조성 and 운영 / 368

## 5 주민이 만들어가는 비산동의 문화 / 392

제1장 '산마을'에서 시작한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 394

제2장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 414

01

# 비산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비산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비산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제1장

## 비산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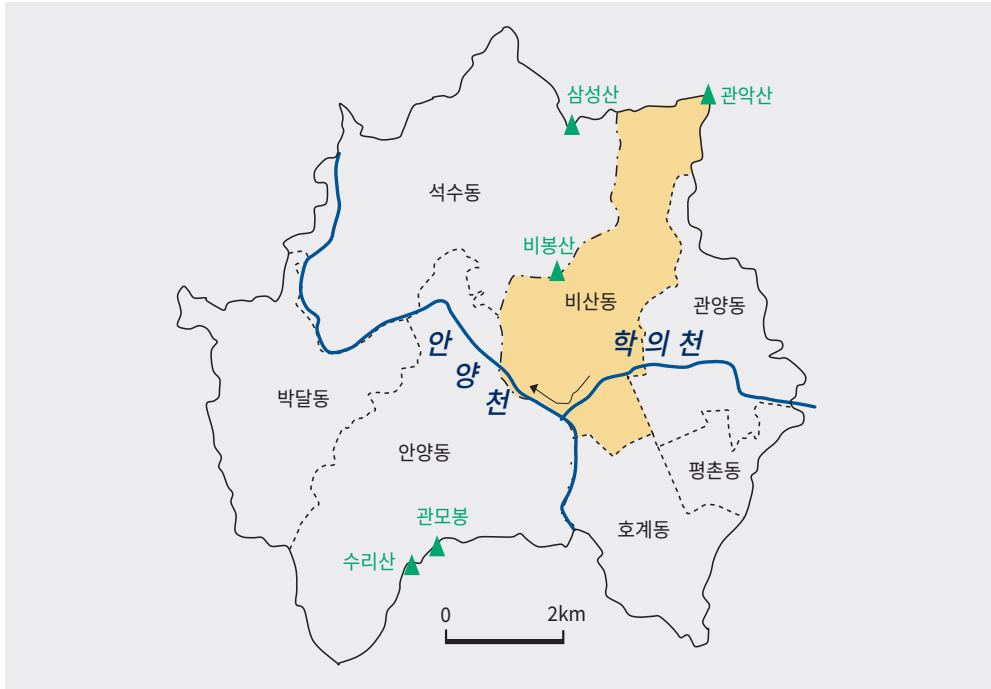


## 1. 안양시 중심부에 접한 비산동

### 1) 관악산 남사면에 자리한 마을

비산동은 안양시의 중북부에 걸쳐 있는 법정동의 명칭이며, 이곳에는 법정동 명칭에서 분동한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을 비롯해 부흥동과 달안동 등 모두 5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비산동의 동쪽으로는 관양동이 자리하며, 남쪽으로는 호계동이 있다. 서쪽으로는 안양천 건너 안양시의 중심지이자 발상지인 안양동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관악산에서 비봉산으로 뻗은 산줄기 너머로 석수동이 있다. 산줄기의 아래쪽에서는 안양동과 마주한다. 인접 지역과는 대체로 산줄기나 하천 또는 대로 등을 통해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안양종합운동장 동쪽에 자리한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관양동과의 경계가 소로를 따라 설정되어 있다. 비산동은 북쪽의 일부가 서울시와 경계를 형성하지만, 시가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양시의 7개 법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인접 도시와 시가화 구역이 붙어 있지 않다.

관악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비산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학의천 일대에서 경사가 매우 완만해진다. 이에 따라 일찍이 학의천 주변의 완사면과 평지에 비산동의 시가지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학의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쌍개울 일대는 과거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구득이 용이하고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발달해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던 곳이다. 비산동의 자연 마을은 산사면과 골짜기 등지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며 서쪽의 안양역과 동쪽의 관양동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비산동에서 시



안양시의 중북부에 위치한 비산동

가화 구역이 처음으로 형성된 구역은 안양역 동편의 비봉산 자락에 자리한 임곡(林谷)이었으며, 이곳에서부터 학의천을 따라 산사면의 시가지는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학의천의 남쪽은 1990년대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광활한 벌판이었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는 국도 1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이다. 안양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경수대로)은 안양천의 동쪽을 통과하면서 비산동 시가지의 서쪽을 지난다.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관악대로)은 오래전에 개설되어 안양역에서 비산동을 지나 과천 방향으로 향하며,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은 국도 1호선에 비해 교통량이 극히 적었고, 비산동과 인접한 관양동 구간은 포장도 되지 않아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비산사거리를 잇는 대전~안양선 국도 57호선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1996년 7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비산사거리에서부터 의왕시-성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를 통과한다. 비산동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국도 1호선과 동서 방향으로 뻗은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수원 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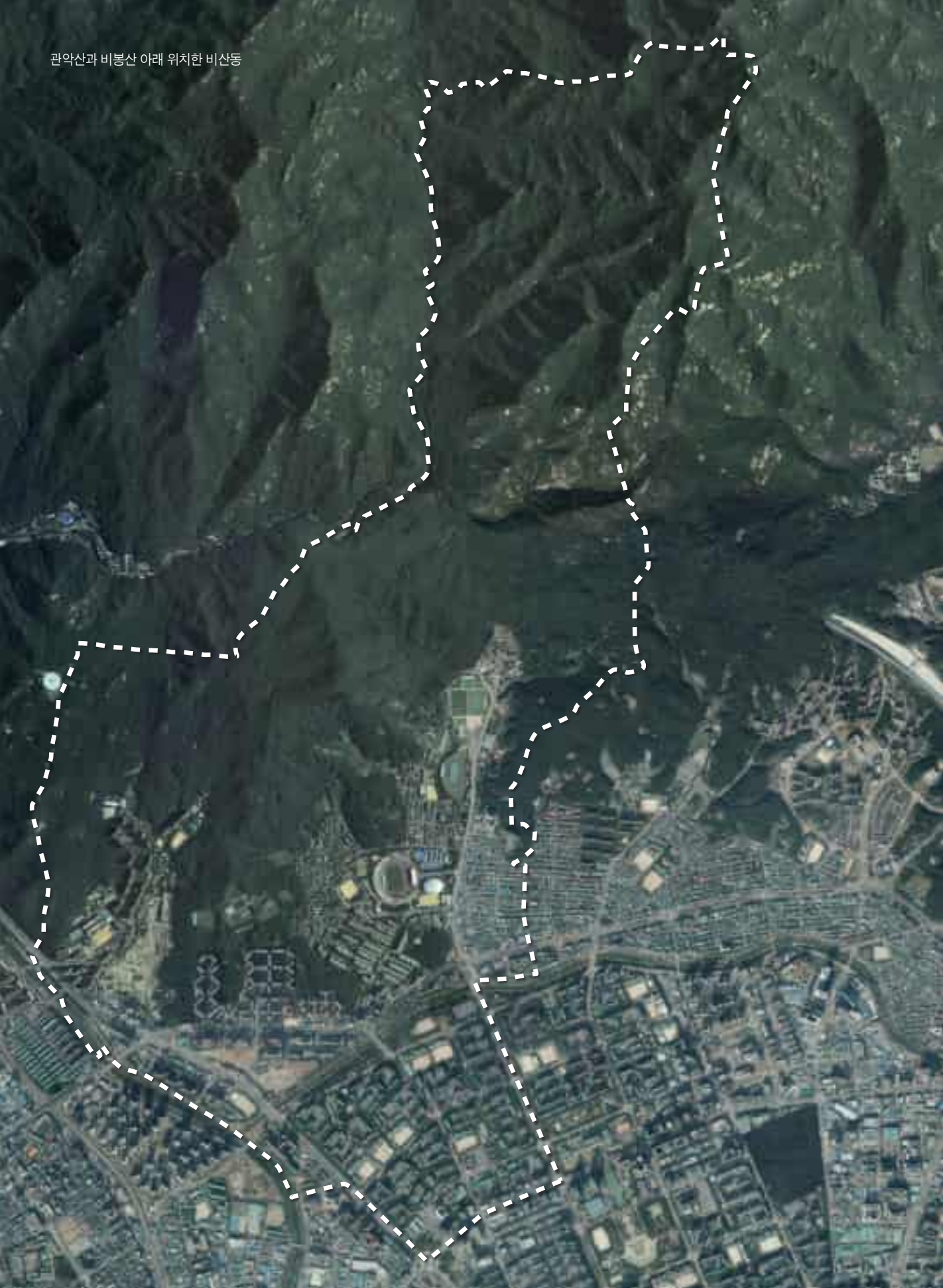
비산동의 행정동

로의 진출입이 쉬운 지역이며, 동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는 않지만, 인접 지역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수도권 전철 1호선·수도권 전철 4호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는 앞에서 언급된 경수대로와 관악대로를 비롯해 안양천동로·동안로·달안로·학의로·관양로·임곡로·시민대로·평촌대로 등의 간선도로와 이로부터 파생된 도로가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비산동의 곳곳을 연결해 준다. 이 가운데 비산동의 남단을 통과해 범계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에 이르는 시민대로는 남쪽의 호계동과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시청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학의천 건너 내비산교에 이르는 평촌대로는 동쪽의 관양동과 경계를 형성하는 도로이다. 관악대로 북쪽은 관악대로에서 파생된 관악대로275번길 소로가 비산동과 관양동의 경계를 이룬다.

비산동을 흐르는 안양천과 학의천을 건너는 교량에는 안양천의 안일교·임곡교·비산대교·덕천교·서로교 등이 있으며, 학의천의 비산교·비산인도교·학운교·내비산교 등이 있다. 비산동 시가지는 관악산 기슭을 제외하면 모두 안양시의 다른 시가지로 포위된 듯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비산동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고속화도로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

관악산과 비봉산 아래 위치한 비산동



를 이용해 비산동에서 인접한 안양성남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짧은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 2) 관악산과 비봉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시가지

비산동은 북쪽의 산지와 남쪽의 농경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비산동의 북쪽으로는 조선시대 한양에 도움을 정할 때 풍수지리상 한양의 바깥 울타리라 할 수 있는 외사산(外四山)의 하나인 관악산이 있다. 관악산은 사방 수호신 가운데 남쪽에서 불의 기운을 가지는 주작(朱雀)에 해당하며,<sup>1</sup> 뾰족한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다는 데에서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이라 불렸다. 관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아늑한 계곡을 형성하면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였고, 비산동의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고도가 낮아지면서 비봉산을 지나 안양천 변으로 이어진다. 관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관양동과의 경계를 이루며 안양종합운동장 동쪽으로 연결된다.

관악산(冠岳山, 632m)은 안양시·과천시·서울시 관악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의 정상부가 큰 바위기둥을 세워 놓은 모습을 보여서 ‘갯처럼 생긴 산’이라는 뜻의 ‘갯뫼(간뫼)’ 또는 이를 한자화한 관악(冠岳)이라 부르게 되었다. 관악산은 경기 오악(五岳)<sup>2</sup>의 하나로 경치가 뛰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가 많고 오래된 나무와 풀이 서식하고 있어 수려한 산세를 갖추고 있다. 이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하여 ‘소금강(小金剛)’ 또는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라는 의미로 ‘서금강(西金剛)’으로도 불렸다.<sup>3</sup> 관악산은 1968년 1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등산객이 찾는 휴식처이자 수도권의 명산으로 자리 잡았다.

중생대 대보화강암의 관입으로 형성된 관악산은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약 8km에 달하는 원형의 산지이며, 안성시 칠장산에서 수원시의 주산에 해당하는 광교산을 거쳐 한강 남쪽으로 연결되는 산줄기에 자리한다. 관악산은 곳곳에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어 해발 고도에 비해 험준한 산세를 형성하며, 대표적인 지형 경관은 지표 위로 돌출한 화강암 지형이다.<sup>4</sup> 관악산의 대규모 돌출지형은 화강암의 수직 절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정상부는 기반암인 화강암이 그대로 노출된 석산(石山)의 성격이 강하다. 산의 정상부에는 암반이 많아 바위로 이루어진 명소들이 많다. 비산동 시가지에서 정상부로 향하는 능선은 대체로 암반으로 구성된 구간이다. 관악산의 능선이 암반으로 이루어졌지만, 골짜기로 향하는 사면에는 토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다. 산의 정상부에서부터







관악산 전경(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비산3동의 비산중학교 일대에 이르는 구간의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악산은 인접한 청계산 및 삼성산과 함께 금지산맥(衿芝山脈)을 이루며, 금지산맥의 최고봉이다.<sup>5</sup> 금지산(衿芝山)은 관악산 서쪽 끝인 동시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키며, 과거 금천현의 주산(主山)이었다. 금지산은 금주산(衿州山)·호암산(虎岩山)·검지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sup>6</sup> 지금은 호암산(393m)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자리한 관악산은 자연적 요소를 기반으로 도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으로 인식되면서 생태·여가 휴양·상징성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니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관악산은 역사적 관점에서 조선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를 적용한 산으로 인식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광복 이후에는 생태적 가치가 강화되고 여가 및 휴양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서 생태 축의 거점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대도시 근교에 자리한 근교 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관악산은 서울에 있는 산 가운데 북한산·도봉산과 더불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관악산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에는 산을 이용하기 유리한 시설, 관광 자산, 생태 요소, 편의성, 환경 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sup>7</sup>

관악산에서 비산동으로 흘러내린 서쪽 산줄기에는 비봉산이 자리한다. 봉황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라는 비봉산(飛鳳山, 295m)은 해발 고도가 높지는 않은 산으로, 주변에 높은 산지가 없어 남쪽의 평촌신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다. 관악산에서 비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비산동을 석수동 및 안양동과 경계 지으며, 이 산줄기와 삼성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삼성천이 흘러내린다. 비봉산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안양 시민이 즐겨 찾는 일출 명소이기도 하다.

관악산과 비봉산 산줄기 사이 지역은 과거에 내비산(內飛山, 안날미)이라 불렀던 곳이고, 내비산의 왼쪽, 비봉산 동쪽 산줄기 밑 지역은 과거에 외비산(外飛山, 박날미)이라 불렸다. 이들 비산동의 자연마을은 관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사이의 완사면에 자리하였다. 내비산의 동쪽은 지금의 관양동이다. 내비산 역시 관악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둘러싼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내비산은 골짜기에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농경지 사이로는 관악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내비산천이 통과하였다. 즉, 하천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던 내비산은 3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의 학의천 방향이 탁 트여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

내비산과 외비산은 자연 하천과 그 주변에 형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지만, 내비산 골짜기에 수도군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골짜기의 도시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완사면으로 이루어진 내비산과 외비산은 과거의 자연경관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이에 따라 비산동의 일부 산지는 평지처럼 변모했으며, 골짜기를 흐르는 내비산천의 유로는 비산중학교까지만 옛 모습을 간직한 채 학의천과의 합류부까지는 복개되어 유로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봉산에서 갈라진 산줄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골짜기에는 20세기 이전부터 자연마을 임곡(수푸루지)이 들어섰다. 임곡에서 고개를 넘어 비봉산 줄기를 넘으면 석수동 삼성천에 도착할 수 있는 소로가 있었다. 임곡은 안양천 건너 안양역과 마주하는 곳이었기에 비산동에서 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마을이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안양동초등학교·임곡중학교·대림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선 곳이다.

### 3) 학의천이 관통하는 마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산동은 관악산의 남쪽 끝사면에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고, 나머지 땅은 학의천 주변의 농경지로 존재했었다. 학의천(鶴儀川)은 의왕시 학의동의 백운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백운저수지를 지나 관양동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비산동에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학고개천(鶴古介川) 또는 인덕원천(仁德院川) 등으로 불린다. 학의천이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점은 두 하천이 모인다는 의미에서 ‘쌍개울’이라 불렸으며 지금은 합류 지점에 안양천쌍개울문화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학의천은 유로연장 11.6km에 유역면적 41.2km<sup>2</sup>에 달하는 지방하천이다.<sup>8</sup> 하천의 이름은 발원지가 학의동이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학고개천은 학현(鶴峴)의 순 우리말식 지명인 셈이다.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에서는 안양천의 지류 가운데 하나로 인덕원천이 언급되어 있는데, 인덕원천의 위치를 추정하면 지금의 학의천이다.<sup>9</sup>

19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안양천과 학의천은 수질이 지극히 불량한 상태가 되었고 죽음의 하천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1990년에는 학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3ppm으로 농업용수의 오염기준치(8ppm)를 10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sup>10</sup> 학의천은 평촌신도시와 관양동 개발사업이 진행된 동시에 하천의 상류부에 건설된 백운저수지의 유량 부족이 겹치면서 수량이 감소하는 건천



직선화 공사 이전 구불구불 흐르던 학의천과 그 주변의 농경지(1965년)

화(乾川化)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에서는 1996년부터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였고, 유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철 용출수 및 하수처리수를 학의천 상류에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의 수량을 늘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의천의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 하천으로 복원되었고 안양천 수계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하천으로 전환되었다. 하천 변은 주민들의 산책로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학의천 양옆에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고, 학의천을 따라 건설된 자동차 도로(학의로)와 제방 사이에는 수목을 심은 산책로, 축구장·농구장 등의 체육 시설, 학운공원 등의 수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하천의 유로는 일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학의천의 물길은 본래 구불구불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하천에는 소규모의 모래톱과 같은 섬도 있었다. 즉 곡류하면서 흐르는 하천의 유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직선화 공사가 실시된 것이다. 곡류하던 학의천 주변은 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여름철 범람의 위험도 있었기에 농경 활동은 벼농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이었다. 1970년대 중반 학의천의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sup>11</sup>



달안이들 개발 이전의 비산동(1975년)

쌍개울에 이르는 구간까지 하천 변의 제방을 높게 쌓아 하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학의천 일대는 하루 강수량이 50~1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거의 매년 내릴 정도로 홍수 피해가 잦은 곳으로, 지난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학의천의 둑이 무너지기도 하였다.

#### 4) 안양의 곡창 달안이들

의왕시 모락산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안양천과 의왕시에서 발원해 서쪽으로 흐르는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동남쪽에는 ‘달안평야(達安平野)’라 불린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되었다. 달안평야는 인접한 군포시 동북부까지 이어지는 타원형의 분지이다. ‘달안이들’ 또는 ‘달안들’로 잘 알려진 달안평야는 비산동에 포함되는 행정동 달안동에만 국한된 들판이 아니라, 부흥동·부림동·범계동에 이르는 구역에 펼쳐진 대규모의 들판이었다. 달안이들은 화강편마암의 사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비옥한 농경지가

구성되었다.

달안이들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들판이 넓다는 데에서 '만주별판'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쌀이 많이 생산된다는 데에서 '만마지기들'로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광활하였다. 이곳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은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항상 샷갓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샷갓들'이라는 이름도 있으며, 비가 내리면 재빠르게 도망가야 한다는 데에서 '달안이들' 또는 '달안동천(達安洞圻)'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지금의 달안동 지명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지만,<sup>12</sup> 본래 순우리말 이름인 달안이의 발음을 따서 지금의 달안동이라는 한자 지명이 생겨났다는 견해도 있다.<sup>13</sup> 달안이들은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농경지 외에 민가는 없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초에 거처를 구하기 힘든 외지인들이 달안이들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생겨났고, 마을 이름은 들판 이름에서 유래한 달안동(達安洞)이 되었다.

달안이들은 별판이 넓고 서울과 가까운 곳인 관계로 일제강점기 말에 박흥식(朴興植)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하였다가 광복이 되면서 중단한 곳이기도 하다.<sup>14</sup> 1980년대 말 학의천 주변의 넓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평촌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달안평야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학의천 유역의 농경지역시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의왕시 모락산에서 발원해 학의천에 합류하던 소규모의 하천 역시 도시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 2. 비산동의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 1)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동 구성

『호구총수』(1789)에 따르면, 비산동은 과천현(果川縣) 상서면(上西面) 비산리(飛山里)로 편제되었던 곳이지만, 이후에 과천군 상서면 내비산리(內飛山里)와 외비산리(外飛山里)로 나뉘었다. 1914년 일제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군이 시흥군으로 편제되면서 내비산리와 외비산리는 비산리로 통합되어 시흥군(始興郡) 서이면(西二面) 비산리로 편제되었다. 1941년에는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로 개칭되었다.

1949년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비산리는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로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비산리 전 지역은 비산동(법정동)이 되었다. 안양시 승격 당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했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1982년 9월에는 행정동으로서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되었고, 1990년 5월에는 비산2동이 다시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분동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비산동이 3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었다는 것은, 비산동이 안양역의 배후지로 성장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5월에는 비산2동이 비산2동과 부흥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93년 5월에는 부흥동이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분동되었다. 1992년 10월 1일 안양시에 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정동 비산동에는 모두 5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비산1동은 과거 임곡마을이 있던 지역으로, 비봉산에서 갈라진 산줄기와 마을 앞쪽을 흐르는 안양천과 관악대교가 행정 경계이다. 비산2동은 안양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도시화 시기가 늦은 지역이었기에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행정동이 분동될 당시 지금의 비산1동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비산2동에 편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안양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평촌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비산2동은 여러 차례 분동을 거쳤다. 현재 비산2동은 학의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쌍개울 일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할한다. 비산3동은 과거 내비산리라 불리던 곳으로, 관악산 남사면의 내비산천이 흐르는 골짜기 일대에서 학의천에 이르는 구간을 관할한다. 비산1동과 비산2동의 관할지역은 외비산리에 해당하고, 비산3동의 관할지역은 내비산리에 해당한다.

학의천 남쪽에 자리한 부흥동과 달안동은 모두 비산2동으로부터 분동된 곳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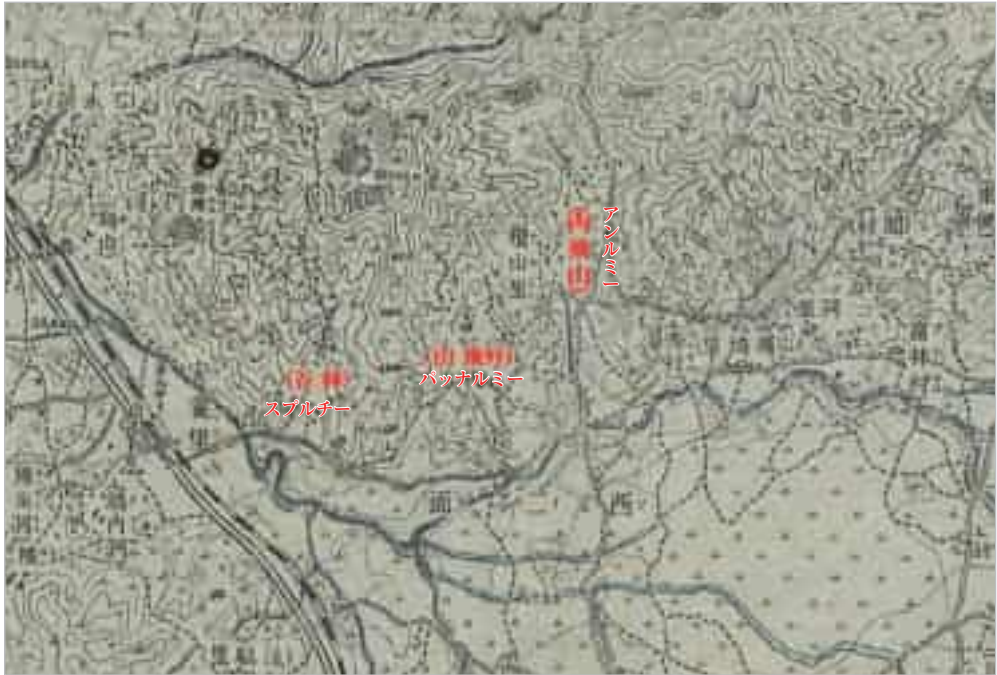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 과천군 상서면 내비산동과 외비산동(1914년)

이들 행정동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달안들이 펼쳐진 곳이었다.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후 시가지가 들어서면서 협소한 면적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되어 행정동이 설치된 것이다. 부흥동은 경수대로-시민대로-만안로-학의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관할하고, 달안동은 만안로-시민대로-평촌대로-학의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관할한다.

## 2) 지명 유래

법정동 명칭인 ‘비산’은 ‘날미’라는 자연마을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날미는 ‘나는 산’ 또는 ‘날아온 산’이라는 의미이며, 날미가 한자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비산(飛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한편, 날미는 산의 능선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날뫼’라고도 한다. 날미가 비산으로 표기되었지만, ‘날’은 날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산의 능선이 날카롭다는 의미의 ‘널미’ 또는 ‘늘미’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날미’로 불리게 되었고, ‘날미’가 ‘날아가는 뫼’처럼 들려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비산’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sup>15</sup> 날미라 불렀



내비산, 외비산, 임곡의 우리말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한 지도(1920년)

던 산등성이는 지금의 안양종합운동장 북쪽을 가리킨다. 따라서 낄미는 관악산에서 비산동 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능선을 형상화한 지명이며, 이들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까지 포괄하여 ‘낄미’라 불렀을 것이다.

이후 골짜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골짜기의 안쪽 동네는 ‘안낄미(안날뫼)’라 불렀고, 바깥쪽에 자리한 동네는 바깥낄뫼를 뜻하는 ‘박낄미’ 또는 ‘뱃낄미’라 불리게 되었다. 순우리말 지명이 한자화되면서 안날미는 내비산이 되었고 박낄미는 외비산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가 제작한 『조선지형도』 「군포장」 도엽에는 시흥군 서이면에 속한 내비산과 외비산이 비산리의 자연마을로 표기되었으며, 내비산은 안날미(안날뫼), 외비산은 박낄미(박낄뫼)로 각각 일본어가 병기되었다. 이렇게 보면 ‘비산’은 행정 지명으로 활용되었을 뿐, 주민들은 한자화된 비산보다 순우리말인 낄미를 더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산1동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안양천 동편은 오래전부터 ‘임곡’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임곡은 관악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데에서



1970년대 임곡마을(현 비산1동) 전경(1970년대,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수푸루지’ 또는 이를 한자화한 ‘임곡동(林谷洞)’으로 불렸다.<sup>16</sup> 1932년에 제작된 『조선 지형도』 「군포장」 도엽에는 임곡이라는 지명과 더불어 일본어로 ‘수풀치(スプルチー)’가 병기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1957년 발행한 지형도 「군포장」 도엽에는 임곡에 ‘수풀재’가 병기되어 있다. 따라서 『안양시사』(2008)에 제시된 ‘수푸루지’는 골짜기를 넘는 고개의 개념인 ‘수풀치’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 마을은 앞쪽에 안양천이 흐르고 마을이 자리한 골짜기에서는 임곡천이 흘러 ‘수풀내(林川)’로 불리기도 하였다. 임곡동은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임곡교를 통해 안양역에 접한 곳이였기에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어 비산동 전 지역에서 도시화의 시기가 가장 빠른 마을이다.

임곡동 동편에 자리한 운곡동(雲谷洞)은 외비산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세가 구름에 둘러싸인 것 같다는 데에서 ‘구름울’이라 불렀고, 한자화하여 운곡동이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관악산 줄기의 산사면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식수가 바위굴 안에 있어서 몸을 구부리고 바가지로 물을 폼을 폈다는 데에서 ‘굴우물’이라 불렀는데, ‘굴우물’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구름울’로 변형되었고 일제강점기 지명을 한자화할 때 운곡동이 되었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sup>17</sup> ‘운곡’ 지명이 사용된 사례는 안양중



안날미마을 주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합운동장 남쪽의 운곡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곡동(梅谷洞)은 운곡동과 안날미(내비산) 사이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관가의 말을 사육하던 곳이었다는 데에서 ‘마장골’로 불렸으며, 이후 매곡동이 되었다. 비산동에서는 매곡동을 ‘웃말’로 불렀고, 운곡동을 ‘아랫말’로 불렀다. 1978년 비산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지금과 같은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현재 안양종합운동장 북쪽의 안양매곡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매곡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동 이름으로서 부흥동이라는 지명은 이 일대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지명으로,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새롭게 생겨난 행정 지명이다. ‘부흥’이라는 지명의 탄생은 기업체의 입지와 관련이 있다.<sup>18</sup> 안양천 동쪽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비산동 576-7번지)는 서울 구로공단에 본사를 둔 봉제업체 부흥사(復興社)의 안양3공장이 있던 곳이다. 부흥사 안양3공장은 1981년에 서울 영등포로 이전해 갔으며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정부의 저리 자금 지원을 받아 1984년에 26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흥맨션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흥초등학교(1992년 개교), 부흥중학교

(1992년 개교), 부흥고등학교(1993년 개교) 등이 생기면서 ‘부흥’이 지명으로 굳어졌다.<sup>19</sup> 이는 부흥이라는 지명이 안양시의 공업화와 도시화 역사를 반영하는 지명임을 의미한다. 비산동의 부흥맨션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2005년 지금의 아파트로 재탄생했으며, 550여 세대가 입주하였다.

달안동은 학의천 남쪽에 넓게 펼쳐져 있던 벌판인 달안이들 또는 그곳에 자리 잡았던 마을인 ‘달안이’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달안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가 있다. 달안이라는 이름이 생긴 또 다른 연유에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어서 대부분 외지로 달아났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sup>20</sup> 이 또한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달안이들이 학의천의 배후에 자리하여 배후습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학의천 또는 안양천이 범람하게 되면 농경지 전체가 물에 쉽게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 제방 공사가 시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달안’의 한자식 지명은 월내(月內)이며, 여기에서 달은 산이 아니고 들이므로 ‘달안’은 ‘들 가운데’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1</sup> 이는 ‘달’과 ‘안’을 각각 월(月)과 내(內)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 3. 비산동의 시가지 발달

#### 1) 안양역 역세권인 임곡동에서 시작한 도시화

비산동의 자연마을로 자리 잡은 임곡동은 안양천을 건너면 바로 안양역과 마주하는 안양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임곡은 안양천 서쪽의 박달리에서 과천 방향으로 향하던 도로와 접해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마을이다. 이는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한말지형도』 「과천」 도엽에, 임곡(임골)이 표기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곡은 조선 인조 때 좌의정을 지낸 심기원이 1624년 사망한 그의 부친을 이곳에 모신 후 청송 심씨가 사는 마을이 되었다.<sup>22</sup>

비산1동에 해당하는 임곡동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임곡천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들어섰으며, 하천의 동쪽이 서쪽보다 다소 넓은 평지를 지니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곳의 평지에 1954년 4월 1일 중앙농촌지도자훈련원(中央農村指導者訓練院)을 개원하였다. 이 훈련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으로 몸을 다친 수많은 상이용사에 대한



1984년 임곡마을 골목(안양시청 제공)

1984년 임곡마을 가게들(안양시청 제공)





1984년 임곡마을 정비사업(안양시청 제공)

원호 및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당시의 긴급 과제로 떠오르자, 농촌 출신 상이용사에 대한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훈련원은 한 번에 100명의 상이용사를 수용하여 50일간 영농 기술을 교육하였고, 그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농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sup>23</sup>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임곡교는 안양천을 가로질러 안양과 과천을 연결하는 다리였으며, 과거 안양천 동쪽 비산동 사람들이 안양역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1965년 8월 4일 폭우로 임곡교가 범람하면서 비산동 주민 8,000여 명이 완전히 고립되었고, 1972년 8월 19일에는 비산동 주민 1만 5,0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하였다. 임곡교는 1977년의 수해로 두 동강이 났으며 이후 새로 건설되었다. 임곡동은 1950년대부터 골짜기를 따라 시가지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짜기 안에 1969년 안양동초등학교가 개교했을 정도로 도시화의 시기가 빠른 마을이다.

## 2) 주변 지역으로 접근이 편리한 서울의 근교, 비산동

비산3동에 속하는 내비산과 외비산은 관악산 줄기가 형성한 사면의 끝자락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자리하던 곳이지만,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안양 시가지의 외연 확장 과정에서 시가지 구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안양은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전철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반면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비산동은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기 좋은 장소로 평가되었다.

관악산을 끼고 있는 비산동은 안양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업체들이 건설한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을 조성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었다. 1979년에 1,79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삼호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1981년 지금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차·2차·3차가 준공되었다. 이후 1985년에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와 5차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매곡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안양 도심부에서 시가지가 주변 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비산동에서는 동쪽으로 임곡동·운곡동·매곡동 순서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안양역과 과천을 잇는 도로가 학의천과 평행하게 확·포장되



1988년 비산동 삼호아파트와 운곡마을(안양시청 제공)

면서 비산동의 도시화는 더욱 빨라졌다. 시가지 개발로 학의천 북쪽에 접한 농경지가 모두 시가지로 전환되었으며, 비산동에서 이어진 동쪽 관양동 방향의 도시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매곡동 일대는 1980년대 중반에 지금과 같은 시가지 모습을 완성하였다.

매곡동 일대에는 1986년 6월 30일 안양종합운동장이 건설되었다. 이는 석수2동 박석교 인근의 공설운동장을 대체해 건설된 것으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 진행을 위한 보조경기장 필요성에 따라 1983년 착공하였다. 비산동에서 관양동에 이르는 구간에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시기는 1986년이였다.

관악산에서 뻗은 산줄기와 학의천 북쪽 농경지로 구성되었던 비산3동은 1980년대 중반 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되었기에, 시가지 건설 역사가 35년을 넘어 40년을 향해 가고 있다. 비산1동과 비산2동의 시가지는 2000년대 들어 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을 거쳐 새롭게 재탄생했지만, 비산3동의 시가지는 아직 노후화된 상태인 곳이 많다. 비산초등학교 서쪽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단지로 전환하는 주택



평촌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부흥동 농경지(1988년, 안양시청 제공)

재개발 사업 대상지이며, 안양종합운동장 북쪽과 동쪽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예 정구역으로 고시를 마친 상태여서 조만간 주택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양종합운동장과 비산초등학교 서쪽 산자락은 ‘안양매곡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부지는 원래 비봉산 동사면 끝자락에 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11만 1,202㎡ 규모의 토지로, 2018년 중앙정부에 의해 약 9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중·소규모 택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해 2026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었으며, 초기에는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이었다. 이후 일부 계획이 수정되어 부지는 11만 1,604㎡로 확장되었고, 주택은 1,009호로 증가했으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을 수요자 맞춤형·테마형 공동체주택 특화도시로 조성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였다.

## 비산동의 변화(1974~2018)



1974년



1985년



2006년



2018년

### 3) 신도시로 개발된 부흥동과 달안동

학의천 북쪽 시가지 개발은 1986년을 전후해 완료되었지만, 당시 학의천 남쪽은 광활한 농경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달안이들은 1980년대 초반 경지정리가 진행되었으며, 중앙에는 달안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달안이들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경지 외의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 달안이들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고, 1988년에는 비산동·호계동·관양동·평촌동 일대를 아우르는 평촌별(달안이들)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평촌지구는 북쪽의 관악산, 동쪽의 모락산, 서쪽의 수리산에 둘러싸인 타원형 분지의 중심부로, 안양천과 학의천 사이에 펼쳐진 평야에 해당한다. 과거 이곳 주민들은 벼농사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양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달안이들 일대는 수도권 대단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평촌신도시 개발부지로 지정되었다.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는 서울·과천·수원·인천 등 사방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곳이어서,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서울 도심에서 약 25km 거리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족 기능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이 개발은 안양시 기존 시가지인 안양동·박달동·석수동 등과 연계되어, 안양시 전체 도시 공간 재구조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9년 평촌신도시의 개발 규모는 인구 1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4만 2,500 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sup>24</sup> 신도시가 완공되면 안양시청을 비롯해 안양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안양동에서 신시가지로 이전하고, 교육기관 28개교를 신설하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지하철 4호선이 서울 사당역에서 평촌신도시를 경유하여 경부선 철도의 금정역과 교차하도록 하였다. 평촌신도시는 학의천의 남쪽을 계획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 시가지가 개발되었던 학의천 북쪽의 비산동 시가지는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신도시 입주자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고자 평촌신도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를 확장했으며, 이 도로가 현재의 관악대로이다.

평촌신도시에 포함된 비산동의 면적은 넓지 않지만,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어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개의 행정동(부흥동과 달안동)이 신도시에 설치되었다. 학의천의 남쪽 제방에 접한 이들 두 행정동은 평촌대로(동)-경수대로(서)-시민대로(남)-학의로

(북)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안로가 두 행정동의 경계를 형성한다. 서쪽에 자리한 부흥동에는 안양부흥초등학교·안양부흥중학교·부흥고등학교를 비롯해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안양시 보훈회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동쪽의 달안동에는 달안초등학교·희성초등학교·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비롯해 동안구청, 동안구보건소, 안양우체국, 안양시 가족센터 등의 기관이 들어서 있다. 수도권전철 4호선이 평촌신도시를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지만, 이 철도는 부흥동이나 달안동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는 않는다. 비산동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철도 노선은 없지만, 호계동의 범계역과 관양동의 평촌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서쪽 경부선 철도의 안양역이나 명학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 4) 산지와 시가지로 구성된 토지이용

2020년 기준 비산동의 면적은 8.78km<sup>2</sup>로, 안양시 전체 면적(58.47km<sup>2</sup>)의 15%를 차지한다. 다섯 개 행정동 가운데 관악산 자락 말단부에 위치해 관악산과 안양종합운동장 부지 일대를 관할하는 비산3동의 면적이 5.57km<sup>2</sup>로 가장 넓다. 반면 안양천과 학의천 합류부에 있는 비산2동(0.46km<sup>2</sup>)과,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설치된 달안동(0.44km<sup>2</sup>)·부흥동(0.50km<sup>2</sup>)의 면적은 매우 좁다. 관악산을 포함하는 비산3동은 안양시 31개 행정동 가운데 석수1동(9.23km<sup>2</sup>), 박달2동(6.91km<sup>2</sup>), 안양9동(6.42km<sup>2</sup>)에 이어 네 번째로 면적이 넓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 비산동의 면적은 5.79km<sup>2</sup>로, 당시 안양시 전체 면적(58.16km<sup>2</sup>)의 9.96%였다. 이후 안양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일부 행정 경계 조정이 이루어져 시 승격 당시보다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1976년 5.77km<sup>2</sup>에서 1977년 8.54km<sup>2</sup>로 크게 늘었다. 이후 1995년 12월 관양동 일부가 비산3동에 편입되었고, 1996년 12월에는 안양2동 일부와 비산2동 일부가 각각 비산3동에 편입되었다.

1997년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법정동별 지목 구성을 살펴보면, 비산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이다. <표 1>에 따르면 임야 비중은 1997년 64%에서 2020년 62.1%로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크지 않다.

이는 비산동의 임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도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해 임야의 형질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임야 면적이 소폭 감소한 것은 도시화 진행에 따른 택지 조성, 학교, 도로 등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농경지가 남아 있는 비산체육공원 일대(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표 1〉 비산동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m<sup>2</sup>)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8,768,859	166,720	126,653	5,609,528	1,472,763	219,331	607,878
2000년	8,773,288	163,514	117,517	5,610,702	1,480,902	219,332	612,691
2005년	8,773,244	148,792	112,584	5,529,027	1,530,272	248,534	623,160
2010년	8,775,509	129,754	106,437	5,501,913	1,536,333	272,536	635,139
2015년	8,775,065	122,431	102,207	5,494,317	1,545,885	273,362	642,801
2020년	8,780,450	104,614	97,291	5,449,638	1,551,271	273,362	644,570

자료 : 안양통계연보(해당 연도).

비산동에는 여전히 농경지가 남아 있다. 농경지는 비산체육공원이 위치한 내비산동 산사면에 논과 밭 형태로 존재하며, 주민들이 실제 경작하고 있다. 지목상 논으로 분류 되더라도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밭으로 활용된다.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치해 채소를 재배하는 도시농업 형태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매곡마을이 있던 외비산의 농경지는, 안양종합운동장과 비산중학교 서쪽 산사면이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4. 비산동의 인구와 경제활동

### 1)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인구 규모

비산동의 인구 규모는 안양시 승격 이후인 197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 인구 규모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인구 규모는 2010년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2021년에 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비산동의 인구는 1978년에서 1980년 사이에 급증한 바 있으며, 평촌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1992년과 1993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산동의 인구가 시 승격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감소 경향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한 배경에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1970년대 말부터 임곡동 마을에서부터 동쪽으로 진행된 시가지 개발의 영향이 크다. 1990년대 초반 시가지 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만안구에서 전출 인구의 초과에 의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과 달리, 비산동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개발과 더불어 인구 흡인요인이 많았다.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1만 181명(남자 4,963명, 여자 5,218명)이었던 인구는 1980년(4만 491명)에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었고 평촌 도시 개발 직후 1993년(10만 633명)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비산동의 인구 규모는 1993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02년 8만 2,90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10년에는 10만 2,976명으로 10만 명 선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하며 2013년에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2020년에는 8만 명 선까지 붕괴되었다. 2021년 7만 4,113명으로 감소했던 인구는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인구 규모의 변화가 전출 인구의 증가 또는 출산율 감소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비산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이전한 것도 인구 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비산동에서는 공공택지개발·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이 공간 재구조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2024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인구가 증가하던 1970년대 말부터 1993년까지 비산동은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인구의 사회적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 초반 경부선 전철 이용이 용이했던 비산1동에서부터 시작된 도시화는 1980년대와 1990년 초반 비산2동과 비산3동을 비롯해 부흥동과 달안동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비산동 전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비산동의 인구

의 인구 규모를 증가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표 2〉에 따르면 1973년 안양시에서 비산동 인구가 차지한 비중은 9.2%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4%까지 증가했고,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4.9%에 달하였다. 〈표 2〉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행정동별 인구는 안양역의 역세권에 해당하는 비산1동(2만 8,204명)이 가장 많다. 부흥동(1만 6,581명), 비산2동(1만 4,675명), 비산3동(1만 1,624명), 달안동(1만 157명)이 뒤를 따른다.

〈표 2〉 비산동의 행정동별 인구

(2023년 6월 말 현재,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비산1동	10,432	28,204	13,810	14,394	2.70
비산2동	5,189	14,675	7,165	7,510	2.83
비산3동	5,226	11,624	5,802	5,822	2.22
부흥동	6,324	16,581	7,906	8,675	2.62
달안동	5,413	10,157	4,583	5,574	1.88
계	32,584	81,241	39,266	41,975	2.49

자료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인구 규모가 8만 7,843명이었던 2000년과 비교하면 2023년 비산동 전체의 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행정동별 인구 변화는 차이를 보인다.

2000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비산3동(2만 8,117명)이었고, 부흥동(2만 2,445명)의 인수도 2만 명을 웃돌았다. 반면 2023년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비산1동은 2000년에 9,471명이 거주하는 데 그쳤다. 즉 2000년에서 2023년 사이 비산1동과 비산2동에서는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비산3동을 비롯해 평촌신도시에 자리하는 부흥동과 달안동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달안동의 인구는 2000년 1만 5,880명이었다. 오래전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비산1동과 비산2동에서는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신규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행정동은 시가지 개발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서면서 주거 여건이 예전과 같지 않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산3동에서는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공공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과 주택재개발이 예정된 구역도 존재한다. 반면 부흥동과 달안동은 고밀도의 시가지 구역으로 더 이상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신규의 도시 개발만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비산3동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흥동과 달안동에서는 당분간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비산동의 인구 규모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도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세대당 인구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대당 인구는 1973년 5.17명에 달했지만, 1985년(3.95명)에 4.0명 이하로 줄었으며, 2005년(2.88명)에는 3.0명 아래로 감소하였다. 2023년 기준 비산동의 세대당 인구는 2.49명을 기록하여 안양시 평균(2.40명)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행정동별 세대당 인구는 근래에 신규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선 비산1동(2.70명)과 비산2동(2.84명), 그리고 부흥동(2.62명)에서 높았지만, 달안동(1.88명)에서는 지극히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법정동별 세대당 인구는 기성시가지지를 많이 포함하는 안양동(2.18명)보다 많지만, 신시가지로 구성된 평촌동(2.96명)이나 호계동(2.63명)에 비해 적다.

## 2) 젊은 연령층 감소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1973년 안양시 승격 당시 비산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당시 비산동의 성비(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수)는 95.1(남성 4,963명, 여성 5,218명)로, 여성 인구 비



2024년 비산3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노인과 함께 진행한 추석 송편나눔 행사(동안구청 제공)

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나타냈다. 특이하게도 2023년에 이르기까지 비산동에서는 남성 비중이 여성 비중을 상회한 시기가 없었다. 성비는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던 1990년에 99.8을 기록한 후 2000년대 초반까지 99.0을 넘어 100에 거의 근접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 성비는 93.5(남성 3만 9,266명, 여성 4만 1,975명)였다.

비산동의 인구 구성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조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973년에는 1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지만, 15~29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1973년 15~29세 인구는 여성이 1,774명이었지만, 남성은 1,299명에 불과해 연령층에 따른 성별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하였다. 2000년에는 45~54세에서 남성이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에는 4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표 3〉에 따르면,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령화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50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증가하였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36.6%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5%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11.8%로 축소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22년에는 14.9%로 상승하여 비산동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년 인구의 비중은 안양동이나 박달동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한 만큼 노년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청장년 인구의 비율이 동반 상승했음을 반영한다. 청장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60.7%에서 2022년 73.3%로 상승하였다.

〈표 3〉 비산동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1,941	19.1	10,880	12.4	4,948	6.1
	여자	1,787	17.6	9,753	11.1	4,586	5.7
	계	3,728	36.6	20,633	23.5	9,534	11.8
청장년 (15-64세)	남자	2,923	28.7	31,189	35.5	28,999	35.8
	여자	3,260	32.0	31,480	35.8	30,434	37.6
	계	6,183	60.7	62,669	71.3	59,433	73.3
노년 (65세 이상)	남자	99	1.0	1,700	1.9	5,240	6.5
	여자	171	1.7	2,841	3.2	6,841	8.4
	계	270	2.7	4,541	5.2	12,081	14.9
전체	남자	4,963	48.7	43,769	49.8	39,187	48.4
	여자	5,218	51.3	44,074	50.2	41,861	51.6
	계	10,181	100.0	87,843	100.0	81,048	100.0

자료 : 안양통계연보(1974), 국가통계포털.  
비고 : 비율은 각 연도별 총인구에 대한 것임.

1973년에는 10대 미만(25.1%)과 10대(24.1%) 인구가 월등하게 많았으나, 2000년에는 30대(21.7%)와 40대(17.3%) 인구 규모가 컸다. 2022년에는 50대(16.8%)와 40대(15.5%)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산동의 주류 인구 집단 연령이 상승하였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에서 비중이 두드러진 연령층이 뚜렷했지만, 2022년에는 연령층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줄어들면서 30대에서 60대



비산동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율은 비산3동이 19.5%로 가장 높았고, 달안동이 16.1%를 기록하였다. 반면 비산1동과 비산2동은 각각 13.3%에 그쳤다. 달안동은 세대당 인구가 2.0명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년 인구 비율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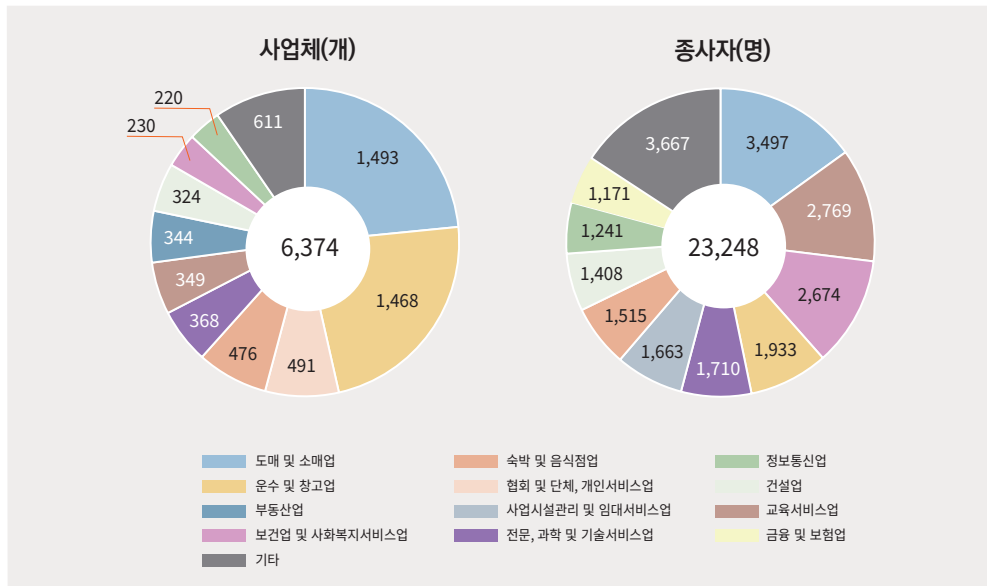
1973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젊은 남자보다 젊은 여자가 많아 다소 기형적이었으나, 대체로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며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된 2000년의 인구 구성은 장년층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고,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성비가 균형을 이루어 도시 지역을 반영하는 별 모양의 피라미드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40대 이하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변했고,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역삼각형 형태를 보여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 인구피라미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큰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증가했으며 20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산동 평균연령은 행정동별 차이가 크지 않아 비산1동 41.6세, 비산2동 42.5세, 비산3동 44.6세, 부흥동 40.7세, 달안동 42.3세였으며, 안양시 전체 평균연령은 42.3세였다.

### 3)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경제활동

비산동에 입지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안양시에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이 가운데 비산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10.1%인 6,374개이고 종사자 수는 도시 전체의 8.6%인 2만 3,248명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6명으로, 안양시 전체(4.3명)보다 적어 비산동에는 소형 사업체가 많이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 비산동에는 3,078개의 사업체에 1만 2,636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9.3%와 8.0%였다. 비산동에 입지한 경제활동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산동의 경제활동 입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대분류 방식을 적용해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운수 및 창고업(23.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1%), 금융 및 보험업(1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3%), 교육 서비스업(11.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8%) 등이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운수 및 창고업(16.6%), 금융 및 보험업(14.8%), 교육 서비스업(14.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비산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상위 10개 업종(2021년)



서울메일버스 비산동 차고지

보장 행정(1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8%), 부동산업(10.3%) 등이 있다.

2021년 기준 비산동에 가장 많이 입지한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그다음은 운수 및 창고업이다. 종사자 수의 분포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았다.<sup>25</sup>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은 이유는 비산동에 공교육 기관과 사교육 기관이 다수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서비스업의 입지는 부흥동과 비산1동에서 두드러진다. 평촌신도시에 속한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관계로, 이들 두 행정동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다섯 개의 행정동 가운데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은 비산3동과 부흥동이다. 비산3동에는 1,926개의 사업체에 6,199명의 종사자가 있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3.2명이지만, 사업체가 많지 않은 달안동은 1,092개의 사업체에 5,553명의 종사자가 있어 평균 종사자 수가 5.1명에 달한다. 행정동별로 사업체의 규모 차이가 있으며, 달안동의 사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크다. 상주인구 규모가 큰 비산1동과 비산2동에 입지한 경제활동 규모는 작지만, 상주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부흥동과 달안동에 입지한 경제활동 규모는 크다. 부흥동과 달안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해 경제활동 입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거지역 성격이 강한 비산1동과 비산2동에서는 경제활동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밀집지역과 녹지가 공존하는 비산3동

## 5.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비산동

비산동은 배산임수 형태의 마을로, 북쪽에는 관악산과 그로부터 뻗어 나온 비봉산 산줄기를 등지고 남쪽으로는 학의천과 안양천, 그리고 그 주변에 형성된 넓은 달안이들 농경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곳이다. 현재와 같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농촌적 성격이 강했으나, 경부선 철도의 전철화가 진행되면서 안양역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역세권으로 성장하였다. 안양역 동편의 임곡동 마을에서부터 본격적인 도시화를 경험한 비산동은 안양시 승격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외비산과 내비산에서 시가지 개발이 본격화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평촌신도시 개발로 달안이들이 사라지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 공간이 조성되면서 과거의 비산동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비산동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악산과 비봉산이라는 훌륭한 자연 자산을 가진 지역이다. 이들 산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비산동의 자연친화적 가치를 높여 주는 요소이다. 또한 비산동을 관통하는 학의천은 한때 오염이 심했으나,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호한 자연환경은 시가지의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농촌 지역의 색채가 강했던 비산동은 안양의 도시 성장과 더불어 주거 공간으로 재편되면서 일부 시가지와 주택이 건축 시기가 오래된 노후 공간으로 변화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노후 시가지는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현재도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는 진행 중이다. 비산동에는 더 이상 개발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미 오래전 시가지가 조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새로운 개발부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노후 시가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비산동을 현대적 도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보존해 온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註

- 1 남영우·최재현·손승호, 『한국의 도시와 국토』, 서울: 법문사, 2020, 116~117쪽.
- 2 경기 오악은 관악산을 비롯해, 송악산, 운악산, 화악산, 감악산이다.
- 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푸른길, 2008, 133쪽.
- 4 유홍식, 2007, 「관악산의 화강암 지형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제14권 제4호, 2쪽.
-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12~13쪽.
- 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경인문화사, 2009, 994쪽.
- 7 박정열·김태희·김성윤·박동균·이희찬, 「수도권 거주자의 산림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한국임학회지』, 2010, 제99권 제1호, 36~46쪽.
- 8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푸른길, 2011, 168쪽.
- 9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푸른길, 2008, 224쪽.
- 10 「하천 등 오염심각」, 『조선일보』, 1990년 6월 3일.
- 11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안양천 오염 실태』,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1260>).
- 1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488쪽.
- 1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푸른길, 2008, 241쪽.
- 14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353쪽.
- 15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토담, 1994, 70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48쪽.
- 1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43쪽.
- 1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34쪽.
- 1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29쪽;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12쪽.
- 19 이들 학교는 1992년과 1993년에 개교했지만, 학교 설립이 인가를 받은 시기는 1989년이다.
- 2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35쪽.
- 21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15쪽.
- 22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83~184쪽.
- 23 「안양에 농사훈련원-상이용사를 농업요원으로」, 『동아일보』, 1954년 3월 21일.
- 24 안양상공회의소, 『평촌-산본 신도시 건설과 안양권 발전』, 경인문화인쇄사, 1991, 38쪽.
- 25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를 나타낸 그림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표기된 업종의 정확한 명칭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다.

## 제2장

# 비산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고제경 수원도시재단 차장



## 1. 비산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비산동은 안양시 동안구 북부에 자리한 지역으로,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주거 중심지이다. 인근에 비봉산과 관악산이 자리하고 있어 등산과 산책이 가능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비봉산 둘레길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연 자원은 비산동을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다.

교통 면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 4호선 범계역이 인접해 있으며, 안양성남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에 비산동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비산동 남쪽으로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학의천, 학운공원 등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에는 작은 상권과 동안구청 등 공공시설이 적절히 분포해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편의를 지원한다. 비산동만의 특징은 이러한 자연 친화적 환경과 주거 중심지가 균형을 이루며,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비산동(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은 2023년 기준 8만 1,25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14.9%, 동안구의 약 25.9%가 거주하고 있다. 비산동은 9만 7,923명이었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1년 7% 이상 급감한 후 2022년에 약 9%로 반등하였다. 이는 2022년 비산1동 정비 사업 완료에 따른 증가이다.



비산동(법정동) 위치도

〈표 1〉 2014~2023년(10년간) 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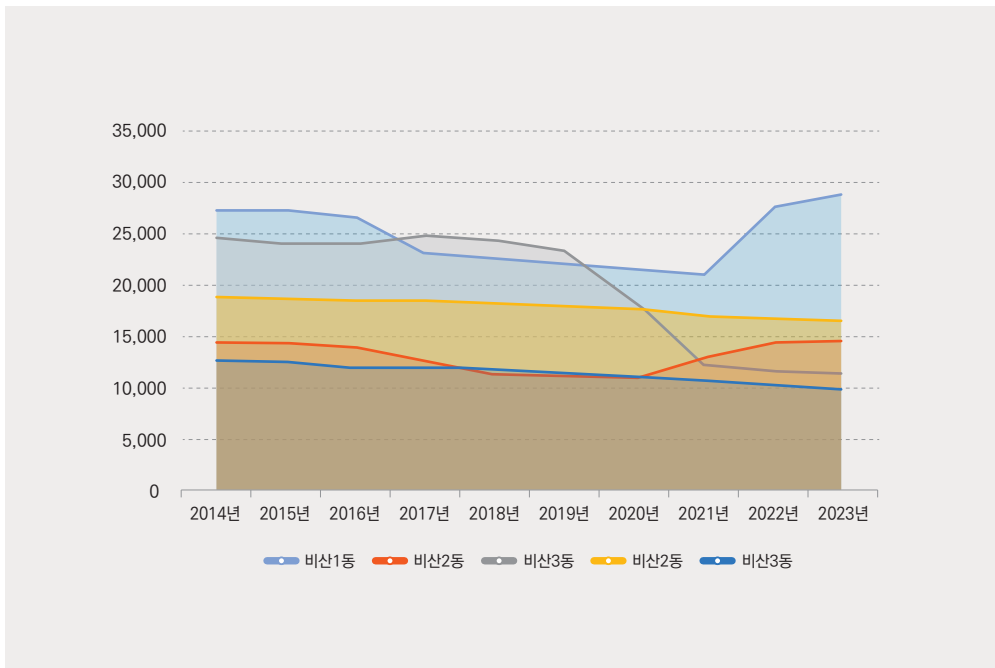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합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2014	600,809	353,494	97,923	27,339	14,352	24,680	19,019	12,533
2015	597,789	350,519	97,125	27,273	14,300	24,158	18,861	12,533
2016	597,414	345,061	95,252	26,600	13,917	24,058	18,566	12,111
2017	587,764	332,787	90,802	23,075	12,381	24,841	18,429	12,076
2018	576,831	325,319	88,307	22,694	11,475	24,221	18,171	11,746
2019	567,044	322,809	86,127	22,215	11,263	23,358	17,962	11,329
2020	550,027	310,614	79,938	21,658	11,113	18,406	17,615	11,146
2021	547,178	308,867	74,113	21,113	13,029	12,292	16,995	10,684
2022	548,228	313,834	81,048	27,815	14,627	11,745	16,661	10,200
2023	544,660	313,996	81,254	28,800	14,547	11,438	16,517	9,95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비산동 내 행정동



2014~2023년 비산동의 행정동별 인구 변동

〈표 2〉 2023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인구밀도

(단위 : 명/km<sup>2</sup>)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76	부림동	30,706	
동안구	14,377	평촌동	17,400	
비산동	전체	9,252	평안동	36,266
	비산1동	15,327	귀인동	25,678
	비산2동	31,859	호계1동	17,800
	비산3동	2,120	호계2동	13,517
	부흥동	33,376	호계3동	31,233
	달안동	23,345	범계동	24,341
	관양1동	10,907	신촌동	19,115
관양2동	10,497	갈산동	15,664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2023년 동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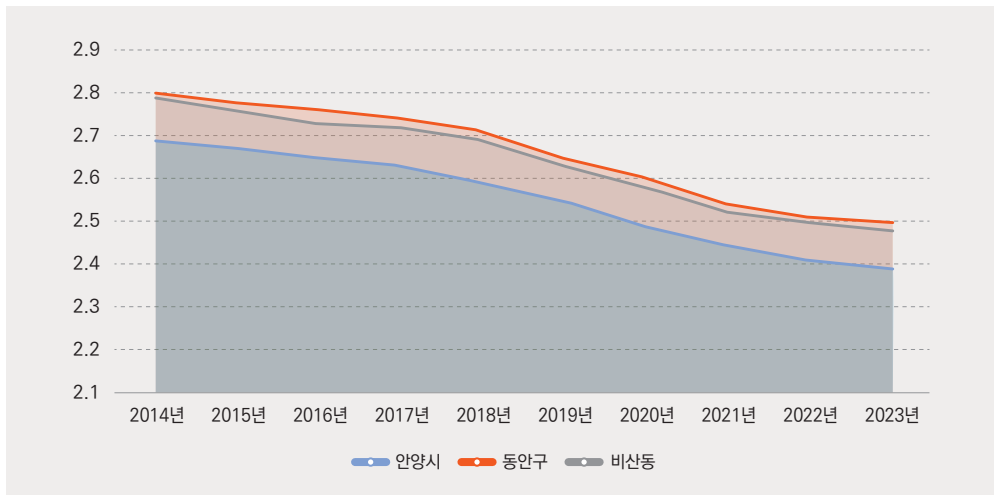
2023년 비산동 전체의 인구밀도는 9,252명/km<sup>2</sup>로, 비산1동은 1만 5,327명/km<sup>2</sup>, 비산2동은 3만 1,859명/km<sup>2</sup>, 비산3동은 2,120명/km<sup>2</sup>, 부흥동은 3만 3,376명/km<sup>2</sup>, 달안동은 2만 3,345명/km<sup>2</sup>이다. 이 중 부흥동과 비산2동은 동안구에서 2~3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비산동은 산림 면적이 높은 비산3동을 제외하면 인구밀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전체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2014	2.69	2.80	2.79	2.97	3.03	2.70	2.89	2.29
2015	2.67	2.78	2.76	2.96	2.99	2.67	2.88	2.27
2016	2.65	2.76	2.73	2.95	2.94	2.63	2.86	2.23
2017	2.63	2.74	2.72	3.03	2.95	2.61	2.84	2.18
2018	2.59	2.71	2.69	3.00	3.00	2.56	2.82	2.13
2019	2.55	2.65	2.63	2.95	2.97	2.48	2.78	2.06
2020	2.49	2.60	2.58	2.9	2.92	2.39	2.71	2.01
2021	2.44	2.54	2.52	2.83	2.82	2.24	2.66	1.94
2022	2.41	2.51	2.50	2.71	2.83	2.23	2.63	1.89
2023	2.39	2.50	2.48	2.7	2.81	2.21	2.62	1.85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세대당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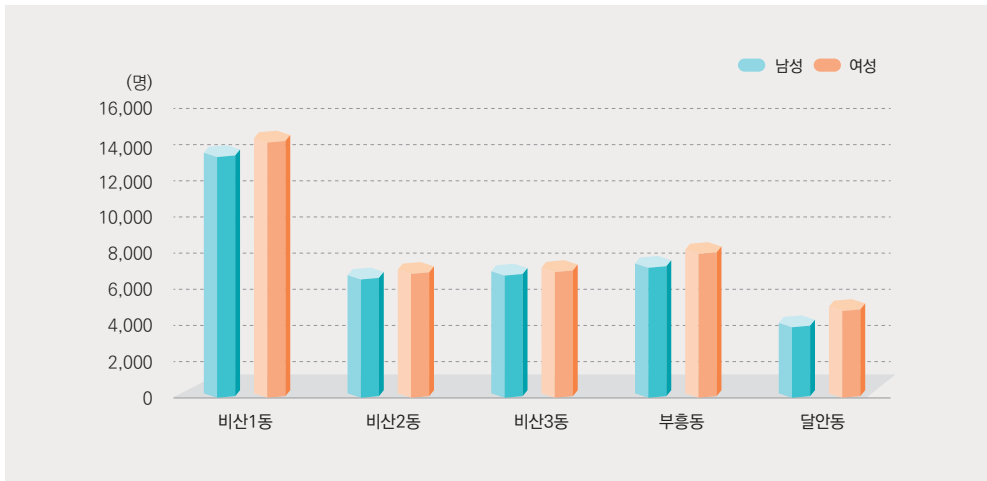
2023년 세대당 인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는 2.39명, 동안구는 2.5명, 비산동은 2.48명을 보이고 있다. 안양 지역은 전체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산동이 속해 있는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상대적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많은 편이다.

〈표 4〉 2023년 비산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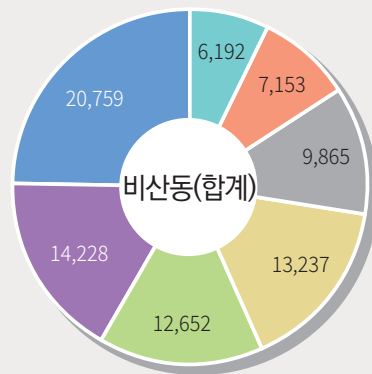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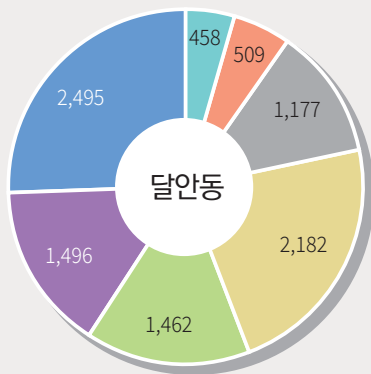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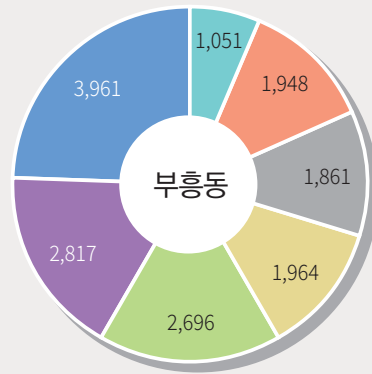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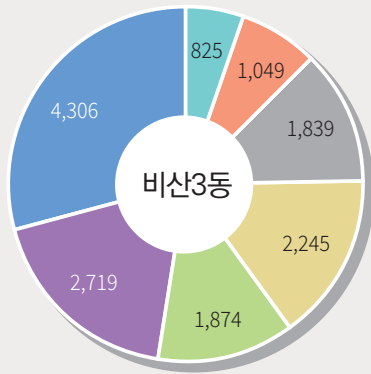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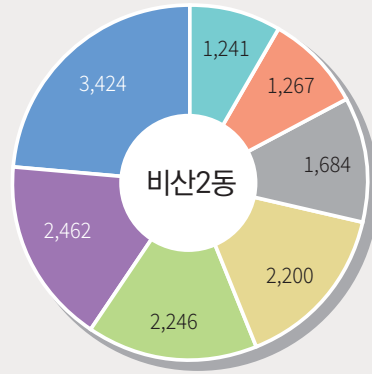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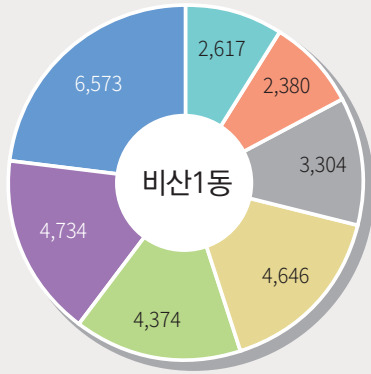
구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합계	비율	
계	28,628	14,524	14,857	16,298	9,779	84,086	100.0	
성별	남성	13,901	7,114	7,343	7,781	4,414	40,553	48.2
	여성	14,727	7,410	7,514	8,517	5,365	43,533	51.8
연령별	10대 미만	2,617	1,241	825	1,051	458	6,192	7.4
	10대	2,380	1,267	1,049	1,948	509	7,153	8.5
	20대	3,304	1,684	1,839	1,861	1,177	9,865	11.7
	30대	4,646	2,200	2,245	1,964	2,182	13,237	15.7
	40대	4,374	2,246	1,874	2,696	1,462	12,652	15.0
	50대	4,734	2,462	2,719	2,817	1,496	14,228	16.9
	60대 이상	6,573	3,424	4,306	3,961	2,495	20,759	24.7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를 활용한 추정치).



2023년 비산동의 행정동별 남녀 인구

비산동 거주 인구는 총 8만 4,086명으로, 남성이 4만 553명, 여성이 4만 3,533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지역이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50대는 15~16%대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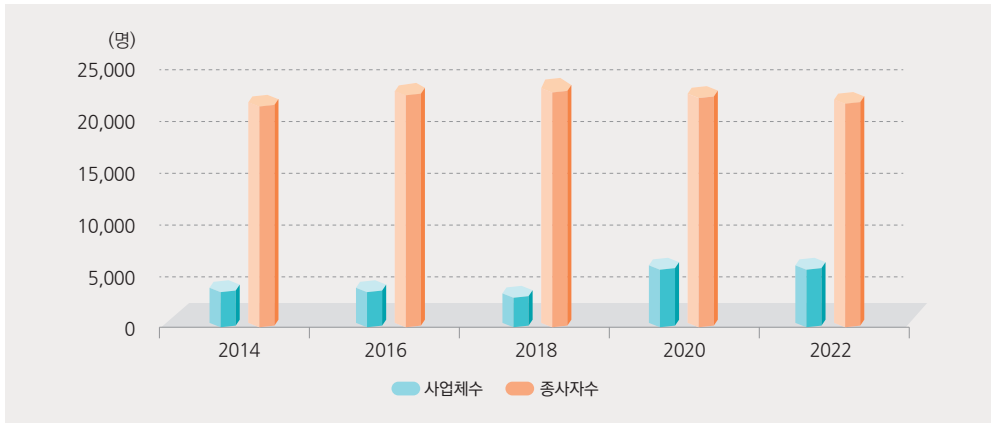
2023년 비산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

〈표 5〉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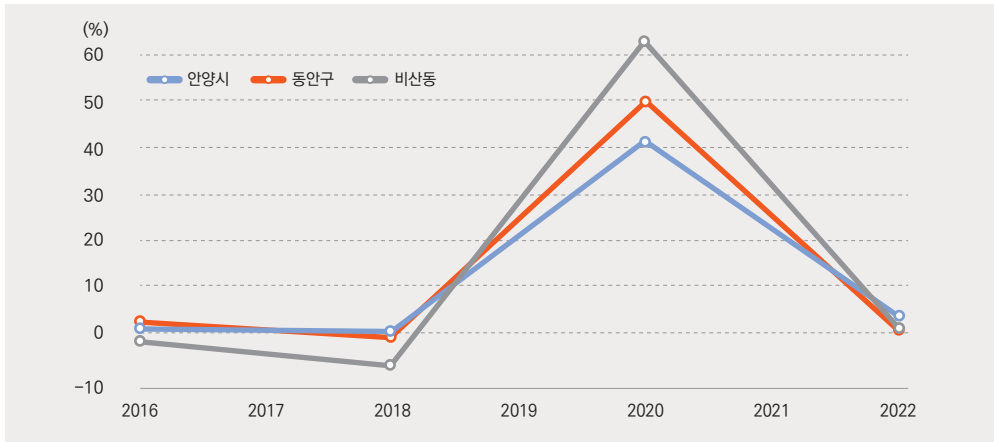
구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합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2014	사업체수	44,505	26,789	4,442	748	683	1,196	977	838
	종사자수	235,143	151,132	22,763	3,052	2,670	5,901	4,903	6,237
2016	사업체수	44,767	27,384	4,347	753	680	1,155	947	812
	종사자수	246,711	161,360	23,595	3,022	2,614	5,877	5,080	7,002
2018	사업체수	44,824	27,046	4,029	579	463	1,182	970	835
	종사자수	255,402	166,236	24,322	2,954	2,091	6,219	5,902	7,156
2020	사업체수	63,348	40,652	6,582	909	666	2,042	1,802	1,163
	종사자수	267,279	181,419	23,489	3,102	2,360	6,936	5,381	5,710
2022	사업체수	65,722	40,830	6,673	1,077	724	1,956	1,831	1,085
	종사자수	276,105	181,863	23,056	3,581	2,538	5,972	5,520	5,445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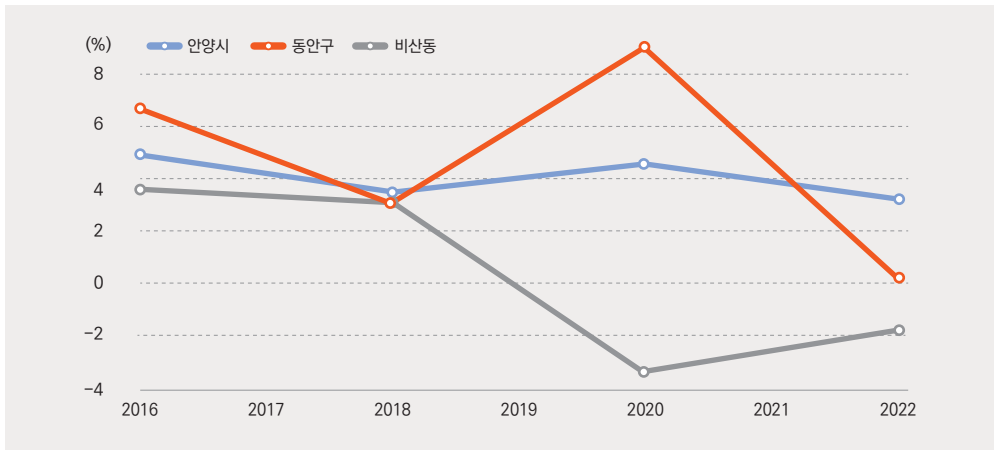


2014~2022년 비산동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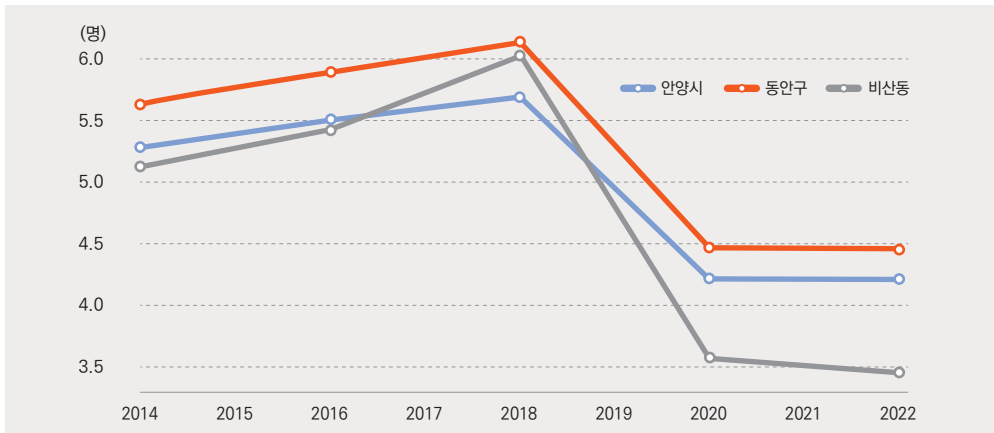
2022년 현재 비산동에는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10%인 6,673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2018~2020년에 사업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특히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내 사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비산동 사업체 종사자수는 2만 3,056명으로, 1개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약 3.4명으로 안양시와 동안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산동에 소재한 사업체의 규모는 다른 지역이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로 판단된다.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 사업체수 증감률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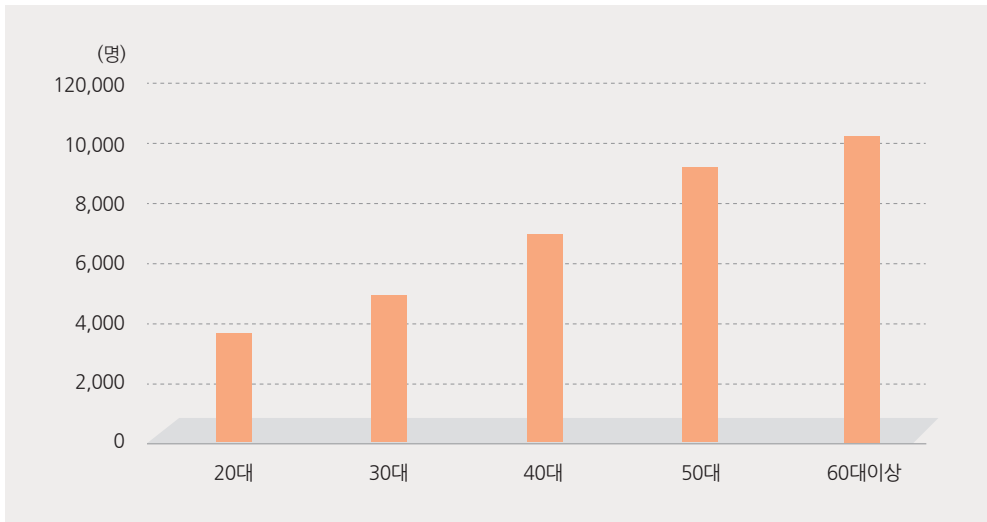
2014~2022년 안양시·동안구·비산동 사업체당 종사자수

〈표 6〉 2022년 비산동의 성별·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단위 : 명, %)

구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합계	비율	
전체	5,784	3,651	7,151	7,703	10,881	35,170	100	
성별	남성	2,354	1,347	3,784	3,233	4,671	15,389	43.8
	여성	3,430	2,304	3,367	4,470	6,210	19,781	56.2
연령별	20대	1,231	342	520	636	984	3,713	10.6
	30대	663	517	1,008	1,206	1,531	4,925	14
	40대	1,024	679	1,403	1,671	2,243	7,020	20
	50대	1,182	934	1,885	2,035	3,196	9,232	26.2
	60대 이상	1,684	1,179	2,335	2,155	2,927	10,280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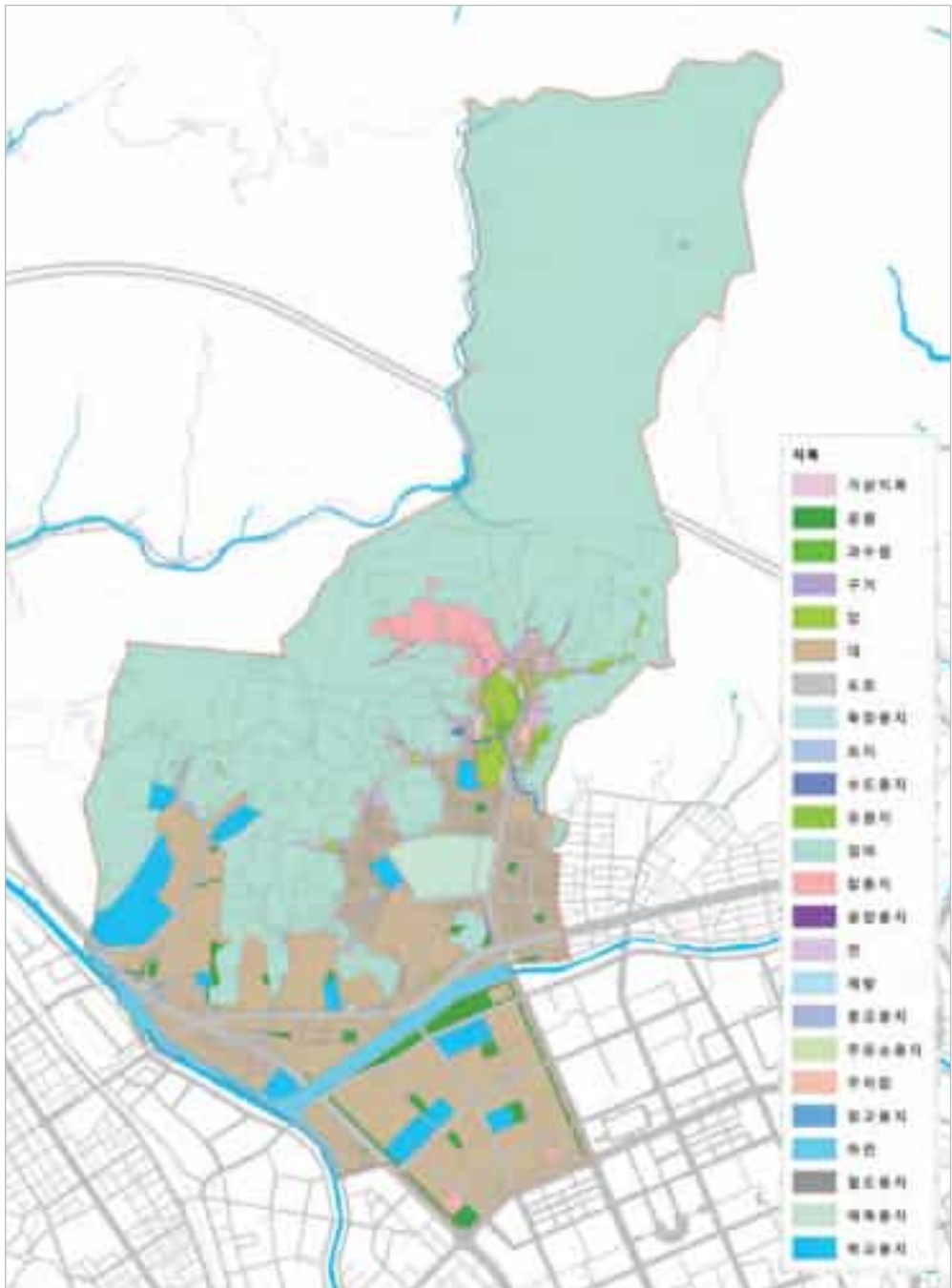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를 활용한 추정치).



비산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비산동의 직장인구 총 3만 5,170명 중 남성이 1만 5,389명, 여성이 1만 9,78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0%, 50대가 약 26%대로 전체 직장인구의 46%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직장인구는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 비산동의 토지이용



비산동 지목



하천(학의천)



체육용지(안양종합운동장)

〈표 7〉 비산동의 지목별 현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가상지목	0.14	0.1	구거	4.79	0.5
대	156.96	17.6	종교용지	1.69	0.2
도로	63.84	7.3	공원	13.34	1.5
답	9.55	1.1	창고용지	0.04	0.1
전	9.37	1.1	학교용지	27.77	3.2
임야	539.23	61.5	주유소용지	0.44	0.1
주차장	1.11	0.1	체육용지	12.37	1.4
하천	19.46	2.2	유원지	0.99	0.1
수도용지	0.95	0.1	과수원	0.77	0.1
잡종지	13.18	1.5	합계	875.99	100.0
묘지	0.0037	0.1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산동의 지목별 현황에서 임야가 539.23ha(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17.6%, 156.96ha)와 도로(7.3%, 63.84ha)가 뒤를 잇는다. 학교용지(3.2%, 27.77ha)와 공원(1.5%, 13.34ha) 등도 포함되어 주거, 교육, 여가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보여 준다.



학교용지(부흥고등학교)



주유소용지  
(비산동 405-14 일원)



대  
(비산동 1047-16 일원)



비산동의 공간시설



공원(학운공원)

〈표 8〉 비산동의 공간시설 현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계	93.40	100.0	근린공원	38.78	41.5
공원	6.83	7.3	어린이공원	4.62	4.9
완충녹지	2.55	2.7	소공원	0.46	0.5
공공공지	0.69	0.7	교통광장	0.23	0.2
경관녹지	2.30	2.5	문화공원	36.94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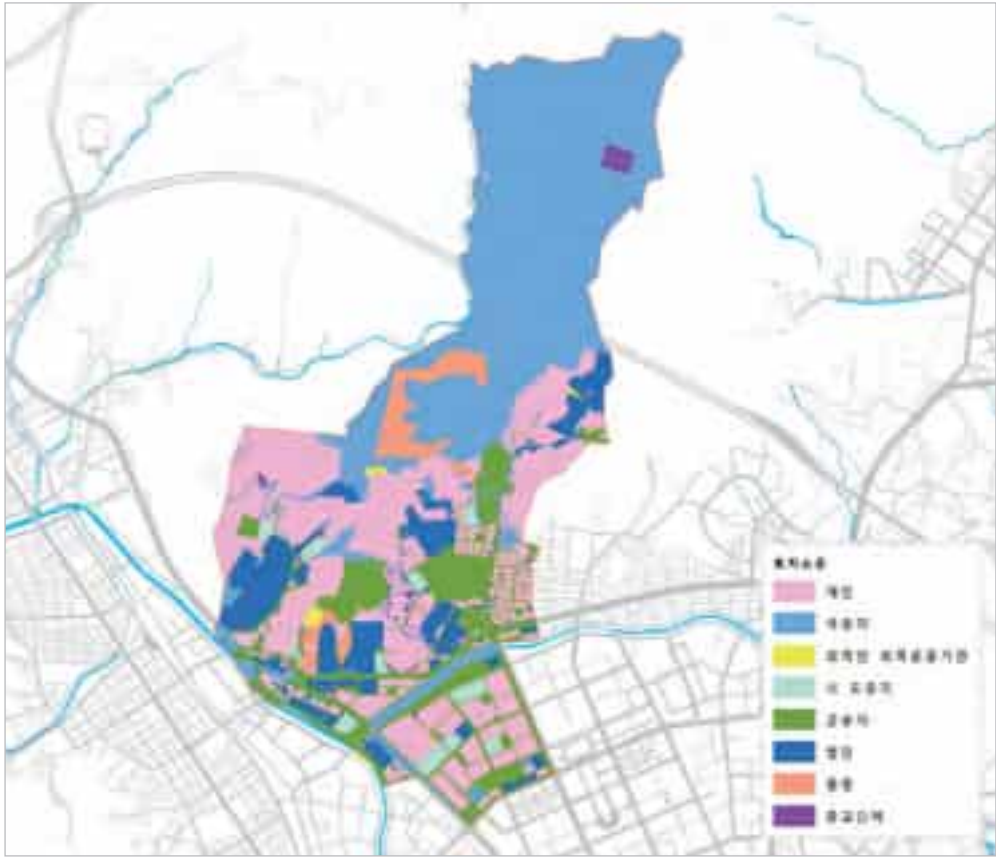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산동의 공간시설(광장, 공원녹지 등 시설)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38.78ha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화공원(39.5%, 36.94ha)과 공원(7.3%, 6.83ha)이 뒤를 잇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공원(4.9%, 4.62ha)과 완충녹지(2.7%, 2.55ha)도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공공지와 경관녹지는 각각 0.7%(0.69ha)와 2.5%(2.30ha)로 나타나며, 소규모 교통광장과 소공원도 존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원한다.



비산동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산동의 개발제한구역은 52만 8.011ha로, 전체 면적의 약 60.2%를 차지하고 있다. 관악산 자락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산동의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관악산 산림욕장, 안양 산마을캠핑장 등이 입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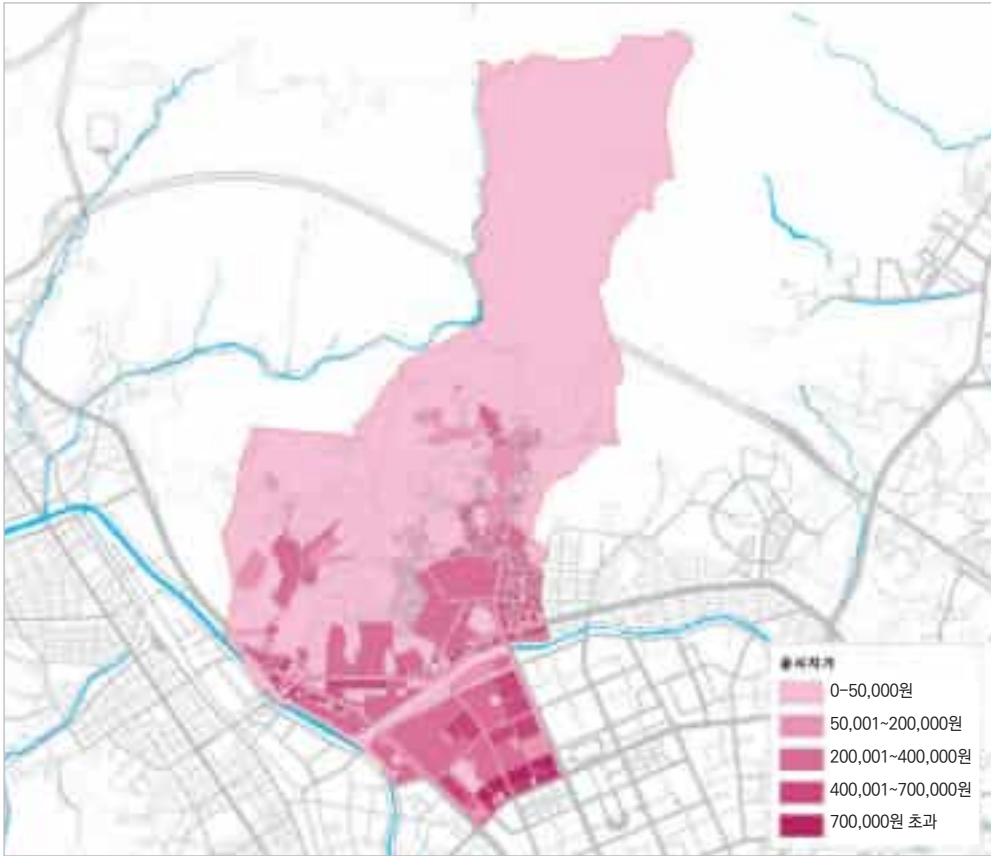
비산동의 토지소유

〈표 9〉 비산동의 토지소유 현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개인	251.76	28.7	법인	89.04	10.2
국유지	357.54	40.8	종중	29.37	3.4
외국인·외국공공기관	2.70	0.3	종교단체	5.51	0.6
시 소유지	17.08	1.9	합계	875.99	100
군유지	122.99	14.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비산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전체의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지는 28.7%, 군유지는 14.0%, 법인은 10.2%로 나타났으며, 종중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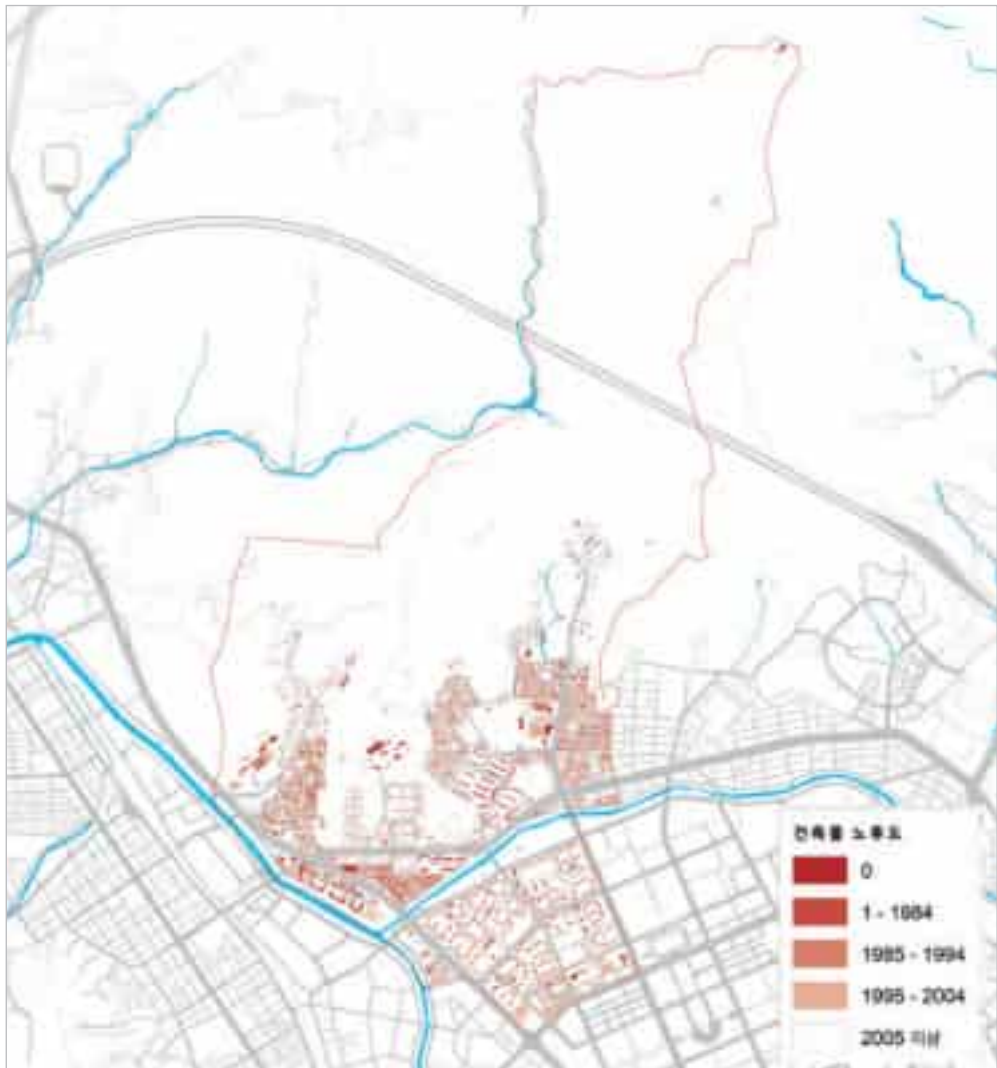
〈표 10〉 비산동의 공시지가 현황

개별공시지가	면적(ha)	비율(%)	개별공시지가	면적(ha)	비율(%)
0~50,000원	577.72	65.9	400,001~700,000원	22.23	2.5
50,001~200,000원	45.19	5.2	700,000원 초과	215.22	24.6
200,001~400,000원	15.78	1.8	합계	876.13	100.0

자료 : 「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산동의 공시지가는 1㎡당 5만 원 이하의 토지가 577.72ha로 전체의 65.9%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1㎡당 7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토지는 215.22ha로 24.6%의 비중을 보이며, 동안구청 주변 주거 및 상업 중심지에 분포하고 있다. 1㎡당 50만~200만 원 구간은 45.19ha(5.2%)로 나타났다.

### 3. 비산동의 건축물



비산동의 건축물 노후도

비산동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승인일 기준 1985년에서 1994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이 1,079동(4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84년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은 495동(19.0%)으로 나타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60.5%를 차지한다. 2005년 이후 승인된 최근 건축물은 218동(8.4%)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이 적은 편이다.



안양동안경찰서(상)와 안양종합운동장(하) 일대의 건축물 노후도

〈표 11〉 비산동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	382	14.7	1995~2004년	426	16.4
1~1984년	495	19.0	2005년 이후	218	8.4
1985~1994년	1,079	41.5	합계	2,60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교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안양동안경찰서(상)와 안양종합운동장(하) 일대의 건축물 용도

비산동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며 남부 지역에는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등 관공서와 안양종합운동장과 같은 운동시설이 위치해 지역의 공공 및 체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산초등학교와 비산중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북부 지역은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시설(KT 안양지사)



수련시설(동안청소년수련관)



교육시설(부흥초·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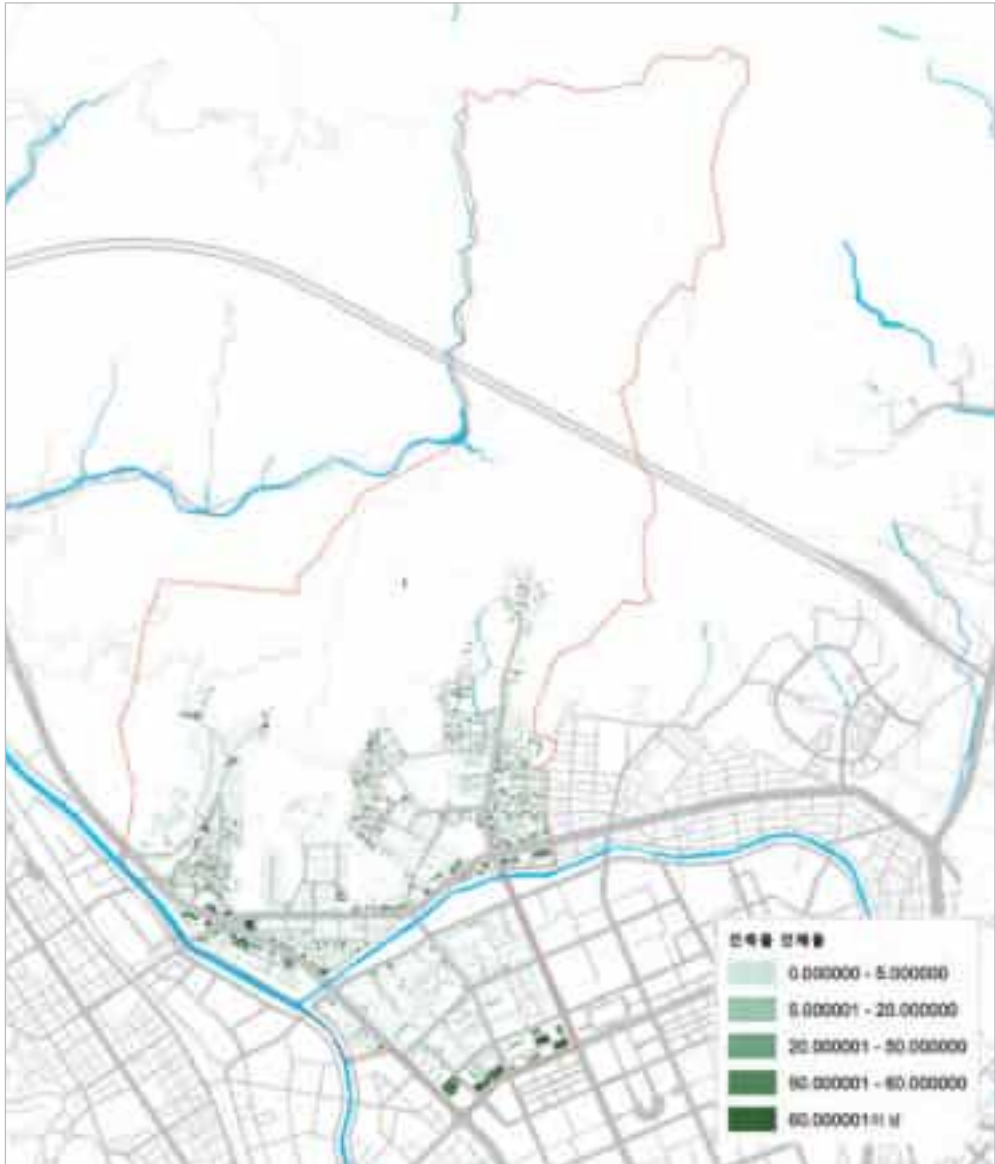
업무시설(비산동 1115)



자동차 관련 시설(비산동 1104-1)



운동시설(안양종합운동장)



비산동의 건축물 건폐율

비산동의 건폐율 현황을 살펴보면, 50~60% 구간의 건축물이 392동(5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대부분이 중간 밀도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20~50% 구간은 179동(25.8%)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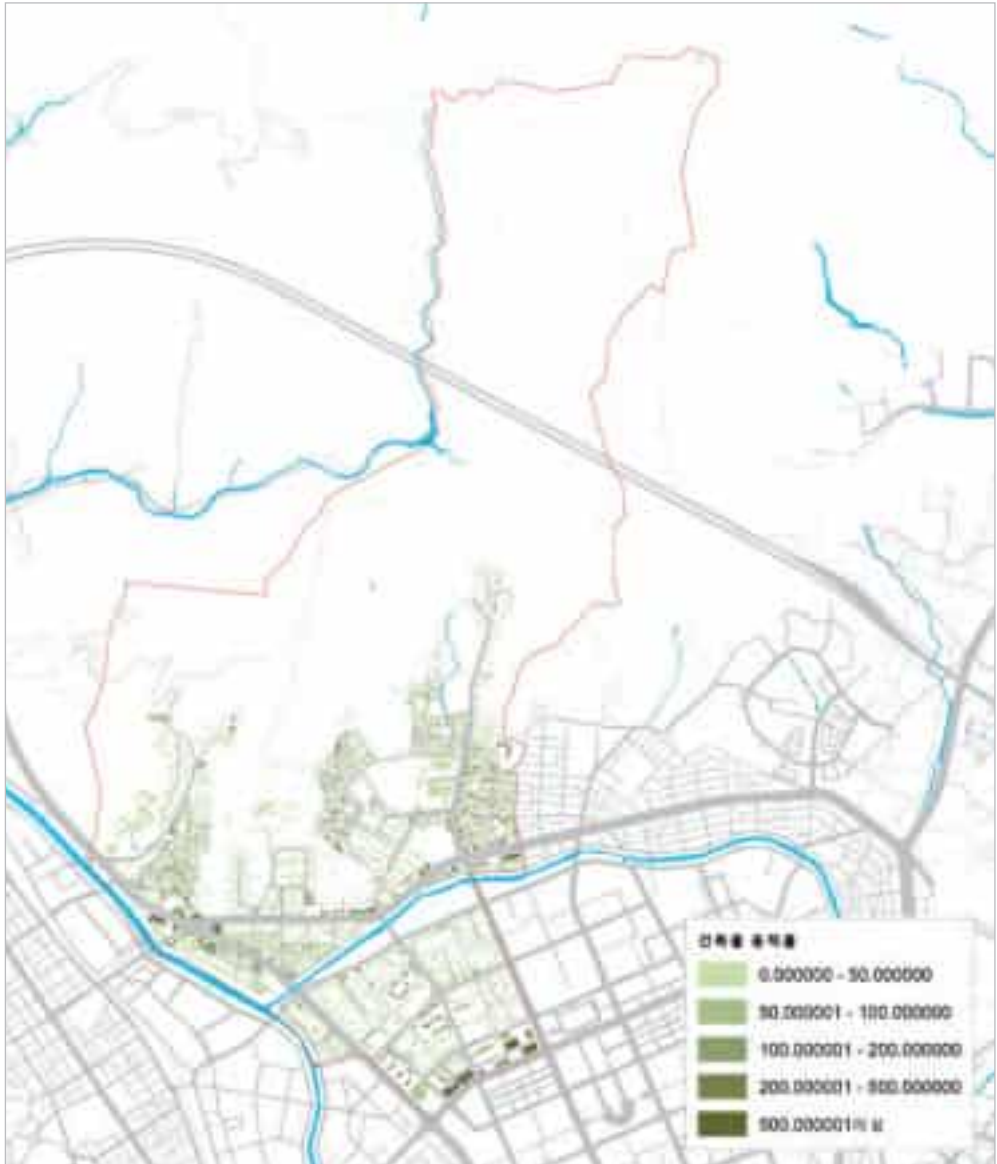
안양동안경찰서(상)와 안양종합운동장(하) 일대의 건축물 건폐율

〈표 13〉 비산동의 건축물 건폐율 현황

건폐율	동수(동)	비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0~5%	18	2.6	50~60%	392	56.6
5~20%	50	7.2	60% 이상	54	7.8
20~50%	179	25.8	합계	693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건폐율 누락 자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비산동 건폐율의 경우 데이터의 누락(1,907동)이 많아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비산동의 건축물 용적률

비산동의 용적률 현황을 보면, 100~200%인 건축물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 이상도 26.2%로 나타났다. 비산동은 용적률이 누락된 건축물이 1,906동으로 누락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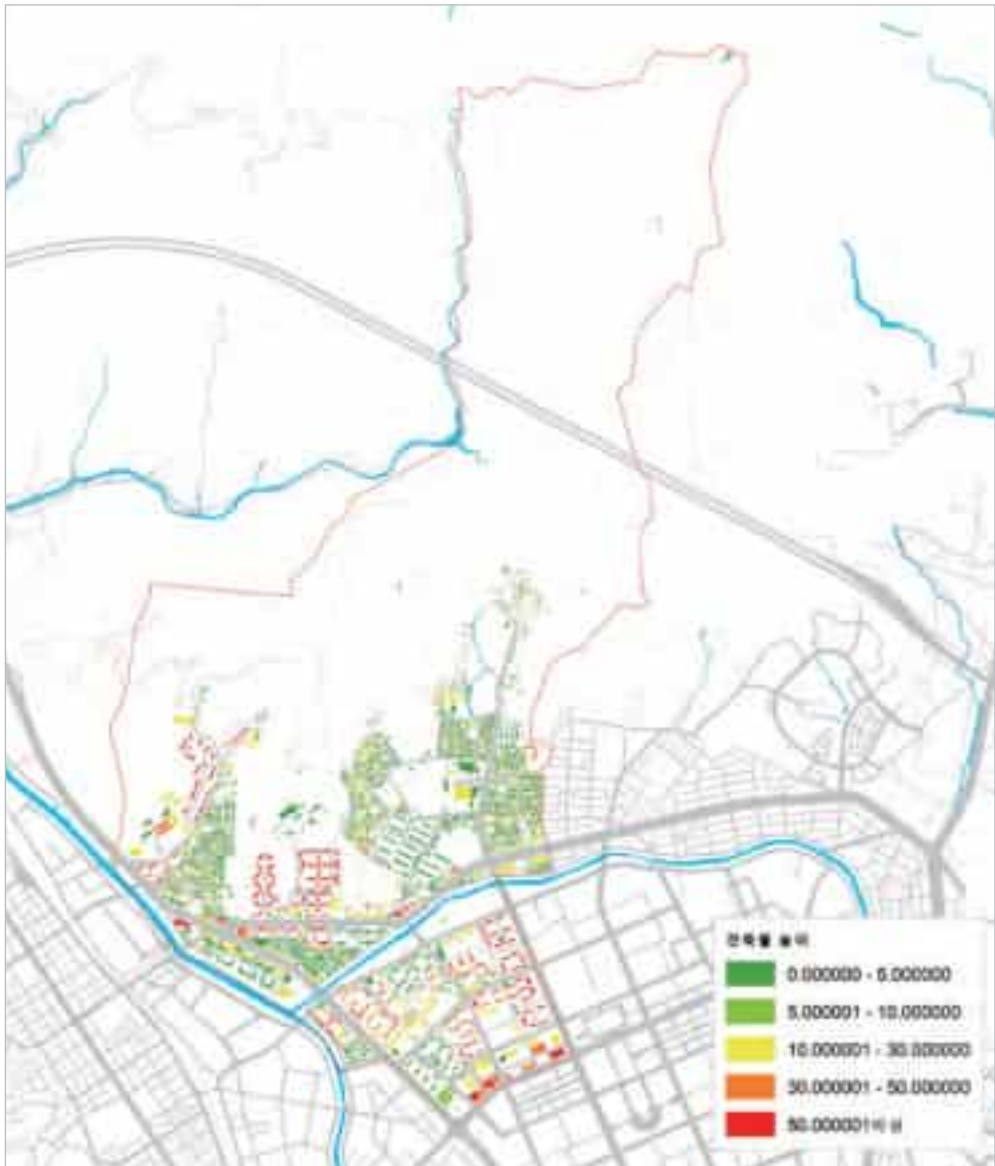
안양동안경찰서(상)와 안양종합운동장(하) 일대의 건축물 용적률

〈표 14〉 비산동의 건축물 용적률 현황

용적률	동수(동)	비율(%)	용적률	동수(동)	비율(%)
0~50%	75	10.8	200% 이상	182	26.2
50~100%	129	18.6	계	694	100.0
100~200%	308	44.4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용적률 누락 자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비산동 용적률의 경우 데이터의 누락(1,907동)이 많아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비산동의 건축물 높이

비산동의 건축물 높이 현황을 요약하면, 10~30m의 건축물이 404동(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주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가 50m 이상인 아파트는 136동(15.0%)으로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동안경철서(상)와 안양종합운동장(하) 일대의 건축물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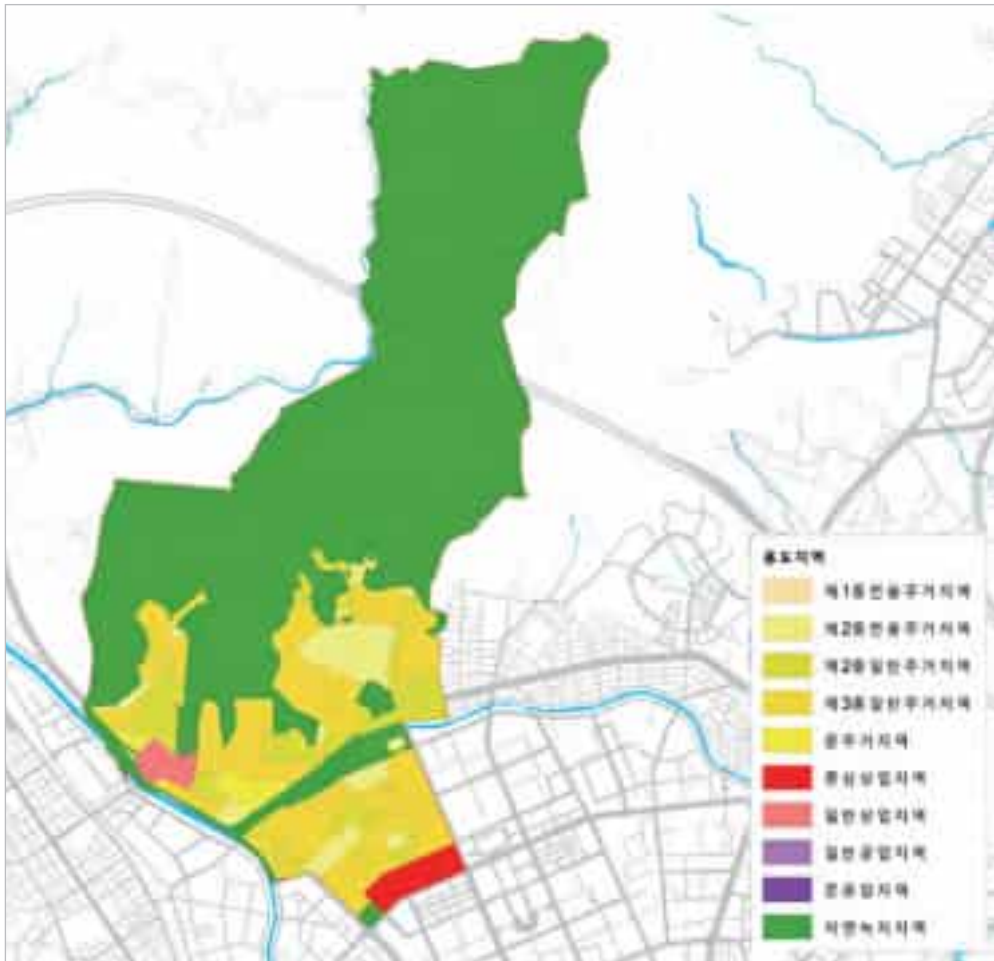
〈표 15〉 비산동 건축물 높이 현황

높이	동수(동)	비율(%)	높이	동수(동)	비율(%)
0~5m	53	6.5	30~50m	7	0.9
5~10m	255	31.5	50m 이상	35	4.3
10~30m	460	56.8	합계	81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높이 누락 자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임. 비산동 높이의 경우 데이터의 누락(1,693동)이 많아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4. 비산동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비산동의 용도지역

〈표 16〉 비산동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계	876.1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75	15.0
자연녹지지역	623.26	71.1	준주거지역	9.23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55.03	6.3	일반상업지역	7.95	0.9
제1종일반주거지역	36.86	4.2	준공업지역	0.07	0.0
중심상업지역	12.02	1.4			

자료 :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도시지역)」,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제3종일반주거지역(새별한양아파트)



일반상업지역(비산화성파크드림)



자연녹지지역(비산동 44-14 일원)



중심상업지역(비산동140일원)

비산동의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이 623.26ha로 전체 면적의 71.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이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녹지 활용이 주된 특징임을 보여 준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31.75ha(15.0%)로 주요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6.3%(55.03ha)와 4.2%(36.86ha)로 나타나 다양한 주거 밀도를 보인다. 중심상업지역(1.4%, 12.02ha)과 준주거지역(1.1%, 9.23ha)은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구역에서 확인되며, 비산동의 북쪽과 남쪽의 용도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비산동이 속해 있는 석수·박달 생활권의 상위계획을 살펴보면, 서쪽에 입지하고

있는 우수한 산림과 공원녹지 환경을 활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휴식·여가 기능 증진 등 환경 측면을 고려한 도시 조성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비산동 공업지역을 고부가가치 도시형 첨단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일원 정비 및 공업기능을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며, 삼막마을과 예술공원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장기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표 17〉 상위계획에서의 비산동 개발구상

분류	현황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관양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환경 노후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주거지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 추진</li> <li>-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추진</li> <li>-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존 유도</li> <li>- 다양한 주민자치조직 육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li> </ul> </li> <li>② 문화예술 도시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li> <li>- 공원녹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입</li> <li>- 안양시민축제 등 문화예술축제 활성화</li> <li>- 예술공원, 전시공간으로 활용</li> <li>- 안양종합운동장 기능 복합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유도</li> </ul> </li> <li>③ 적극적인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특성을 살린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숲생태체험 / 하천생태체험 / 문화예술체험)</li> <li>-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도시녹화운동 전개</li> <li>- 산림과 조화로운 녹색시가지경관 창출</li> </ul> </li> <li>④ 지역중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교통 확대에 따른 복합기능 도입</li> <li>- 편리한 교통수단 간 환승시스템 구축</li> <li>- 인덕원역세권 고밀개발 추진</li> <li>- 지역 중심지 내 근생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상업기능 확대 추진</li> </ul> </li> </ul> </li> </ul>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산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주거용지의 정비 및 이에 따른 생활권 중심기능 제고</li> <li>- 종합운동장의 정비와 경기장 등의 시설 확충으로 스포츠타운 기능 강화</li> <li>- 관악산 산림욕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여가기능 강화</li> </ul> </li> </ul>
안양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안생활경관권역 : 시가지 경관위해요소 정비 및 신규개발지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li> <li>- 북부자연경관권역 : 산림생태환경 보호 및 배후 산림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시가지경관 창출</li> </ul> </li> <li>•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경관축 : 하천변 경관위해요소 관리 및 수변경관 특성화 유도</li> <li>- 생활도로경관축 : 주요 생활형 도로의 경관관리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li> <li>- 녹지경관축 : 한남정맥과 관악지맥의 자연환경 및 산지조망경관 보전</li> </ul> </li> </ul>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경관권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형성구역,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북부자연경관권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 서부자연경관권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산림휴양경관 창출
- मान생활경관권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동안생활경관권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정**

- 녹지경관축 : 주요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도로경관축 : 경관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개선

**경관거점(34)**

**침적된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지성 강화
-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광관 보전
- 예술여가경과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 제1장

# 관악산 자락에 터 잡은 내비산과 외비산

---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 1. 골짜기를 따라 나뉜다, 내비산과 외비산의 마을

비산동 일대는 지형적으로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그 밑 300m 능선이 새가 나는 모양이라 하여 그 능선을 '비산'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비산동 일대가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어디에서인가 새가 날아와 현재의 모습으로 마을이 변모해서 '비산'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sup>1</sup>

비산동은 관악산에서 뺏어 내린 산줄기를 기준으로 안쪽을 내비산(內飛山, 안날미), 바깥쪽을 외비산(外飛山, 박날미 또는 뱃날미)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일대에 있던 구리고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내비산, 왼쪽을 외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비산은 골짜기의 안쪽과 바깥쪽을 지형적으로 구분하여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안날미(내비산)마을'과 같이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 '내비산'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골짜기 안쪽 마을 이름으로 인식된다. 내비산에서는 내비산의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는 내비산천을 기준으로 동쪽은 옷말, 서남쪽은 아랫말로 불렸다. 해가 비추는 것을 기준으로, 일찍 비추는 곳은 양지말(양달말), 늦게 비추는 곳은 음지말(음달말)이라고도 불렸다. 옷말이 음지말에 해당하고, 아랫마을이 양지말에 해당한다.

내비산에 세거한 성씨는 전주 이씨, 덕수 장씨, 문화 류씨, 보성 오씨 등이다. 한때 전주 이씨 익안대군과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외지로 이주하였다. 쟁골 일대에 전주 이씨 익안대군과 익평부원군 종종 묘역이 있으며, 수도군단사령부 입구에 제실이 있다.

외비산에는 매곡(梅谷, 마장골), 운곡(雲谷, 구름울), 샘모루, 임곡(林谷, 수푸루지) 등



1966년 비산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4년 비산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희성촌이 생겨났으며 임곡마을에 다수의 주택이 들어섰다.

의 마을이 포함된다. 한자 지명인 외비산은 밖이라는 의미와 발음의 편의성에 따라 밖날미·바깥날미·밖날미·박날미 등의 표기 혼란이 있다.

비산동은 1960~70년대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에는 서울의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안양 전체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1973년 안양의 시 승격과 1974년 전철 개통을 기점으로 더욱 뚜렷해졌으며, 이 시기는 안양의 공업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이기도 하다.<sup>2</sup> 비산동 역시 이와 같은 도시 확장의 흐름 속에서 인구가 빠르게 늘었다. 토박이들이 주로 거주하던 임곡에는 1978년 대림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어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주거지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66년과 1974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대림대학교 인근에 청송 심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토박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산골짜기를 따라 주거지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반면 내비산은 여전히 자연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4년 항공사진에서는 임곡 일대의 경관이 크게 달라져 있다. 주택개발업자들에 의해 협신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들어섰고, 산등성이 고지대까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샘모루 일대에는 단독주택단지인 희성촌이 조성되었으며, 임곡은 급격히 주거지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비산의 마을 중 규모가 가장 컸던 임곡은 본래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로, 예부터 ‘수푸루지’라 불렸다. 현재는 이 지명의 한자 표기인 ‘임곡(林谷)’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토박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푸루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마을은 동쪽을 ‘건넛말’, 서쪽을 ‘아랫말’, 북쪽을 ‘웃말’이라 불렀으며, 17세기경 청송 심씨가 정착하며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곡은 1970년대부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배경에는 6·25전쟁 이후 외지인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구시장과 방직공장 등이 가까이 있어, 공업도시로 성장하던 안양의 저소득 도시민들이 임곡에 집중적으로 정착하였다. 국유림이 많았던 지역 특성상 무허가 주택이 대거 들어섰고, 기존 토박이 가구들도 주거 공간을 확장하여 외지인을 수용하였다. 이에 임곡은 혼합 주거지 형태로 변화하였고, 비산동 내에서도 영세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불법으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과 허름한 판집이 밀집해 있었으며, 국유 산림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세워졌다. 가축이나 창고 용도로 쓰이던 공간이 주거용으로 개조되는 사례도 흔했다.

시인 신경림은 1970년부터 7년간 임곡에 거주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신경림은 당시

살았던 집의 지번을 제목으로 하는 시를 썼다.

###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신경립

이 지번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일곱 해를 사셨다.  
아들도 몰라보고 어데서 온 누구냐고 시도 때도 없이 물어 쫓는  
망령 난 구십 노모를 미워하면서,  
가난한 아들한테서 나오는 몇 푼 용돈을 미워하면서,  
절뚝절뚝 산동네 아래 구멍가게까지 걸어 내려가  
주머니에 사 넣는 한 갑 담배를 미워하면서,  
술 취한 아들이 밤늦게 사 들고 들어와  
심통과 함께 들이미는 군밤을 미워하면서,  
너무 반가워, 그것도 너무 반가워  
말보다 먼저 나가는 야윈 손을 미워하면서,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일,  
남편의 미운 짓이 미워 눈물 한 방울 안 보일  
아내를 미워하면서,  
시신을 덮은 흙이불 밖으로 나온  
그의 앙상한 발을 만지며 울 막내를 미워하면서,  
고향 선산까지 그를 실어갈 낡은 장의차를 미워하면서,  
죽어서도 떠나지 못할 산동네를 미워하면서,  
산동네를 환하게 비출 달빛을 미워하면서,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이 지번에서 아버지는 지금도 살고 계신다.

관악대로에서 삼호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 초입에 자리하는 샘모루는 안동 권씨 일



1970년대 외비산 임곡 전경(이정범 제공)



1970년대 임곡마을(이정범 제공)

## 1970년대 임곡마을 풍경



1973년 임곡마을 입구(안양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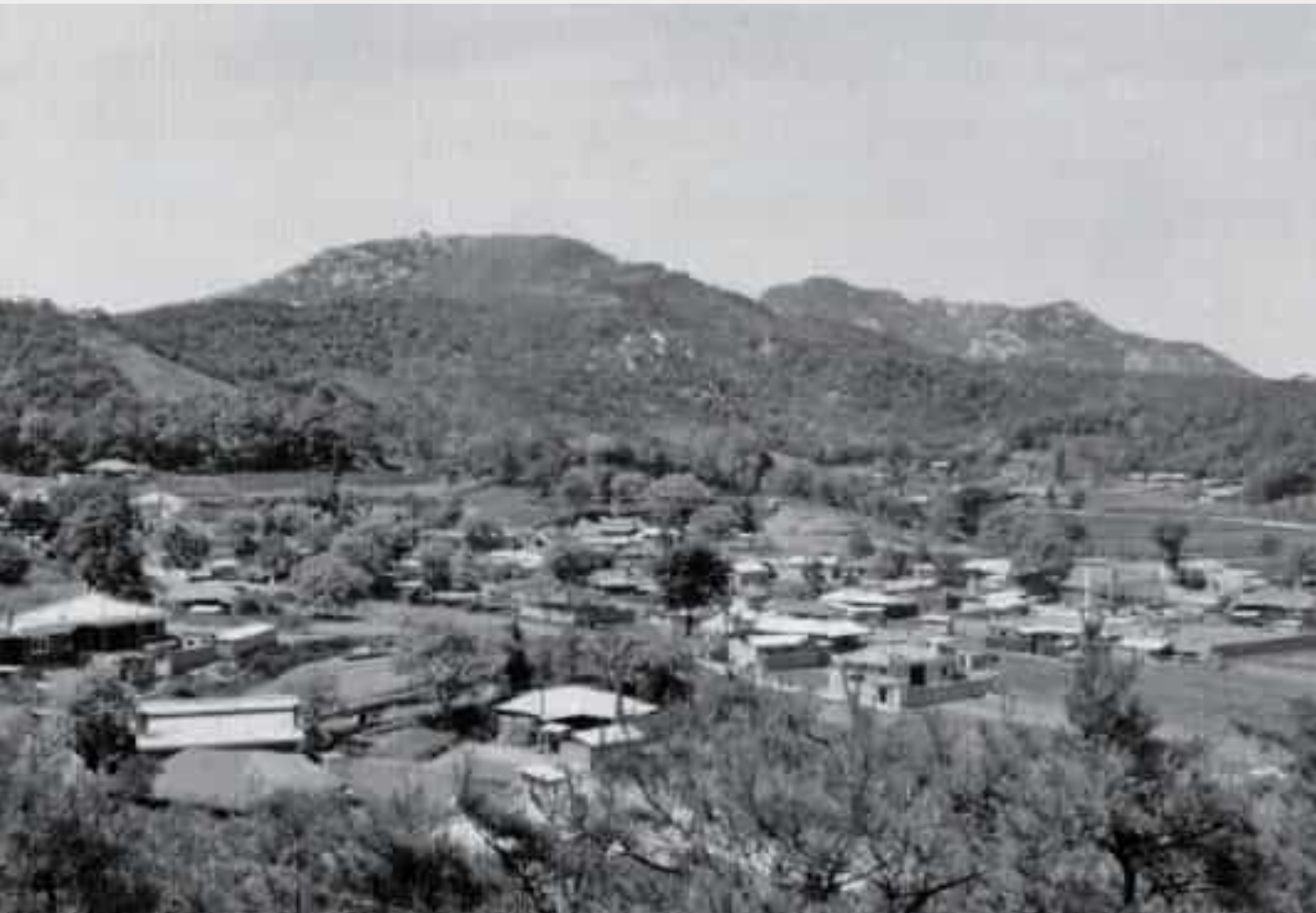
1973년 임곡마을 앞 관악로(안양시청 제공)



1971년 임곡마을 골목(안양시청 제공)



1977년 수해로 끊어진 임곡교(안양시청 제공)



1970년대 외비산 매곡마을 전경(이정범 제공)



1977년 내비산 안날미마을 (이정범 제공)



「비산마을 어귀에서」(박찬응 작, 1992년)

가 몇 가구가 살았던 작은 마을이다. 17세기 초에 시흥시 능곡동에 살던 안동 권씨 정승 공파 후손이 분가하면서 처음 입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 마을이 번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 후손이 살고 있다.<sup>4</sup>

운곡은 삼호아파트와 안양시 정수장 사이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샘모루의 안동 권씨 후손이 분가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안동 권씨 집성촌이기도 하다. 마을의 지세가 구름에 둘러싸인 것 같다고 하여 ‘구름울’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하며, 삼호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삼호아파트 안동네’라고도 불렸다고 한다.<sup>5</sup> 현재는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2024년 6월에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가 준공되었다.

매곡은 운곡과 내비산 사이에 위치하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관가에서 사용하는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고 해서 마장골로 불리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매와 관련한 전설과 연관지어 매곡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장골의 한 농부의 아내가 갓난아이를 풀밭에 두고 일을 하던 중, 매가 아이를 채어 갔는데, 며칠 후 나무꾼이 산에서 아이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 소문은 임금에게까지 전해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매와 아이는 사라지고 보금자리만 남아 있었다. 이후 매는



1970년대 희성촌 전경(이정범 제공)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매곡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매곡도 샘모루에 살던 안동 권씨 후손이 분가하여 형성한 마을이라고 하며, 예전에는 운곡에 속한 마을로 인식하여, 매곡은 옷말, 운곡은 아랫말이라 불렀다고 한다.<sup>6</sup> 1970년대 후반 7차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마을이 반듯하게 구획정리되었다. 현재는 공공주택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였다.

현재 비산e편한세상아파트가 있는 자리는 ‘희성촌(喜星村)’이라는 마을이 있던 자리이다. 희성촌은 1970년대 초반에 형성된 마을로, 설촌 시기가 17세기까지 올라가는 비산동의 다른 마을들과 형성 시기와 유래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마을은 1970년 금성전선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무주택 사원 70명이 출자해 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 이름 ‘희성촌’은 럭키금성그룹(현 LG) 산하 금성전선의 사우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희성촌 일대는 원래 외지에 거주하던 해주 오씨 가문의 소유 임야로, 묘지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마을 개발 과정에서는 많은 회곽묘(灰槨墓)가 발견되었고, 부장품으로 넣었던 옷가지나 미라 상태의 시신이 있는 무덤도 일부 확인되었다. 일부 유해는 현장에서 직접



2007년 옛 구리고개 일대(안양문화원 제공)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sup>7</sup>

희성촌 초입에는 장롱처럼 생겼다고 하여 ‘농바위’라고 부르던 바위가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 제7차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사라졌다고 한다. 바위가 서 있던 곳에는 구획정리사업 이후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sup>8</sup>

비산동에는 내비산에서 관악산을 넘어서 서울로 가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수원에서 평촌을 거쳐 서울로 가는 빠른 길이기도 하였다. 안양에서 시흥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이 더 넓고 편하긴 했지만, 내비산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길이 더 빨랐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내비산을 거쳐 서울로 갔다.

현재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근처는 구리고개라고 불렀는데, 근처에 죄인을 구류시키는 구류장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9</sup> 구리고개는 안양에서 인덕원이나 과천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다. 이곳에는 주막이 있었고 이외에도 리사무소·대장간·한약방 등도 있었다. 구리고개는 안양과 과천을 잇는 관악로가 개통되면서 옛길로 남게 되었고, 고개 높이도 낮아졌다.

내비산 토박이 오병길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주막이라 불렀던 곳은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선술집과 같은 곳이었다. 1960~1970년대도 수원이나 평촌을 거쳐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 내비산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 자고 가는 이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내비산은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내비산 주민들도 이 길을 거쳐 흑석동 효사정 앞 한강 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보러 다녀오기도 했으며, 서울까지의 이동 거리가 직선으로 4km 정도이기에 주민들은 서울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1975년 육군수도군단사령부가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이 길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내비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마을에서 북쪽으로 2.5km 정도 위치에 있는 무너미고개를 넘어야 했다. 관악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열두 굽이 흘러 이 고개를 넘쳐흘렀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무너미고개는,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개라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이 넘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0</sup>

현재는 비산동 대부분 지역이 개발되어 예전 마을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지만, 지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비산중학교 북쪽의 다세대주택 양지마을파크뷰아파트, 매곡성당, 샘모루초등학교, 대림대학교 임곡관, 운곡공원 등이다.

임곡 일대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임곡1지구와 임곡2지구에 이어 마지막으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임곡1·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현재 더포레스트힐아파트로 명칭 변경, 임곡1지구), 안양임곡휴먼시아아파트(임곡2지구)가 들어선 데 이어 임곡3지구에도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를 비롯해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비산한신더휴아파트, 비산수풀채아파트 등 크고 작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 2. 넓은 들에서 농사를 짓다, 비산동의 논농사와 농경문화

비산동에서는 주로 논농사를 지었다. 내비산의 경우,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내비산천 주변으로 논이 형성되어 있었다. 삼봉천을 끼고 발달한 박달동 균용지 일대의 논과 더불어 내비산의 논은 상급지로 평가받았다.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들판의 논 2평을 팔아야 내비산의 논 1평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sup>11</sup> 물을 끌어 쓰기 힘든 평촌에 비하면, 내비산은 어지간한 가뭄에도 내비산천 물이 마르지 않아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군수도군단사령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내비산 안쪽부터 학의천에 이르기까지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다.

외비산도 매곡 안쪽에서부터 학의천까지 모두 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달안이 주변의 논도 대부분 비산동 주민들이 경작하던 농지였다. 이처럼 과거 비산동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비산동에서는 일제강점기까지 두레와 농악이 매우 성황리에 펼쳐졌다. 내비산의 경우, 집집마다 20대~40대의 장정이 1인씩 참가하는 두레를 운영하였다. 두레는 모내기를 마친 논에 김을 매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약 20명 규모였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방동사나와 가래풀이 많이 자라는데, 이런 잡초들을 제대로 매주지 않으면 벼가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떨어진다. 대체로 호미로 초벌을 매고, 두 벌과 세 벌은 손으로 훑는 방식으로 땀는데, 이는 논바닥의 잡초를 뽑으며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두레는 농기를 앞세우고 상쇠와 장고, 징, 북이 뒤따라 이동하였다. 논이 면적을 가리지 않고 두레의 이동 방향에 맞추어 해질 때까지 김을 땀다.

두레는 7월 15일 무렵이면 작업을 마쳤다. 7월 15일 백중 무렵은 벼농사에서 일종의 농한기였다. 김매기를 마치면 벼가 패서 익을 때까지 논일이 수월해졌으므로, 7월 보름인 백중에는 호미걸이를 하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서는 머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두레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한편, 백중에 안양시장에서는 큰 씨름판이 열렸다. 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아지 1두를 상으로 내놓았으며, 여러 장사들이 모여들었다. 안양시장에서 열린 씨

비산동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달안이들 전경(1980년대, 이정범 제공)



름대회는 일제강점기에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이름난 대회였다. 두레는 일제강점기에 악기 공출과 징용 등으로 축소되었고 광복 후에 간단히 두레를 다시 조직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이후 지속되지 못하였다.<sup>12</sup>

비산동 일대는 농악으로도 매우 이름난 지역이다. 1865년(고종 2) 경복궁 중건 시 전국에서 모인 농악대가 고된 노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연하였는데, 그 가운데 안양 날피농악대의 기량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에 안양날피농악대는 ‘장원농악대’라는 별칭과 1908년(융희 2)에는 순종 황제로부터 ‘농기’를 하사받았다고 알려졌으나,<sup>13</sup> 2024년 현재는 전승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참외나 토마토 농사를 크게 짓는 집에서는 수확한 과일을 남부시장으로 가서 위탁 판매하는 상회에 넘겨 판매하여 계절 소득을 확보하였다. 이 일대에서는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농사지는 열무나 배추, 토마토와 참외 등을 광주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안양 구시장에서는 노점 형식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많았다. 1961년 11월 6일에 안양4동의 중앙시장(새시장)이 개장한 이후에도 비산동의 부녀자들은 배추나 열무, 토마토, 참외 등을 이고 중앙시장으로 나가 판매하며 생계에 보탬을 보냈다.

비산동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었던 논농사는 1979년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많은 농지가 택지나 도로 등으로 정비되었다. 내비산 쪽은 그린벨트 안에 속한 곳이 많아 제7지구에 속한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었으며, 환지를 받아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 농사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내비산 외의 다른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토지 보상으로 건물을 지어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이 일대 농사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임곡에는 대림대학교 아래쪽에 청송 심씨의 집성촌 마을이 있었고, 그 외 지역에는 도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하면서 불량주택이 밀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도시 빈민이 주로 이 지역에 모여든 이유 중 하나는, 임곡이 구시장과 가까우며 안양 일대의 공업 기반 덕분에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었다. 이에 내비산에서도 부녀자나 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태평방직(대농 동공장)에 입사하여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73년 비산동 벼 집단 재배 단지(안양시청 제공)

1980년 비산동 보온묘판 설치(안양시청 제공)





1976년 비산동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안양시청 제공)

1980년 봄 채소 비닐하우스 재배(안양시청 제공)





1997년 시민의 날 기념 시민축제 농악놀이(이정범 제공)



2007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한 날뽕 농악(김종수 제공)

### 3. 비산동의 삶과 믿음, 가신신앙과 세시풍속

#### 1) 가신신앙

비산동에서는 1980년대까지 가정마다 집안 곳곳에 가신을 모셨다. 집안에 모신 가신으로는 성주, 대감, 칠성, 주왕, 터줏가리, 업주가리, 손님장, 업 등이 있었다. 성주와 삼신, 터주 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현재 신체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신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비산 토박이 오병길의 집에서는 가을고사떡을 준비해 가을고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한다.

가신에 대한 의례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주로 안택이나 고사를 지낼 때 가신을 위하는 가정도 있고, 터주에는 연중 상시로 청수를 올리며, 이와는 별도로 고사 때 가신을 모신 곳에 정성을 드리는 방식도 볼 수 있다. 날미에서는 가신으로 성주, 칠성, 터주, 주왕(조왕), 업, 손님장, 대감, 용왕, 잡신 등을 모셨다고 한다.<sup>14</sup> 이 가운데 성주는 대청에 모시는 가신으로,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으로 인식되었다. 내비산에서는 가을 추수 후 무당을 불러 안택고사를 드리는 가정이 몇 곳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곁을 구경하고 새벽까지 곁이 이어지는 등 축제 분위기를 띠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가정에서 모시는 가신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칠성은 아이의 수명장수를 위한 신령으로, 안방 구석에 쌀을 자루에 담아 거는 것이었으며, 삼신이라고도 불렸다. 터주는 향아리에 벼를 담고 짚으로 터주가리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었다. 조왕은 부엌에 청수를 올리고 아침마다 여성들이 집안의 안녕을 비는 가신이었고, 업은 광에 모시는데,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손님장은 장독대 옆에 작은 향아리를 모시는 것으로, 장맛을 좋게 해주는 신이라 알려져 있었다. 집안의 재복을 위해 모시는 대감의 신체는 마루에 큰 독을 놓아두는 것으로 정하며, 매년 햇곡식을 넣어 갈아주었다. 용왕은 우물신으로, 물을 상징하므로 가족들이 먹는 물이 늘 깨끗하게 잘 솟아나오기를 빌었다.

내비산 옷말 토박이 이석효의 집에서는 장독대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위하고 있으며, 바위 앞에는 터줏가리를 두고 있다. 이석효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이석효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 사는 며느리가 매년 가을 떡을 해서 바위에 올려놓는 정도로 간소화하였다.

오병길의 집에는 삼신할머니와 터주 등의 신체가 있었다. 삼신할머니의 신체는 형겼



이석호 집의 장독대(2023년)

자루에 쌀을 담아 안방 구석에 걸어두는 것으로, 자녀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장독대에는 판판한 돌 위에 햇벼를 담은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 짚주저리를 얹어 두었다. 매년 10월 상달에 한 번씩 햇곡식이 나면 항아리 안의 곡식을 바꾸고, 짚주저리도 햇짚으로 엮어 교체하였다. 터주는 다른 가신과 달리 수시로 정화수를 차리고,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오병길의 집에서는 고사 때 대청과 부엌, 장독대, 대문, 안마당, 외양간, 우물, 변소 등 곳곳에 떡을 차렸다. 이를 통해 삼신을 비롯해 조왕 등 다양한 가신을 모셨음을 알 수 있으나, 삼신할머니와 터주 외에 특별히 신체를 모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다양한 가신을 모시기 위해 1년에 몇 차례 고사를 지냈다. 집에서 지내는 고사는 정월대보름, 삼짚날, 칠

석, 10월 상달, 동지 등이다. 고사 때는 대체로 시루떡을 장만하고 복어나 술을 제물로 올렸다. 그런데 칠석에는 밀가루 반죽에 애호박채를 넣어 부친 밀떡을 삼신과 성주에 올렸다. 밀떡은 참외 농사를 짓는 여름철에 원두막에서 자주 해 먹는 별식이기도 했지만, 칠석 고사에 올리는 절식이기도 하였다.

오병길 집의 경우에도 음력 10월에 올리는 가을고사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한다. 내비산에서는 과천 찬우물에 거주하는 무당을 단골로 불러 굿을 여는 집이 있었고, 오병길의 집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가을고사 때 재수굿을 하였다. 오병길 외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살던 내비산의 몇몇 가정에서 가을고사 때 재수굿을 열었으나, 새마을운동 이후 미신 타파 운동이 벌어지면서 크게 줄었다.

과천 찬우물 무당에게 부탁하면 다른 무당들과 악사들이 와서 굿을 하루 종일 하고,



이석호의 집에 있는 바위와 터줏가리(2023년)



내비산 전주이씨 제실(2025년)

저녁에도 다시 시작해 새벽 두세 시가 될 때까지 하였다. 굿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것은 집안 고사를 마치고도 마을 잔치처럼 굿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굿에 참가해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고, 돈을 내고 점을 보는 이들도 있어 새벽 늦게까지 굿이 계속되었다.

한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과 쌀을 차려놓고 농기구인 씨레를 두드리며 반주를 하며 목살경을 읽었다. 목살경을 읽는 것은 법사가 와서 담당하였다. 간혹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목살경을 읽는 이들이 있었는데, 씨레를 놓고 복숭아 가지를 사용해 씨레를 두드리며 목살경을 읽었다. 목살경을 읽는 문화는 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 2) 마을제사

### (1) 내비산의 마을제사

내비산에서는 약 30년 전까지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라는 호칭 외에도 ‘도당할아 버지와 할머니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도당제라고도 불렀

을 가능성이 있다.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은 매우 간단하다.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안양종합운동장 북쪽 류덕옥(柳德玉)묘소 위에 있는 노송 앞에서 마을의 안정을 위해 산신제를 지냈다. 외지인이 많아지자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 지속되어 오다 개인 치성화되었고, 2002년에 전승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내비산의 산신제 제당은 초가집 형식의 당집이 있었으나 6·25전쟁 때 훼손되었다. 당이 훼손된 이후 복원하지는 않았으며, 당이 있었던 자리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냈다. 당 밑에는 찬우물(당우물)이 있었다. 내비산의 산신제는 9월 스무날쯤에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선정하였다. 제관은 제를 올리는 사람과 제물 준비하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선정했는데,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제사를 지내는 제관으로서 목욕재계하고 부부간의 동침 등 금기를 지키며 근신하였다.

내비산 산신제에서는 제물로 올리는 떡과 산신제에 올릴 떡과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떡을 엄격히 구분해 만들었다. 산신제에 올리는 떡은 당우물에 쌀을 씻어 백설기로 찌는데, 이것은 산시루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먹을 떡은 당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동네에서 준비하였다.

내비산의 제사는 초하루에 백설기 등 제물을 준비해 초이튿날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낸 다음날에도 새옹에 밥을 지어 떡과 함께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연유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나, 부군당제나 도당제를 지낸 후 제사를 지내느라 당을 어지럽혀 죄송하다는 의미로 지내는 사례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제사는 당 아래에 있는 찬우물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밤 10시에 올라가 지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오후 12시에 올라가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를 마치면 마을회관으로 내려와 음복하였다. 내비산의 마을 제사에서는 제물로 소를 잡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통소를 잡아 제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이 소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제물로 올리는 소의 구입은 마을제사의 규모와 더불어, 내비산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규모의 마을 제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 (2) 외비산의 마을제사

외비산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2일에 매봉산에서 임곡·운곡·매곡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신제를 지냈다. 매봉산의 산제당은 산 정상 부분의 기와 건축물로 양여달이문을 가진 제당이였다. 이 제당은 6·25전쟁 당시 포격으로 파손되었고, 이후 그곳에서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현재의 위치로 산제당을 이전하여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산신제에 사용했던 당우물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쓰던 샘이었다. 산신제에 올릴 밥을 지을 때 반드시 이 샘물을 이용했는데, 현재는 충의약수터로 조성되어 있다.

인구가 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박이 중심으로 지내오던 매봉산산신제는 현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제사는 ‘매봉산동고제’라고도 불리며 매년 음력 10월 2일에 주로 매곡·운곡·임곡 토박이들과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산신제에 참가하고 제사 후 음복에 참여하고 있어, 소박하지만 전통성을 가진 마을축제로서 성격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매봉산산신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4. 세시풍속과 놀이

비산동의 세시풍속은 설날과 정월대보름,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전통적 절기에 따른 고사와 놀이문화가 계절별로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오랜 농촌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 평촌 개발과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음력 설날에는 떡국으로 조상께 차례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마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설 차례를 지내며 세배를 나누었고, 설 이후 정월 초부터 다양한 전통놀이가 이어졌다. 특히 정월대보름은 내비산에서 가장 큰 세시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연날리기, 널뛰기, 달님절하기, 쥐불놀이 등을 하였다.

쥐불놀이는 주로 논에서 이루어졌으며, 깡통을 자르고 안에 나무 조각을 넣어 불을 붙인 후 끈에 매달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많지 않고, 마른 가랑잎 정도만 남아 있어 화재 위험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쥐불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쥐불놀이는 정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력 12월까지도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옷말과 아랫말 사이에서 쥐불놀이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월에는 대보름날에 각 가정에서 고사를 지냈다. 이때 짚을 자기 나이대로 매듭지어서 불을 붙이고 달님에게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들이 준비하였다. 정월 작은 보름날인 1월 14일에 저녁에 자기 나이대로 묶은 짚을 들고서 마을 뒷산에 달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불을 붙이고 달을 향하여 절을 한다. 이때 “달님 절합니다. 달님 절합니다.”를 반복하면서 달에게 새해 소망을 비는 것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여러 가지 나물을 준비하여 먹는 풍습도 널리 행해졌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많은 양의 오곡밥을 지어 먹었으며, 이웃과 나누는 일도 흔했다. 특히 1960년대에는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오곡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많은 양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겨울철에는 큰 논에 얼음을 얼려 썰매를 타고 놀기도 하였다. 현재 비산3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의 옛 논에서는 겨울이 되면 얼음판이 만들어졌고, 아이들은 썰매를 타며 겨울을 보냈다. 이곳은 훗날 수도군단이 들어서며 체력단련장이 조성된 부지이기도 하다. 연날리기는 정월 내내 이어지는 대표적인 놀이였으며, 연을 직접 만들어서 날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연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2009년 안양 대보름축제 연날리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정월이 지나 2월이 되면 농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머슴을 두는 집에서는 이 시기에 머슴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농사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남부지방 출신으로, 새 경을 받고 겨울이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봄에 다시 내비산으로 올라오곤 하였다. 삼진 날에는 각 가정의 가신신앙 신체에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오병길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1991년까지 직접 고사를 지냈다. 단오에는 여자들이 마을의 큰 나무에 줄을 걸고 그네를 타는 풍경이 있었으며, 이것은 내비산에서 실제로 행해진 놀이로 조사된 바 있다. 유두날에는 밀가루 반죽에 애호박을 채 썰어 넣고 지진 ‘밀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냈으며, 이 밀떡은 여름철 고사 음식이자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졌다.

칠석날에는 불정사나 망월암 등 인근 사찰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내비산 주민들은 성주, 제석, 터줏가리 등 집안 가신에게 밀떡과 참외를 올리며 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칠석 고사는 1990년대 이후로 점차 사라져 현재는 일부 가정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참외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농가에서는 원두막을 지어 참외밭을 관리하였고, 햇참외를 처음 수확하면 터줏가리에게 고사를 지낸 후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하였다. 수확된 참외는 남부시장에 가져가 중개상을 통해 판매되었다. 원두막은 단순



2013년 안양 대보름축제 쥐불놀이(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한 농작업 공간을 넘어, 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는 쉼터 역할도 하였다. 참외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종종 밀떡을 해 먹기도 하였고, 참외 수확은 하루걸러 이루어졌다. 물고기를 잡는 여름철 천렵도 내비산의 중요한 풍속 중 하나였다. 내비산천에서는 피라미, 미꾸라지 등이 주로 잡혔고, 큰 물고기는 학의천이나 백운저수지 물이 흘러내리는 평촌 논외 물꼬 부근에서 잡혔다. 장마 뒤에는 물이 떨어지는 곳에 고기가 모여들어 잡기 쉬웠다. 잡은 물고기로는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이때의 매운탕은 지금과 다르게 고추장을 푼 국물에 고기와 채소, 국수나 수제비를 넣어 끓이는 방식으로 요리되었다. 때로는 밀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끓이기도 하였다. 당시 고기를 자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물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특히 미꾸라지는 쉽게 죽지 않아 오래 보관이 가능하였고, 겨울철에도 논두렁 수렁을 파서 잡을 수 있었다.

한편, 1947년 내비산에서는 농촌 생활 향상과 청소년 계몽을 위한 4H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명절에 마을 연극이 열리기도 하였다. 마당이나 뒷마루가 넓은 집에 무대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관람하였다. ‘검사와 여동생’ 등 당시 유행하던 영화를 각색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고, 군 홍보실에서 김승호 주연의 영화 ‘마부’ 같은 작품을 상영하기도 하였다. 약장수, 동동구리무 장사 등이 마을 마당에서 공연을 하며



학의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200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분위기를 돋우었고, 비록 내비산에서는 열리지 않았지만 인근에서는 경품을 건 노래자랑도 열렸다.

농사가 마무리되는 가을에는 고사떡을 만들어 가신에게 올리는 고사가 이어졌다. 여유가 있는 집은 무당을 불러 재수굿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전통은 지금도 일부 가정에서 유지되고 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특산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내비산에서는 메뚜기를 잡아 볶은 뒤 가루로 만들어 출품한 사례도 있다. 이는 1960~1970년대 농촌 생업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을운동회도 내비산의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관양초등학교에서는 마을 간 대항 경기로 모래가마 들고 달리기 같은 힘겨루기 경기가 열렸으며, 내비산 출신의 힘센 사람들이 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행사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마을 공동체 간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집안 가신에게 차리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정월 그믐 날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속설이 있어 아이들이 잠들지 않으려 하였으며, 이는 어른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풍습들은 1980년대 말 비산동이 도시화되고 토박이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 새마을 부녀회 중심의 김장 행사 등은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흐름을 기억하고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요소이다.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점차 약화하였지만, 현대 도시 생활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일부 세시풍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註

- 
- |  |  |
|--|--|
| <p>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06쪽. 비산은 비봉이라고도 하며, 현재는 비봉산으로 불린다.</p> <p>2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200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34쪽.</p> <p>3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83~184쪽.</p> <p>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80쪽.</p> <p>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53쪽.</p> <p>6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64쪽.</p> <p>7 홍필주(1938년생, 남, 매곡 토박이), 2023년 9월 25일 구술.</p> | <p>8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339쪽.</p> <p>9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304쪽.</p> <p>10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307쪽.</p> <p>11 이석호(남, 1935년생, 내비산 토박이), 2023년 4월 11일 구술.</p> <p>1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517~520쪽.</p> <p>13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제2집』, 1997, 65~66쪽.</p> <p>14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483~485쪽.</p> |
|--|--|

## 제2장

# 문중 자료를 통해 본 근대 비산동의 생활문화

---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 1. 근대 비산동의 문중 자료 현황

근대 비산동의 생활문화는 비산3동 전주 류씨(全州 柳氏)와 덕수 장씨(德水 張氏) 문중 소장 문서와 문헌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주 류씨의 문서류는 1,158종, 문헌류는 78종 149책으로 방대하여 비산동의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들 자료는 앞선 2008년에 발간한 『안양시사-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에서 정리한 바 있다.<sup>1</sup> 문서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접하는 것은 ‘간찰류’이며, 이는 가문의 위상과 지역 사류 간의 교류를 잘 보여준다. ‘가문사 및 공문서류’도 전체 문서류의 25%를 넘는데 가문의 성쇠가 잘 드러나고, ‘공문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한다. ‘청원서류’나 ‘경제 관련 문서류’는 가문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법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문사’와 ‘공문서류’는 장례 절차와 풍습, 가문의 교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인 ‘고신(告身)’은 가문의 흥기(興起)를 보여준다.

비산3동의 전주 류씨가 조선 중기까지 전주에서 살다가 18세기 초 지금의 안양 비산동 지역에 입향하였다. 이 가문이 안양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비산동에 류덕옥(柳德玉)<sup>2</sup>의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광주 이씨를 장사 지낸 1708년(숙종 34)부터이다. 정부인이 사망한 것은 그해 4월 3일인데, 아들 류작(柳綽)이 8월 27일 장례를 치렀다. 3년 후 류덕옥이 사망하자 내비산(內飛山, 안날미)에 임시로 안장되었다가,<sup>3</sup> 1728년에 부인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그의 아들 유작 또한 선친의 묘역 바로 아래 묻히게 되었다. 이후 전주 류씨는 줄곧 비산동에 묘역을 마련하면서 안양에 세거하였다.

전주 류씨가 자료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및 1970년대까지의 변화상

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재지사족의 생활상, 간찰을 통한 사류 간의 교류, 장례 시 부조 관행, 일제의 지배 정책, 금융조합 및 금융 대부 등 일제강점기의 경제생활, 상포계(喪布契), 정육(正肉) 등 근현대 각종 사회적 모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문서는 총 180종으로 생산 연대는 1920~1930년대가 가장 많다. 문서 내용은 경제, 교육, 행정, 지역, 개인 생활, 엽서, 편지, 지도 등으로 분류된다. 경제 문서는 각종 영수증과 대부금 관련 문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발급기관은 경기도, 서이면사무소, 안양읍사무소, 안양금융조합, 경성전매지국, 시흥군농회장 및 분구장, 삼림보호조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의 발급처는 시대에 따른 이들 터전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대한제국기에는 경기도 과천군, 일제강점기에는 서이면사무소, 해방 이후 안양읍사무소, 시 승격 이후로는 비산동사무소로 발급처가 변화하였다. 개인 생활에는 흥인계, 임명장, 상장, 진찰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산3동의 덕수 장씨가는 1506년(중종 1) 9월 1일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으로 책록된 장정(張珽)의 후손이다. 비산3동 내비산 비봉산 자락에는 장정의 아들 장언방(張彦邦)과 손자인 장순, 그리고 증손인 장시눌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후 후손들은 조상의 묘역과 가까운 내비산에 거주하였다.<sup>4</sup>

덕수 장씨가 소장 근대 문헌 자료는 1870년의 호구단자(戶口單子), 축문(祝文), 관례 홀기, 관례 축사 등이 있다. 특히 관례 축사 6종은 관례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2. 비산동의 공동체 생활

### 1) 종계(宗契)

덕수 장씨가 소장 「종계수납통문(宗契收納通文)」은 석사(碩士) 김연수(金連壽) 가(家) 종계(宗契)의 추분(秋分)을 수납받기 위하여 통문을 돌린 것이다. 한문으로 쓴 후 한글로 고지 사항을 다시 적었다. 덕수 장씨 족보를 통해 볼 때, 대략 19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비산동 덕수 장씨의 통혼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종계 운영과 관련하여 외가 및 처가 등의 관계망을 조망할 수 있다.

종계의 수납 대상은 4명으로 총액은 85냥이며, 이자는 20냥 12전 5푼인데, 해당 각



종계수납통문(덕수 장씨가 제공)

종원(宗員)은 정한 날짜에 김연수 집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다. 종계의 가을 수납 대상자인 장명보, 장현관, 최원호, 이여회는 각각 20냥에 이자 5냥, 10냥에 이자 2냥 5전, 30냥에 이자 7냥 5전, 25냥에 이자 6냥 2전 5푼이라고 적혀 있다.

## 2) 상포계(喪布契)

전주 류씨가 소장 「내비산상포계통문(內飛山常布契通文)」을 통해 당시 마을공동체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다. 작성 연대는 일제강점기 초기로 추정되며, 글체는 국한문 혼

夏

內而山堂布製

右通事不換折射量放後無所對定亦和量收指此三山是皆定其可事  
月初五日六月真儀治量在不利於未清帳目地理多其

○權愛潔 不換月 初甲子

洪英煥 不換月 初

○張世寬 不換月 初丙午

洪重三 不換月 初甲子

○鄭光根 不換月 初乙未

○李永秉 不換月 初甲子

○尹務喜 不換月 初甲子

吳元勳 不換月 初甲子

又 不換月 初甲子

尹文玉 不換月 初乙未

○李昌喜 不換月 初甲子

權大植 不換月 初甲子

○朴元日 不換月 初甲子

李昌喜 不換月 初甲子

○張世恩 不換月 初甲子

吳元勳 不換月 初甲子

○折錫俊 不換月 初甲子

吳元勳 不換月 初甲子

○柳錫朋 不換月 初甲子

李漢九 不換月 初甲子

在九月三日書文

2-76

내비산상포계 통문(전주 류씨가 제공)

용이다. 내용은 계주(契主)가 계원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상포계(喪布稷)는 초상 때 비용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 모인 계인데, 자료에는 ‘常布稷’라고 한자 표기를 잘못하였다.

통문은 내비산상포계의 계원들에게 빌려준 방채(放債, 본전과 이자)를 다음 달 5일까지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방채한 사람은 총 19명이며, ‘권기수(權夔洙) 본(本) 10엔(元) 이(利) 40전(錢)’으로 명기하였다. 즉, 채무자에 따른 본전과 이자를 알아보기 쉽게 적었다. 계원의 성씨는 권(權)·장(張)·이(李)·윤(尹)·류(柳)·오(吳)·홍(洪) 등 7개 성씨이며, 이는 일제 초기 내비산에 사는 성씨 대부분이 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에는 전주 이씨, 전주 류씨, 해주 오씨 등의 전통적인 세거 성씨 마을이었던 내비산이 점차 각성바지로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문서이다.

방채 인물 중 이름 위의 원 표시는 원금과 이자를 갚았음을 표기하였는데, 이자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채무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내비산 상포계 방채 현황

이름	본전(이자)	이름	본전(이자)	이름	본전(이자)
권기수	10엔(40전)	장세봉	26엔(7엔 54전)	윤문옥	5엔(70전)
장세조	6엔(2엔 70전)	류석준	40엔(78전)	권대식	20엔(4엔 80전)
정윤근	10엔(50전)	류석봉	6엔(1엔 74전)	이창희	2엔 80전(40전)
윤○윤	2엔(48전)	홍비환	10엔	오원균	3엔 50전(50전)
	3엔(72전)	오성삼	10엔(40전)	오순균	2엔50전(37전)
이창희	6엔(54전)	이영래	10엔(40전)	이흥구	5엔(1엔 70전)
임원일	8엔(2엔 32전)	오원균	5엔(50전)		

### 3) 종두(種痘)

경기도 과천시에서 상서면(上西面) 비산리 2동 제4통 제10호 가정에 보낸 종두 증서이다. 접종자의 연령과 이름, 회수, 연도, 종두 인허가의 성명과 인장이 보인다. 종두 증서 내용은 광무 4년(1900년) 4월 6일에 2세인 류열녀(柳說女)에게 처음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종두(種痘)’라고 한다. 종두법에는 인두법(인두접종법)과 우두법(우두접종법)이 있다. 전자는 사람의 천연두를, 후자는 소의 천연두를 백신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광무 4년(1900) 증두 증서  
(전주 류씨가 제공)



대정 11년(1923) 9월 12일 서이면장 조한구(趙漢九)가 류인근에게 속달로 보낸 엽서(전주 류씨가 제공)  
1전 50분 우표가 붙어 있다.

#### 4) 엽서 왕래

일제강점기 류인근에게 전달된 엽서가 여러 점 전해지고 있다. 엽서는 보통과 속달로 구분되는데, 대정 11년(1923년) 9월 12일 서이면장 조한구(趙漢九)가 류인근에게 쓴 엽서는 속달로 보내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엽서에 붙이는 우표 가격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1전에서 3전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당시의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금액이다.

일제강점기 엽서는 당시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이 엽서들은 주로 일본 제국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의 풍경·건축물·전통 의상 등을 담아 일본과 조선 간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미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엽서에는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어와 한자가 혼용된 텍스트가 자주 사용되었다. 주로 조선의 주요 도시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엽서들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

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을 홍보하거나 식민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 5) 기성회비

일제강점기에도 학교 건립 기부금이 존재하였다. 비산리의 류인근은 소화 2년(1927년)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장으로부터 학교 건설에 따른 30엔을 납입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그 금액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납입통지서에는 1927년 12월 25일까지 서이면사무소로 납부할 것이 적혀 있다.

안양공립보통학교는 1929년 12월 20일 개교하였으며, 지역민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 류인근은 기부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안양공립보통학교는 해방 이전까지 안양(당시 서이면)의 유일한 초등교육 기관이었으므로, 학교가 위치한 안양리는 물론이고 비산리와 멀리 일동리(현 관양동)·이동리(현 평촌동)·호계리에서도 통학하였다. 처음에는 4년제로 유지되다가 후에 6년제로 바뀌며 안양 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37년 안양공립보통학교 6회 졸업 기념 사진(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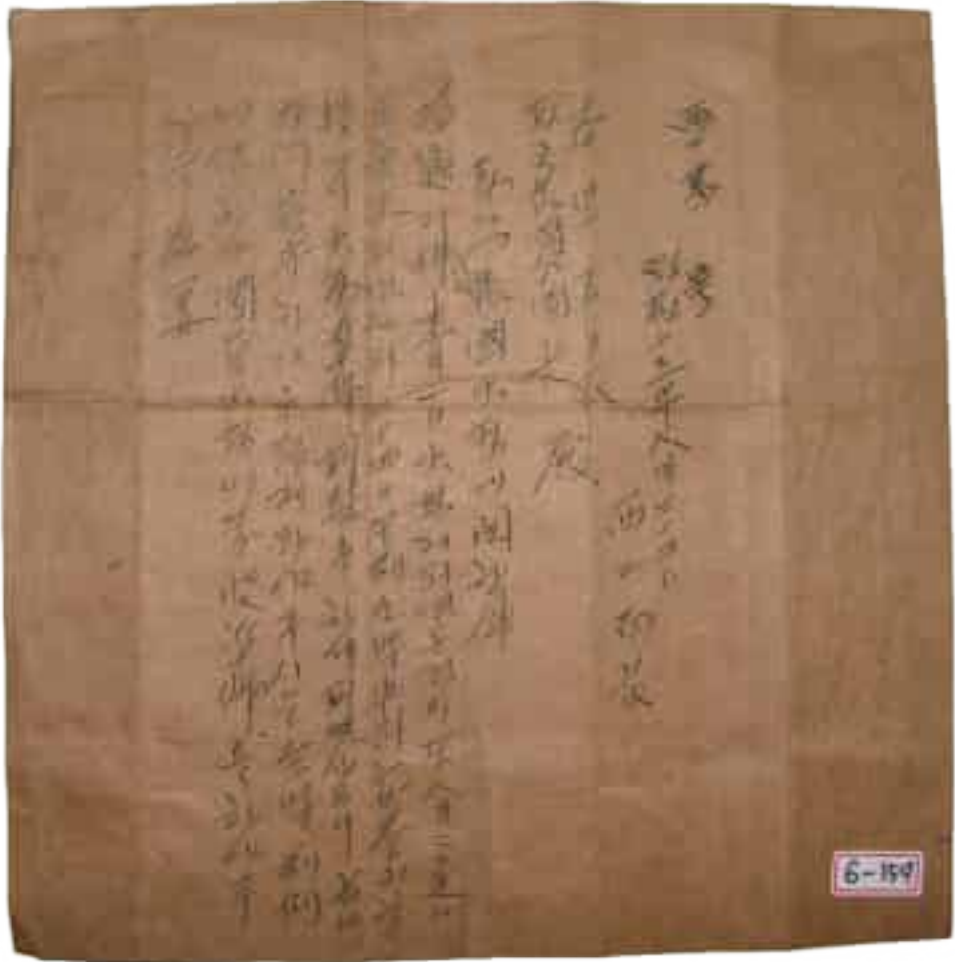
1927년 안양공립보통학교 건축기부금 납입통지서와 영수증서(전주 류씨가 제공)

## 6) 일제 통치와 근로보국(勤勞保國)

「근로보국 출동에 관한 건」은 1940년 서이면장이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 분단장 앞으로 보낸 문서이다. 공문은 ‘내월(來月) 즉 9월 1일로 예정된 출동이 8월 25일로 변경되었으니 24일 오전 9시부터 안양소학교에서 출동 준비훈련을 하므로 당일 시간을 엄수하여 출원(出願)케 하여 주시는 동시에 전례에 의하여 단원(團員) 출동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을 발효하고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였다.<sup>5</sup> 근로보국대는 주로 도로·철도·비행장·신사(神社) 등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몇몇은 일제의 군사시설에 파견되었다. 근로보국대는 직장보국대, 국민학교 고등과와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의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농민들로 구성된 농민보국대 등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근로보국대로 약 762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다. 따라서 이 공문은 근로보국대가 조직되기 바로 전 해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참고로 1940년 7월 1일 발행된 잡지 『삼천리』 제12권 제7호에 실린 「(만주) 사변 어



1940년 근로보국 출동에 관한 공문서(전주 류씨가 제공)

언 3주년, 7월 7일의 이날을 명기(銘記)하라!」라는 기사에서는 사변이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들 총후국민(銃後國民)은 더욱더 일치단결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정부와 군을 도와 성전(聖戰)을 빨리 끝내기를 기약하면서, 당일 행사로 ① 전 조선 일제히 국기 게양 ② 출병 장병을 위한 기원제(祈願祭) ③ 근로보국 작업 ④ 군인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위자(慰藉)와 위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였다. 앞서 8월 24일 오전 9시 안양소학교에서 개최 예정된 근로보국 출동 준비훈련은 총동원체제의 일면을 드러낸다.

덕수 장씨가 소장 자료 중 「징병필휴소화19년갑신농력(徵兵必攜昭和19年甲申農曆)」은 1943년 책력이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을 사회적으로 강조하였음을 보여주



『징병필휴소화19년갑신농력』 표지와 내용(덕수 장씨가 제공)



『삼천리』 제12권 제7호 「(만주) 사변 어언 3주년, 7월 7일의 이날을 명기하라」(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는 자료이다.<sup>6</sup> ‘필휴(必携)’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 이는 징병 시 휴대하는 책력이었다. 또한 책력에는 ‘징병지도의 준비 요령’을 상세하게 게재함으로써 1930년대 파시즘기를 넘어서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총 15쪽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징병제도 해설 목차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징병 지도의 준비 요령에는 징병 적령자의 심득(心得), 징병 검사와 징집 요령, 징집 검사와 수검자의 주의 사항을 서술하였다. 제2편 제국군대의 대요에는 국군 병역제도, 육군·해군의 군대 생활을 서술하였다. 제3편 병역법 대요에는 병역 의무자, 조선의 징병제도와 병역법, 병역 의무자의 자격과 병역 면제자, 병역 구분 및 복역 연한, 징집, 신체검사와 병종(兵種) 선

정, 기류지(寄留地) 수검 수속, 징집 처분, 현역병 입영, 징집연기, 소집(召集), 병역에 관한 형벌 규정 등을 서술하였다.

## 7) 달력 사용

조선총독부가 편한 「명치사십년 조선민력(明治四十年朝鮮民曆)」(1910)은 책자 형태로서, 첫 페이지에는 주요 제의일과 24절기를 명기하고, 달별로 일자를 상하로 양력과 음력을 표시하였다. 양력 일자에는 24절기를 표시하고 음력 날짜를 함께 적어 해당 일의 음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 날짜에는 중요한 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빈칸을 두었다. 이 책력은 시중에서 5전(錢)에 판매되었다.

한국에서는 1896년 1월 1일부터(고종 33년, 음력 11월 17일) 양력을 선택하면서부터 ‘양력’과 ‘음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양력설을 개나 쇠는 설이라는 뜻으로 ‘개설’, 또는 일본인이 쇠는 설이라고 하여 ‘왜설’이라고 낮추어 불렀고,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몰래 음력 설을 지냈다. 그런데 「명치사십년 조선민력(明治四十年朝鮮民曆)」은 양력은 물론 음력까지 표기한 것을 보면, 한국인의 달력 개념을 반영하고 제목에도 ‘민력(民曆)’이란 용어도 붙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24절기, 음력을 기준으로 한 초하루와 보름, 중일명절(重日名節)을 중시하였다. 중일명절은 홀수 달과 일이 겹치는 1월 1일(설), 3월 3일(삼월삼짇날), 5월 5일(단오절), 7월 7일(칠석), 9월 9일(중양절) 등을 말한다. 농사력은 24절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보름은 농사 풍년 기원, 중일명절은 휴식과 감사의 의미로 놀이와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가령 양력 2월 입춘에는 소놀이, 보리뿌리잡 등을 통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6월 하지에는 감자를 수확하였다. 음력 1월 15일(정월대보름)에는 풍년을 기원하였고, 6월 15일(유두)은 벼의 성장 기원, 8월 15일(추석)은 수확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놀이와 의례를 행하였다.



「명치사십년조선민력」 1월(전주 류씨가 제공)



「명치사십년조선민력」 판권(전주 류씨가 제공)

### 3. 근대 비산동의 생업 문화

#### 1) 연초(煙草) 경작

비산동 전주 류씨가 자료 중에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까지 생산된 연초 경작 관련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당시 비산동의 연초 경작 상황을 알 수 있다. 「안양연초경작자계규약」은 안양의 연초경작자조합의 규약으로 일어를 위쪽에, 한글을 아래쪽에 배치한 한글과 일어 혼용 표기이다. 규약에 의하면, 연초경작자계는 안양연초경작자조합의 감리하에 연초 경작의 개량과 「조선연초전매령」에 관한 범칙(犯則)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 계 조직이다.

규약은 계 조직의 운영과 경작의 의무 등 8개 조항으로 작성되었다. 문서 끝부분에는 연초 경작 '총대(總代) 김영옥'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운영조직은 총대 아래 여러 개의 조로 편성되었으나, 조별 명단은 문서 훼손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자료는 안양연초경작조합 산하의 계 조직 규약으로 일제강점기 전매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연초조합이 산하 계 조직에 대해 법률적 구속을 강제하는 문서로 평가된다.

경성전매국에서 발행한 「연초경작지시사항」은 경성전매지국 공시(公示) 제3호 내용을 비롯하여, 연초를 묶는 재료, 한 포(包)의 기준 무게, 연초의 포장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공시(公示) 제3호에는 '조선연초전매령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연초 경작에 관한 지시사항을 1923년부터 적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2〉 경성 담배 공장

전매령 공포 이전	전매령 공포 이후
동아연초회사조선제조소(인의동)	경성전매지국 인의동 공장(仁義洞工場)
동아연초회사조선제조소 태평통 분공장	경성전매지국 태평통 공장(太平通工場)
조선연초회사	경성전매지국 의주통 공장(義州通工場)
동서상회(東西商會)	경성전매지국 서대문 공장(西大門工場)

경성전매지국은 종로구 인의동에서 공장과 창고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는데, 1921년 「조선연초전매령(朝鮮煙草轉賣令)」(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이 공포되면서 담배를 생산하던 민간 공장들은 모두 전매국으로 귀속되었다.

연초공장은 각 공장이 분산되어 있어 경영에 불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서대문공장



「연초경작지시사항」 표지(전주 류씨가 제공)

은 1922년 3월에, 태평통 공장은 같은 해 8월에 폐쇄하고 양절권연(兩切卷煙) 세각연초(細刻煙草)의 생산은 인의동 공장에서, 구부권연(口付卷煙)은 의주통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새로운 담배 상품을 발매하면서 담배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자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태평통 공장을 1923년 2월부터 1925년 8월까지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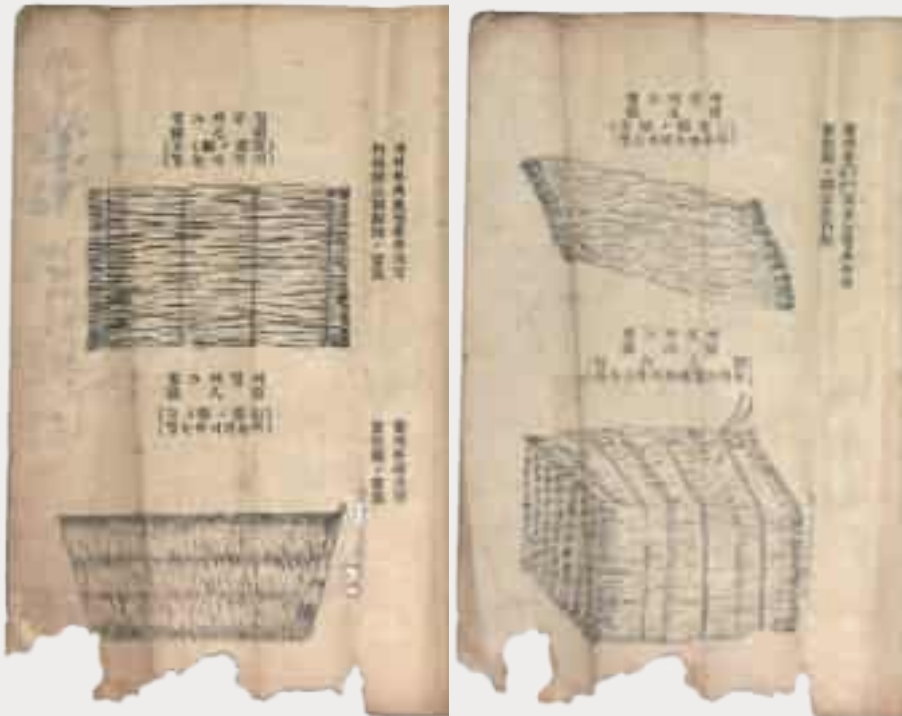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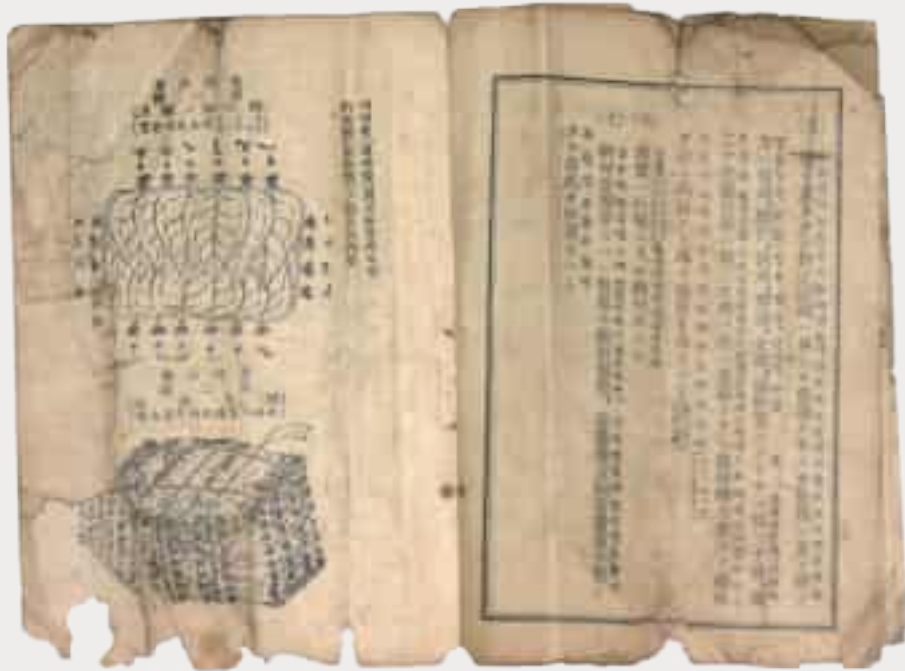
「연초경작지시사항」 19쪽에는 전매 지역별로 재배하는 담배의 품종을 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장단, 용인, 청주, 충주, 영월, 금성 등지에서 연초 재배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연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광범위해지자 상품농업으로도 연초는 유리한 품

목으로 등장하였다. 삼남의 남초(南草), 양서(兩西)의 서초(西草)가 안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래 연초는 조선 각지에서 재배되어 연초의 명칭도 보통 해당 지역의 이름을 붙여 용인초, 청주초 등의 이름이 생겨났다. 용인의 진야(秦野)라는 품종은 일본 하다노 지방의 연초 품종을 말한다.

한편, 「연초경작지시사항」 내지의 빈 면에는 ‘2월 11일 소미(小米) 5포(包) 81엔 5전, 중고비(中庫費) 25전, 마차임(馬車賃) 2엔, 차비(車費) 1엔 30전’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이 메모는 1941년경에 류인근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양연초경작조합통지문」은 1928년 9월 11일 안양연초경작조합장이 류인근에게 발급한 통지문이다. 조합장은 각 리동 조장(組長)에게 통지문을 보냈는데, 류인근의 성명이 문서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비산리의 조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지문은 조(組) 소속 경작자의 연초 수확 연수를 조사부에 기입하도록 앞서 통첩(通牒)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이 공문을 취소하고 조장으로서 연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연초경작자금 대출표」 및 「영수증」은 류인근이 연초 경작을 시작하면서 대출받은 내용에 대한 표와 영수증이다. 대출표는 1928년 7월 5일에 그해 연초 경작 자금 45엔을 대출받은 것이고, 영수증은 11월 29일에 엽연초(葉煙草) 배상금 30엔 37전을 조합



「연초경작지시사항」 내용(전주 류씨가 제공)



「연초경작자계규약」(전주 류씨가 제공)

으로부터 연초 대금으로 받은 총액이다.

류인근이 엽연초를 재배한 총수익은 130엔 37전이고, 조합비(1엔 40전), 대출 원금(45엔)과 이자(2엔 74전), 표시용 말뚝(18전)과 소독약 구매(18전) 등 담배 농사에 들어간 공제징수금 53엔 70전을 제하고 차감하여 76엔 67전의 순수익을 올렸다. 담배 농사를 위한 대출금을 제외한 경비는 8원 70전에 불과하므로, 류인근의 담배 농사 수익률은 총액의 93% 정도에 해당한다. 담배 농사는 매우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자영농이 담배 농사를 지속적으로 한 것은 고수익률 때문이다. 전주 류씨의 담배 농사는 1928년 시작하여 1941년경까지 지속되었다.

「연초매수장」은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에 사는 연초 소매인 류인근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는 1940년 10월 11일부터 1941년 5월경까지 기록된 것인데, 이는 류인근이 1941년 5월 이후에는 연초 재배를 중단하였음을 말해 준다. 「연초매수장」 내지 앞부분에는 5가지의 주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초 매수 대금은 소매인에게서 필히 매월분을 집계하여 월계(月計) 누계를 작성할 것, 둘째, 매수장은 소중히 취급하여 오염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할 것, 셋째, 판매소에서 연초를 매수할 때에는

## 〈연초경작자계규약〉

제1조 이 계는 안양연초경작조합(이하 경작조합) 감리(監理)하에 연초 경작의 개량과 조선연초전매령에 관한 범칙(犯則)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이 계는 ○○리 연초경작자계라 칭하고 본리(本里) 내에 거주하는 연초 경작자로서 조직함. 본리 내에 거주하는 연초 경작자는 이 계에 가맹할 의무가 있음

제3조 이 계는 처무(處務) 편의를 위하여 리내(里內)를 나누어 조를 조직함

제4조 ○○리에 대한 경작조합의 경작 총대(總代)는 이 계의 계장으로서 각 조를 통괄 감독함

제5조 조(組)는 거택(居宅)의 가장 가까운 곳 연초 경작자 10명을 표준으로 설립하여 각자 협의하여 조장(組長) 1명을 선출하도록 함

제6조 조장은 항상 경작조합 지도원 및 경작개량 실행위원과 연락을 도모하여 조내 경작자를 지도 경계하여 제7조 각호를 실행하도록 노력케 함

제7조 조원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실히 지키도록 연대책임을 짐

1. 연초 경작의 개량에 관한 지도 사항을 이행할 것
2. 건조 조리를 완전히 하여 수납(收納)할 때에 건조 불량 또는 조리 불량품의 반려품을 내지 않을 것
3. 경작 연초를 소비·은폐 또는 양도치 않고 완전히 납부할 것
4. 기타 전매관서의 지시·명령을 어기지 말 것

제8조 조원으로서 아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조내 전원에 대하여 이듬해 연초 경작 면적의 배당을 줄이거나, 만약 배당을 아니하고 또 30월 이하의 과태금을 연대로서 경작조합에 출금(出金)케 할지라도 이의(異議)가 없음을 서약함

- 1) 전매령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
- 2) 수량 조사 또는 건량조사양목(乾量調査量目)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부 양목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가 있을 때
- 3)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수납할 때 건조 불량 또는 조리 불량품의 반려품을 낸 자가 있을 때
- 4) 2회 이상의 독려를 받아도 경작개량 필행(必行) 사항을 준수함을 게을리 한 자가 있을 때

위의 항목 경작면적의 배당 또는 과태금은 경작조합에서 이를 결정하고

과태금은 경작조합의 수입으로 함

위 규약을 확실히 지킬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아래에 날인함

소화(昭和)      년    월    일

군(郡) 면(面) 리(里)

연초 경작 총대(總代) 김영옥(金永玉)

연초경작자계

柳寅根

안양연초경작조합장  
이재근에게 보낸  
통지문  
九月十一日

안양연초경작조합장  
이재근에게 보낸  
통지문  
九月十一日

안양연초경작조합장  
이재근에게 보낸  
통지문  
九月十一日

6-30

안양연초경작조합장이 류인근에게 보낸 통지문(전주 류씨가 제공)



연초경작자금 대출표(전주 류씨가 제공)



영수증(전주 류씨가 제공)



「연초매수장」 표지(전주 류씨가 제공)



「연초매수장」에 적힌 주의 사항(전주 류씨가 제공)

The table is titled '債券買受代金集計表' (Table of Collection of Bond Purchase Payment). It features a grid with 12 columns and 10 rows. The columns are labeled with months from right to left: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The rows are labeled with numbers from top to bottom: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The table contains handwritten entries, including the number '1000' in the middle of the grid.

「연초매수장」 연초매수대금 집계표(전주 류씨가 제공)

이 매수장을 지참할 것, 넷째, 연초를 매수할 때에는 매수 전표(傳票)에 계산이 틀렸는지 여부를 검산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 다섯째, 배급원이 정해진 날에 순회하지 않거나 사려고 하는 담배가 없거나 기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소로 통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류인근이 8개월간 작성한 대금의 누계는 384엔 2전에 달한다.

## 2) 농우 구입

「연초매수장」의 내지 뒷부분에는 류인근이 연초의 매수를 통해 농우(農牛)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저금의 목표는 소를 구입하는 것이며, 목표 금액은 100원, 매월 협정액은 2원이며, 통장용 인감도 찍혀 있다. 일제 말기에 전주 류씨가 가정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소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는 농사의 중요한 노동력이다. 소가 없는 사람은 남의 소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소주인 집의 일을 해주는 ‘소 품앗이’ 또는 ‘소품’을 하였다. 이런 풍속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농(中農)의 경우 소를 장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전통사회에서는 그 방식이 여러 가

The image shows a historical document titled "연초매수장" (Yearly Tobacco Purchase Record). It is a ledger with a grid structure. The top header reads "연초매수장" in large characters. Below the header, there are several columns and rows of handwritten text in Korean, recording transactions. The document appears to be a record of tobacco purchases and payments, likely used for accounting or record-keep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농우 마련을 위한 연초매수장



연초매수장 중 통장용 인감이 찍힌 면

지 존재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소 주인의 송아지를 24개월간 키운 뒤, 어미소가 되어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소를 주인에게 돌려 주고 송아지를 본인이 차지하는 방식의 ‘배넷소’와, 다른 사람의 암소를 대신 키워 송아지를 두 번 낳게 한 뒤 두 번째 송아지를 자신이 소유하는 방식의 ‘수양소’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농우 구입 통장은 근대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일본은 한국인이 소를 중시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인 ‘소 보험증권’을 만들기도 하였다. 1897년 6월 대조선보험회사(1895년 설립)가 사육 소에 대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보험료는 소의 크기 상관없이 1마리에 엽전 1냥이었고, 대우(大牛)·중우(中牛)·소우(小牛)와 같은 소의 등급에 따라 100냥, 70냥, 40냥의 보험료가 차등 지급되었다. 보험 조건은 기르던 소가 갑자기 죽거나 소를 도둑맞았을 경우 소의 값을 물어준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소 값이 보통 500냥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에 대해 잘 몰랐던 당시 사람들은 우세(牛稅)가 생겨났다고 분개하였고, 결국 소 보험 제도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100여 일 만에 폐지되었다.

### 3) 양잠(養蠶)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에 거주한 류인근은 1933년 1월 24일에 시흥군농회 회장인 야마다 슌오(山田俊夫)로부터 뽕나무밭(桑田) 품평회에서 2등을 하였다. 일제는 1908년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12년에는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기본 방침은 쌀·면화·양잠·축우 등 4종류에 대하여 개량과 증식을 최대의 과제로 삼는 것이었다. 시흥군농회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농업정책을 앞장서 실천했던 조선농회(朝鮮農會, 1926~1945) 산하 농업단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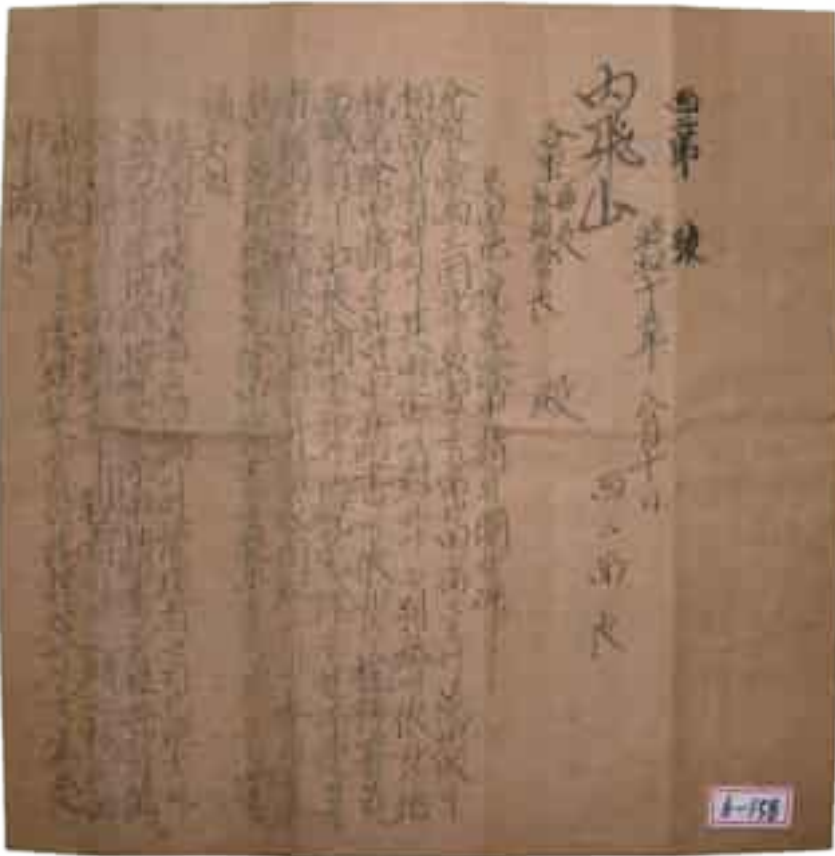
이처럼 양잠은 일제 수탈의 가장 중요한 종목의 하나였다. 생사(生絲)는 당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수출물자였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양잠에 적합하였다. 또한 당시 농촌에는 유희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양잠은 오랜 전통산업으로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시흥군농회 회비 납입고지서(전주 류씨가 제공)



병나무밭(桑田) 품평회에서 2등을 한 류인근(柳寅根)의 상장(전주 류씨가 제공)



재해지 지세 면제 신청에 관한 건(전주 류씨가 제공)

데 어려움이 없었기에 더욱 적합하였다.<sup>7</sup> 류인근이 상을 받은 1933년은 일본이 준전시체제로 바뀌어 가던 시기이고, 세계 경제불황도 겹치며 양잠도 그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장을 부여한 것은 양잠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시흥군농회 회원들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였다.

#### 4) 호우와 지세 면제

「재해지 지세 면제 신청에 관한 건」은 1940년 8월 10일 서이면장 명의로 각 리 구장(區長)과 진흥회장(振興會長)에게 발급된 것이다. 문서의 우측 상단에 ‘내비산(內飛山)’이라고 수신자(受信子)를 적어 놓았고, ‘이번 호우로 인하여 황무지가 된 전답에 대하여 별지로 지세 면제를 신청하면, 신청서에 의하여 세무서원, 면 직원이 출장 조사하여 지세

를 면제할 예정이나 구내(區內)의 전답 피해자에게 철저히 주지하여 이번 달 25일까지 황지성세(荒地成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답 피해자는 물론 관리자는 자기 지주(地主)와 협력하여 황지가 된 지세 면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 전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1940년 7월, 전국적으로 흉수 피해가 대단하였으며, 시흥군 지역의 흉수 피해도 신문에서 언급하고 있다.<sup>8</sup>

## 4. 비산동의 일생의례

### 1) 관례

덕수 장씨가 자료에는 흘기(笏記)와 축사(祝辭) 등의 관례 문서가 있다. 흘기는 관례의 식순을 적은 것이고, 축사는 관례 중 사용되었던 축사를 모은 것이다. 아쉬운 점은 문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관례는 성년(成年) 의례로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진다.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15~20세가 되면 관자(冠子)는 예정일 3일 전에 사당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고(告)하고, 친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에게 빈(賓)이 되기를 청한다. 당일 이 되면 관자·빈·찬(贊)과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재가·삼가의 순서로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여자는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 의식을 행한다.

덕수 장씨의 관례 축사는 초가(初加) 축사, 재가(再加) 축사, 삼가(三加) 축사, 초(醮) 축사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에는 길(吉), 축(祝), 덕(德), 수(壽) 등 길상(吉祥)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吉月令辰日始加元服  
秉爾幼志順爾成德  
壽考維祺以介景福

초가원복

吉月令辰乃申爾服  
謹爾威儀淑慎爾德  
眉壽永年享矣遐福

재가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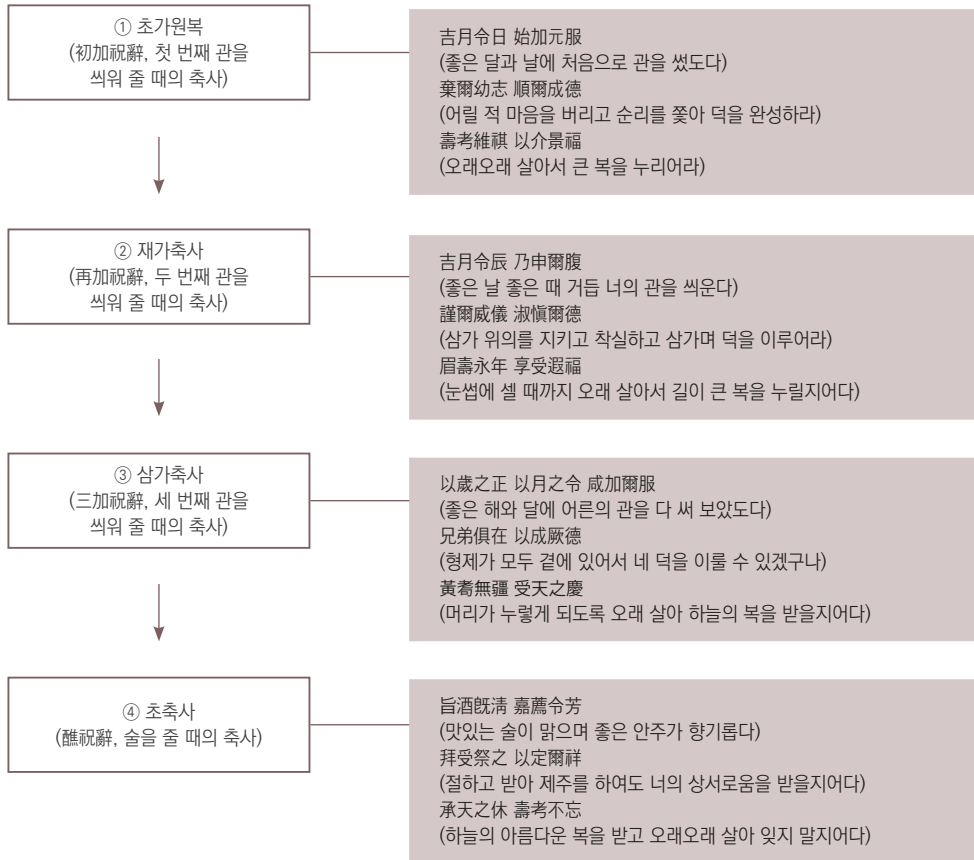
以歲之正以月之令成禮爾服  
兄弟俱在以成厥德  
黃耇無疆受天之慶

삼가축사

音酒既清嘉薦令芳  
拜受祭之以定爾祥  
承天之沐壽考不忘

초축사

## 관례 축사 절차



## 2) 혼례

전주 류씨가 1928년 혼인서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혼인서 한 면에는 신랑과 신부의 거주지·형제 서열·생년월일을 명기하고, 다른 한 면에는 증인의 주소·성명·인장과 면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혼인서」에 근거하면,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 이호술의 장남과 수원군 태장면의 김성기의 장녀가 혼례를 치렀고, 이씨와 김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서이면장 조한구가 인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보통은 만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할 때 부부로 신고하였고, 남편의 족보에 처의 이름을 등



혼인서(전주 류씨가 제공)



내비산의 전통혼례(이석호 제공)

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적 조사는 꼭 3년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고, 족보 등재나 편찬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신고가 강제된 시기는 1909년 3월 민적법 시행 이후이다. 호주가 본인이나 자녀 등의 혼인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여 혼인신고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혼인의 효력은 관습에 따라 혼례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발생하였고, 민적 신고는 혼인을 공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2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호적령을 시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23년 7월 1일부터는 부윤(府尹) 또는 면장에게 혼인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혼인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sup>9</sup>

### 3) 상장례

덕수 장씨의 소장 자료 중에는 「장례부조기(葬禮扶助記)」라는 편지가 있다. 계사년(1843년 또는 1903년) 1월 14일, 이시민(李時敏)이 상을 당한 장 씨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삼·굴병(橘餅)·사탕 등을 보낸다는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부를 생략하고 씁니다. 뜻하지 않은 흥변으로 선부군(先父君)의 상사(喪事)는 놀라고 슬픔의 극에 달하여 오히려 다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효는 망극할 따름이니 어찌 견디겠습니까마는 위로를 드립니다. 상중에 있는 그대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여 탄식할 따름입니다. 예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계사년 1월 14일 이시민이 올립니다. 인삼 3전, 굴병(橘餅) 1원, 사탕 1원을 보냅니다.”

이시민의 장례부조기는 상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과 위로, 부의 물품을 명기하고 있다. 상가에서는 부조용 물품이나 현금을 받으면,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품명·수량·금액 등을 부의록(賻儀錄)에 기록하였다. 현재는 조의금을 부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상장례에 필요한 물품 등을 부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위의 편지에도 인삼·굴병·사탕 등을 부조한 것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부조 물품은 쌀·국수·어물·고기 등의 음식과 술 등으로 다양하며, 고인의 상복을 맞추는 데 필요한 삼베나 광목도 부조하였다. 이때는 ‘광목 ○필’, ‘백지 ○○권’ 식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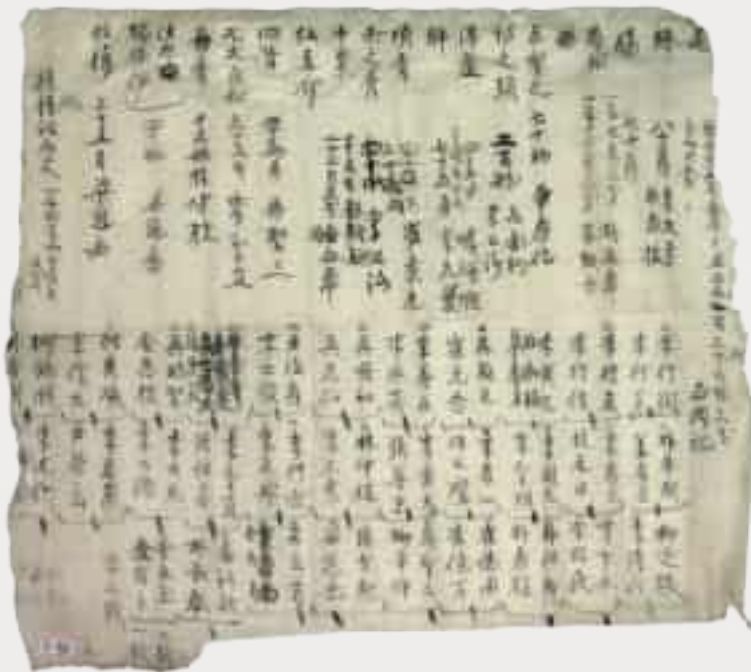


이시민의 장례부조기(덕수 장씨가 제공)

#### 4) 산신제와 쇠고기 분배

전주 류씨가 자료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것으로 짐작되는 두 개의 「정육기(正肉記)」가 있다. 표기 방식과 단위 등으로 보아 마을에서 행해진 고기 분배와 관련된 문서로 보인다. 소는 비싼 가축이고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이기에 마을 주민 전체가 소 구입 비용을 부담하고 제의 후 쇠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기도 하였다.

정육(正肉)은 육류의 뼈와 지방을 발라낸 순살을 가리킨다. 구한말 「정육기」에는 족(足)·간(肝)·장(腸)·갈비(曷非)·도가니(獨眼伊)·홍두개(紅豆介)·사골(四骨) 등 18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는 해당 부위의 가격과 설명을 기입하였다. 소 부위 표기는 대부분 한글과 한자로 음을 달았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4,137냥(兩) 5전(錢)’이란 표기가 보이는데, 이는 쇠고기 총액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 아래에는 16명이 20냥~170냥을 제공한 것으로 적었다. 정육을 분배받은 인원은 총 62명(4명 미상)인데, 문서의 왼쪽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훼손되었어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분배받은 인원 58명은 이(李)씨 25명, 오(吳)씨 6명, 박(朴)씨 5명, 류(柳)씨 4명, 장(張)·최



한말의 정육기(전주 류씨가 제공)



1925년 정육기(전주 류씨가 제공)

(崔)·임(林)씨가 각각 3명, 강(姜)·윤(尹)씨가 각각 2명, 석(石)·양(梁)·권(權)·홍(洪)·임(任)씨가 각각 1명이다. 전주 류씨 집안에서는 류인근(柳寅根), 류석봉(柳錫朋), 류평중(柳平仲), 이름 미상 1명이 참여하였다. 성씨별 숫자는 당시 내비산의 성씨 분포로 보아도 무방하며, 마을 전체 가호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두 명이 합쳐서 1매(枚)씩 총 30매를 구입하였는데, 김영옥(金永玉)은 단독으로 1매를 구입하였다. 김유복(金有卜)은 단독으로 2매를 구입하였고 대가로 37냥 5전을 제공하였다.

1925년에 작성된 정육 분배기는 우측 상단에 ‘을축(乙丑, 1925) 12월 27일 합(合) 141엔(円) 75전(錢)’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정육의 분배를 위한 가격 총액을 말한다. 그 아래에 ‘소 가격(牛價)이 130엔 50전, 운반비(路費) 1엔 40전, 탄가(担價) 4엔, 이자(利子) 5엔 85전’이라고 적혀 있다.

쇠고기의 각 부위 및 그 가격은 구한말 「정육기」의 기재 방식과 같다. 각 부위의 가격 합계는 64엔 25전이고, 그 아래에 28명의 제공자 명단을 기재하였다. 사골의 경우 ‘현금(現金) 입(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시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위별 가격은 <표 4>와 같다.

한편, 양지두(洋之頭)는 소의 가슴 쪽 뼈와 살을 통틀어 이르는 양지머리를 가리키고, 홍두개(紅豆介)는 소의 볼기에 붙은 고기 살을 말한다. 항골(項骨)은 경추, 우심(牛心)은 소의 심장을 말한다.

문서의 아랫부분에는 29명의 명단과 ‘29매 76엔 56전’이라고 합계를 기록하였다. 그 옆에는 ‘264식(式)’이라 적어 쇠고기 1매당 2엔 64전임을 표시하였다. 29명의 명단에는 이씨 7명, 권씨 5명, 박씨·김씨 각 3명, 윤씨 2명, 류씨·최씨·노씨·정씨·심씨·홍씨·강씨·장씨·안씨 각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전주 류씨 집안에서는 류인근과 류석봉이 참여하였다. 구입가 64엔 25전과 29매의 총액 76엔 56전을 합하면 140엔 81전이 된다. 그리고 문서의 우측 하단에는 청색 잉크로 ‘미봉조(未捧條) 324’라 하여 ‘세(貫) 32전, 관악(冠岳) 1엔 33전’ 등을 포함하는 세 항목으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3엔 24전이라 표기하였다.

<표 4> 부위별 가격

부위	가격	부위	가격	부위	가격
머리(頭)	3엔 50전	대장(大腸)	3엔 60전	선골(扇骨)	50전
껍질(皮)	13엔	양(胙)	3엔 20전	사태(沙太)	1엔 80전

부위	가격	부위	가격	부위	가격
다리[足]	2엔	허파(虛派)	2엔 50전	홍막(紅膜)	1엔 30전
대(大)갈비	4엔	항골(項骨)	1엔 65전	콩팥	1엔
소(小)갈비	3엔 90전	살지골(殺之骨)	1엔 30전	우심(牛心)	1엔 35전
양지두(洋之頭)	7엔 80전	홍두개(紅豆介)	1엔 95전	사골(四骨)	60전
간(肝)	2엔 20전	천엽(千葉)	1엔 50전	우낭(牛囊)	1엔 20전

「정육기」는 1925년 10월 초 내비산 산신제에서 각 가호에서 그 값을 치르고 고기를 분배한 문서로 보인다. 고사 비용은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11월 27일에 제의를 주관한 제주가 고사 비용을 걷은 것으로 보인다. 내비산 산신제는 1970년대 사라졌지만, 정육기는 근대 내비산의 공동체적 치성을 보여주는 문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註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246~321쪽.
- 2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하여 1682년(숙종 8) 선전관에 임명된 이후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해남현감(海南縣監), 장흥부사(長興府使), 해미현감(海美縣監), 김해부사(金海府使), 사복장(司僕將),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어영별장(御營別將), 안악군수(安岳郡守), 구성부사(龜城府使), 산산첨사(蒜山僉使) 등을 지냈다.
- 3 전주 류씨가, 『선부군연보(先府君年譜)』; 전주 류씨가, 『전주 류씨 가승』.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299~300쪽.
-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294쪽.
- 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314쪽.
-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잠사업」,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176>).
- 8 「홍수피해 사십만원」, 『조선일보』, 1940년 7월 9일.
- 9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6권 자료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279쪽.

## 제3장

# 매봉산산신제의 전승

---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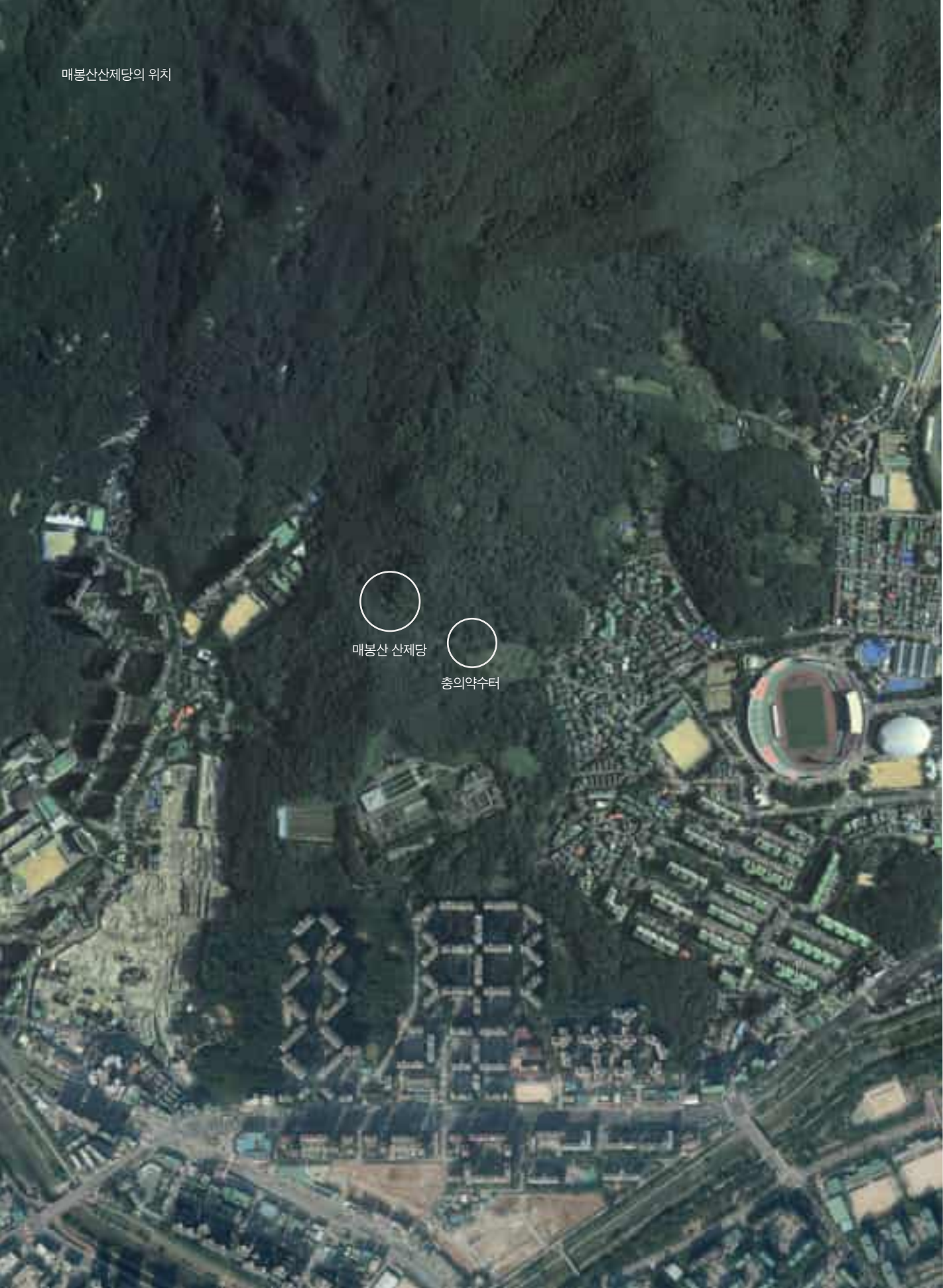
## 1. 매봉산산신제의 유래와 역사

매봉산산신제는 안양시 비산동의 임곡(수푸루지)·운곡(구름울)·매곡(마장골)에서 음력 10월 2일에 지냈던 마을 제사이다. 비산동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뀐 이후 비산1동·2동·3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도시화 이전 매봉산산신제를 지냈던 비산동의 옛 마을은 비산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옛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곡은 ‘수푸루지’로 불리던 곳으로 현재 대림대학교 부근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며, 청송 심씨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구름울’로 불리던 운곡은 현재 비산동의 엘프라우드아파트 일대에 해당하며, 매곡(마장골)은 불리며 현재 안양종합운동장 위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매봉산산신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산동 서쪽 지역인 임곡은 청송 심씨인 심간(沈諫, 1560~1624, 청풍군수 역임)의 후손들이 그의 묘가 있는 곳 아래에 세거하며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비산3동에 속하는 운곡과 매곡은 안동 권씨 정승공파 후손들이 자리 잡으며 마을이 형성되었고, 각각 아랫말과 웃말로 불렸다. 마을들이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생긴 것을 고려한다면, 매봉산산신제 역시 이 일대 마을들이 생겨난 17세기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매봉산산신제는 최근 ‘비산동동고제(洞古祭)’ 혹은 ‘매봉산동고제’로도 불리고 있다. 매봉산산신제가 산신제라는 명칭 대신 동고제로 불리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신제의 전승 조직이 새로 정비되면서 붙여진 명칭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민 중심의 산신제 전승이 어려워지자 2007년에 비산동의 임곡·매곡·운곡마을



매봉산 산제당



충의약수터

이 주축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참가하여 산신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당시 제주는 초대 시의원이자 비산동의 토박이인 허평득이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토박이 중심이었던 매봉산산신제의 전승 조직은 비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었다.

## 2. 매봉산산제당의 제당

매봉산산제당은 비산동 산 139-1에 위치하며, 현재 매봉산 중턱의 배드민턴장 옆에 조성되어 있다. 산제당은 소나무 아래 작은 제단을 갖추고 있으며, 제단 윗부분은 철골 파이프를 세워 비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산제당의 주변으로는 산제당 영역을 표시하는 약 1.5m 높이의 펜스를 세워 외부인이 드나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산제당은 1960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새로 마련한 것이다. 운곡 토박이인 홍필주에 의하면, 본래 산제당은 현재 산제당으로부터 약 150m 올라간 곳에 자리하였다. 그런데 당시 산제당에는 건축물 형식의 제당이 없었으며, 해방 후 정방형의 기와 건물로 산제당을 신축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나무판이 깔려 있었고, 정면에는 허리 높이 정도로 나무 제단이 정면의 출입문을 제외한 3면의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된 제단에는 제물을 진설법에 따라 과일, 고기, 나물 등을 정해진 위치에 올렸으며, 바닥에는 향을 피우는 작은 제단이 있었다. 정면에는 양쪽으로 된 여닫이문이 있었고, 정면의 벽에는 산신제를 지낼 때 산신의 신위를 써서 붙였다.

해방 이후에 마련하였던 산제당은 6·25전쟁 때 지붕 등이 파손되어 벽체만 남아 있었다. 1951년 1·4후퇴 이후 서울 탈환 작전이 시작되면서 수리산 전투에 패한 중공군이 매봉산에 주둔하였었는데, 1951년 2월 무렵에 관악산 전투가 벌어지며 매봉산 일대에도 포격이 있었다. 국군은 관악산 정상을 탈환하고 이 승리를 계기로 한강까지 진출하였으나 당시의 포격으로 매봉산에 있었던 산제당은 지붕과 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산제당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마을 사람 하나가 이곳에서 자살한 사건 때문이었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신성한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니 더 이상 제당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60년 산제당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현재 산제당이 자리하고 있는 터는 운곡 원주민의 사유지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제당을 이전할 때 무녀에게 찾아가 산제당이 새



매봉산산제당 제단

로 자리할 좋은 방향과 자리를 물어 현재 위치에 산제당을 이전하였다. 이 산제당에는 산제당 주변에 울타리를 조성해 신성한 곳임을 알리고, 산제당 안내판을 세워 놓았다. 안내판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제당

이 장소는 산제를 모신 지 약 200년에 이르며 운곡 매곡 임곡 3개 부락 주민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매년 음력 10월 2일에 제사를 모시고 개동의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는 장소이므로 엄숙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운곡 매곡 임곡 주민 일동

산제당에는 큰 참나무 앞, 산 정상 방향을 바라보는 대리석으로 된 두 개의 단을 갖춘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윗단은 대략 가로 130cm·세로 90cm·높이 40cm이며, 향로를 올리는 아랫단은 가로 90cm·세로 28cm·높이 15cm 정도이다. 제단에는 비 가림 용도의 녹색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에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천막 위에 나



매봉산산제당 원경



매봉산산제당 안내판



매봉산산신제 당우물로 사용하던 총의약수터



당우물로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총의약수터 안내문

못있이나 먼지가 쌓여 있고 산제당 공간과 조화로우미 떨어져 전통적인 마을 단위 종교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나 특징을 보여 주는데 아쉬움이 있다.

한편, 산제당으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충의약수터가 있다. 이 약수터는 본래 산신제를 지낼 때 술을 담그고 제물을 만들 때 썼던 바가지 우물이었다. 바가지로 물을 퍼서 조금씩 담아 쓸 정도로 작은 규모의 샘물이었으나, 물맛이 좋다고 알려져 지금은 약수터로 조성되어 있다.



매봉산산제당 제단

산신제에 올리는 밥인 ‘메’는 낫쇠로 만든 작은 솔인 새옹에 지어 올렸는데, 반드시 당우물의 바가지 물을 길어 쌀을 씻고 밥물로 사용해야 하였다. 다른 제물은 당주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올라가지만, 메는 반드시 산제당에서 지어야 하였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2024년의 산신제에서도 산제당에서 메를 지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우물에서 산제당까지의 거리는 약 120m 정도이지만 가파른 길이어서 물을 길어 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지금은 산신제를 지낼 때 약수터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령의 원주민 외에 당우물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을 가진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충의약수터에는 약수터로 이용되기 이전에 산신제를 지낼 때 이용하였던 당우물이었다는 안내문이 있어, 약수터의 유래나 당우물과 약수터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3. 매봉산산신제의 제의와 절차

#### 1) 제관 선정

제관으로는 당주 1명과 제관 3명을 선정하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이 가운데 제관은 임곡·매곡·운곡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하였으며, 축관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 산신제에 올라오는 마을 사람 가운데 당일에 축관을 선정하여 독축을 맡겼다.

여러 제관 가운데 가장 신경 써서 선정하는 제관은 당주였다. 당주는 임곡과 매곡, 운

곡 세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맡도록 선정하였다. 당주는 제사를 준비하는 제관으로 1명이 선정되지만, 실제로 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당주의 부인이다. 당주로 뽑힌 사람의 가족들도 산신제 전까지 조심하며 지냈는데, 이로써 본다면 당주는 한 사람에 국한되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주는 ‘도가(都家)’라고도 불렸다.

당주는 산신제를 앞두고 약 10일 전에 선정하였는데, 그해에 초상이 나거나 병이 없고 집에 우환이 없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사람을 선정하였다. 아이들이 많지 않은 사람을 당주로 선정하는 것은 집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경우 당주로 뽑힌 사람이 조심해서 삼가더라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주로 선정한 사람의 집에는 왼새끼를 걸어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다. 또한, 당주로 선정되면 부부 관계를 금하고, 스스로 불결한 행동을 삼가며, 화를 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선정된 만큼 털끝 하나라도 부정할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였다. 당주로 선정된 이후에는 부고를 받아도 참석하지 않으며, 가능한 마을 밖 먼 곳으로 가지 않고 금기를 지켰다.

제관뿐만 아니라 산신제를 보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나 집안에 불결한 일이 있는 경우 스스로 올라오지 않았고, 정갈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왔다. 여성들 가운데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산신제 지내는 날에 월경 중이지 않은 여성이어야 했다. 산신제를 올리는 제당에는 스스로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만 올라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산동 일대의 재개발과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토박이 중심의 산신제는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참여해 온 토박이들이 고령화되면서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비산동의 주민이자 안양시 초대 시의원인 허평득을 제관으로 세워 산신제를 이어갔으며, 산신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에는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이어가게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산신제의 전승 단체로 나서면서 나타난 변화는 제관을 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관을 선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2024년 산신제의 경우 여성인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관이 되어 술과 절을 올렸다. 전통적인 산신제의 제관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주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새마을부녀회가 제물을 준비하여 당주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매봉산산신제에 참가한 비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2) 제의 비용

도시화 이전 매봉산산신제에는 매곡·운곡·임곡 3개의 마을에서 각각 당주와 제관과 당주를 뽑았다. 제관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제사 비용을 거뒀는데, 집안 형편에 따라 쌀을 내거나 돈을 내기도 하였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매해 쌀 한 말을 내거나 막걸리 한 통 값을 내는 집도 있었다. 이렇게 모인 쌀로는 떡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제사 후 산신제 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음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제사 비용은 우선 제사를 지내기 전에 마을마다 얼마나 걷혔는지를 총무가 계산해서 미리 보고하였다. 걷힌 제사 비용을 가늠해 제물과 음복에 나눠 먹을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다. 제사 후 결산하여 마을 이장들과 제관들에게 알리고, 남은 금액은 별도의 통장에 넣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매봉산산신제의 제사 비용 부분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도시화 이전 원주민 중심으로 산신제가 전승되던 당시, 산신제 제물로 소머리가 두 개나 올려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산신제의 제물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상태였음

을 보여준다. 산신제의 여러 제물 가운데 소머리는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제물이다. 보통은 비용 부담 때문에 돼지머리나 쇠고기 적 등으로 대체하여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소머리를 장만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임곡·운곡·매곡 세 마을에서 걷은 제사 비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 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쌀을 한 말을 내거나 술 한 통을 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산신제를 통해 마을 내에서 부가 마을 구성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제의 비용을 따로 걷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안양문화원에서 안양 관내 마을 제사에 제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비용은 산신제 제물을 장만하고 제사 준비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제물

도시화 이전의 산신제 제물로는 소머리와 새옹에 지은 밥, 시루떡, 사과·배, 삼색실과 등을 올렸다. 술은 주로 막걸리를 이용하였다. 이 가운데 메는 다른 제물과 달리 산신제 제당에서 직접 지어 올렸다. 당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산제당 옆에서 직접 불을 때서 새옹밥을 지었는데, 새옹에 지은 밥은 새옹째로 제단에 올렸다. 다른 제물은 당주의 집에서 당주의 부인이 직접 만들고, 당주와 제관들이 지게에 지고 올라왔다.

소머리는 정육점에서 소머리를 사다가 당주의 집에서 가마솥에 넣고 삶아 올리기도 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제물로 바로 진설할 수 있도록 정육점에 주문하여 마련하였다. 정육점에 주문하여 소머리를 장만할 때는 정육점에서 소머리털의 일부분을 남겨 황소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장만해야 하므로, 제관들은 남겨진 털이 황소의 털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소머리는 산신제를 마친 뒤 현장에서 잘라서 함께 음복하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푹 삶아 오는데, 이렇게 삶게 되면 소머리의 고기와 뼈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산신제의 제물로 올리는 소머리는 뼈에서 분리된 고기와 함께 뼈도 함지박에 담아서 제물로 올렸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산제당 옆 나무 밑에 소뼈를 묻어 두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소머리 전체를 통째로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봉산산신제에서는 소머리를 두 개 올린 시기도 있었다. 같은 제



2024년 매봉산산신제 제물로 올린 메와 탕국을 조리하는 모습

물을 두 개 올리는 경우 산신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하여 이에 따라 각각의 뚝으로 제물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매봉산산신제에서는 산신의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화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봉산산신제를 참관하기 위해 올라오는 마을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물을 조금씩이라도 잘라서 싸 보내야 하였기 때문에 제물을 넉넉하게 준비하였다는 사실이다.

한편, 산신제에는 산신제에 올릴 떡 외에도 음복에 나눠 먹을 떡을 별도로 더 준비하였다. 이 떡은 산신제에 온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난 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떡 한 조각과 제물로 올렸던 과일과 적 등을 다 잘라서 한 조각씩이라도 나눠서 창호지에 싸서 제사 비용의 추렴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를 ‘봉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기’라고도 하는데, 산신제를 지내고 난 음식이라 재수가 좋고 한 해 동안 나쁜 일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봉송을 받은 집에서는 식구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산신제의 제물과 음복을 위한 음식의 준비는 비산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맡고 있다. 마을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기 전에는 원주민 가정에서 도맡아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러



2024년 매봉산산신제 제물

나 고령으로 준비가 어려워지자 몇 해 전부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 하루 전날 새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부녀회원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제물을 만들었다. 제물로는 두부적과 삼색나물, 사과, 감, 꽃감, 배, 다시마튀각, 시루떡과 통복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시루떡을 제외하고 각종 적이나 나물은 직접 만들어 올리는 제물이다. 산신제에는 꼭 통복어를 준비하고 있다. 통복어 대신 제사에 복어포를 올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봉산산신제를 지낼 때는 통복어를 올리도록 산신제를 이어왔던 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복어포를 올리지 않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납작하게 펴서 말려진 복어포가 머리와 꼬리, 내장이 없어 온전하고 정성이 깃든 제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물 가운데 메와 탕은 산신제당에서 직접 조리하고 있다. 이것은 예전부터 산신제를 지낼 때 다른 제물과 달리 산제당에서 직접 조리하고 있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다. 나물과 각종 적, 다시마튀각 등을 예법에 맞추어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고, 소머리는 그대로 올리지 않고 소머리 1개를 편육으로 만들어 두 덩어리를 올렸다. 예전에는 소머리를 사서 가마솥에 삶아서 준비하였지만, 지금은 가마솥을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 소

머리를 제물로 올리기 위해 손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머리 대신 편육으로 준비하면 서부터는 제사 후 음복 시 잘라서 먹기에도 편한 이점이 있다.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 가운데는 제사를 올리고 난 후 음복할 때 먹을 음식도 있었다. 산신제가 음력 10월이다 보니 2023년에는 날씨가 매우 쌀쌀하였다. 음복할 때 너무 추웠기 때문에 따끈한 국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2024년에는 김치콩나물국을 준비하였다. 산신제에는 비산동에서 80여 명이 넘게 참석하였고, 산제당이 등산로를 끼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음복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 4) 제 지내기

매봉산산신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을 제일로 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음력 10월 2일인 11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산신제에는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고문,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율방재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그 외도 각 동의 동장과 직원, 안양문화원의 직원과 안양문화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등이 참여하였다.

오전 9시 30분 무렵부터 제물을 진설하였고, 제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관복으로 환복하였다. 산신제 제관복은 안양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안양문화원 서포터즈가 산신제 현장에 나와서 산신제를 위해 환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안양문화원의 이러한 지원은 제관복을 평소에 입을 기회가 없으므로, 제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입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지원 사례이다.

매봉산산신제는 내빈 소개 이후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음복례, 사신, 소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의 초헌관은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장, 아헌관은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장, 종헌관은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맡았으며, 독축관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맡았다. 좌집사와 우집사는 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집례는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매봉산산신제의 이러한 절차는 안양문화원이 2012년부터 안양 관내의 마을 제사를 지원하면서 사직제를 준용해 참고하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안양문화원에서는 이 절차를 그대로 고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참고하여 각 마을의 상황에 부합한 절차로 산신제를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매봉산산신제에서는 이 절차와 축문을 그대로

## 2024년 매봉산산신제



1 2024년 매봉산산신제 제물 진설



2 2024년 매봉산산신제 내빈 소개



4 독축



6 음복례



3 강신례



5 아헌례



7 산신제 제관들의 절차 후 절을 올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8 망료례



2024년 매봉산산신제 음복을 준비하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로 적용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초헌관이 먼저 강신과 분향을 한 이후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절을 올리는 참신이 이루어졌다. 참신례 이후에는 초헌과 독축, 아헌, 종헌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 축문

단기 4357년 갑진년 을해월 경오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고제는 신령님께 감히 고하나이다.

저희는 우리 마을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신령님을 공경하옵고 마을의 화복이 신령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존귀하신 신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맞추어 제를 올리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에 제물과 술을 올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소서.

각 제관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비산1동·2동·3동 동장이 차례로 절을 올리고, 참가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동별로 단체를 이뤄 술과 절을 올렸다. 각 동의 동장이나 주



2024년 매봉산산신제 후 같이 모여 음복하는 사람들

민자치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동 단위로 함께 절을 올린 후 소지의 절차로 산신제가 마무리되었다.

## 5) 음복

도시화 이전 원주민 중심으로 산신제를 지낼 때는 제사를 다 지낸 후에는 헌식이 이루어졌다. 헌식이란 산신제에 올렸던 제물을 골고루 잘라 창호지에 싸서 산제당의 나무에 묶어 두는 것이다. 이것은 산제당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산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산신의 복이 담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매봉산산신제에서는 헌식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산신제를 마치면 산제당 앞에 자리를 깔고 음복하였다. 예전에는 음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쇠머리 고기와 떡, 과일 등을 조금씩 창호지에 싸서 반기를 돌렸다. 산신제에 올렸던 음식은 재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024년에는 산제당에 올라온 사람들이 음복에 참여하였다. 산제당 앞부분에 자리를 깔고 떡과 쇠머리고기, 나물과 적

등 제물을 나눠 먹었다. 2024년은 80명 이상의 사람이 산신제에 참가하였고 산신제를 마친 후 음복이 이어졌다.

#### 4. 매봉산산신제의 변화와 지속

매봉산산신제는 비산동 일대의 도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승되고 있다. 산신제가 시작된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마을 제사가 마을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에 마을이 처음 생겨난 임곡마을의 설촌 시기와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도시화 이전까지는 운곡이나 매곡 등도 같이 참여하며 비산동 일대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왔다.

비산동 일대에 인구가 늘고 산신제를 주관하던 원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현재 매봉산산신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승 조직이 꾸려져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 중심의 산신제에는 전통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남성인 당주와 제관을 선정하고 일정한 금기를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성 중심으로 제관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여성도 제관으로 참여하고 제물을 담당하는 당주의 역할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새마을부녀회가 담당하면서 별도의 당주를 두고 있지 않다. 특정한 사람이나 집에서 산신제를 주관하여 준비하고 이에 따른 금기를 지켜야 하는 금기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사 비용의 마련이나 제사 절차, 축문의 작성과 같이 다소 어려운 과정이나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하는 것에서도 자유롭다. 제사 경비도 지원받으며, 제사의 절차나 축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정보를 주고 있으며, 제사에 입을 복장까지도 준비는 물론 환복에 이르는 과정까지 지원받고 있다. 매봉산산신제의 상당 부분은 공적인 영역의 도움을 받으며 공정 영역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변화 속에서도 매봉산산신제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의 매봉산산신제의 전승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문화원 등이 함께 일정한 역할을 하며 매봉산산신제의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신제는 전통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재액초복을 비는 종교적 의례이자,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제비를 마련하며 제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산동 주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매봉산산신제

는 도시화 이전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며 지내는 현재의 매봉산산신제는 비산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음복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비산동 마을 공동체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제1장

# 비산동 아파트지구의 형성과 변화

김형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1.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1970년대부터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수도권 중심 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었고, 수도권 중심의 주거, 주택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주택 250만 호 건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은 대부분 단독주택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주택 250만 호 건설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만으로는 공급량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10년 안에 2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대규모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넓은 면적의 대규모 필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했고,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 1) 법적 제도 마련

정부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도시화 및 주택개발을 추진하였다. 1962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정의, 사업대상지, 시행 절차, 청산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기타 미비한 사항은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19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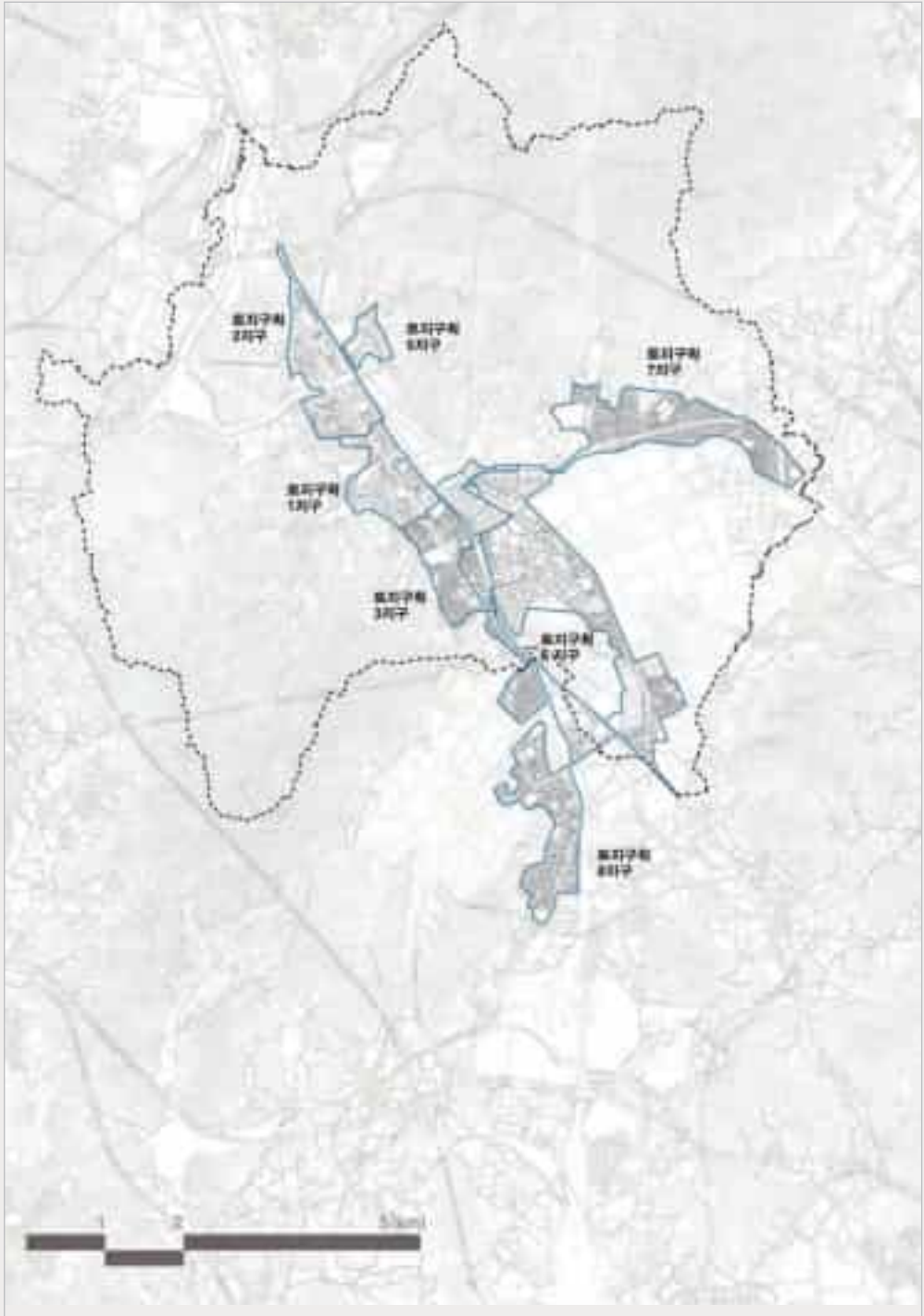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시가지계획령으로 존속되다가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고, 19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본격 제정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었다. 또한, 1972년 250만 호 주택 건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도 제정되면서 주택 보급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다시금 1976년 1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지구를 제도화하였으며, 1977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불량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 등을 통해 서울 등 대도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되고 대대적으로 주택공급에 집중하게 되었다.

## 2) 비산동 아파트지구 지정

안양은 1949년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된 이후 1970년대까지 태평방직, 한국특수제지, 현대양행, 금성사 등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건립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약 9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안양이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가 확장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안양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53년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1978년 제8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는 1990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비산동은 1973년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78년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었다. 1973년에 시작한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산사거리 주변 비산2동 일부와 안양7동 공장지대 일부, 호계2동 일부, 호계1동 신사거리 의왕시 인접 지역 286만 863㎡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수산업도로가 개설되고, 도로 주변 부지가 대지화되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약 7년에의 과정을 거쳐 1979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8년에 시작하였으며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169만 3,499㎡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6·7차 토지구획정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지구 위치도(안양시청 제공)

## 1974년 비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산동 택지조성공사(1974년, 이정범 제공)

리사업을 통해 비산동 일대는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었고, 안양시는 비산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1977년 9월 9일 건설부에 안양 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두 달 후 건설부는 안양시가 신청한 아파트지구 결정을 승인하고 1977년 11월 9일부로 비산동 일부 지역 21만 5,566㎡(6만 5,200평) 규모의 안양 도시계획 아파트지구로 결정 고시한다(건설부고시 제224호, 1977년 11월 9일). 이곳은 현재의 비산동 롯데캐슬과 삼성래미안이 자리한 곳이다. 지구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안양시는 수도 서울과 직접 연결된 도시로서 매년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어 현재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택지 수급은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현 상태에서 택지 부족으로 서민(무주택자)을 위한 주택 건립이 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함이며,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보다 유효 적절히 활용함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건축을 배열하여 건물을 극대화 사용함에는 아파트를 건설함이 현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므로 서민 부담의 경감과 다수 입주의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아파트입주에 의거 집단화 거주자로 주민 협동 정신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부상조하는 새마을 정신의 기틀을 마련함과 자립정신의 함양을 고취하여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안양 도시 발전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1977년 비산동 첫 번째 아파트지구인 비산지구가 지정되고 다음 해인 1978년 12월에는 비산동 354-1번지, 258-28번지, 341-104번지, 361의 3필지 등 12만 3,620㎡ 일대가 두 번째 아파트지구인 매곡지구로 지정되었다. 비산동의 두 번째 아파트지구인 매곡지구는 1980년 5월부터 1988년 6월까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통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라진 2,052세대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이다.

〈표 1〉 비산동 아파트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	지정연도	지구면적(㎡)	사업주체	사업기간	세대수
비산지구	1977	215,566	대한주택공사 미룡건설(주)	-	비산주공 : 2,892세대 미룡 : 576세대 총 3,468세대
매곡지구	1978	123,620	삼호(주)	1980년 5월~ 1988년 6월	뉴타운맨션삼호 : 2,052세대

자료 : 안양시 건축과, 『아파트지구관계철』, 1978.



건설부고시 제224호 안양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정(1977년 11월 9일, 안양시청 제공)

## 2. 비산동 아파트 건립

### 1) 임곡아파트와 비산동임대아파트 건설(1976)

#### (1) 임곡아파트(시민아파트)

1977년 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비산동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지정되기 이전인 1976년 5월과 6월에 비산동 일대엔 이미 아파트 2개 단지가 건립되고 있었다. 바로 시민아파트(임곡아파트)와 비산동임대아파트이다.

시민아파트의 초기 공사명은 '임곡아파트'로 1977년 완공 후에는 시민아파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 아파트는 안양시가 사업 주체가 되어 건설한 것으로, 1975년 새마을



1976년 비산동 지도 ① 임곡아파트(시민아파트), ② 비산동임대아파트(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0년대 비산동 시민(임곡)아파트 전경(이정범 제공)

운동의 일환인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97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76 국민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건립 목적은 비산동 산 187번지 일대 무허가 불량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비산동 374번지 및 376번지에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표 2〉 임곡아파트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세대수	평형	동수/층수
2,640	683.69	3,432	80	13	2/5

건축규모는 총 2동(동당 40가구)으로, 총 80가구가 입주하였다. 건축면적은 683.69㎡, 연면적은 3,260.67㎡였으며, 세대당 13평 규모로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발코니를 갖춘 국민주택형 구조였다. 시공은 경남공영주식회사가 맡았고, 총사업비는 1억 9,378만 원이었다. 설계는 1976년 4월, 착공은 같은 해 6월 21일, 그리고 준공은 12월 28일로 단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당시 아파트 개발 붐이 일던 상황에서 5층 아파트 2동이 불과 6개월 만에 완공된 사례는 당시의 주택 건설 속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산동 주공아파트 건설 예정지(1970년대, 이정범 제공)

## (2) 비산동임대아파트

비산동임대아파트도 시민아파트와 같은 시기인 1976년에 건립되었다. 제6차 안양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중 일부 8,640.1평(6블록/비산동 415번지)에 13평형 임대아파트 8동 370세대를 건립하고자 고시하였다(건설부고시 제86호, 1976년 6월 14일). 1976년 11월 아파트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1977년 12월에 준공하였다. 국민임대 3개 동(5층 규모 140세대), 국민분양 5개 동(5층 규모 230세대)으로 총 8개 동 370세대를 건설하였다. 대부분 추첨을 통해 입주하였으며, 비산동 철거민 46세대와 원호대상자(국가유공자) 19세대도 배정받아 입주하였다.

## 2) 비산지구 아파트 건설(1977~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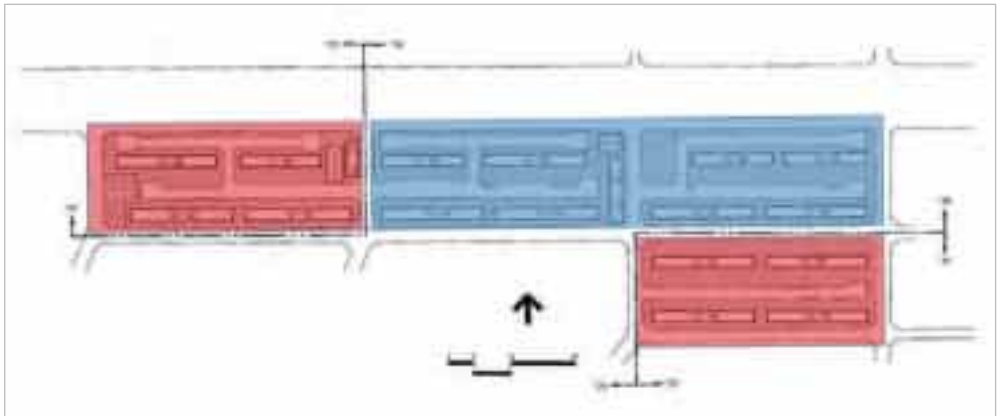
1970년 중반까지 아파트 개발은 공공(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이뤄졌다. 1977년 11월 비산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본격적인 아파트 건립이 시작되었다. 특히, 비산동을 중심

으로 공공 주도 대규모 거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 개발로 비산주공1단지아파트와 비산주공2단지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이들의 초기 사업명은 비산동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비산2주택단지 건설사업이다. 이들은 총 2,892세대로, 비산동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이면서 안양에서도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로 자리 잡게 된다.

(1) 비산주공1단지아파트(비산임대아파트, 1976~1977)

비산주공1단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로 건설한 공공 임대아파트(주공아파트)이며, 초기 사업명은 비산임대아파트이다. 이 단지는 1976년에 건설된 비산동 임대아파트 8개 동과 이후 추가로 조성된 8개 동이 합쳐지며 조성되었다.

1967년 비산동임대아파트 건설 이후 1977년 11월 비산동 아파트지구가 지정되면서 건설부는 1977년 12월 19일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총 13평형 390세대(국민임대)를 추가 건립할 것을 승인(건설부고시 제255호, 1977년 12월 19일)하였다. 정리하면, 1976년 사업분 8개 동과 1977년 지구 지정 이후 건립된 8개 동이 합쳐져 총 16개 동 규모의 비산주공1단지아파트가 완성된 것이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조성되었다. 점포 8개소, 관리동 1동, 새마을회관 1동, 초소 3개소, 어린이 놀이터 2개, 주차장 87대분, 자전거 보관소 20대분, 저수조 1개소, 비상우물 3개소 등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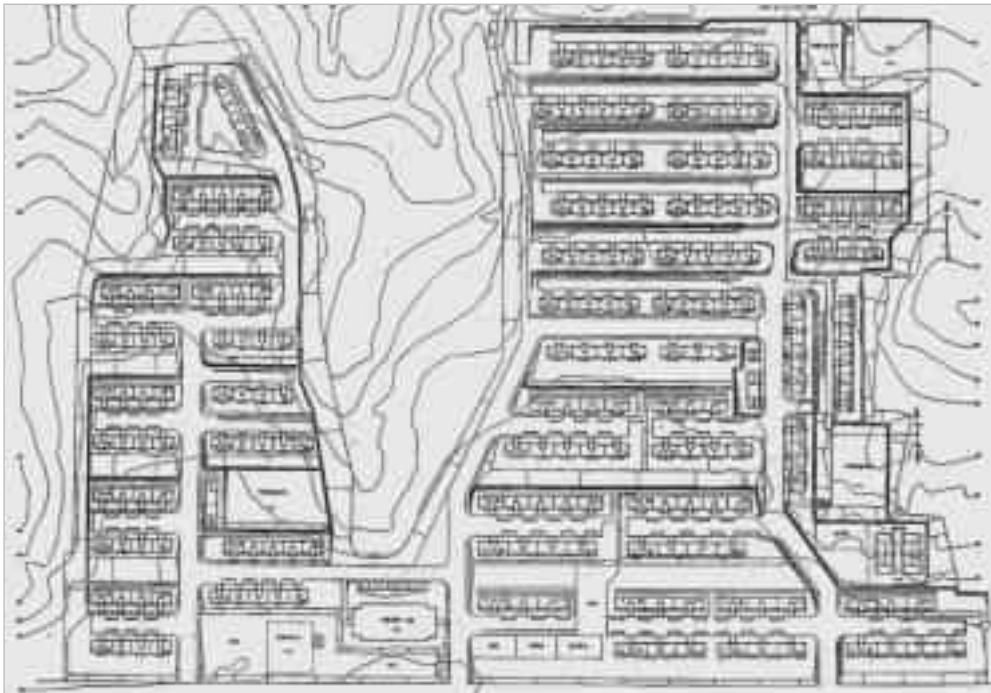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배치도(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1978)  
파란색은 1976년 사업분, 빨간색은 1977년 추가 사업분이다.

〈표 3〉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세대수	평형	동수/층수
28,651	7,252	34,304	760	13	16/5

(2) 비산주공2단지아파트(안양비산2주택단지, 1979)

비산주공1단지아파트가 완공된 뒤, 맞은편 부지인 비산동 459-1 외 226필지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였다. 초기 사업명은 안양비산2주택단지이며, 비산동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주택 200만 호 계획과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건설한 당시 안양 최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총 2,330 세대이며, 대지면적 14만 3,649㎡, 건축면적 2만 2,314㎡, 연면적 10만 7,207㎡이며, 평형은 10평형, 13평형, 15평형, 17평형으로 총 35개 동(5층 규모)으로 건립되었다. 사업 기간은 1977년 12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2년이 소요되었다. 10평형 100세대, 13평형 1,530세대, 15평형 400세대, 17평형 300세대로 총 54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배치도(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1978)



1977년 비산동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수재민들(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7년 수해로 인해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자, 마침 완공된 비산동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하였다.





1984년 비산2단지주공아파트 전경(동안구청 제공)

〈표 4〉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세대수	평형	동수/층수
143,649	22,314	107,207	2,330	10, 13, 15, 17	54/5

비산주공2단지아파트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건설되다 보니 아파트 내에 주택용지, 상가 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단지 계획을 마련하여 건립하였다. 특히 단지 내에 병원, 목욕탕, 농구장, 정구장 등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 비산동 민간 아파트 건립(1979~1988)

1970년대까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만 주택 건설·공급·건립·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1972년 250만 호 주택 건설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중심의 주택 건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이 드러났



1980년대 초 비산동 전경(안양시청 제공)

① 임곡아파트 ②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③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④ 비산삼익아파트 ⑤ 미릉아파트 ⑥ 뉴타운 삼호아파트 부지

다. 이에 따라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공공주택은 물론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 시공 계획 및 분양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면, 입주자 선정 등 분양 방법과 주택의 관리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에 의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개발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였다.<sup>1</sup> 이는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당시 주택 건설업자의 등록제와 우수업자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 건설사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정책은 SOC 사업과 중동 건설 붐에 힘입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국내 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하였고, 국내 주택 건설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확대는 1978년부터 비산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간 건설사들은 비산동에 고층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아파트가 비산삼익아파트·미릉아파트·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등이다. 비산삼익아파트와 미릉아파트

는 1979년에 완공하여 입주하였으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1981년 1차·2차·3차를 시작으로 1988년 6차까지 입주하여 비산동의 주거 단지를 형성하였다.

### (1) 비산삼익아파트(1978)

1978년 비산동에 세워진 비산삼익아파트는 삼익토건과 삼익상선이 합병한 삼익상사의 첫 사업이었다. 비산삼익아파트는 1978년 당시 안양 최대 민간 규모인 774세대(13층 ㄷ자형 3개 동)인 대단지 아파트였다. 19평형 188세대, 23평형 312세대, 32평형 162세대, 34평형 64세대, 44평형 48세대로 구성되었다. 공공에서 주도하던 종전의 13평형 국민주택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들의 취향 및 가족 수를 고려하여 평수를 선택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비산삼익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55만 8,000원으로 당시 최저 분양가였기에 서울 및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당시 서울 고층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0만~69만 7,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최고 13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하였다. 또한 10분 거리에 과천 제2종합청사와 서울대공원 등이 개발 중이었고 동작대교도 건설 중이라 서울까지 2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비산삼익아파트는 두 차례 분양하였는데, 1차분 19평 52가구, 24평 156가구, 32평 26가구분 구성이 매진되기도 하였다. 당시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분양이 시작된 나머지 2차분도 순조롭게 분양되었다.

### (2) 미룡아파트(1978)

1979년에는 미룡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파트이다. 미룡아파트는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옆 비산동 418번지 일대에 2만 2,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7개 동으로 건립하였다. 전체 건축 연면적이 6만 172㎡이며, 28평 264세대, 35평 312세대로 총 576세대로 구성되었다. 당시 평당 예정 분양 가격을 60만 원 초반으로 설정하였으나, 인근 비산삼익아파트의 낮은 분양가와 분양시장의 불경기 등을 고려하여 당초 분양 가격을 재조정하여 비산삼익아파트와 비슷한 분양가인 평당 55만 원에 분양하였다. 당시 28평형은 1,540만 원, 35평형은 1,925만 원에 분양되었다. 미룡아파트도 비산동의 편리한 교통 환경과 낮은 분양가를 내세워 서울 및 수도권에 사는 실거주자를 공략하였다. 특히, 미룡아파트는 건물에 못이



1981년 비산삼익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제공)



1988년 비산동 미롱아파트(안양시청 제공)

잘 박히지 않을 만큼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었다고 평이 좋았으며, 경수산업대로와 비산주공1·2단지아파트가 인접하여 비산동 내에서도 주거환경으로 좋기로 명성이 난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다.

### (3)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1981~1988)

1977년 비산아파트지구가 지정되고 다음 해 1978년 비산3동 일대 12만 3,620㎡가 매곡지구로 지정되면서 비산동에 추가로 아파트지구가 개발되었다. 1979년 6월 삼호주택은 비산동 354번지 일대 매곡지구 대지 2만 평을 매입하여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건설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라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이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삼호아파트’·‘삼호맨션’으로도 불렸으며, 총 21개 동 2,05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비산동의 새로운 아파트 부흥기를 불어넣은 단지였다. 이 아파트는 당시 비교적 낮은 분양가인 평당 75만 원으로 분양하였고, 비산동 여느 아파트처럼 최대 강점인 서울 접근성을 내세워 서민형 아파트라는 장점을 강조하며 서울 시민의 이주를 겨냥하였다. 삼호아파트는 총 5차례 분양하였다. 1981년 1~3단지 8동 912세대, 1985년 4단지 4동 474세대, 5단지 5동 540세대, 6단지 4동 126세대가 입주하였다. 그중 2단지 일부 372



1988년 뉴타운삼호맨션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제공)

세대에 대해서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할당하였으며, 5~6차 분양 시에는 일부 미분양분이 발생해 선착순 분양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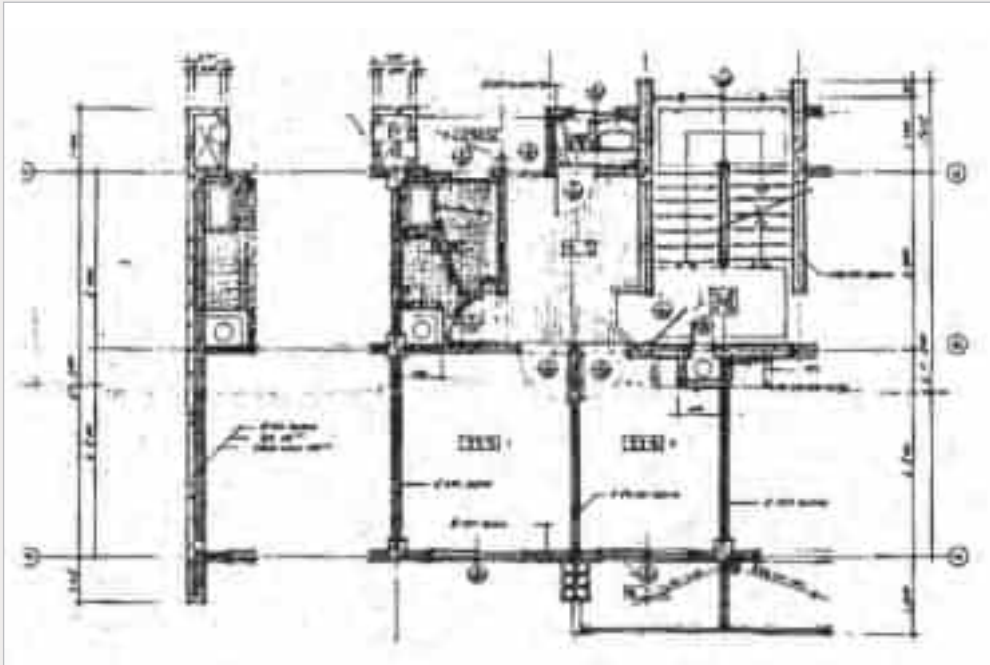
### 3) 1970년대 비산동 아파트의 평형 구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률이 매우 높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경제 개발로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었고, 수도권 중심의 주거, 주택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설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하였고, 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다. 또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노후 주택 및 무허가 불량주택 정비사업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에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건설된 것은 1930년대 일본에 의해서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이다. 1950년대 말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후생주택', '재건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행촌아파트(1956년), 종암아파트(1958년) 등을 지으면서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아파트들을 건설하였다. 1964년 마포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정동아파트(1965년), 동대문아파트(1965년) 등이 건설되었으며, 1967년 국내 최초 고층아파트인 힐탑아파트(11층),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1969년) 등이 건설되었다. 당시는 대부분 13평 내외의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용 아파트로 건설되었다. 1970년에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지가 상승이 심화되자,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고밀도 주거형식의 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12층), 압구정현대아파트(12~15층), 잠실주공5단지아파트(15층) 등이 건설되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만이 하던 아파트 건설을 민간주택건설업체(민간사업자)에게도 권한을 확대하여 아파트 건설에 동참하게 하여, 국내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건설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경기에 맞춰 비산동에도 관악대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건설되었다. 1976년 시민아파트(임곡아파트)를 시작으로, 같은 해 비산동 임대아파트(비산주공1단지아파트), 1979년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등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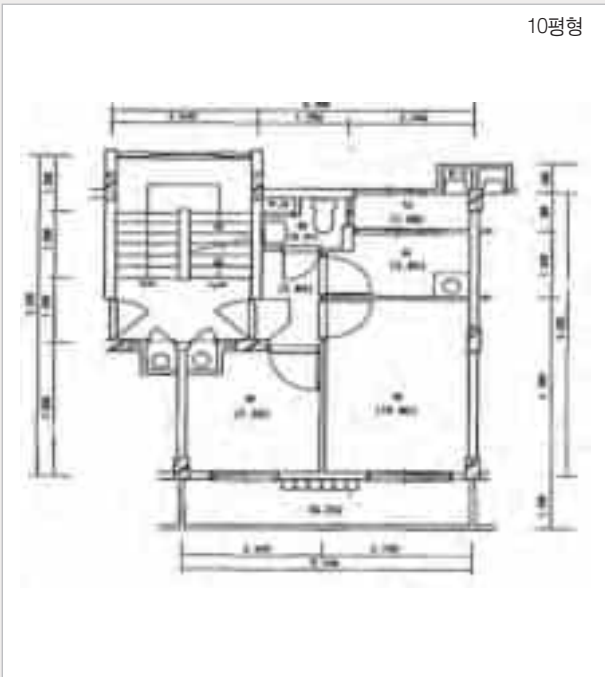


임곡아파트(시민아파트) 설계도(1976년, 안양시 표준기록물시스템 제공)



비산동 임대아파트(비산주공1단지아파트) 13평형 평면도(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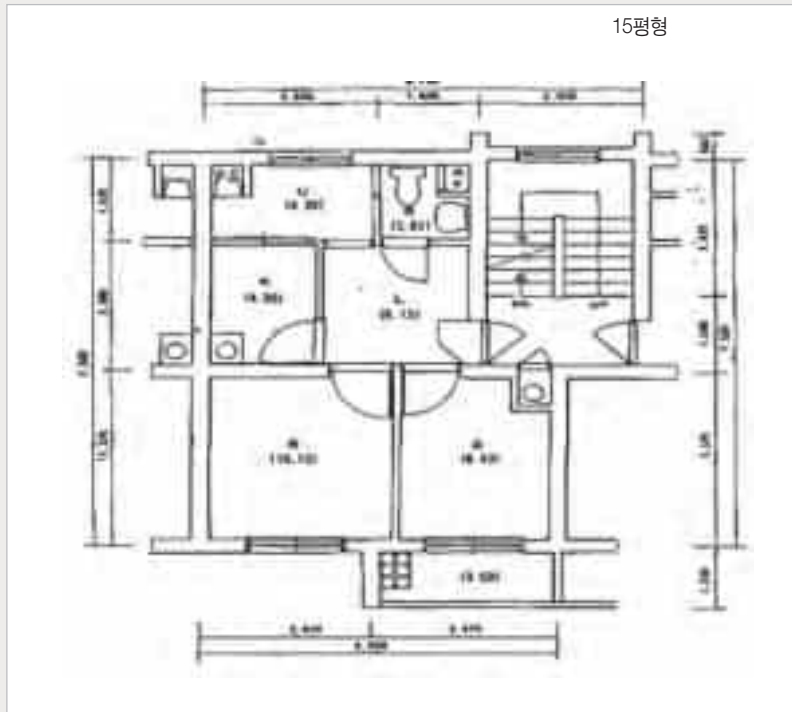
10평형



13평형



15평형



비산주공2단지아파트 평면도(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1978)

비산동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시민아파트는 13평형, 5층짜리 2개 동, 총 80세대로 구성되었다. 당시 계단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1개, 전면부 발코니로 이루어진 형태였다. 거실이 중심 공간에 위치하고, 부엌 옆에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산동 임대아파트(비산주공1단지아파트)는 전 세대 760세대 모두 13평형으로,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1개, 발코니로 구성된 서민형 주거 형식의 아파트로 설계되었다. 비산주공2단지아파트는 1단지와 달리 3개의 평형(10평형, 13평형, 1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2개, 거실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1개, 발코니로, 평형만 다양해졌을 뿐 공간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게 설계되었다.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과 1977년 안양 도시계획에 따른 비산동 아파트지구 지정으로 본격적으로 비산동 일대에 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주택공사 중심이던 아파트 건설이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되면서, 비산동에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비산주공1·2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근에는 삼익상사의 비산삼익아파트(1978년), 미륭건설의 미륭아파트(1979년) 등이 들어섰다. 이러한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의한 주택 보급 확대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층아파트로 건설되었으며, 13~15평형의 국민평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들은 입주자들의 취향과 가족 수를 고려하여 27~33평형으로 건설되었다.

1978년 건설된 비산삼익아파트는 19평형·23평형·32평형·34평형·44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당시 총 774세대(13층 3개 동)로 안양 최대의 민영 아파트 단지였다. 같은 시기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륭아파트는 지상 12층 7개 동, 총 576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8평형(94㎡)과 33평형(111㎡)으로 구성되어 있다. 28평형은 방 2개, 거실 1개,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로 구성되었다. 33평형은 방이 3개로 늘고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아파트 건설기술의 발달로 평형과 단지 구조의 다양화, 대규모 단지 중심의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질적 향상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 비산동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섰는데,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이다.

1978년 비산동 매곡지구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총 21개 동 2,052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당시 단일 아파트 단지로서는 안양시



최대 규모였으며, 1981년의 1~3차는 18평형을 시작으로 19평형·20평형·22평형·26평형·28평형·29평형·31평형·42평형 등 8개 평형으로 건설되었다. 4차는 20평형·25평형·31평형·44평형, 5차는 30평형·31평형·44평형·56평형, 마지막 6차는 21평형과 28평형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주공·삼익·미릉아파트에 비해 다양한 평형을 갖추며 주거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1990년대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비산동 학의천 건너편에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개발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부터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아파트들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 하였으며, 각 건설사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아파트 건설과 차별화를 위해 특색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각 단지의 고유 브랜드화를 통해 아파트의 고급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비산동이 1970년대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각광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970년대 말 정부 주도 아파트지구 지정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호재, ② 관악대로와 경수대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교통의 요지), ③ 교육여건, 안정된 상권과 기반 시설 입지, ④ 관악산·비봉산·안양천·학의천 등 녹지공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1970년대 말 비산동 첫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양시 및 수도권 일대에서 비산동의 명성을 이어오게 하고 있다.

### 3. 비산동의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1996~현재)

비산동은 아파트 건설 초기부터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경수산업대로를 비롯하여 서울의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등은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 교통의 요지로 꼽혔으며, 인근 20여 분 거리에 과천정부청사와 어린이대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생활환경 면에서 손꼽히던 곳이었다. 또한, 1996년 평촌신도시가 학의천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어, 비산동은 '안양의 강남'이라 불리며 노른자위 땅으로 자리 잡았다.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까지 전국에 1,786개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는 등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노후 주택단지의 재개발이 유행처럼 활성화되었다. 비



2025년 미룡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산동 일대도 1996년부터 1970년대 말 지어진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었다. 비산주공1·2단지아파트, 비산삼익아파트, 미룡아파트 등이 대상이었으며, 30년 넘어 외부 경관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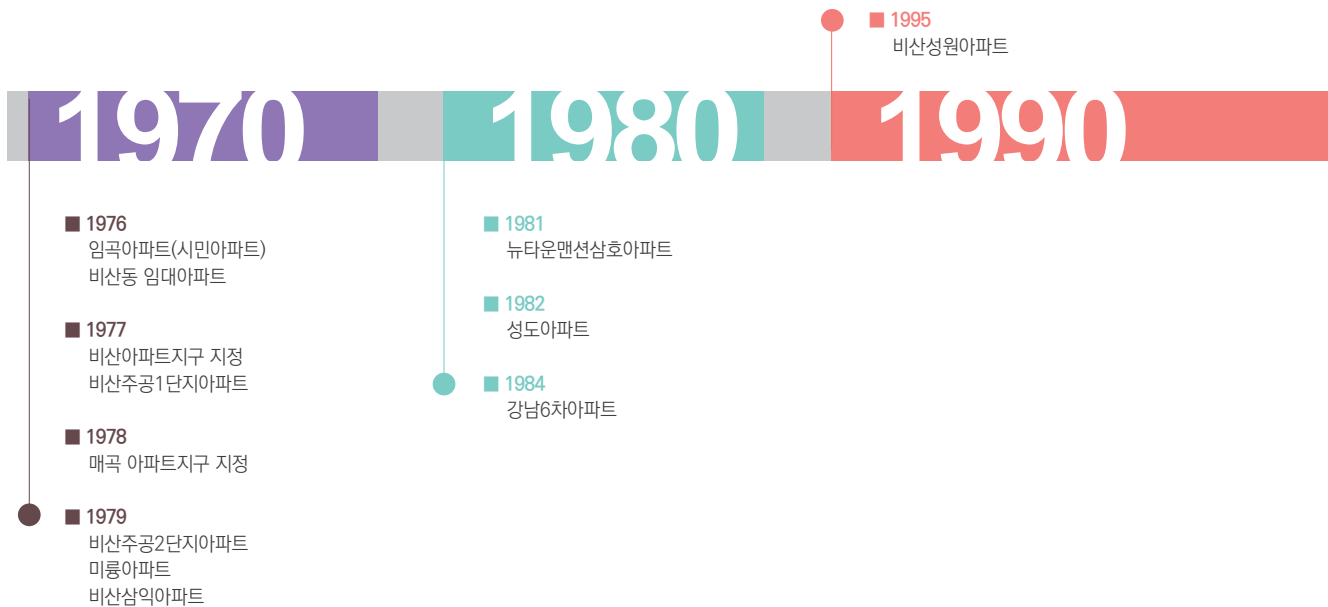
### 1) 비산동 재건축 아파트

비산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논의가 들어간 아파트는 비산주공1단지아파트와 비산주공2단지아파트이다. 두 개의 아파트는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재건축 논의에 들어가 1999년에 시공사 선정, 2000년부터 철거 및 공사를 실시하여 2003년에 입주하였다. 비산주공1단지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미룡아파트도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미룡아파트는 건설 당시부터 견고하게 지어져 당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불편함이 없다 보니 1996년 당시에는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





# 비산동 아파트지구 형성



2000

■ 2000  
동양월드타워아파트

■ 2003  
더포레스트힐아파트  
비산롯데캐슬아파트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 2005  
비산대주파크빌아파트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 2007  
안양임곡휴먼시아아파트

■ 2008  
비산e편한세상아파트

■ 2009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

■ 2014  
비산화성파크드림아파트

■ 2017  
대광로제비앙아파트

2010

2020

■ 2021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 2022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 2023  
비산한신더휴아파트



았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재건축이 제외되었고, 비산주공1·2단지아파트만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비산주공1단지아파트는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비산롯데캐슬아파트(955세대)로 재건축하였으며, 비산주공2단지아파트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3,805세대)로 재탄생되었다. 이후, 비산삼익아파트도 2005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아 한화건설에서 시공하여 비산한화꿈에그린(774세대)로 재탄생하였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도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다. 면적 12만 3,298㎡,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2,7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6년에 선정한 시공사의 타 지역 붕괴 사고<sup>2</sup>로 조합 내부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요구가 거세지자 2022년 GS 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였으나,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와 시공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계획되어 있던 조합원 분양 계약 및 착공이 다소 늦어질 듯하다.

또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미룡아파트도 시공사(호반건설)를 선정하고 2022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복잡한 문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2) 재개발 사업

비산동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지구의 아파트를 제외하면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지역도 재개발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안양시는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산동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된 곳이 희성촌이다. 희성촌은 1960년대 호계동의 럭키화학 공장 직원들의 사옥으로 만들어진 단독주택 단지이다. 이후 럭키화학의 지방 이전 등으로 거주자들이 줄어들고 마을이 노후화되자 2002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8년 대림e편한세상(486세대)이 완공되었다. 하지만, 분양 과정에서 이중 분양 사기 사건(피해 가구 136가구)이 발생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비산자이아이파크아파트도 재개발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이다. 이곳은 임곡3주택 재개발구역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림대학교 앞 비산1동 515-2번지 일대 13만 3,418㎡를 재개발하였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2011년 조합설립 인가,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8년 하반기 착공 후 29층(21개 동), 총 2,637세대 규모의 비산자이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하며 사업이 완료되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인근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동측·북측 일원 재개발이 한창이다. 비산동 1047-20번지(종합운동장 동측)와 1015-22번지(종합운동장 북측)는 2020년 정비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202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정부는 비산동 종합운동장 북측 매곡근린공원 등 인근 지역 11만 1,202㎡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매곡지구)’로 지정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1,000여 세대를 조성 중이다.

이 밖에도 2014년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비산1동 554번지 5,135.8㎡ 일대에 아파트 2개 동 규모로 230세대 비산한신더휴아파트가 입주하였으며, 2015년에는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재건축 사업을 통해 2021년 304세대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가 입주하였다. 또한, 비산3동 281-1번지 일원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도 2015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6월 2,739세대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가 입주하였다.

## 참고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1-1977』, 1978.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8-1980』, 1981.

## 註

1 국토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서민주택 건설 추진방향』, 2012, 44쪽.

2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 제2장

# 비산동 아파트 단지의 분포와 특성

---

김형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비산동은 1970년대 중반 안양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되었다. 비산동은 1977년 아파트지구 지정과 경수대로·관악대로 개통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져 안양에서 급부상한 신흥 거주지역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부터 관악대로를 중심으로 시민아파트(임곡아파트, 1976년), 비산주공1단지아파트(1977년)와 비산주공2단지아파트(1979년)가 들어섰으며, 이후 미룡아파트(1979년)와 비산삼익아파트(1979년), 뉴타운삼호아파트(1981년) 등이 건설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1970~1980년대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주택가인 임곡마을, 희성촌 등에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산1동과 비산2동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으며, 현재는 비산3동을 중심으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과 종합운동장 일원 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으로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로 과거 주택가와 아파트들이 공존하던 비산동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만이 존재하는 비산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 1. 비산1동 아파트의 분포와 특성

비산1동은 관악대로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며, 1973년 비산동으로 승격되었다가 1982년 9월 비산2동과 분동되었다. 총면적은 1.82km<sup>2</sup>이며, 인구 2만 8,573명이 거주 중이다. 동쪽으로는 대림대학교, 서쪽으로는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남쪽으로는 안양천과 학의천, 북쪽으로는 임곡중학교·약사암·비봉산이 위치한다. 산과 접해 있어 전체적인 지형은 임곡중학교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다소 경사가 있는 형태이다.



비산1동 아파트 현황

- ① 더포레스트힐아파트 ②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③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④ 안양임곡휴먼시아아파트  
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⑥ 비산한신더휴아파트 ⑦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표 1〉 비산1동 아파트 현황

번호	아파트명	위치	준공 연도	동수/세대수	전용면적(㎡)	건설사	비고
1	더포레스트힐 아파트	임곡로 43	2003	18/2,044	59~150	대한주택공사	
2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임곡로 60	2022	5/303	84~107	현대건설(주)	
3	평촌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비산로 22	2021	22/2,637	59~131	GS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4	안양임곡휴먼시아 아파트	임곡로 16	2007	6/492	63~148	한국토지주택공사	
5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경수대로 946	2017	3/219	100~115	(주)대광건설	
6	비산한신더휴 아파트	비산로 9	2023	2/230	67~92	한신공영(주)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
7	비산삼성래미안 아파트	관악대로 121	2003	44/3,806	79~213	삼성물산(주)	비산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더포레스트힐아파트** : 더포레스트힐아파트는 2003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이다. 대림대학교 북쪽에 위치하며, 비봉산을 접하고 있어 지형에 맞게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단지 구조를 하고 있다. 2003년 시공 당시에는 ‘임곡주공그린빌’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22년 입주인 100%의 동의를 얻어 더포레스트힐아파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총 1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59㎡(211세대), 74㎡(483세대/2개 타입), 78㎡(604세대/7개 타입), 110㎡(596세대/8개 타입), 150㎡(150세대/2개 타입) 등 다양한 면적과 여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044세대가 거주 중이며,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다.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는 이름처럼 ‘숲세권’ 아파트로, 비봉산 등산로와 단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임곡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총 6개 동 303세대 규모로, 2019년 분양을 시작해 2022년 현대건설이 완공하였다. 대부분의 분양 물량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었던 당시 시장 상황과 달리, 이곳은 평화보육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급한 단지로 전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이뤄졌다. 전용면적은 84㎡(153세대)와 107㎡(150세대) 두 가지로 구성되며, 세대의 60% 이상이 남향 위주로 배치되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026만 원으로, 같은 시기 조금 앞서 분양한 비산자이아이파크아파트(3.3㎡당 평균 2,141만 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



더포레스트힐아파트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아파트

어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당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단지이다. 임곡3지구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1년 조합 설립, 2015년 사업시행 인가(안양시고시 제2015-115호)를 거쳐 2018년 착공하였다.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3년 9월 최종 준공하였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했으며, 총면적 13만 3,419㎡, 총 22개 동 2,737세대(조합원 세대 1,251세대) 규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75세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었다. 처음 분양 당시 단지명은 '비산자이아이파크아파트'였으나, 2020년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로 변경되었다. 전용면적은 59㎡(200세대), 68㎡(113세대), 69㎡(299세대/3개 타입), 83㎡(716세대/2개 타입), 84㎡(158세대), 99㎡(219세대/2개 타입), 100㎡(165세대), 112㎡(619세대/2개 타입), 131㎡(102세대)로 구성된다.

**안양임곡휴먼시아아파트** : 안양임곡휴먼시아아파트는 2007년 대림대학교 앞에 건설된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분양 전환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일정 기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임대 기간에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고, 분양 전환 후 주택을 취득해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다. 2007년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5년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이 이루어졌다. 현재 총 49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6개 동 규모이다. 전용면적은 63㎡(76세대/2개 타입), 81㎡(256세대/3개 타입), 115㎡(121세대/3개 타입), 148㎡(3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 비산사거리 인근의 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대광건영이 2017년에 건설한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3개 동, 지상 24층, 219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100㎡(21세대), 114㎡(66세대/2개 타입), 115㎡(132세대/3개 타입) 등 3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산한신더휴아파트** : 비산한신더휴아파트는 한신공영이 시공한 아파트로, 2014년 비



평촌자이아파크아파트 단지 배치도(네이버 부동산 제공)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전경





대광로제비양아파트



비산한신더휴아파트

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었다. 총면적 5,135.8㎡ 부지에 2개 동, 총 230세대로 건립되었다. 201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5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6년 조합설립 인가, 2017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를 거쳤다. 이후 2020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착공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준공 인가를 받아 입주가 시작되었다. 전용면적은 67㎡(92세대), 80㎡(92세대/2개 타입), 92㎡(4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삼성물산에 의해 2003년 건설된 아파트로, 1979년에 완공된 비산동 대표 아파트 비산주공2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건설된 단지이다. 이 아파트는 2000년에 분양하였으며, 총 3,806세대(조합분 2,338세대, 일반분양 2,338세대)로 분양 당시 안양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다. 현재는 만안구의 래미안 메가트리아(4,250세대)에 밀려 안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비산동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분양 당시 수도권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고, 아파트 분양 비수기인 여름철이었음을 감안하여도 지역 1순위에서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조합원 분양분에는 최고 2,5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 명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이전 비산주공2단지

아파트의 단지 형태를 그대로 살려 U자형으로 친환경 단지를 배치하였다. 총 4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79㎡(120세대), 81㎡(454세대/2개 타입), 108㎡(2,000세대), 138㎡(820세대), 159㎡(108세대), 194㎡(142세대), 213㎡(162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 2. 비산2동 아파트의 분포와 특성

비산2동은 관악대로 남쪽에 위치하며,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교차하고 있고 학의천이 접하고 있다. 이마트, 비산롯데캐슬아파트, 평촌래미안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비산1동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와 접해 있는 비산e편한세상아파트(관악대로 북쪽)도 비산2동에 포함된다. 비산2동의 면적은 0.46㎢이며, 1만 4,556명이 거주 중이다. 특히 비산2동은 관악대로 남쪽에 위치하여, 이곳 역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건립된 아파트들이 많다. 또한 비산동에서 평촌과 가까운 지역에 접해 있다 보니 아파트 명칭에 ‘평촌’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단지도 찾아볼 수 있다.

〈표 2〉 비산2동 아파트 현황

번호	아파트명	위치	준공연도	동수/세대수	전용면적(㎡)	건설사	비고
1	비산롯데캐슬아파트	관악대로 106번길 72	2003	16/955	72~136	(주)롯데건설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2	미룡아파트	관악대로 164	1979	6/576	89~113	미룡건설	재건축 진행 중
3	비산e편한세상아파트	관악대로 171	2008	10/486	80~151	대림산업(주)	희성촌 주택재개발사업
4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경수대로 884번길 12	2022	10/1,199	85~138	대우건설, 삼성물산(주)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	경수대로 883번길 33	2009	10/774	83~162	(주)한화건설	비산삼익아파트 재건축
6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안양천동로 162	2005	7/551	84~143	현대건설(주)	부흥아파트 재건축
7	한양수자인평촌리뷰아파트	경수대로 813번길 14-11	2021	4/304	63-84	(주)한양	진흥-로얄아파트



비산2동 아파트 현황

- ① 비산롯데캐슬아파트 ② 미룡아파트 ③ 비산6편한세상아파트 ④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 ⑤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 ⑥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⑦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

**비산롯데캐슬아파트** : 2003년에 준공된 비산롯데캐슬아파트는 비산동의 터줏대감이었던 비산주공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어졌다. 총 16개 동, 955세대(조합원분 760세대, 일반분양 195세대)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 분양 당시 길 건너 삼성래미안과 함께 2,000~3,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비산롯데캐슬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브랜드 개념이 막 확립되던 시기에 분양되었으며, 초기에는 ‘롯데네오시티아파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평촌롯데낙천대아파트’를 거쳐, 2010년에 현재의 비산롯데캐슬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전용면적은 72㎡(144세대), 104㎡(648세대), 107㎡(17세대), 136㎡(146세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릉아파트** : 미릉아파트는 현재 비산동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자,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지이다. 미릉건설이 비산주공1단지아파트 옆, 비산동 418번지 일대 2만 2,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7개 동(아파트 6동, 상가 1동)으로 건립하였다. 당시 서울까지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덕분에 분양시장 불경기 속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2001년 주공1·2단지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후 2003년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89㎡(65세대), 90㎡(6세대), 92㎡(78세대/3개 타입), 94㎡(115세대/3개 타입), 111㎡(217세대/3개 타입), 113㎡(80세대/4개 타입), 115㎡(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 동, 702세대와 부대시설이 호반건설에 의해 건립될 예정이다.

**비산e편한세상아파트** : 비산e편한세상아파트는 2008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이다. 관악대로를 접하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와 맞닿아 있다. 이 부지는 원래 희성촌이라는 마을이 있던 곳으로, 1970년대 호계동의 금성전선주식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주택 직원을 위해 조성한 단독주택 단지였다. 금성전선의 지방 이전과 함께 거주자가 줄고 마을이 노후화되자, 2002년 12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재개발을 거쳐 현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2~15층, 10개 동, 총 486세대로 2006년 분양을 시작하여 2008년 입주하였다. 지역



신평촌롯데낙천대아파트(현 비산롯데캐슬) 전경



비산롯데캐슬아파트 전경



미릉아파트 전경



미롱아파트 단지 내 모습(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미롱아파트 단지 내 시설



비산e편한세상아파트 전경

조합아파트로서 486가구 중 조합원분이 282가구, 일반분양분이 204가구였으며, 일반분양은 1순위에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다만, 2008년 입주를 앞두고 이중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전용면적은 80㎡(15세대), 105㎡(118세대), 106㎡(202세대/2개 타입), 150㎡(88세대), 151㎡(6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는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 5만 2,222.9㎡ 부지에 건설되어 2022년 완공된 아파트 단지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였다. 비산2동주민센터 인근을 재개발하여 조성되었으며, 비산롯데캐슬아파트와 학의천 사이에 있다. 이 단지는 2008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09년 조합설립 인가, 2010년 사업자 선정, 2014년 사업시행 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쳤다. 같은 해 6월부터 11월 사이 주민 이주를 마치고, 2018년 철거, 2019년 착공, 2022년 준공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개발 확정(2008년)과 시공사 선정(2010년) 이후에도 주민 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며, 약 11년 만에 공사가 시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전경

작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분양 과정에서도 두 가지 논란이 있었다. 첫째, 행정구역상 비산동임에도 ‘평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이다. 이는 길 건너에 이미 비산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존재해 유사 명칭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자 했으나, ‘래미안’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이 평촌에 속했던 점을 근거로 ‘평촌’ 명칭을 채택하였다. 둘째, 고분양가 논란이다. 안양시 최초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당시 서울 일부 단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일반분양분 659세대 중 96세대(14.6%)가 미분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전용면적은 85㎡(36세대), 86㎡(123세대/2개 타입), 94㎡(64세대), 115㎡(503세대/3개 타입), 128㎡(74세대/2개 타입), 138㎡(74세대/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 :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는 1978년 건립된 비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2009년 한화건설이 준공한 아파트 단지이다. 단지는 안양천과 비산사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최초의 1 대 1 재건축 사례로 주목받았다. 1 대 1 재건축은 기존 세대수를 유지한 채, 동일 세대에 대해 평형만 확장해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이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비산2동 전경





한양수자인평촌리뷰아파트 전경

는 용적률 규제 강화로 주로 강남권에서만 시행되던 방식이었으나, 용적률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수도권에서 추진된 것은 비산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처음이었다.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3~28층, 총 10개 동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3㎡(175세대), 109㎡(379세대), 141㎡(170세대), 162㎡(5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는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나는 부근에 위치하며, 경수대로를 따라 범계역 방향으로 가다가 비산교를 지나자마자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현대건설에 의해 2003년 부흥맨션을 헐고 재건축하여 2005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3~23층, 7개 동에 총 55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분 389세대, 일반분양 16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신평촌현대홈타운아파트'로 불리다가 주민들에 의해 현재는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용면적은 총 3개로 84㎡(197세대), 104㎡(314세대), 143㎡(40세대)로 되어 있다.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 : 비산힐스테이트아파트 인근, 경수대로에 접하여 있는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는 진흥·로얄아파트 주변 재건축을 통해 2021년 준공되었으며, (주)한양이 시공을 맡았다. 2015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2016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되었다. 이 단지는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신탁방식이란 주민 대표기구인 재건축 조합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대변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탁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조합이 없으므로 제도 장치가 없고, 사업방침을 두고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는 이러한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마무리한 사례로 꼽힌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6~29층, 총 4개 동, 304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전용면적 63㎡(30세대), 73㎡(181세대/2개 타입), 82㎡(76세대), 84㎡(17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 3. 비산3동 아파트의 분포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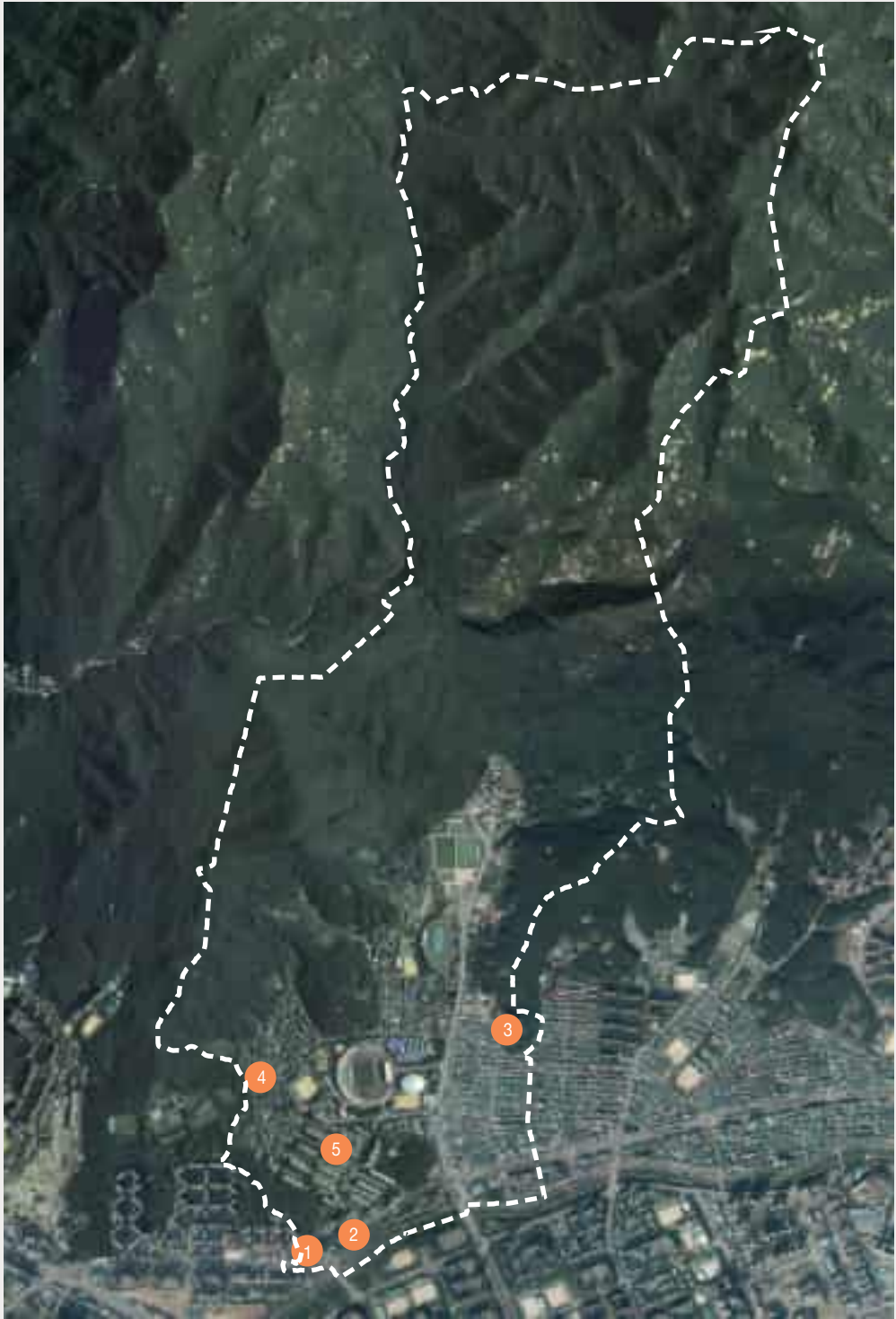
비산3동은 1990년 5월, 비산2동에서 분동되어 신설되었으며 관악산의 남쪽에 있다. 이 지역에는 군사보호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 다수 분포하며, 안양종합운동장이 있어 안양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과 농구팀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비산3동에는 비산동을 대표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였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2024년 현재는 재건축으로 철거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비산3동 전체가 대형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종합운동장 북측·동측 일원 재개발, 안양 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된 비산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마무리되어 총 2,739세대 규모의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가 들어섰다. 비산3동의 총면적은 5.57㎢이며, 인구는 1만 7,180명이다.

〈표 4〉 비산3동 아파트 현황

번호	아파트명	위치	준공연도	동수/ 세대수	전용면적 (㎡)	건설사	비고
1	동양월드타워 아파트	관악대로 183	2000	1/ 112	85~121	(주)동양고속건설	
2	안양비산대주 파크빌아파트	동안로 252	2005	2/ 131	77~110	대주건설(주)	임곡아파트(시민아파트) 재건축
3	비산성원아파트	일동로 15	1995	1/ 282	80~114	성원건설주식회사	
4	평촌엘프라우드 아파트	매곡로 23	2024	35/ 2,739	34~149	(주)대우건설, GS건설(주), 현대건설(주)	비산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양월드타워아파트** : 관악대로 학운교사거리에 위치한 동양월드타워아파트는 2000년에 동양고속건설이 건립하였다. 1개 동 지상 24층 규모로 85㎡(49세대), 121㎡(63세대)의 전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로 3층 상가 위에 세워졌다.

**안양비산대주파크빌아파트** : 안양비산대주파크빌아파트는 2005년 대주건설이 건설한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지어진 비산동 최초의 아파트 임곡아파트(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건설하였다. 최고 23층, 최저 17층 규모, 2개 동으로 총 13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77㎡(17세대)와 110㎡(114세대/3개 타입)로 구성되어 있다.



비산3동 아파트 현황 ① 동양월드타워아파트 ② 안양비산대주파크빌아파트 ③ 비산성원아파트  
④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2024년 6월 준공) ⑤ 뉴타운삼호아파트(재건축 진행)



동양월드타워아파트 전경



안양비산대주파크빌아파트 전경



비산성원아파트

**비산성원아파트** : 비산성원아파트는 1995년에 완공된 아파트이다. 종합운동장 동측, 비산3동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12월이면 사용 연한이 30년에 도달하지만, 인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되어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총 282세대로, 전용면적 80㎡(144세대)와 114㎡(13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 : 평촌엘프라우드아파트는 2015년부터 추진된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이 공동 시공하였다. 지하 4층~지상 29층, 35개 동, 총 2,739세대(조합원·임대분 2,050세대, 일반분양 689세대) 규모로 조성되었다. 2015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9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1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되었다. 전용면적은 34㎡(102세대), 59㎡(104세대), 69㎡(48세대), 70㎡(50세대), 81㎡(820세대/2개 타입), 82㎡(539세대/2개 타입), 96㎡(110세대), 109㎡(324세대), 110㎡(497세대), 149㎡(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장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생애

---

김형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비산동 354-10번지 일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뉴타운삼호아파트' 또는 '뉴타운맨션', '삼호뉴타운아파트'로도 불렸다. 삼호주택에 의해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건설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총 18개 동, 2,05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부터 3차 단지는 1981년에, 4차와 5차는 1985년에, 6차는 1988년에 준공되었다.

이 아파트는 한때 안양에서 가장 큰 민간 아파트 단지로,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우수한 교통망 덕분에 수도권 및 안양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였던 아파트이다. 또한 관악산과 안양종합운동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안양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2023년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는 상가를 제외한 모든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1970~1980년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아파트로, 안양 지역의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안양에서 민간건설사가 지은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으며, 수도권 및 안양 주거지 발전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안양 시민들에게 친숙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1. 비산동 아파트지구 지정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었고, 이에 주택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7년 11월 안양시 비산동 일부 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위치



역 21만 5,566㎡를 비산아파트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다음 해인 1978년에는 비산동의 매곡, 호계동에도 아파트지구를 지정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산아파트지구에는 비산주공1·2단지아파트와 미룡아파트 총 3,468세대, 매곡아파트지구(12만 3,620㎡)에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2,052세대, 호계아파트지구(14만 7,099㎡)에는 주공·경향·삼영아파트 2,058세대 등 총 7,57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들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정부의 개발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 및 안양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매곡아파트지구에 건설된 아파트이지만, 실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운곡마을 옆의 농경지였다. 매곡과 운곡은 비산동 외비산 지역에 있던 자연 마을로, 1970년대 들어 급격한 산업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며(건설부 고시 제411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매곡과 운곡 일대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성장하게 된다. 현재 이 지역은 비산3동 행정 구역에 속하며,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 46년이 지난 지금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재건축 및 재개발을 거치면서 과거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표 1〉 안양 아파트지구 지정 현황

지구명	지정일자	지구면적(㎡)	사업주체	건립세대
비산지구	1977년 11월 9일	215,566	대한주택공사, 미룡건설(주)	비산주공 : 2,892세대 미룡 : 576세대 계 : 3,468세대
매곡지구	1978년 12월 22일	123,620	삼호(주)	뉴타운맨션삼호 : 2,052세대
호계지구	1978년 12월 22일	147,099	대한주택공사, 경향건설(주), 삼영종합건설(주)	주공 : 1,050세대 경향 : 920세대 삼영 : 88세대 계 : 2,058세대

자료 : 안양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제공.

## 2.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건설과 분양

1978년 12월 매곡아파트지구 지정 이후 1979년 상반기 삼호주택은 비산동 매곡지구 대지 2만 3천여 평을 매입하였다. 삼호주택은 이 지역에 서민형 아파트 2,0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삼호주택은 197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청담아파트 140가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부산과 인천 지역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이어갔다. 안양 매곡아파트지구는 삼호주택이 지방 도시로 진출한 세 번째 지역이었으며, 안양을 포함한 수도권 외 지역에 서민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당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주거지 공급에 기여하였다.

삼호주택은 1980년 5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첫 분양 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 분양분은 총 600세대로, 이를 1차 336세대, 2차 264세대로 나누어 공급할 예정이었다. 분양 예정 면적은 30평 미만의 국민주택 수준이었으며, 고층 서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삼호주택은 이 단지를 통해 서민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민간 아파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5월 분양은 총무처의 제안으로 인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총무처가 일부 세대를 공무원아파트로 전용할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용 여부와 분양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위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정은 당시 민간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정책 개입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이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주택공급을 추진했던 당시의 주택공급 방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1980년 6월 24일 삼호주택은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하며 ‘시한부 할인 분양’이라는 새로운 분양 방식을 도입하였다. 시한부 할인 분양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시 주택시장의 침체와 판매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첫 분양분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차 336가구에 대해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하면 평당 2만 원가량의 할인이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23평형의 가구당 250만 원의 주택 용자를 제외한 분양가는 1,549만 원이며, 분양 개시 후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할 때 47만 원을 할인해 주어 입주자는 1,502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러한 할인 분양은 빠른 계약을 유도하였고,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차 분양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336가구 중 258가구가 계약되었으며, 특히 20평형과 23평형의 분양률은 90%에 달하였다. 당시 주택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안양 및 수도권 지역에서 주목받았다.

1984년 매곡지구 개발 현황(안양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제공)

1980년 12월부터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차의 2차 분양분인 264세대가 분양되었다. 이는 1차 분양 336세대에 이어지는 것으로, 1차 분양분과 마찬가지로 30평 미만의 국민주택형으로 19~29평까지 5개 평형을 분양하였다. 이 분양에서는 세대당 250만 원의 용자를 포함한 분양 가격의 11%를 계약금으로 낮추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19평형은 1,486만 7,000원, 20평형은 1,531만 5,000원, 23평형은 1,799만 2,000원, 29평형은 2,239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총무처의 제안에 따라 서울과 안양에 거주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일부 세대를 우선 분양하였다. 공무원아파트 분양분은 평당 72만 5,000원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2만 5,000원 낮게 책정하여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택시장 침체로 일부 아파트는 미분양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 3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차 미분양 100여 세대를 재분양하였다. 이들 미분양 아파트는 평당 76만 5,000원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조건이었다.

1982년 10월 말부터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3차 312세대가 분양되었다. 24평형~42평형까지 6개 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32평형과 48평형은 계단식 구조였고 27평



**삼호**

## 단양 비산동 삼호뉴타운맨션4차 분양

서울 지역 강남권과 있는 계급위기사·1,2,3차 단위에 비해  
분양대상층 이하의 삼호뉴타운맨션 4차로 판매합니다.

**분양대상층**  
 1. 1인 가구  
 2. 2인 가구  
 3. 3인 가구  
 4. 4인 가구  
 5. 5인 가구  
 6. 6인 가구  
 7. 7인 가구  
 8. 8인 가구  
 9. 9인 가구  
 10. 10인 가구

**분양대상지역**  
 1. 서울 강남권  
 2. 서울 중구  
 3. 서울 서구  
 4. 서울 동구  
 5. 서울 남구  
 6. 서울 북구  
 7. 서울 서남구  
 8. 서울 서북구  
 9. 서울 서동구  
 10. 서울 서서구

**분양대상기간**  
 1. 1984년 4월 16일  
 2. 1984년 4월 17일  
 3. 1984년 4월 18일  
 4. 1984년 4월 19일  
 5. 1984년 4월 20일  
 6. 1984년 4월 21일  
 7. 1984년 4월 22일  
 8. 1984년 4월 23일  
 9. 1984년 4월 24일  
 10. 1984년 4월 25일

**삼호 뉴타운맨션 4차**



4차 분양광고(『동아일보』 1984년 4월 16일)

**모두가 만족하는 삼호 뉴타운맨션**

서울 지역 강남권과 있는 계급위기사·1,2,3차 단위에 비해  
분양대상층 이하의 삼호뉴타운맨션 5차로 판매합니다.

**분양대상층**  
 1. 1인 가구  
 2. 2인 가구  
 3. 3인 가구  
 4. 4인 가구  
 5. 5인 가구  
 6. 6인 가구  
 7. 7인 가구  
 8. 8인 가구  
 9. 9인 가구  
 10. 10인 가구

**분양대상지역**  
 1. 서울 강남권  
 2. 서울 중구  
 3. 서울 서구  
 4. 서울 동구  
 5. 서울 남구  
 6. 서울 북구  
 7. 서울 서남구  
 8. 서울 서북구  
 9. 서울 서동구  
 10. 서울 서서구

**분양대상기간**  
 1. 1984년 11월 6일  
 2. 1984년 11월 7일  
 3. 1984년 11월 8일  
 4. 1984년 11월 9일  
 5. 1984년 11월 10일  
 6. 1984년 11월 11일  
 7. 1984년 11월 12일  
 8. 1984년 11월 13일  
 9. 1984년 11월 14일  
 10. 1984년 11월 15일

**삼호 뉴타운맨션 5차**



5차 분양광고(『동아일보』 1984년 11월 6일)

**단양 비산동 삼호뉴타운맨션 6차 분양**

서울 지역 강남권과 있는 계급위기사·1,2,3차 단위에 비해  
분양대상층 이하의 삼호뉴타운맨션 6차로 판매합니다.

**분양대상층**  
 1. 1인 가구  
 2. 2인 가구  
 3. 3인 가구  
 4. 4인 가구  
 5. 5인 가구  
 6. 6인 가구  
 7. 7인 가구  
 8. 8인 가구  
 9. 9인 가구  
 10. 10인 가구

**분양대상지역**  
 1. 서울 강남권  
 2. 서울 중구  
 3. 서울 서구  
 4. 서울 동구  
 5. 서울 남구  
 6. 서울 북구  
 7. 서울 서남구  
 8. 서울 서북구  
 9. 서울 서동구  
 10. 서울 서서구

**분양대상기간**  
 1. 1987년 4월 18일  
 2. 1987년 4월 19일  
 3. 1987년 4월 20일  
 4. 1987년 4월 21일  
 5. 1987년 4월 22일  
 6. 1987년 4월 23일  
 7. 1987년 4월 24일  
 8. 1987년 4월 25일  
 9. 1987년 4월 26일  
 10. 1987년 4월 27일

**삼호 뉴타운맨션 6차**



6차 분양광고(『조선일보』 1987년 4월 18일)

형과 28평형은 4가구가 하나의 코너를 사용하는 절충식 구조로 설계되어 종래의 복도식 공유면적을 크게 낮춰 건설되었다.

1983년 2월에도 마찬가지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3차의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재분양이 이루어졌다. 미분양된 아파트는 평당 86만 원에서 94만 원 사이로 재분양되었고, 가구당 550만 원의 장기 저리 용자를 제공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미 입주한 1차 및 2차 분양 세대 중 일부 잔여분 50세대도 당초 분양 가격으로 함께 분양하였다.

1984년 11월에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가 분양되었다. 15층 규모의 5동으로, 31~57평형 등 총 540세대가 분양되었다. 마지막으로 1987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 126세대가 분양되면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총 2,052세대의 안양 최대 민간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

### 3.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단지 구성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1980년 7월 착공되어 1988년 6월 6차 준공까지 약 8년에 걸쳐 총 18개 동, 2,052세대 규모로 완공되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3차,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5차,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로 나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 중앙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상가동이 위치한다.

그러나 1984년 안양시에서 작성한 『안양시 매곡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3개 단지로 계획된 것으로 확인된다. 1단지는 1~8동으로 가운데에 위치하며, 우측은 2단지로 9~12동, 좌측은 3단지로 13~17동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2단지 남쪽 공간에 6차분(18동) 1개동이 건설되면서, 단지가 아닌 분양 차수로 구분하게 되었다. 1단지는 총 912세대 중 우선 600세대를 두 차례에 걸쳐 분양하였고, 이후 나머지 312세대를 분양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분양하였다. 이어 2단지 4차 분양 474세대, 3단지 5차 분양 540세대, 6차 126세대를 포함하여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분양하였다. 이렇게 단지가 아닌 차수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것은 6차가 단일 동 형태여서 단지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건축물 분포현황(1984년, 안양시 표준기록물시스템 제공)



개발사업 시행계획도(1984년, 안양시 표준기록물시스템 제공)



2001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단지 배치 (① 1~3차, ② 4차, ③ 5차, ④ 6차)

## 1)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3차

1980년 5월 비산동 354-10번지 일대에 사업 승인을 받고 1981년 9월에 완공되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 2, 3차는 총 912세대로, 1동~8동까지로 대지면적 3만 9,010㎡, 건축면적 7,374㎡, 연면적 7만 8,918㎡로 건설되었으며, 전체 단지(1~18동)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 1동~4동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 5동~8동은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2동의 평형대는 20평형 미만의 침실 겸 거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3~5동의 평형대는 국민 평형인 20~29평형, 6~8동은 28~42평형의 넓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42평형부터는 안방에 화장실이 위치하여 화장실이 2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3차(1~8동) 평형 및 세대수 현황

동	평형	세대수	총 세대수
1	18	126	132
	19	6	
2	18	84	192
	19	108	
3	20	2	144
	22	24	
	28	118	
4	20	2	132
	22	99	
	23	7	
	28	22	
	29	2	
5	24	1	144
	26	72	
	27	1	
6	28	70	48
	31	1	
7	28	2	72
	31	70	
8	42	48	48
총계		912	912



2021년 뉴타운선삼호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1~3차 평면도(네이버 부동산 제공)



18평(61㎡)



18평(61㎡)



22평(74㎡)



22평(75㎡)



29평(95㎡)



31평(105㎡)



19평(63㎡)



20평(66㎡)



26평(88㎡)



28평(92㎡)



42평(139㎡)

## 2)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는 1984년 1월 비산동 258 외 28번지 일대에 사업 승인을 받고 동시에 착공을 시작하여 1985년 8월 준공되었다. 4차는 총 4개 동(9~12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지면적 2만 7,015㎡, 건축면적 4,361㎡, 연면적 5만 466㎡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택 면적은 20평형에서 44평형까지 다양하며, 총 474세대가 거주하였다.

〈표 3〉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9~12동) 평형 및 세대수 현황

동	평형	세대수	총 세대수
9	31	120	120
10	44	96	96
11	31	120	120
12	20	72	138
	25	66	
총계		474	474

## 3)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5차

비산동 341 외 104번지 일대 대지면적 3만 9,011㎡, 건축면적 5,604㎡, 연면적 6만 8,164㎡에 총 5동 규모로 건립되었다. 1984년 7월 사업 승인을 받고 다음 달인 8월에 착공하여 1985년 11월 준공되었다. 13~17동이 이에 해당하며, 총 540세대가 거주하였다. 규모는 대부분 31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 31평형~57평형까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5차(13~17동) 평형 및 세대수 현황

동	평형	세대수	총 세대수
13	44	60	90
	56	30	
14	44	90	90
15	31	120	120
16	30	120	120
17	31	120	120
총계		540	540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4차 평면도(네이버 부동산 제공)



20평(69m<sup>2</sup>)



25평(82m<sup>2</sup>)



31평(103m<sup>2</sup>)



46평(145m<sup>2</sup>)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5차 평면도(네이버 부동산 제공)



30평(102m<sup>2</sup>)



31평(102m<sup>2</sup>)



44평(148m<sup>2</sup>)



56평(188m<sup>2</sup>)

#### 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

비산동 361 외 3필지 일대에 건설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는 1개 동(18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7년 3월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을 시작하여 1988년 6월 준공하였다. 대지면적 5,112㎡, 건축면적 836.25㎡, 연면적 1만 237.75㎡ 규모이며, 총 126세대가 거주하였다. 21평형 82세대, 28평형 44세대로 구성되었다.

〈표 5〉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18동) 평형 및 세대수 현황

동	평형	세대수	총 세대수
18	21	82	126
	28	44	
총계		126	126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6차 평면도 (네이버 부동산 제공)



21평(69㎡)



28평(94㎡)

### 4.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재건축과 현재

2005년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와 동안구 지역 13.8㎢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 발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하나의 법적 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안양시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재건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비산동 일대에서는 인근 비산주공1단지아파트와 비산주공2단지아파트가 이미 재건축을 마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입주한 상태였기에 재건축에 대한 붐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들의 재건축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11월 안양시는 2006년에 발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40개 지구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20~3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고시안을 공포하면서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기존의 재건축 계획은 한층 더 구체화되었고,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재건축 사업이 재점화되었다.

2012년 6월 11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52세대에 달하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1~3차, 4차, 5차, 6차 등 4개 단지로 구성된 구조적 특성이 복잡하였고, 재건축 동의율이 80%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중앙상가와 아파트 1개 동의 반대로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조건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지 않고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는 일몰제를 통보하였다. 즉, 2012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년 경과 시점인 2014년 12월까지 조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관계 기관에 건의와 질의를 거듭한 끝에, 법제처로부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정비법상 구역 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법령 해석을 통보받으면서 재건축 무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조합 설립을 막고 있던 동별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결정도(안양시청, 「안양시 고시 제2023-27호」, 2023년 3월 3일)

수로 완화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4일 안양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현대산업개발(70%)과 코오롱글로벌(30%)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도급 총금액은 5,170억 원 규모로, 기존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11만 8,751.9㎡ 부지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6.33%를 적용하여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2,618세대와 부대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14일 사업 시행 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를 앞두고 있어 무리 없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22년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 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다. 2022년 4월 21일 조합은 정기



2023년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전체 참석 조합원 1,864명 중 88%인 1,650명이 찬성하여 계약 해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2022년 11월 15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은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GS건설은 사업비 8,125억 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33층, 총 2,7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표 6〉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현황

구분	재건축 이전	재건축 이후
아파트명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평촌자이퍼스니티아파트
면적	110,148㎡	123,298.1㎡
단지수	4개 단지	2개 단지
동수	18개 동	26개 동
세대수	2,052세대	2,737세대 (조합원 2,167세대, 일반 570세대)
층수	지상 1층~지상 15층	지하 3층~지상 33층
전용면적	61㎡~188㎡	53㎡~133㎡

2023년 1월 17일, GS건설과 조합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평당(3.3㎡) 공사비는 567만 원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2023년 11월, GS건설은 원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가 요구한 평당 공사비는 693만 원으로, 최초 공사비 대비 21.7% 오른 금액이었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은 다시 표류하는 상황에 빠졌다.

약 8개월 후, 2024년 7월 24일, GS건설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평촌자이퍼스니티아파트) 조합과 9,587억 3,850만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였다. 1월 17일 도급계약 체결 당시 책정된 공사비는 8,124억 원 4,200만 원이었지만, 결국 18.01%의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였다. 이제 일반분양과 착공만을 남긴 상황이며 최종 2027년 12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과정

2012

- 6월 11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6

- 5월 4일  
조합설립 인가
- 10월 12일  
조합설립변경 인가

2021

- 2월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 7월 1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변경)

2022

- 10월 1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2023

- 3월 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변경)
- 9월 15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2017

- 3월 21일  
조합설립변경 인가
- 9월 14일  
조합설립변경 인가

# 2020

- 1월 14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18

- 3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변경)

# 2024

- 3월 13일  
해체공사 완료
- 5월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 8월 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8월 29일  
착공
- 11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

## 제4장

# 비산래미안아파트의 주민생활

김은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경기도 중심에 있는 안양시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의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수도권 중심 도시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옛 마을의 형상은 사라지고, 현재의 대도시 형태로 자리 잡았다.<sup>1</sup> 특히 비산동은 안양의 빠른 도시화와 경제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재개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활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973년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된 후 안양1~6동, 석수동, 박달동, 비산동 등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1982년 비산동은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되고, 1990년 비산2동이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분동되었다. 1992년에 비산2동에서 부흥동이 분동되었고, 1993년 부흥동에서 달안동이 분동되며 비산동은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sup>2</sup> 비산동은 현재 안양시 동쪽의 동안구에 속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관악산, 동쪽으로는 관양동, 남쪽으로는 평촌동과 호계동, 서쪽으로는 안양동에 둘러싸여 있다.

비산동은 비봉산과 안양천이 위치해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비봉산 마실길, 힐링공원, 세심천 쉼터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경수대로와 관악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sup>3</sup>

비산1동의 주거 현황은 면적 1.82km<sup>2</sup>, 세대수는 1만 607세대, 인구는 2만 8,635명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체육회 등 12개의 사회단체가 있다. 교육기관으로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1개의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포함한 여러 복지시설, 13개의 어린이집, 6개의 경로당, 비산지구대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비산1동은 2000년대 들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거치면서 대단지 아파트인 삼성래미안아

파트, 더포레스트힐아파트,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이 되었다.<sup>4</sup>

## 1.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가 설립되기 이전, 해당 장소에는 1970년대 중반에 지어진 주공아파트가 위치하였다. 1970년대 정부의 도시화와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주공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비산동 역시 프로젝트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선택되어,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1977년에 비산주공1단지아파트가, 1979년에 비산주공2단지아파트가 완공되는 등 새로운 주거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는 도시 내에서 여러 사회적 계층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수도권 경제 활성화의 요인이기도 하였으며 도시 내 아파트 중심 인프라 구축의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완공된 아파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아파트와 각종 시설 노후화 문제로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0년 말 본격적인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었다.<sup>5</sup>

1980년대 비산주공1단지 · 2단지아파트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비산주공2단지아파트의 재건축은 2000년대 초반 결정되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총면적 2만 4,088.145㎡, 15~28층, 44개 동 규모로 2003년 말 완공되었다. 총 3,806세대로 분양 당시 안양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특징은 단지 배치 구조이다. 관악산의 지형을 살려 U자형으로 단지를 배치하였다. 1층에는 지하차고, 최상층엔 전용다락방이 설치된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었다.<sup>6</sup> 또한 아파트에 디지털도어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고 모든 평형에 보조 주방을 설치하였다는 점 역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이다.<sup>7</sup>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자재 선택부터 시공까지 고급화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단지로, 입주민 김O희에 따르면 당시 설계 및 골조에 우수한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sup>8</sup> 또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아파트이자,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진행한 첫 번째 단지로 알려져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기존 삼성물산이 지은 아파트들과는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 3베이(bay) 설계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베란다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사용 면적이登記 면적보다 넓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구조와 설계는 초기부터 고급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9</sup>

## 2.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주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 건설된 아파트 단지 내외의 시설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강O현에 따르면 1단지는 30, 60평이 주를 이루며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2단지는 비교적 작은 25, 30평으로 구성되고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주변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인근에 위치하여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 다양한 놀이 및 여가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단지 내에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테니스장과 같은 다양한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위치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배치도

**김오희** : 많이 활용하죠. 많이 활용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고 농구장 있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저기 롤러스케이트장도 있잖아요.

특히 놀이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놀이터 개수가 많은 것을 넘어 내부의 시설을 다르게 설계하였다. 영유아 놀이터, 저학년 놀이터, 고학년 놀이터와 같이 다양성을 겸비해 다양한 나이대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비되어 있다.

**김오희** : 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놀이터가 또 중요한 게, 놀이터가 단지 안에 한두 개, 두세 개 있으면 모든 애들이 다 섞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영유아들 노는 놀이터가 따로 있고, 영유아들 그 수준에 맞는 놀이터. 그리고 초등학교들, 초등학교 고학년들 노는 그런 놀이터가 각각 다 달라요. 대단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도 이것저것 있듯이 놀이터도 콘셉트별로 이렇게 조금씩 영유아 위주로, 초등 저학년 위주로, 초등 고학년 위주로 그렇게 이제 애들 키우면 그게 느껴진다니까.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운동시설과 놀이터가 있는 공간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활동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상가의 초등학교 하교 시간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놀이터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운동시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 작은 운동장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테니스장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

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와 산책로 역시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지 내 여유롭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주거지 만족도, 녹지 만족도, 여가 만족도는 주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up>10</sup>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의 편의성을 위해 놀이터나 운동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김O희** : 나중에는 놀이터도 전부 다 바뀔 예정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다 확보는 돼 있어. 비용이 얼마 나오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싹 교체된 데가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가 있고요. 조금 모이는 놀이터가 있어요. 컨셉이 달라서 그래서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놀이터는 완전히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이용 안 하는 놀이터 그런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커요.

**임영랑** : 저는 이제 하천을 못 나간다가나 산에 못 갔을 때는 아파트 내에서 단지를 돌아요. 여기서부터 들고 저쪽 단지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걸 도는데. 그럼 두 바퀴만 돌면 거의 40분이야. 그런데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도 있고 막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녁때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3. 성장과 배움의 터전이자 교육의 중심지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입주한 주민에게도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한별유치원과 샘모루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한별유치원은 단지 내 유아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단지 내 위치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 어린이 집은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인기가 있어 입학까지 대기가 길다고 한다.<sup>11</sup> 한별유치원은 2004년 3월 4일 개원하였고, 어린이집 놀이터와 실내 교실과 대근육활동실, 실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 사회에 발맞추어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본이 된 어린이 교육’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별유치원은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는 식물가꾸기, 모래놀이, 블록활동, 몬테소리 활동, 놀이터 신체활동, 수영장 물놀이 등의 여러 활동이 있다.<sup>12</sup>

샘모루초등학교는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이 해당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내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샘모루초등학교는 2003년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4년 1월 5일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2004년 3월 1일 20개의 학급으로 개교하였고, 같은 해 9월 1일 병설유치원이 1개 학급으로 개원하였다. 현재 학생 750명, 교원 52명이 있고, 학급은 특수학급을 포함한 34개 학급과 유치원 3학급이 있다. 샘모루초등학교는 ‘꿈과 끼를 길어 올리는 샘모루 두레박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중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3</sup> 학교는 학습공간,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큰 매력으로 작동한다.

**강오현** : 여기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비슷할 건데 초등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아쉬운 거지 수준 자체가 다른 동네에 비해 굉장히 상위권인 학교들이거든요.

**임영랑** : 여기가 학교가 가깝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은 여기 이제 샘모루초등학교가 있고, 그다



한별유치원 전경



비산동 샘루초등학교 전경

음에 유치원이 지금 아파트 여기에 사립유치원도 있고.

이처럼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인근에 한별유치원과 샘모루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안전하면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가족 단위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 만족도를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4.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와 인프라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좋은 편이다.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간다. 안양의 주요 지하철인 안양역과 범계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이들 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짧은 편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 이러한 교통 접근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에게 큰 이점이다. 안양역과 범계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거점으로, 서울 중심부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안양 중심부는 철도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구조로, 전반적인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sup>14</sup> 자가용이 없는 주민도 자가용이 있는 주민도 모두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하기에, 교통 접근성이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주거 선택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입명량** : 근데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기 서울 수원 어느 쪽으로 가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단지 안에서 움직이자.

**장O일** : 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이제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멀리 다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서 자가 운전을 많이 했다면, 여기서는 집에 갈 때 걸어가고 출근할 때 버스 타고 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반을 길에서, 왕복 3시간 가까이를 길에서 버리다가, 이제 출퇴근해봐야 1시간이 넘지 않으니까. 다 해서. 걸어서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하고 다 포함해도.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 좀 달라지죠.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버스정류장

**김O희** : 버스 노선이 여기는 안양에서 제일 많아요. 여기는 이제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또 자차로도 서울 구로 쪽 가는 길하고 여기 이제 인덕원으로 나가는 쪽이 평촌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아요. 여기 안양천을 기준으로 저쪽이 만안구인데 거기는 어차피 서울 어딜 가든 밀 지방으로 가든 1번 국도로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1번부터 끝까지 나오는 데는 저 안에서 하는 데 한 20~30분은 걸려요.

**김O성** : 그렇죠. 이제 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저희 쪽을 지나다니니까 그런 거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안양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냥 마을버스 51번 제일 많이 타고 다니죠.

**인O옥** : 강원도 가는 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 편해요.

또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 넓은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주차할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각 동과 직접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어, 입주민들이 집이나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할 때 큰 편의를 제공한다.

**강오현** : 그리고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거주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구축 신축 다 살아보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 주차 공간도 좀 여유 있는 걸 선호했고.

**김오희** : 주차가 진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막 추운 날 이런 때는 전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꼼꼼 싸매고, 차를 나가려면 차를 또 막 밀어야 되고. 이중주차 그런 게 불편하고. 또 비 오면 우산 써야 되고. 근데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여기는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 주차도 괜찮고, 비 맞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바로 나가니까. 날씨 춥든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밖에서. 일단 그런 거주 편의성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지요. 2003년 지은 것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교통이 너무 좋아요.



비산삼성래미니아파트 앞 상가 전경(2024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이나 차단기, 차량 등록과 같은 문제 발생 시 관리사무소 산하 주민들로 구성된 주차소위원회에서 안전을 받아 논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이러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접근성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큰 장점이기도 하다.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접근성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5. 편의와 활기를 더하는 상권과 생활 환경 인프라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다양한 상업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는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안양점이 위치하여 주민들이 도보로 편리하게 이동하여 식료품부터 가전제품까지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안양점은 평일에는 20시쯤 마감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마트 영업 종료 1시간 전쯤 방문하면 다양한 품목을 30% 정도의 할인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이는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이나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가구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도 다양한 상가가 입점해 있어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가에는 은행, 세탁소, 부동산, 카페, 마트, 편의점이 있다. 또한 병원과 약국이 있는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 가정한테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단지 내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어 주민들의 여



비산파출소

유로운 만남의 장소나 외식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커뮤니티의 결속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세탁소, 수선소, 미용실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의 상업 및 편의시설들은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단지 주민들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 인근에는 큰 도서관도 위치해 있는데, 안양시립비산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2010년 10월 1일에 개관하였고, 약 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비산도서관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이용 가능한 구조이고, 좌석 수는 590석이다. 자료실은 어린이, 종합, 디지털 자료실로 나누어져 있고, 열람실은 일반용, 청소년용, 노트북실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대와 필요에 맞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4층 시청각실에서는 영화 상영 등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실과 열람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sup>15</sup>

비산도서관 옆에는 비산지구대도 존재하는데, 비산지구대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지역 내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지구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주민들에게 안정



비산도서관(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인오옥** :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가 그 바로 옆에 있잖아. 저기 비산도서관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치안도 괜찮고. 경찰차들이 계속 돌아요. 그런 것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 다른 데 비해서.

또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단지 내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파트를 둘러싼 녹지공간은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단지 내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녹지공간이 아파트 건물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감을 제공한다.

아파트 주변으로는 임곡공원과 학의천 수변 공원이 있고, 안양천이 있다. 임곡공원은 단지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여러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있어서 간단한 운동이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좋다. 학의천 수변 공원 역시 잘 정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한다.

안양천은 안양을 가로지르는 공간으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안양천은 한강의 지류로 안양시까지 앞을 흐르고 있으며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sup>16</sup> 이곳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고, 두 도로는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각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양천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여 여러 식물과 동물을 통해 자연의 생태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오일** : 와이프랑 저녁 먹고 나와서 산책하고 애랑도 같이 산책하고 이러기가 좋아요. 나와서 한 바퀴 돌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왜가리랑 오리, 청둥오리는 늘상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자연 학습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너구리도 가끔 보여요. 예전에 너구리 새끼들, 털도 안 낳은 새끼들이 다섯 마리가 있길래 사람들 몰려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너구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가끔 가물치도 보이고.

이러한 자연 공간들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

로 활용된다. 도시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주민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 6.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한 소통과 관리 체계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주민 카페가 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파트 거주민만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소로 활용된다. 주민 카페에서는 주차 관리, 단지 정비 일정, 분리수거, 배관 청소와 같은 공지 사항을 공유한다. 또한 중고 물품을 거래하거나 나누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방충망 구매와 같은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동구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민 카페는 이웃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소음 문제나 주차 문제, 분리수거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 카페는 아파트에서 생활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주민 간 교류와 상호 도움의 장으로 활용되어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온라인 카카오톡 단체방은 빠르고 편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이웃 간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sup>17</sup>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는 주차소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로 주차 공간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주차소위원회는 2~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주차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안전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주차 차단기 교체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차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주민 서비스 외에도,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단지 내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특성상, 보안업체 요원이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하며, 아파트 각 세대에는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외부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침입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만약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침입해 알람이 울리고, 즉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안업체는 우선 거주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응답이 없거나 비거주자로 확인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에 대응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은 입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과거 비산주공아파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지역 주거사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단지이자,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대표적인 주거지이다. 교육·교통·편의시설과 체계적인 관리와 보안 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거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 참고자료

- 안양시,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8.
- 안양시, 『안양시사 제8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1993.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4권,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5권,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2007.
- 김민석, 「창조도시 개념을 통한 지방도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양시 원도심 중심으로 -」,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1(4), 2012.
- 김진균,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대한 연구 - 안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2.
- 이진영, 「풍수지리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논문, 2019.

## 註

- 1 안양시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8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32쪽.
- 2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103쪽~112쪽.
- 3 장준호 외 2인, 「안양의 살고 싶은 도시 및 마을만들기 발전 가능성 연구」, 『수도권연구』 5호, 2008, 192쪽.
- 4 동안구청, 「행정복지센터 비산1동 일반현황」, 동안구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dongan>), 2024년 11월 20일 검색.
- 5 「안양비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재추진」, 『매일경제』, 1996년 5월 28일.
- 6 강O현(남, 1986년생, 비산삼성래미안 주민), 2024년 11월 17일 구술.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
- 7 「돈되는 아파트 : 안양비산동 삼성 래미안」, 『집코노미』, 2000년 7월 7일.
- 8 「신주거혁명 단지가 바뀐다 : 빌라풍에 화려한 외관... 아파트도 패션」, 『한국경제』, 2000년 10월 19일 ; 「돈되는 아파트; 안양비산동 삼성 래미안」, 『집코노미』, 2000년 7월 7일.
- 9 김O희(남, 1979년생, 비산삼성래미안 주민), 2024년 11월 17일 구술.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
- 10 김유일 외 1인,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만족도-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46(1), 2011, 160쪽.
- 11 김O성(남, 1986년생, 비산삼성래미안 주민), 2024년 11월 17일 구술.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
- 12 한별유치원, 「한별유치원 운영방침」, 한별유치원 홈페이지(<http://www.한별유치원.com/>), 2024년 11월 1일 검색.
- 13 샘모루초등학교, 「학교안내」, 샘모루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ammoru-e.goeay.kr/sammoru-e/main.do>), 2024년 11월 1일 검색.
- 14 장준호 외 2인, 「안양의 살고 싶은 도시 및 마을만들기 발전 가능성 연구」, 『수도권연구』 5호, 2008, 198쪽.
- 15 비산도서관, 「전체 현황」, 비산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anyang.go.kr/bisan>), 2024년 11월 20일 검색.
- 16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298쪽.
- 17 비산래미안공식카페(<https://cafe.naver.com/bssr>), 2024년 10월 14일 검색.

## 04

# 비산동을 다채롭게 만드는 시설들

- 제1장 아이들을 위한 평화의 터전, 평화보육원
- 제2장 도시와 함께 성장한 학교, 안양동초등학교
- 제3장 비산동 교육의 요람, 대림대학교
- 제4장 안양종합운동장의 조성과 운영



## 제1장

# 아이들을 위한 평화의 터전, 평화보육원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평화를 짓다, 평화보육원의 설립

평화보육원의 설립자는 법률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송규환이다. 송규환은 1894년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귀곡리에서 출생하였다. 1912년 17세 때 일본 유학을 떠나 1922년 27세 때 귀국하였고, 김봉선과 결혼하여 9남매를 두었다. 1923년 고향을 떠나 강원도 이천군으로 이주하였으며, 이곳에서 1945년 말까지 사법 사무소를 운영하고 『매일신보』 이천 지국장을 겸하였다. 1934년 강원도 민선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3선을, 1935년 이천군 금융조합장으로 당선되어 3선을 역임하였다. 8·15해방 직후 소위 ‘부르주아 숙청’으로 인해 1945년 초겨울 9남매 중 장남을 제외한 가족을 데리고 남하하였다.

송규환 일가는 서울 돈암동에 잠시 머물다가, 현재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출신 장애인 장배근의 도움으로 시흥군 안양면(현 안양시)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양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송규환에게 장애인 장배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정치 활동을 권유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보육원 설립에 몰두하였다. 보육원의 이름을 ‘평화’로 명명한 것은 ‘전쟁과 싸우는 것이 싫어서’였다고 한다. 아이들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던 송규환의 염원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 평화의집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sup>1</sup>

안양 평화보육원 개원식은 13일 하오 2시 동원에서 한다. (『동아일보』, 1946년 11월 13일)

순국 혁명 투사들의 유아들을 키워낼 안양 평화보육원은 지난 13일 동방공장(東紡工場)가원사(院舍)에서 개원되었는데 원장은 최동오(崔東畝) 씨라고 한다. (『경향신문』, 1946년 11월 17일)



1961년 송규환 원장과 평화보육원 원생들의 단체 사진(평화의집 제공)

평화보육원은 1946년 11월 13일 오후 2시 동방공장의 원사에서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평화보육원은 안양면 비산리 산136번지로 이전하여 운영되었다. 이곳은 일본인 소유의 별장이었는데, 건물 2개 동이 있어 작은 규모의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평화보육원을 설립하는 데 힘쓴 인물은 우덕순이다. 우덕순은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참여한 애국지사였다. 그는 평화보육원 개원과 함께 부원장으로 부임하였고, 초대 원장은 최동오가 맡았다. 최동오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였다. 평화보육원 설립을 주도한 송규환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이른바 ‘총무’ 역할을 자임하였다.<sup>2</sup>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던 평화보육원 운영자들의 성향은 “혁명 열사의 유아를 비롯하여 전쟁의 참혹한 화란으로 부모를 여윈 고아를 맡아 양육하여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만들려는 숭고한 취지로 설립”<sup>3</sup>한다는 평화보육원의 설립 취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김광진** :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동학대 아이들이 온다든지, 가정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미혼모, 이런 친구들이 43명이 지내고 있어요.<sup>4</sup>

평화보육원은 독립투사들의 어린 자녀와 부모 잃은 전쟁고아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는 18세 미만의 방임·유기·결혼 등으로 소외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인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5</sup>

한편, 평화보육원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난 1947년 1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보선하고,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원의 원사 신축을 결정하였다.<sup>6</sup> 평화보육원은 개원한 지 6개월이 되던 때에 50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을 정도로 원아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기존 시설로는 50명에 달하는 원아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원을 확장하여 150명의 원아를 수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원사 신축은 여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사회 유지들의 후원을 요청하였다.<sup>7</sup>

## 2. 6·25전쟁과 새 보금자리 마련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송규환 일가를 포함한 100여 명의 평화보육원 가족이 피난길에 올랐다. 송규환의 부인과 딸들은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열차로 대구까지 이동하기로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걸거나 다른 차량을 얻어 타는 등의 방법으로 대구로 향하였다. 한편, 15세가 넘는 몇몇 아이들은 집을 지켜야 한다며 보육원에 남았다. 보육원에 남아 있던 일부 아이들은 인민군에 의해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달구지 공장 터에 머물던 평화보육원 식구들은 북한군의 남하로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여 영도 인근의 염전에 딸린 소금공장 터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평화보육원 원아는 1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훌쩍 떠나는 아이들도 많았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는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경우도 허다하였다. 평화보육원 식구들은 먹고살기 위해 구두닦이, 옛장수, 생선 장사 등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이 수복되고 전세가 변하자 평화보육원 식구들은 안양으로 돌아왔다. 당시 평화보육원의 보금자리는 인민군에 의해 숙사와 시설이 파괴되고, 돌로 쌓은 ‘돌창고(돌집)’만 간신히 형체



6·25전쟁 휴전 직후 신속 중인 남자 숙소 '버드나무집'(1953년, 평화의집 제공)

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양에 돌아온 평화보육원 식구들은 백방으로 구호를 요청하고 천막으로 임시 숙사를 설치하며 주변을 정리하였다. 1951년 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한번 대구로 피난길을 떠났다. 이후 1951년 여름을 넘기면서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한여름 폭염이 한풀 꺾이는 무렵에 안양으로 되돌아왔다.

1952년 석수동에 주둔하던 미 제83병기대대에서 각종 구호 물품을 비롯하여 건축자재 등을 지원하여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1952년 말에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돌창고(17평)와 숙소(58평) 1개 동의 보수가 마무리되었고, 숙소 안에 식당과 작은 사무실 공간도 마련하였다. 석수동의 83병기대대는 미군 제10지역지원단에 소속된 특수탄약 관리부대로, 영내에 영화관과 소방대가 자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부대였다. 83병기대대는 평화보육원 원아들을 부대로 초청하거나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중대장이 평화보육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sup>8</sup>

1956년 5월, 평화보육원 식구들이 합심하여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완성하였으며, 지붕은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숙소(36평)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1950년대 후반 평화보육원의 숙소는 4개 동이 되었다. 중학생

이상의 남자 숙사는 ‘잣나무집’, 작은 남자아이들 숙사는 ‘소나무집’, 여자아이들 숙사는 ‘매화나무집’, 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숙사는 ‘꼬마방’이라 이름 붙였다. 잣나무집은 잣나무처럼 쭉쭉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나무집은 사철 내내 푸르고 씩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매화나무집은 매화꽃처럼 예쁜 아이들의 모습을 따서 지었고, 꼬마방은 ‘꼬마’라는 말 자체가 귀여워 따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 숙사 이름은 송규환이 직접 지은 별칭이었다.

또한, 5월에는 미군 83병기대대의 지원으로 목욕탕(12평)을 신축하고 휘발유로 돌아가는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발전기는 어둠이 찾아들 무렵부터 밤 10시까지 각 숙사를 밝혔다. 발전기 설치 이후 보육원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1963년 8월 미군 83병기대대의 지원으로 사무실 겸 예배실을 마련하였다. 예배실에는 미군이 제공한 풍금도 있었다. 예배 인도는 주로 이운용 총무가 맡았고, 설교는 안양 중앙교회 교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였다. 예배에는 간혹 미군들도 참석하였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 큰 행사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축하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1970년 9월 착공 4년 만에 82평 규모의 강당을 신축하였다. 미군 83병기대대에서 자재와 설비 등을 지원했지만, 인건비 등 필요한 자금은 보육원에서 마련해야 했기에 공

1969년 평화보육원 전경(평화의집 제공)





1962년 미군 제83병기대대 지원으로 지은 평화직업보도기술양성소 준공식(평화의집 제공)

사 기간이 길어졌다. 강당이 완성되자 미군 부대에서 군악대를 보내 함께 축하해 주었다. 강당은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보육원의 예배 장소도 강당으로 옮겨졌고, 인근 안양동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영화 관람이나 모임 장소로 활용하곤 하였다. 보육원에서도 안양시청에서 영사기를 빌려 영화 관람을 하였다.

평화보육원은 그 자체로 커다란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과 밤나무·아카시아가 우거진 뒷산, 숙사와 식당, 작업장과 탁구장 등 보육원의 모든 공간을 모두 놀이터로 삼았다. 보육원에는 여느 아이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야구 글러브, 야구공, 야구 배트, 배구공, 농구공 등의 스포츠용품이 있었다. 농구공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본 미군들이 운동장에 농구 골대를 설치해 주었다. 운동장에는 배구 코트가 있어 배구 경기를 즐기기도 하였다.

평화보육원 식구들이 즐겨 찾은 곳은 탁구장이었다. 탁구는 평화보육원 식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였다. 몇몇 아이들은 학교 대표선수로 뽑혀 대회



1968년 미군 제83병기대대 초청 오찬(평화의집 제공)

에 참가하였다.<sup>9</sup> 1956년 10월에 열린 제3회 전 시흥 친선탁구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sup>10</sup>

운동장 한편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그네는 큰 나뭇가지나 두 기둥에 나무를 가로질러 그넷줄을 맨 뒤, 줄 아래 발판을 걸쳐 놓고 그 위에 올라앉거나 서서 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평화보육원의 그네는 철제로 튼튼하게 제작되었다. 그네는 혼자도 타지만, 두 명이 마주 보고 함께 타기도 하였다.



1968년 평화보육원 운동장에 모여 있는 아이들(평화의집 제공)





1960년 평화보육원 여성성경학교(평화의집 제공)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평화보육원 아이들(1960년, 평화의집 제공)



1970년 평화보육원 가을 나들이(평화의집 제공)



평화보육원 운동장에 있던 그네(평화의집 제공)

### 3. 법인 인가와 명칭 변경

1956년 1월, '사회사업단체 평화보육원'이 '사회복지법인 평화보육원'이 되었다. 평화보육원은 사회사업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송규환은 법인 승인과 함께 재단 이사장 겸 평화보육원 원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는 최동오 원장이 6·25전쟁 중 실종되어 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이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구성하였다. 초대 이사진은 장배근, 안양동산병원장 김규환, 최창조, 김요한, 강인병, 이운용을 선임하였다. 장배근은 평화보육원 부지를 소개한 인물이고, 이운용은 송규환의 사위이다. 이운용은 부인 송윤자와 함께 1950년대부터 송규환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1975년 10월 평화보육원 원장직에 올라 1987년 9월 퇴임하였다. 이운용은 1987년 5월 3일 아동복지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sup>11</sup>

평화보육원 최초 등기 내용은 <표 1>과 같다. 송규환은 법인 등록 과정에서 자신 명

의의 집과 대지, 경작용 사유지 등을 모두 법인 재산으로 넘겼다. 그리고 1958년 6월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보육원’은 1991년 12월 정관 개정과 함께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으로 변경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4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평화보육원’이라는 이름을 ‘평화의집’으로 바꾼 것은 법인의 사업 영역을 보육원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을 ‘사회복지재단 평화복지재단’으로 다시 한번 변경하였다. 시설명을 배제해 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후 2023년 5월 법인명을 ‘사회복지재단 평화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으로 한 차례 변경하였다.

〈표 1〉 평화보육원 최초 등기 내용

항목	내용
명칭	사회복지법인 평화보육원
장소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산 136번지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해당하는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허가일	서기 1956년 1월 18일
자산 총액	138만 원
출자 방법	회비금 기부
이사	송규환(이사장), 이운용, 최창조, 장배근, 김요한, 김규환, 강인병

## 4.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시설 신축

평화보육원은 1980년 6월, 30평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도서관 건축은 평화보육원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크게 늘면서 여럿이 생활하는 숙소에서는 공부나 숙제, 독서 등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도서관을 준공하였다. 도서관이 완공되자 안양YMCA가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도서를 기증하였다. 1983년 7월, 노후화한 숙사를 철거하고 숙소 3개 동을 신축하였으며, 목욕탕(12평)도 새로 지었다. 1984년 6월에는 36평 규모의 여자 숙사를 철거하고 47평 규모로 신축하였다.

**조사자** : 보육원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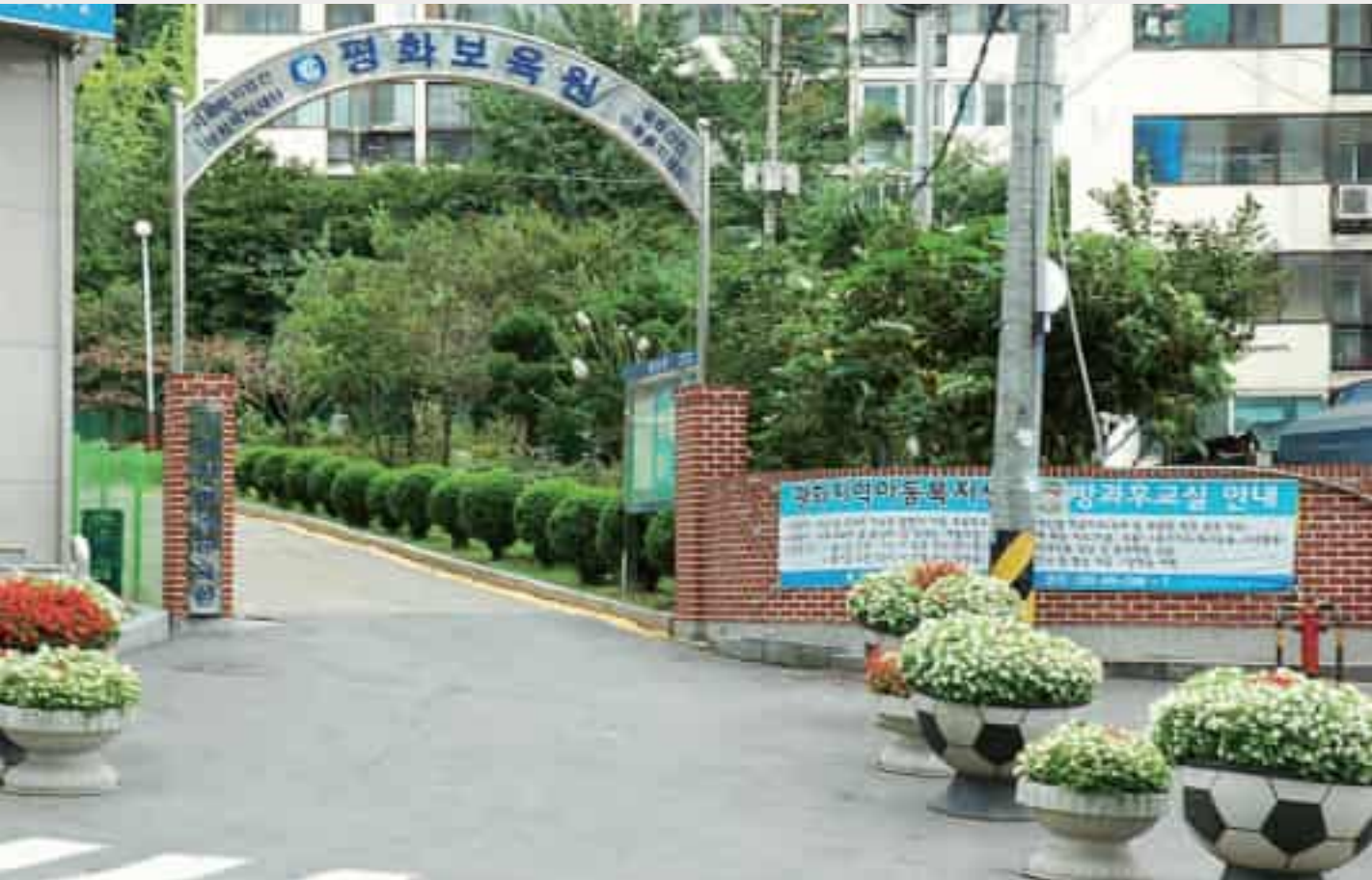
**김광진** : 보육원의 역사는... 저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87년에 150명짜리 식당을 지으면서 그때 힘들었던 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식당을 보조로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100만 원을 도와 주면은 드는 비용은 한 150이 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후원자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식당을 지으면서 많은 후원자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식당을 짓고. 그때 식당을 짓고 나서 많이들 좋아했죠. 제대로 된 식당을 하나 반듯하게 지었기 때문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식당은 공간이 좁아 여러모로 불편하였다. 당시 원장이었던 이운용은 복지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7,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지원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150평 규모의 다용도실과 식당을 신축하였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자 평화보육원 식구들 전부가 만족하였다.

1990년대 공간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도 변경되었다. 숙사의 한 공간 단위에 7명 이상의 인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평화보육원의 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5년 5월, 안전 문제가 있던 예배실을 철거하고 120평 규모의 예배실 겸 강당을 신축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50평 규모의 아동 숙사와 33

2007년 평화보육원(평화의집) 전경(안양시청 제공)





비산1동 임곡에 있던 평화보육원 입구(2007년, 안양시청 제공)



평화보육원 원훈이 새겨진 비석(2007년, 안양시청 제공)



평화보육원 교육관(2007년, 안양시청 제공)

평 규모의 사무실을 새로 지었다. 1999년 5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75평 규모의 여자 숙사를 마련하였다. 이 숙사는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된 건물로,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2004년 5월에는 15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열린아동교육관을 개관하였다. 열린아동교육관은 평화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자 인근 지역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이었다. 평화보육원 아이들은 이곳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상담을 받고, 생일잔치를 열었으며, 주 1회 영화 관람을 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겼다. 또한 동사무소와 안양동초등학교에서 추천한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간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숙제 등을 도와주며 돌보았다. 열린아동교육관 내 컴퓨터와 책도 지역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sup>13</sup>

## 5. 후원의 발길과 지역사회와 교류

2024년 평화보육원의 후원자는 900여 명으로, 이 중 기업 후원자가 50곳 정도이다.

**김광진** : 학습지원 하는 데는 ‘아미회’라고요, 40년째 오는 대학생 봉사단체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오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모임이에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돌봐주고 있어요.

평화보육원과 가장 오래 인연을 맺고 있는 단체는 ‘아미회’이다. 아미회가 평화보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86년으로, 거의 4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사자** : 최수종 씨가 평화보육원 후원했다고 하던데요.

**김광진** : 그렇죠. 최수종 씨가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운동회도 하고. 최수종 씨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저희 후원해 주고. 아이들하고 몇 년 즐겨 놀아주고 그랬어요. (중략) 저희한테 후원해 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죠.

배우 최수종이 평화보육원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90년 2월의 일이다. 당시 최수종은 한 방송국 드라마에서 의대생 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다.<sup>14</sup> 1992년 6월 5일 『경향신문』의 「팬 성원 소외된 노인에 보은」 기사에 따르면, 최수종은 자신의 팬클럽 회원



2008년 아미회 봉사(평화의집 제공)

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군포시 평화의집과 안양시 평화보육원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최수종과 평화보육원의 인연은 4~5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화보육원에서 원생이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시기는 1970년이다. 1970년 1월 14일 『경향신문』에는 「고난을 딛고 자립의 내일로...구두담이 우등졸업생...용산고 이병기군」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기사의 주인공 이병기는 지병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자 살길이 막막해진 어머니에 의해 6살 때 두 동생과 함께 평화보육원에 맡겨졌다. 안양중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이병기는 서울 용산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병기는 보육원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신문 배달과 구두담이를 하면서 학교 근처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다. 결국 강한 의지로 공부에 매진한 결과 이과반 수석을 차지했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응시하였다.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는 합격하더라도 등록금이 큰 걱정이라고 하였다.

이 군은 평소 원하던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응시했고 무난하게 합격했다. 1946년 평화보육원이 설립된 이래 최초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 나온 것이다.



2013년 노루페인트 직원들의 평화보육원 내 벤치 페인트칠 봉사(평화의집 제공)

이 군의 후배 격인 평화보육원 아이들은 기사를 읽고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상당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숙사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며 공부가 큰 기회를 안겨 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곤 했다.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129쪽.)

1970년 1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에는 이병기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응시 소식만을 전할 뿐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이병기가 무난히 합격했고, 이 소식에 고무된 평화보육원 아이들이 공부에 매진했으며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대학 진학은 평화보육원 아이들에게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다.

**김광진** : 기업 후원자 중에는 기억 남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노루페인트라고. 사실 우리 애들이 대학 진학을 못 했어요. 예전에는 돈도 없고. 우리는 대학 가는 거 아냐. 근데 노루페인트에 양호재단이라는 그 모체가 있는데. 양호재단 이사장님께서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양호재단은 노루페인트 창업주인 고(故) 한정대 회장의 이웃사랑과 도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장녀인 한현숙 이사장이 2000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장학재단이다.<sup>15</sup> 양호재단에서 평화보육원 아이들한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4년제 대학 1명, 2년제 대학 2명이, 2008년에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 각 1명씩이, 2009년에는 2년제 대학에 1명이 진학하였다.<sup>16</sup> 2023년 2명의 여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중 1명은 경기대에 입학하여 LH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학교 앞에서 자취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원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닐 수 있다.

노루페인트 노래동아리인 ‘한소리’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평화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아준다. 또한 노루페인트 노조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분기별로 찾아와서 기부금을 내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광진에 의하면, 이들이 평화보육원이 인연을 맺은 지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1990년대 평화보육원은 대문의 빗장을 열고,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제법 넓은 운동장을 산책 삼아 들렀으며, 마을 잔치나 베품시장을 여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sup>17</sup>

**김광진** : 저희가 먼저 지역에 있을 때는 일 년에 한 번씩 바자회 해가지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어르신들 난방비도 드리고, 또 경로잔치를 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경로 잔치 했죠.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죠. 음악회도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바자회는 4월, 5월에, 음악회는 가을, 9월에 했었죠.

평화보육원은 2005년 4월 제1회 ‘사랑 나눔 바자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의 보금자리로 옮기기 전까지 꾸준히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바자회 수익금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신 경로잔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전달 등에 사용하였다. 음악회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화합에도 힘썼다. 그러나 2019년 현 위치로 이전한 이후에는 공간의 제약으로 바자회와 음악회를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다. 평화보육원 아이들은 주민들이 보육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놀곤 하였다.<sup>18</sup>



비산동 경수대로 변으로 이전한 평화보육원(평화의집)

## 6. 재개발과 보육원 시설 이전

평화보육원은 임곡 3지구 재개발 구역에 부지 일부(약 15%)가 편입되면서 비산동 510번지에서 비산동 566-3번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평화복지재단은 안양성모병원 부지를 매입한 뒤, 2019년 3월 대수선 공사를 허가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7월, 아동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양성모병원 시설 이전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 측에 보육원을 다른 적합한 장소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9월 8일에는 안양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고 시 관계자를 상대로 항의 방문을 계획하였다.<sup>19</sup>

**조사자** : 재개발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광진** : 그렇게 봐야겠쥬. 법원에서 새로운 시설을 다시 지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대토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 와중에 저희는 나와야 하고. 그래서 여기를 19년도에 매입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조사자** : 신문에 보니까 19년도에 이곳으로 올 때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 같은데?

**김광진** : 저 뒤에 꿈에그린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 왜지 시설이 온다면 하면 대개 혐오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플래카드 걸어놓고. 오지 마라, 여기 왜 오냐. 사실 시에서 데모도 하고 힘들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왔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저희가 오면서 활성화가 됐잖아요. 학원도 저희 아이들이 30~40명이 다니니까. 편의점 사장님도 오죽하면 너희들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농담으로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보육원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이전 당시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이들은 현재의 건물로 이사 왔을 때 처음에는 공간이 비좁다며 아쉬워했으나, 이제는 가정적인 분위기라며 만족해하고 있다. 요즘 보육원 아이들은 하교 후에 학원에 들렀다가 밤 10~11시가 되어서야 숙사에 들어온다.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다.

## 7. 평화의집 현황과 프로그램<sup>20</sup>

평화의집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인력 구성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보육·자립·상담·급식·의료·위생 등 기능별로 체계적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총 31명의 종사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보육사 18명은 숙소 단위로 배치되어 일상 속 긴밀한 돌봄을 가능케 한다.

〈표 2〉 평화의집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남	1	2	5	9	17
여	2	7	9	7	25
인원	3	9	14	16	42

〈표 3〉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내용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아동별 학원 수강/ 자원봉사자 연계
자립 지원 기술 익히기	하비 프로젝트(초4~)
모범 아동	모범 아동 시상상을 통한 바른생활 지도
문화 체험 활동	공연 관람 및 야외 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영어·개별 학습·독서 지도 등
심리치료	언어·인지·놀이·상담·미술 치료
아동 욕구 조사	욕구 및 만족도 조사(프로그램, 생활, 식단 등)
동아리 활동	매월 둘째 주 토요일(탁구, 배드민턴, 만들기, 자전거, 축구 등)
예체능 프로그램	미술·음악 수업/평화사생대회
모범 아동 해외연수	2024년의 경우, 5월에 고등학생 위주로 10명을 선발하여 일주일간 라오스 여행 겸 봉사활동(장애인시설)
5대 안전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성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 유괴 예방 교육 등
동·하계 수련회	숙사별·학년별 진행
평화 가족 캠프	후원자 1:1 매칭 프로그램
생일 잔치	숙사별·월별 진행
가정 체험	연고자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자립관 운영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퇴소 아동 관리	퇴소 후 5년간 정기적 연락 및 상담 진행
기타 행사	어린이날, 성탄절, 명절 행사, 꿈나무 체육대회 등

평화의집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옥상 하늘정원까지 총 6개 층 규모로, 교육·치료·상담·급식·숙소 기능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숙소는 나무 이름을 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과나무·잣나무·소나무 등 명칭은 아동들에게 친근한 정서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숙소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 공간에는 심리치료실과 자원봉사실, 식당 등 기능성 공간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상층부는 아동 숙소와 함께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자립관 운영 공간도 포함되어 있다. 옥상에는 하늘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정서적 안정과 자연 속 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도 이 시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기반 위에 평화의집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개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정서적 안정, 학습 역량 강화, 문화적 소외 해소, 자

립 역량 향상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은 단기적 돌봄을 넘어 장기적 사회적 자립으로의 연계를 지향한다.

또한, 퇴소 이후 5년간 정기적인 상담과 연락을 이어가는 사후관리 체계는 단순한 보호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아동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처럼 평화의집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아동의 삶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적 성장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까지 평화의집을 거쳐 간 아동은 1,500여 명에 이른다. 평화의집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과 안양시민대상(사회복지 부문)을 수상하였다. 평화의집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복지 욕구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註

- 1 2023년 3월 15일 평화복지재단은 좋은재단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23~27쪽, 29쪽, 30쪽, 32~34쪽.
- 3 『평화보육원 연내로 확장』, 『동아일보』, 1947년 4월 19일.
- 4 김광진(여, 1961년생, 송규현의 외손녀, 평화의집 원장), 2024년 5월 2일 구술.
- 5 평화의집 홈페이지(<http://www.peace-orp.or.kr>).
- 6 『평화보육원 신축』, 『동아일보』, 1947년 1월 21일.
- 7 『평화보육원 연내로 확장』, 『동아일보』, 1947년 4월 19일.
-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8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262쪽.
- 9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45~46쪽, 49~50쪽, 53쪽, 57~58쪽, 77~79쪽, 83쪽, 100~101쪽, 110~111쪽.
- 10 『직장친선탁구』, 『조선일보』, 1955년 11월 8일; 『직장친선탁구』, 『조선일보』, 1956년 10월 31일.
- 11 『아동복지 유공자』, 『경향신문』, 1987년 5월 4일.
- 12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61쪽, 62~63쪽, 118~119쪽, 124쪽.
- 13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113~114쪽, 115쪽, 119~117쪽, 155~156쪽.
- 14 「신앙으로 향상 마음 가다듬죠」, 『경향신문』, 1990년 5월 25일.
- 15 「양호재단과 정명훈이 함께하는 '희망과 나눔 음악회」, 『아주경제』, 2011년 6월 19일.
- 16 김광진, 「2010년 아동복지시설평가 자체평가 SHEET」,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6쪽.
- 17 송경호, 『평화복지재단 70년사, 돌아보고 내다보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2018, 178쪽.
- 18 김창일(남, 1972년생), 2024년 5월 2일 구술.
- 19 「안양 비산동 주민들, 아동보육시설 건립 반발」, 『중부일보』, 2019년 8월 7일.
- 20 '평화의 집' 현황과 프로그램은 '평화의 집'에서 제공한 자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 제2장

# 도시와 함께 성장한 학교, 안양동초등학교

---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 1. 산업화와 함께 커진 도시, 교육의 변화가 시작되다

평범한 농촌지역에 불과했던 안양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행정 중심지인 서울의 팽창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안양의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6개에 불과하던 기업체 수는 1966년 32개, 1971년에는 64개로 늘어나 1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업종별 성장 추세를 보면, 식료품 제조업은 1961년에는 하나도 없었다가 1971년에는 9개로 늘었고, 섬유업은 1961년 2개에서 1971년 8개로 증가하였다. 제지업도 1961년 2개에서 1971년 13개로 급증하였다. 화학업은 1966년 2개에서 1971년 13개로 3년 만에 11개가 늘었고, 의약업도 1961년 1개에서 1971년 4개로 증가하였다.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분야는 1966년부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4개로 늘었다. 기타 제조업 역시 1966년 3개에서 1971년 7개로 증가하였다.<sup>1</sup>

한국의 공업화가 처음으로 본격화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안양의 근대적 산업 시설 역시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안양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은 1932년 설립된 조선직물주식회사이다. 이 회사는 당시 안양의 대지주였던 일본인이 1만 평의 토지를 공장 부지로 제공하고,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립하였다. 안양은 경부선이 통과하고 서울, 특히 영등포 지역과 인접해 있어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해방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안양의 공업은 오히려 발전하였다. 1949년 기준으로 안양에는 총 147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이



1956년 이승만 대통령 금성방직 안양공장 시찰(국가기록원 제공)

중 3개만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해방 이후 건설되었다. 이는 안양의 공업이 해방 직후에도 활발히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속도는 더뎠지만 확대되고 있던 안양의 공업은 6·25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하여 공업 시설이 회복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전쟁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며 전쟁 이전 보다 더 확대된 공업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sup>2</sup>

해방 이전에도 안양에 공업 시설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1960~197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초반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공장들은 안양 지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장이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안양으로 몰려들었다. 1949년 먼 단위에서 읍으로 승격했던 안양이 1973년 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공업 시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은 대규모 주거지 조성 과 함께 식수·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안양이 시로 승격된 지 1년가량 지난 1974년의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양(安養)은 서울역에서 24km 떨어진 인구 12만 명의 위성도시로 서울과 수원(水原)의 중간 지점. 관악산(冠岳山) 입구의 유원지와 근교의 포도밭은 서울 시민의 당일 레저코스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굴직한 공장들이 다투어 들어서 시 외곽 지대는 많은 공장이 들어섰고 작년 7월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로 승격,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68년에 손을 댄 2개의 구획정리지구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시 당국은 금년에 50만 평의 새로운 택지 조성에 착수한다.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안양천(安養川)이 공장 폐수에 오염, 식수난을 겪어왔으나 금년 안에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작년 6월 비산동에 2만 5천t급 정수장이 완공, 현재 시내에 배수관을 묻고 있어 연내에 3천여 전의 가정용 수도가 가설된다. 전철 개통에 따라 기존 안양역 외에 관악, 명학 등 2개의 전철역이 신설, 주민들은 전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각광의 여울 따라 — 전철역 주변 부동산 가이드, ③ 안양지구』, 『조선일보』, 1974년 3월 12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 문을 연 학교로는 안양초등학교(1929년 12월 20일 개교), 안양남초등학교(1946년 3월 15일 개교), 관양초등학교(1948년 4월 1일 개교), 삼성초등학교(1949년 3월 1일 개교)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네 학교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1년 11월 29일 만안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안양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된 첫 번째 초등교육 시설이라 할 수 있다. 196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 다섯 학교의 재학생 수와 교실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1964년 안양 지역 초등학교 아동수 및 교실 수 현황

(단위 : 명, 개, 1964.1.1. 기준)

학교	재학 아동수			교실 수		학급수	부족 교실 수
	계	남	여	정규	가건물		
안양초교	2,499	1,278	1,221	27	5	31	
흥안초교	636	341	295	9		11	2
관양초교	496	248	248	4	3	9	2
삼성초교	899	423	476	10		11	4
만안초교	1,729	886	843	20		23	3

자료 : 시흥군, 『시흥군 제4회 통계연보』, 1964, 93-94쪽.



1970년대 만안초등학교 음악시간(만안초등학교 제공)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안양은 오랫동안 시흥군에 속한 읍 단위의 작은 지역이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제조시설이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973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시설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기존 세 개 학교의 학생 수가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안양초등학교의 경우, 1964년 1월 1일 기준 2,499명이던 학생 수가 1964년 말에는 2,84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안양남초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 636명에서 718명으로 늘었다. 만안초등학교 역시 1,729명에서 1,963명으로, 관양초등학교는 496명에서 551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삼성초등학교는 899명에서 893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sup>3</sup>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년 사이에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안양 시내에 있던 상당수 초등학교가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1964년 말 현재, 안양초등학교·흥안초등학교·관양초등학교가 각각 3개의 교실이 부족하였으며, 삼성초등학교는 4개, 만안초등학교는 6개 정도의 교실이 부족하였다.<sup>4</sup> 이러한 사정은 그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1968년, 다시 말하자면 안양동초등학교가 개교하기 한 해 전에는 이들 5개 초등학교에 부족한 교실 수가 35개에 달하였다.

〈표 2〉 1968년 안양 지역 초등학교 현황

(단위 : 명, 개)

학교	재학 아동수			교실 수	학급수	부족 교실 수
	계	남	여	정규		
안양초교	3,407	1,727	1,680	31	47	16
흥안초교	728	388	340	11	13	2
관양초교	513	287	226	10	12	2
삼성초교	1,144	585	559	13	16	3
만안초교	2,497	1,298	1,199	25	37	12

자료 : 시흥군, 『시흥군 제8회 통계연보』, 1968, 134쪽.

한편, 안양동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연 1969년 6월 30일 현재 안양 지역에 있었던 6개 학교의 학급, 교원 및 재학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1969년 안양 지역 초등학교 학급 및 인원 현황

(단위 : 명, 개)

학교명	교원 수			재학생 수			학급수
	남	여	계	남	여	계	
안양초교	32	25	57	2,369	2,149	4,518	54
안양동초교	10	6	16	526	498	1,024	15
안양남초교 (흥안초교)	8	10	18	556	483	1,039	16
관양초교	5	8	13	366	295	661	12
삼성초교	15	11	26	890	876	1,766	24
만안초교	29	25	54	2,219	2,024	4,243	51

자료 : 시흥군, 『시흥군 제10회 통계연보』, 1970, 122쪽.

## 2. 비산동의 성장과 안양동초등학교의 탄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80번길 34에 자리하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는 1969년 3월 1일에 문을 연 안양의 초등교육 시설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초등학교가 설립



1970년대 안양동초등학교 주변 임곡마을 전경(이정범 제공)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양에는 5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안양초등학교를 비롯해 안양남초등학교(흥안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이다. 5개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각각 만안구 안양동, 동안구 갈산동, 동안구 관양동, 만안구 석수동, 만안구 안양동이다. 이들 학교가 있는 지역은 안양의 중심지이자 비교적 일찍부터 팽창이 된 곳이다.

이와 달리 1969년에 개교한 안양동초등학교가 위치한 비산동은 산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바람이 비교적 늦게 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안양동초등학교가 개교할 무렵을 비롯해 그 후 몇 년이 지날 때까지 하더라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비산동 토박이인 안양동초등학교 6회 졸업생 심재민이 기억하기에, 당시 안양동초등학교가 개교한 임곡마을 일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았으며, 제대로 도시락을 싸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

**조사자** : 선생님 학교 다닐 때에는 생활 형편이 애들이 어땠나요?

**심재민** :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국제지도 들어오고 그럴 땐데 다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안양동초등학교

비선동 임곡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안양동초등학교(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조사자** :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심재민** :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드시니까.

**조사자** : 얼마 정도 힘들었나요?

**심재민** : 식사를 겨우 하는 정도지.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우유하고 빵을 배급했잖아요. 옥수수빵을 학교에서 나눠주면 그거 먹고 그랬지. (중략) 계란을 가지고 오는 애들도 드물었어요. 그 당시 도시락에 계란 싸 오면 완전히 부러조아였지.<sup>5</sup>

안양시의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비산동에 안양동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은 1960년대에 안양 지역이 팽창하면서 기존의 초등학교만으로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안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컸던 안양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온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학생을 원활하게 교육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교적 늦게 설립된 만안초등학교 역시 그러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양초등학교의 경우 늘어난 학생으로 인해 1960년대 내내 교실 수가 부족하였다. 1966년에는 11개, 1967년에는 12개, 1968년에는 무려 16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였다. 그리고 1968년의 자료<sup>6</sup>를 보면, 당시 안양초등학교 재학생은 3,407명이었으며 입학생은 818명이었다. 818명이라는 신입생 수가 많은 것이긴 하나 안양 지역이 팽창하던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외지에서 전학을 온 학생들도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두 번째 배경은 안양동초등학교가 위치한 비산동 지역의 팽창과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농촌지역의 모습을 간직했던 비산동은 안양이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였다. 1973년에 시 승격에 맞추어 비산동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1982년 9월 1일에는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더욱 늘어나면서 1990년 5월 20일에는 비산2동에서 비산3동이 분동되었다.

안양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1974년 비산동의 가구 수는 2,236가구이고 전체 인구는 1만 909명(남 5,271명, 여 5,638명)이었다. 인구 비율은 안양시 전체의 9%였는데,<sup>7</sup> 이는 안양 중심지에 자리한 안양동이나 석수동에 비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974년 3월 12일 『조선일보』에는 1970년대 비산동



2003년 안양동초등학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발전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실렸다.

안양(安養)이 시로 승격함에 따라 부동산값이 오르기 시작. 작년 가을에 비해 70%가량 뛰었다. 도심지는 평당 50만 원을 호가하는 상가가 있고 주택지도 비싼 편. 역에서 1km 거리의 신흥주택(대지 40평 건평 17평)이 4백만 원. 인플레이우드 때문에 집을 내놓은 사람이 많지 않다. 전셋값도 작년 봄에 배로 뛰어 독채의 경우 1백만 원에도 구하기 어렵다. 시 당국은 비산동(飛山洞), 관양(冠陽), 평촌동(坪村洞) 등 3개동에 걸친 1백여 만 평의 전답을 구획 정리 지구로 고시, 75년까지 그중 50만 평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택지는 경수(京水)국도 양면에 위치하고 안양(安養)역과 명학(鳴鶴)역에 인접해 있다. 현시세는 도로 부근이 1만 원 선이고, 나머지는 3천 원 내외. 현재는 도로보다 낮은 논밭이기 때문에 흙을 메워야 택지로서 가능하다. 새 구획정리지구로는 안양(安養) 시민들이 1급 택지로 꼽고 있는 구 유원지 입구에서 기독보육원에 이르는 일대의 17만 평. 이 일대는 안양(安養)시가지를 굽어볼 수 있는 관악산(冠岳山) 기슭 녹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지로서는 환경이 좋다.(『각광의 여울 따라 — 전철역 주변 부동산 가이드, ③ 안양지구, 『조선일보』 1974년 3월 12일)

비산동에 안양동초등학교가 생겨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3~4km 정도 떨어진 안양초등학교로 통학해야만 하였다.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보로 통학하던 어린 학생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헤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통학하였다. 1965년 12월 20일 『경향신문』에는 비산동에 거주하던 아이들이 거리가 먼 안양초등학교를 다녔던 사실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실렸다.

가난한 살림으로 진학의 길이 막혔던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187 조동배(12, 안양국민교 6) 어린이에게 밝은 내일이 약속됐다. 서울 한전 운수사무소 윤덕병(38) 소장이 조 군을 돕겠다고 나선 것. 1일 하오 경향신문사를 찾아온 윤 씨는 지난 17일 자 경향신문 4면에 난 조 군의 이야기를 읽고 “무척 가슴이 아팠다”면서 조 군의 등록금 일체와 책값을 부담하겠다고며 우선 1만 원을 기탁했다. (‘조 군 돕겠다’ 한전 윤덕병 씨, 『경향신문』 1965년 12월 20일)

안양과 비산동의 팽창 과정에서 등장한 안양동초등학교는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꿈, 사랑, 희망을 키우는 다정한 안양동 어린이’라는 교훈을 내걸고 1969년 3월 1일에 개교한다. 개교에 앞서 1968년 12월 24일에 설립을 인가받았으며, 초대 교장으로 정규철 교장이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개교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1971년 2월 28일에 제1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1969년 3월 1일에 1학년으로 입학한 심재민의 증언에 따르면, 안양초등학교에 다니던 6학년 학생들이 안양동초등학교가 생겨나면서 전학하였다.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 1회 졸업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이성환이다. 그는 안양초등학교에 다니다가 6학년 때 비산동에 안양동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다고 한다. 2회 졸업생 송경식 역시 안양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집에서 가까운 안양동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송경식은 4학년 1학기 때 안양동초등학교로 전학하였는데, 안양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비산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옮기게 하였다. 본래 3학년 때 옮기려 하였으나 개교가 1년 늦어지는 바람에 1년 뒤에 옮겼다는 것이 송경식의 설명이다.

그를 비롯해 비산동에 거주하던 아이들은 안양동초등학교가 생겨나면서 3~4km 떨어진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안양초등학교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안양동초등학교가 생겨나면서 별



1990년대 안양동초등학교 앞 문방구(이정범 제공)



안양동초등학교 가는 길(1990년대, 이정범 제공)



1982년 안양비산동초등학교 운동회 1학년 무용(박재원 제공)

다른 어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1969년 개교 당시 안양동초등학교는 학급 수 14개, 교원 16명, 학생 1,024명이었다. 그 이후 학생 수가 점점 늘어 1975년에는 학급 수 21개, 교원 수 23명에 달하였다. <표 4>는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 안양동초등학교의 규모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sup>8</sup> 1969년 3월에 1학년이 입학하였으나, 1970년부터 해마다 졸업생이 배출된 것은, 안양초등학교에서 이 학교로 옮겨온 학생들 가운데 2~5학년도 있었

기 때문이다.

한편, 초창기 안양초등학교 재학생 가운데는 임곡마을에 있었던 평화보육원의 원생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보육원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초창기 안양동초등학교에는 상당한 수의 원생이 있었다. 졸업생들의 기억에 의하면, 보육원 원생과 다른 학생들 간의 기싸움이 종종 벌어지곤 하였다고 한다.

〈표 4〉 안양동초등학교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개)

연도	학급수	교실 수	교원 수	재학생 수	졸업자	진학자	신입생
1970	15	15	16	1,039	133	102	191
1971	18	17	12	1,251	157	122	212
1972	19	19	21	1,261	176	136	200
1973	19	19	21	1,245	176	133	133
1974	19	19	21	1,341	209	173	266
1975	21	19	23	1,390	205	155	171

자료: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70; 1971; 1972;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1973; 1974; 1975.

### 3. 함께 만들어간 학교, 첫 세대의 기억

1969년 3월 1일에 문을 연 안양동초등학교는 55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학생을 길러냈다. 다만, 학교가 문을 연 초창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학교를 정비하는데 여러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하였다. 1969년에 1학년으로 입학한 심재민과 그의 친구들은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학교 운동장에서 돌을 캐내거나 줍는 일을 자주 하였으며, 여러 곳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이를 제거하는 일에도 매진해야 하였다. 심재민은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한 기억보다 학교를 정비한 기억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안양동초등학교 개교와 함께 입학한 동문들은 다른 동문에 비해 학교에 대한 애정과 감정이 특별하다고 한다.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여러 동문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안양동초등학교 발전에 일정 부분 이바지할 목적으로 동문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비산동을 비롯해 안양 지역에 살던 동문들은 오래전부터 동문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준 인사들이 모여 1998년 10월 18일에 동문회를 발족하였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발족 당일에는 200명이 넘는 동문이 참석하였다.

동문회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은 초대 회장인 이성환(1기)을 비롯해 개별 기수(1~11기)의 대표들이었다. 당시 동문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문은 김혜경(2기), 박이호(3기), 신동수(4기), 도순훈(5기), 심재민(6기), 신태범(7기), 윤기(5기), 박범대(9기), 안덕근(11기) 등이었다. 초대 동문회장인 이성환은 18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그가 오랜 기간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다음 기수(2기)에서 선뜻 회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고인이 된 이성환 회장은 오랫동안 안양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동문회 발족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동문은 심재민이다.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1대 동문회장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부터 동문회의 역사와 함께한 인물이기도 하다. 심재민은 이성환이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사무국장을 맡아 여러 동문이 한자리에 모이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이라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았지만, 남다른 애정과 열

1986년 안양동초등학교 5학년 반 단체사진(박재원 제공)



정으로 여러 선후배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동문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1998년에 시작된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는 지금까지 4명의 동문이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회장을 맡았던 동문은 초대~9대 이성환(1기, 1998~2016년), 10대 주병근(4기, 2017~2018년), 11대 심재민(6기, 2019~2022년), 12대 도순훈(5기, 2023년~현재)이다.

초창기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 회원은 100여 명이 훨씬 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문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회원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기수마다 별도의 회비를 걷기는 하지만, 동문회에 별도로 회비를 내는 동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문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성 1명·여성 1명), 사무장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총동문회와는 별도로 개별 기수마다 대표(회장)를 두고 있기는 하나, 모임이 다소 정체되면서 어느 기수까지 대표가 정해져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한다.

#### 4. 동문이 만든 학교, 동문이 지켜온 전통

1998년 10월 18일,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자리에서 힘차게 출발한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하긴 했지만, 동문회를 이끄는 핵심 구성원들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

26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회장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년 가까이 회장을 수행한 동문이 있긴 하나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 보통 2~3년 동안 역할을 하고 있다. 회장이 새로 뽑히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긴 하지만,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관한 것이다. 물론 번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문의 동향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런 의도로 시작된 활동이 바로 동문회보 발간이었다. 심재민에 따르면, 지금은 동문회보를 발간하지 않지만 1999년에 시작해 4~5번 정도 회보를 발간하였다고 한다. 동문회보에는 회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는 기본이고, 동문의 동향 등을 게재하였다.



2019년 안양동초등학교 총동문회 17회 한마음 체육대회 당시 3회 졸업생 회갑 축하(심재민 제공)

**조사자** : 선생님 예전에 동문회보도 만들었나요?

**심재민** : 네, 동문회보 만든 적이 있어요. 1999년도, 99년도에 발간했을까? 처음으로. 내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회원 동향도 들어 있고요. 어디 취업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사자** : 그럼 몇 권이나 발간되었나요?

**심재민** : 아마 4~5번 나왔을 거예요.

**조사자** :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심재민** : 회비를 걸어서 만들었어요.

1998년에 발족한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행사는 여러 동문이 함께 모여 진행한 체육대회였다. 체육대회의 명칭은 ‘제1회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였다. 1999년 5월 30일에 개최된 체육대회에는 비교적 많은 동문이 참여하여 달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운동을 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체육대회에 필요한 비용은 기수별로 모금하였는데, 기수마다 100만 원을 모았으며, 회장을 비롯해 고문들도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다. 동문회가 발족하고 처음 열린 체육대회는 기대 이상으로 많

은 동문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문회가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기수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했으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을 만나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안양동초등학교 한마음 체육대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열렸으나, 2023년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이다. 심재민은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원들은 동문회 체육대회가 동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는 체육대회처럼 여러 기수가 함께하는 행사 이외에도 기수별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문회가 만들어진 이후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몇몇 동창생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름 활발하게 활동한 기수는 9기인데, 이 기수는 온라인에 카페 공간을 마련하여 기수들끼리 안부를 묻고,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회비를 걷어 자체적으로 기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또 다른 활동은 모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동문 간의 친목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동초등학교가 발전하고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동문회의 모교 발전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학교 운동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동문회가 발족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동장 확장 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좁아 확장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양시도, 안양동초등학교 측도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 동문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안과 도면을 마련해 안양시장을 만나 설득하였다. 누구도 추진하기 어려운 일을 동문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사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작된 운동장 확장 공사는 2011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심재민** : 1999년인가 운동장 확장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한 이유는, 운동장이 너무 좁았어요. 지금 학교 위에 개축을 하면서 운동장에 학교를 짓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셔서 운동장으로 하고 방향이 바뀐 거죠. 이쪽에 운동장이 있었으면 저쪽으로 인제 운동장에서 바꾸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운동장이 너무 조그마해서 운동장 확장 공사를 한 거죠.

**조사자** : 그럼 동문회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심재민** : 동문회에서 제가 사무장을 하고 있을 땐데, 학교 건너편에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주공아파트



2008년 안양동초등학교 운동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재개발을 할 때 나온 돌을 가져와서 운동장 공사를 하면 된다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커드 작업을 해서 시장님께 면담 요청을 하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운동장 위치도 괜찮다고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안양시하고 이제 LH공사하고 같이 이제 교육청하고 해서 운동장을 확장한 거죠.

안양동초등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문회 임원과 수십 명의 구성원은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안양시와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제안 덕분에 지금과 같은 운동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

운동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진행된 ‘백만 그루 나무 심기’에도 동문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문회 구성원들은 넓어진 운동장 주변과 학교 여러 곳에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동문회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구성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400만 원을 마련해 모종을 구입하였다. 중장비를 보유한 동문회원의 도움을 받아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으며, 학생들은 물론 여러 동문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회원들이 모은 돈으로 책을 구입해 후배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부하였다.<sup>9</sup> 또한 졸업식에 참석하여 동문회 회장의 이름으로 모범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동문회 임원과 여러 동문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그동안 학교에 없었던 강당을 준공할 수 있었다.

## 5. 학교와 함께 걸어온 세월,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며

안양동초등학교와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학교 주변 지역 개발 및 팽창 과정에서 야기된 학구 조정과 학교 이전 문제였다. 안양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맞물려, 1960년대 전후부터 시작된 이러한 논의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996년에 이루어진 초등학교 학구(學區) 조정 협의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京畿)도 안양(安養)시와 안양교육청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생겼는데도 먼 거리를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을 협의 중이다. 27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안양동초등학교 학구인 동안(東安)구 비산(飛山)1동 26통 1백19가구 주민들은 통학 거리가 1.2km나 된다며 3년 전 세워진 7백m 거리의 중앙초등학교에 자녀들이 다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략) 시와 교육청은 이같이 학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3개교는 주민 요구대로 학구를 조정하기로 합의, 재학생들은 원하는 시기에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산3동 2통과 29통 9백55가구 주민들이 같은 거리에 새로 개교한 학교로 학구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와 부흥(復興)동 9~11통 7백70가구와 29~30통 9백41가구가 최근 개교한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교육 여건이 좋은 신설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돼 조정을 미루고 있다. (『연합뉴스』, 1996년 1월 27일)

학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1990년대와 달리, 2018년에 논의된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학교와 동문회로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무렵 학교 이전 논의가 등장하게 된 핵심 배경은 학교 주변에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도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대단위 주거 단지가 들어섰지만,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는 규모 면에서이전의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sup>10</sup>



2001년 백만 그루 나무 심기 행사 때 심재민 동문이 심은 나무(심재민 제공)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2018년)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비산1동 임곡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시위(2018년, 심재민 제공)



2024년 안양동초등학교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안양동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로 이전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편하고 아파트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와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입주자 외의 비산1동 주민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와 마을 주민들은 교육청과 안양시청을 찾아가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놓고 교육청과 학부모, 총동문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동초등학교를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총동문회와 학부모들은 19일 오전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지원청은 이전을 빌미로 안양동초등학교를 폐교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학교가 이전할 경우 통학거리가 1.5km 늘어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때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지원청은 임곡3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어려워 신설 대체 형식으로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969년 개교한 안양동초등학교는 현재 4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놓고 교육청-학부모 갈등』, 『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

동문회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가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완강히 반대한 이유는, 그 계획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학교를 평촌자이아이파크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전할 경우, 1.5km가 넘는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안양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동문회는 이전보다는 개축 및 보수를 통해 기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부분을 검토해 줄 것을

교육청과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국 학교 이전 계획은 철회되었다.

1998년에 발족한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학교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의 발전과 개선에 가장 앞장서 왔다. 55년이 넘도록 안양동초등학교가 비산동에서 중요한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문회 구성원들은 누구보다 안양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교에 대한 애교심 또한 남다르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의 활력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18년 동안 이어오던 체육대회가 2022년 이후로 중단되었으며, 지속해서 이어져 오던 다양한 형태의 모임 역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준비했던 『안양동초등학교 50년사』 발간 작업 또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동문회에서는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개인이 소장한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큰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동문회 발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모임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8년 넘게 이어오다 중단된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며, 이전처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 발전뿐 아니라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만난 심재민의 견해이다. 그는 예전처럼 동문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많은 구성원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은 있지만, 동문회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모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몇 명의 동문만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쉽게 타개하기 어렵지만, 12대 회장인 도순훈을 비롯한 여러 임원을 만나 조만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만 초창기 기수(1~11기)는 그나마 적극적으로 동문회 부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12기 이후 기수는 동문회 모임이나 활성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동문회에서는 다양한 기수가 더 적극적으로 동문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2024년 현재 55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동초등학교는 비산동의 팽창과 발전에 따라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나갈지 알 수 없다. 1990년대 후반과 2018년 후반에 있었던 학교 조정과 학교 이전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동문회

# 안양동초등학교 연혁

## 1960

- 1968학년도  
안양동초등학교 설립 인가
- 1969년  
안양동초등학교 개교(10학급)  
초대 정규철 교장선생님 취임

## 1970

- 1971년  
제1회 졸업식

## 1980

- 1984년  
안양중앙초등학교 개교로 학구 조정

## 1990

- 1998년  
총동문회 발족 및 첫 번째 정기총회  
(회장 이상환)
- 1999년  
총동문회 첫 번째 한마음 체육대회

## 2010

- 2011년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운영(1년차)  
NTTP 배움과 실천 공동체 운영,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09 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 지정
- 2012년  
경기혁신 교육 발전 및 인권 존중 교육 풍토  
조성 등 교육감 표창 다수 수상
- 2014년  
안양 희망 창조(혁신공감)학교 1년차 운영
- 2015년  
창의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우수학교 표창
- 2016년  
안양희망창조학교 3년차 운영
- 2018년  
혁신학교 지정
- 2019년  
제50회 졸업식(85명, 누계 10,161명)

## 2020

- 2020년  
2020 원격교육선도학교 유공  
교육감 표창
- 2023년  
디지털창의역량교육활성화학교  
유공 교육감 표창
- 2024년  
IB교육 운영 및 자율활성화 우수  
과제 운영 등 4관왕 표창  
55회 졸업식 (115명, 누계 10,654명)



를 이끄는 여러 구성원 역시 항상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문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전처럼 동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안양동초등학교 동문회가 새로운 동력을 얻어, 1만 명이 넘는 동문은 물론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와 앞으로 새로운 동문이 될 후배들에게 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모임으로 오래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1 안양문화원, 『안양의 근대사 산책』, 2017, 138쪽.
- 2 안양문화원, 『안양의 근대사 산책』, 2017, 136쪽.
- 3 시흥군, 『시흥군 제5회 통계연보』, 1965, 120쪽.
- 4 시흥군, 『시흥군 제5회 통계연보』, 1965, 120쪽.
- 5 심재민(남, 안양동초등학교 6기), 2024년 10월 23일 구술.
- 6 시흥군, 『시흥군 제8회 통계연보』, 1968, 134쪽.
- 7 안양시, 『제2회 통계연보』, 1975, 46쪽.
- 8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70; 1971; 1972;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1973; 1974; 1975.
- 9 지금은 방식을 바꿔 학교에 돈을 주고, 학교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 10 GS건설에 따르면 평촌자이아이파크는 교통과 편의시설, 교육 등 주거 3박자를 고루 갖춘 단지로 조성된다. 여기에 2,6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들어서며 초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

되어 수요자 선택 폭을 넓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대 임곡3지구를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지어진다. 지하 5층~지상 29층, 21개 동, 총 2,637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39~102㎡, 1,0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9㎡가 110가구, 45㎡ 112가구, 49㎡ 274가구, 59㎡ 329가구, 75㎡ 120가구, 84㎡ 124가구, 102㎡는 4가구로 선보일 예정이다. 분양 물량 99% 이상이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49㎡ 이하 초소형아파트는 496가구다. 희소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안양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2,000가구 규모에 불과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여전히 높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안양시에서 선보인 아파트는 2,086가구가 전부다. 올해 분양 단지 4곳은 모두 청약 1순위에서 마감하였다. (『GS건설,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내달 오픈... 1073가구 일반분양』, 『동아일보』 2018년 11월 28일)

## 제3장

# 비산동 교육의 요람, 대림대학교

---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대림대학교의 설립과 발전

대림대학교는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학으로, 2년제 및 3년제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의 전신은 '대림공업전문학교'이다. 1970년 학교법인 대림학원 설립 인가를 받고, 1977년 대림공업전문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77년 12월 29일 발표된 문교부의 1978학년도 전문학교 입학 정원에 따르면, 대림공업전문학교는 기계 200명, 전기 80명, 건축 120명, 토목 80명 등 총 480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sup>1</sup>

1978년 3월 2일 성환태 교장이 취임하고 3월 11일 입학식을 거행함으로써 대림공업전문학교의 개교를 알렸다. 대림공업전문학교가 사용한 교표는 한문으로 큰 '대(大)', 수풀 '림(林)'이었다. 즉 대림을 한문으로 표기한 대림산업(株)의 당시 회사 마크 중간에 장인 '공(工)'을 더해 대림 계열의 공업전문학교임을 나타냈다.<sup>2</sup> 1996년 8월에 대학 교표를 세계화·현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 6월 교내 공모로 10여 점의 도안을 1차로 선정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유수연 교수가 도안한 현재의 교표를 채택하였다.<sup>3</sup>

**초광희** : 여기가 입학생들 성향을 보면, 옛날에 동아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있었잖아요. 여기 입학하면 대림산업에 다~ 취업하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또 그렇게 많이 갔고.<sup>4</sup>

대림산업에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입학하면 모두 대림산업에 취업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입학경쟁률도 높았고, 학생들이 기사 자

# 대림대학교 연혁

##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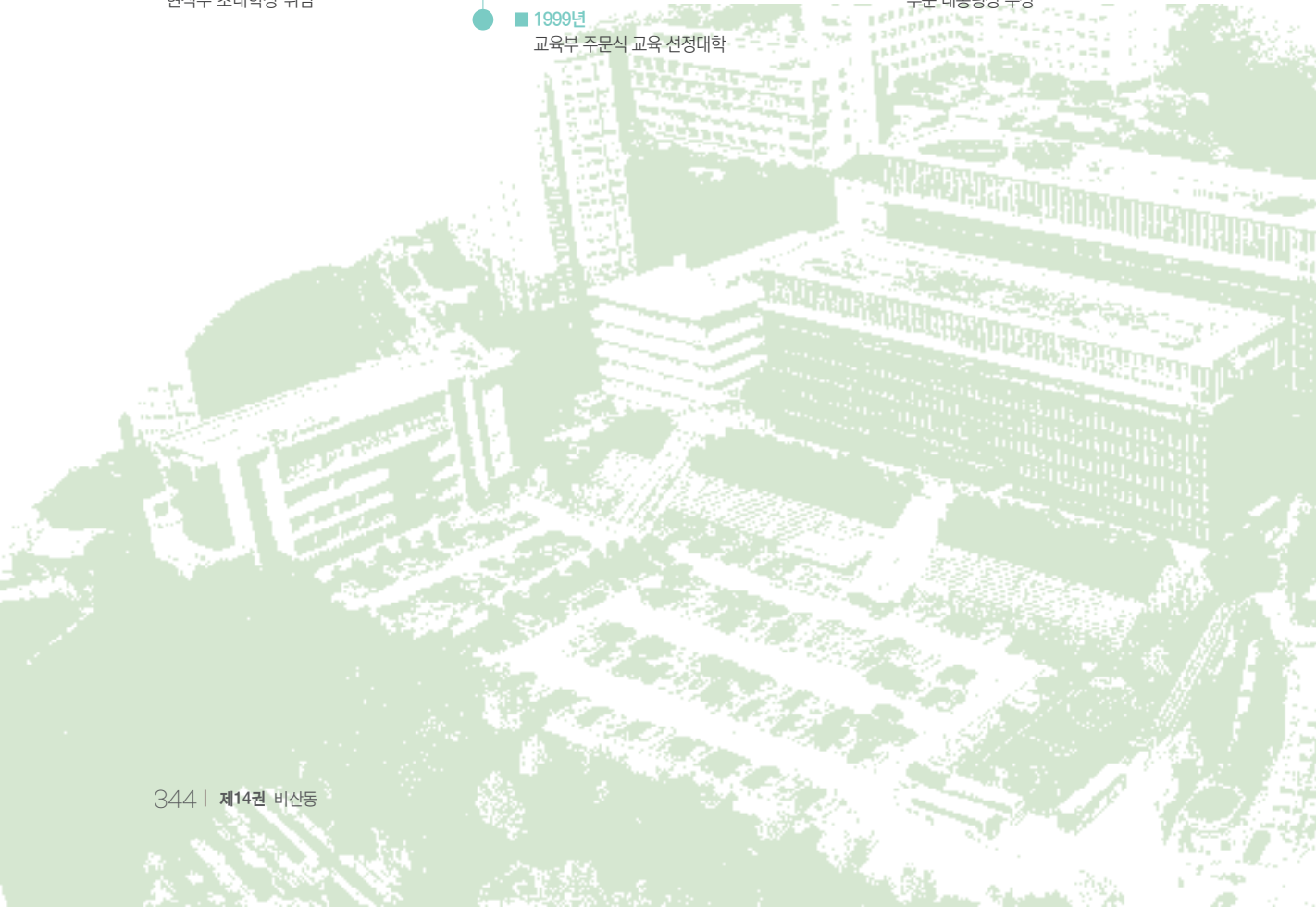
- 1970년 8월  
학교법인 대림학원 설립 인가 및  
설립자 이재준 선생 이사장 취임
- 1977년 6월  
대림공업전문학교 설립 인가(토목,  
건축, 기계, 전기 4개 과)
- 1978년 3월  
대림공업전문학교 개교
- 1978년 12월  
대림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인가
- 1979년 3월  
현석주 초대학장 취임

## 1990

- 1990년 10월  
대림전문대학으로 교명변경 인가
- 1996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감사  
결과 전 부문 우수 평가
- 1997년  
전문대학 종합평가 종합우수전문대학  
선정  
교육부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 1998년 5월  
대림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99년  
교육부 주문식 교육 선정대학

## 2000

-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우수시범학교  
선정
- 2002년  
정보통신부 IT학과 선정 대학  
중소기업청 산학연 컨소시엄 선정
- 2005년  
산업자원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 선정
- 2009년  
2009년 중소기업 혁신대전 기관단체  
부문 대통령상 수상





# 2010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표브랜드사업 선정
- 2011년 12월  
대림대학교로 교명변경
- 2012년 10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4개학과 설치 인가
-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2013년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World Class College)' 선정
- 2014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평가 우수 및 2단계 연속 선정
- 2015년  
교육부·고용노동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Uni-Tech 사업 선정
-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속지원 대학 선정
- 2019년  
2019년 국가산업대상 인재육성 부문 우수상 2년 연속 수상(산업정책연구원)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 2단계 선정

# 2020

- 2020년  
국가산업대상 인재육성 부문 우수상 (3년 연속) 수상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 선도형) 선정
- 2021년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차세대반도체) 선정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미래자동차 분야) 선정
- 2022년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선정
-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연차평가 A등급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A등급
- 2024년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2.0) 고도화형 선정 및 연차평가 A등급  
교육부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 선정
-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대림대학교 전경





대림대학교 상징물

격증을 취득하는 등 열정이 대단하였다.

1978년 12월 20일 문교부는 전문학교의 전문대학 개편 계획에 따라 전국 111개 전문학교와 4개 초급대학 등 115개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개교 1년 만인 대림공업전문학교는 1978년 12월 28일 대림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79년 3월 현석주 초대 학장이 취임하였다.<sup>5</sup>

1979년 3월 5일 대림공전업전문대학 운동장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대림학원 이재준 이사장은 축사에서 “본 대학 창학 이념을 근간으로 근면·성실하고 긍지 높은 산업의 역군이 되어라.”라고 당부하였고, 현석주 학장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각하여 내실을 기하는 대학 생활을 하며, 숭선수범하는 자주적 자세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데 새 전통을 수립하는 기수가 되어라.”라고 부탁하였다.<sup>6</sup>



대림대학교 로고

1990년 10월 23일 학교 이름에서 ‘공업’을 제외하고 대림전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명 변경은 공학 계열 일변도의 학과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인문·사



대림대학교 상징탑

회·체육 분야 등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여 종합 전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8년 5월 1일 대림전문대학을 대림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12월 대림대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교명 변경을 전후로 대림대학교는 교육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특성화, 산학협력, 주문식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교육 품질과 특성화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이후에도 정부 주요 부처의 각종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인력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에는 종합우수전문대학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다. 같은 해에 교육부의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교육의 신뢰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 2. 산기술에 조성된 대림대학교 캠퍼스

대림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은, 관악산 줄기인 비봉산자락 깊은 골짜기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임곡(수푸루지)’이라고 불리었다. 대림학원이 이곳에 학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조그만 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판자촌으로, 안양시에서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었다. 1971년 8월 9일 비산동 526-7번지 외 1필지 4만 800㎡를 매입한 것을 계기로, 대림학원은 2007년까지 총 11만 5,520㎡의 교지를 확보하였다. 대림학원은 이곳에 안양여자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1973년 이미 인가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안양여자중·고등학교를 이전하기로 한 부지에 공업전문학교를 건립하게 되었다. 1974년 7월 3일 정지 공사를 시작하여 진입로와 학교 앞 교량 공사, 경비실 건축공사를 4개월 만에 완료하였다. 1976년 9월 별관(기계과 실습실)을 신축하고 10월 4일 본관(현 퇴계관)을 착공하였다.<sup>7</sup>

**조광희** : 이 건물(퇴계관)이요? 대림산업이 아니면 이 악성 바위 위에다가 이거 공사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어놨는데요 크랙 하나 안 갔어요. 그대로. 이거 진짜 백 년은 갈 거예요. 백 년 더 갈 거



본관(현 퇴계관)과 학생관 준공에 이은 실습관(현 울곡관) 건설(1978년, 대림대학교 제공)

예요. 구조가 탄탄해서.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앞으로 오십 년 이상 더 간다고  
봅니다.

**조사자** :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죠?

**조광희** : 네.

대림대학교는 남향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지반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조광희는 대림산업이 아니면 이곳에 학교 건물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암반 위에 세운 건물이라 100년 이상 사용하여도 끄떡없다고 하였다. 암반으로 형성된 부지의 정지 공사 때는 대부분 발파작업으로 일관하였다. 그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축대를 쌓고 옹벽을 설치하고 터를 고르는 기초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를 웃돌 정도였다.<sup>8</sup>

**조광희** : 이게 전문학교 개설할 때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학생을 78년도에 받았으니까. 퇴계관하고 울곡관, 학생회관. 이 3개가 전신이에요. 78년도에.

**조사자** : 그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조광희** : 리모델링은 6층하고 7층을 올린 거죠. 5층까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6, 7층 올린 거는 지금으로부터 십이삼 년 전.

**조사자** : 십 이삼 년 전이면 2012년 전후하겠네요?



2

3

4

1

5

6

10

11

9

8

7

12

13

**조광희** : 예. 퇴계관하고 율곡관하고 증축을 한 거죠.

**조사자** : 원래 퇴계관이 5층이었고.

**조광희** : 예. 율곡관도 5층. 2개 층을 증축한 거죠.

**조사자** : 원래 엘리베이터도 없었는데?

**조광희** : 엘리베이터 다 해놓고, 양쪽으로.

**<표 1> 대림대학교 건물 현황 및 주요 시설**

번호	건물 이름	사용 학과	주요 시설 및 특징
1	홍지관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언어치료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대림아트홀, 아트홀갤러리(전시실), 카페, 제증명 발급기, 은행 ATM기 등
2	한림관	스포츠지도과	실내체육관 등
3	정보통신관	스마트전자통신학부, 방송음향영상학부, 스마트전자통신학부, 디지털전자과, 전자통신과	
4	대학본부관		총장실, 법인사무국, 입학팀,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산학협력단 등
5	율곡관	토목환경과, 전기과, 스파트팩토리학부, 호텔조리제과학부	국제교류원 등
6	퇴계관	스마트팩토리학부, 토목환경과, 보건의료행정과, 산업경영과, 경영학부, 방송음향영상학부, 실내디자인학부, 건축학부	융복합비즈니스센터, 직업교육혁신센터 등
7	자동차관	미래자동차학부	평생교육원과 평생교육지원팀
8	학생회관		학생식당, 매점,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동아리실, 학생처장실
9	임곡관	컴퓨터정보학부	학생통합상담센터, 기업연계센터, 취·창업상담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10	전산관	호텔조리제과학부, 컴퓨터정보학부	도서관, 교직원 식당, 스마트 스테이션 등
11	생활관		카페, 편의점, 안경원, 구내서점, 휴게실, 아이디어박스, 휴게테라스, 소방안전설비과 실습실 등
12	다산관	기계과, 소방안전설비과, 보건의료기기과	직업교육혁신센터 합동강의실 등
13	수암관	사회복지과, 호텔조리제과학부, 비서사무행정학부,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수암도서관, 교수학습센터, 보존서고, 은행 등

대림공업전문학교 개교 때 지은 퇴계관, 율곡관, 학생회관 건물을 2012년 약 150억 원을 투입하여 각각 건물별로 2개 층씩 증축을 하여 연면적 9,176.13㎡(2,70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건물 양쪽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sup>9</sup>

**조사자** :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 모습이 어땠습니까?

**조광희** : 학교 모습은 건물이라고는 딱 3개. 퇴계관과 율곡관, 학생회관이 있었죠. 나머지는 나대지로 있었고.

1979년 대림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을 당시에는 3개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현재 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본래 학교 정문이었다. 지금 학교 정문 자리에는 규모가 작은 시장이 있었다. 안양역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5~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 시장을 가로질러 다녔다. 시장 골목은 학생들이 점심이나 저녁 끼니를 때우거나 하룻길에 술잔을 기울였던 곳이었다. 2000년대 초반 대림대학을 다닌 학생들도 학교 아래 시장에 관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중교통편이 좋지 못한 관계로 학교 주변에서 2~3명이 방 하나를 빌려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조사자** : 학교에 변화가 생긴 게 언제쯤인가요?

**조광희** : 본격적으로 90년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사자** : 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조광희** : 예. 90년대. 80년대서부터 이제 기반, 정착이 돼 가다가 성숙단계가 90년도. 과도 신설학과가 늘어나고. 건물이 조금씩 늘어났죠.

**조사자** : 86년도에 강의 나오셨을 때는 학교 건물이 3개에서 몇 개가 더 있었나요?

**조광희** : 지금의 반. 지금 건립된 건물의 50% 정도.

**조사자** : 8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났겠네요?

**조광희** : 늘어났죠. 내가 여기 교수로 온 게 93년이거든요. 93년도에 왔을 때 지금의 70%가 되어 있었죠. 본관이 지어지고, 도서관 건물이 지어지고, 90년도 중반 경우에 거의 세팅이 됐어요.

**조사자** : 최근에 지은 건물은 없나요?

**조광희** :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없다고 봐야죠. 신축이 마지막으로 된 것이 10년 전. 2010년도에.

대림대학교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94년 8월 17일 다산관, 11월 24일 연건평 2,818평 규모의 수암회관(도서관 및 교수회관)이 준공되었다. 1994년 10월 학생회관과 학생 식당의 전면 개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1983학년도 대림공업전문대학 합격자 발표(대림대학교 제공)

1995년 3월 교직원 식당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다.<sup>10</sup> 1997년 6월 24일 학교 설립 제2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체육관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sup>11</sup> 현재 대림대학교는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다산관, 수암관, 홍지관, 한림관, 골프연습장, 정보통신관, 퇴계관, 울곡관, 학생회관, 임곡관, 전산관, 생활관, 자동차관 등의 건물을 갖추고 있다.

각 건물은 기능과 학과별 특성에 따라 캠퍼스 내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림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홍지관이 먼저 보이고, 그 옆으로 한림관과 골프연습장이 차례로 이어진다. 골프연습장 옆에는 정보통신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쪽에는 대학본부가 위치해 있다. 대학본부 아래쪽으로는 울곡관과 퇴계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퇴계관 아래에는 대운동장과 자동차관이 자리한다. 자동차관 위쪽에는 학생회관이 있고, 그 위로 임곡관·전산관·생활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생활관 오른쪽 끝에는 다산관이, 캠퍼스 가장 높은 곳에는 수암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림대학교의 캠퍼스는 학과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간 위치 관계 역시 효율적인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3. 시대 변화에 따른 학과 운영

문교부는 1978년 10월 경제성장에 따른 고급 인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재수생 문제 해소와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1979년 입학 정원을 4만 9,490명(37.4%)이 늘어난 18만 1,92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다.<sup>12</sup> 1979학년도 대림공업전문학교의 입학 정원은 1,200명으로, 320명이 증원되었다. 이때 대림공업전문학교에서 대림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며 기계설계과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기계과·전기과·건축과·토목과·기계설계과 등 5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고, 기계설계과는 주간 80명, 야간 120명, 총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었다. 기계과는 120명을 증원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sup>13</sup>

1980년 9월 13일 공업경영과가 신설되었으며, 1981학년도 입학 정원은 6개 학과 1,280명으로 80명이 증원되었다. 이처럼 입학 정원이 증가한 것은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졸업정원제를 채택하여 정원의 15%를 증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sup>14</sup> 1983년 9월 16일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 건축설비과와 실무영어과를 신설하여 8

2006년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자작 차 전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개 학과로 늘어났으나 입학 정원은 1,280명으로 변동이 없었다.<sup>15</sup> 1984년 11월 공업재료과와 전자과를 신설하고, 1990년 10월 전자계산과를 신설하였다. 1991학년도 입학 정원은 11개 학과에 2,060명으로 1990학년도보다 240명이 증원되었다.<sup>16</sup> 1990년까지 공업전문대학에 걸맞은 다양한 공학계열 학과를 신설하였다.

1992년 10월 6일 제어계측과를, 1993년 9월 1일 도서관과를, 1994년 9월 3일 자동차과·전자기계과·전자통신과·실내건축과·비서행정과·사회체육과 등 6개 학과를 신설하였다.<sup>17</sup> 1996년 10월 21일 경영정보과를 신설하였으며, 12월 16일 공업재료과를 금속재료과로, 전자기계과를 메카트로닉스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7년 11월 제어계측과를 컴퓨터응용제어과로 학과 명칭을 바꾸고 학생 정원도 증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초창기 건설 계통 위주의 학과에서 각 분야를 망라한 20개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sup>18</sup>

**조광희** : 아주 상황 변화, 학생 수에 대한 학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학교가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격동기예요. 어느 과에서 인원을 줄여서 신설 과를 만들고. 학부로 만들었다가 다시 과로 쪼개고. 쪼개있는 과를 다시 학부로 만들고.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정확히 우리 학교에 학과가 몇 개 과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학부인지 학과인지.

대림대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나 학부를 통합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대림대학교의 학과·학부와 학년제 및 입학 정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설립 초기 건설 계통 중심으로 출발한 대림대학교는 현재 28개 학과에 1만여 명을 수용하는 종합 전문대학으로 성장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2025학년도 입시 전형에서는 일부 학과 개편이 이루어졌다. 응급구조과가 신설되었으며, 항공서비스과와 호텔관광학과는 항공호텔관광과로 통합되었다. 또한 학과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실내디자인학부는 실내디자인과로, 컴퓨터정보학부는 소프트웨어학부로, 보건의료공학과는 바이오헬스케어과로 각각 변경되었다.

한편, 대림대학교는 2021년 전문대학 최초로 교육부의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미래자동차·방송기술·스마트건축·스마트팩토리·ICT융합 등 신산업 5개 분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는 미래자동차학부, 방송음향영상학부, 컴퓨터정보학부, 소방안전설비과, 스마트팩토리학부,

스마트전자·통신학부가 참여하고 있다.<sup>19</sup> 2025학년도 대림대학교의 입학정원은 총 29개 학과, 2,190명이었다.

대림대학교는 1978년 기계, 전기, 건축, 토목 등 건설 계통 중심의 4개 학과로 출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2024년 현재는 공학계열 14개 학부·학과, 인문사회계열 7개 학과, 예체능계열 1개 학부, 자연과학계열 6개 학과 등 총 28개 학부·학과에서 2,167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종합 전문대학으로 성장하였다.

〈표 2〉 2025년 대림대학교 학과·학부, 학제, 정원 현황

분야	학과	학제	정원(명)
공통	자유전공학과	2년제	25
	건설환경공학과	2년제	60
	기계공학과	2년제	70
	전기공학과	2년제	111
	미래자동차공학부	3년제	132
	소프트웨어학부	3년제	102
	시스템과	3년제	70
공학	건축과	3년제	96
	메카트로닉스과	3년제	32
	반도체학과	3년제	92
	방송음향기술과	3년제	76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105
	실내디자인과	3년제	108
	영상디자인과	3년제	74
	경영학과	2년제	76
	도서관미디어정보과	2년제	60
	사무행정학과	2년제	60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2년제	73
	항공호텔관광과	2년제	67
	유아교육과	3년제	49
	예체능	스포츠재활학부	3년제
자연과학	제과제빵과	2년제	120
	호텔조리과	2년제	124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실내골프장 수업(2025년, 대림대학교 제공)



대림대학교 호텔조리전공 글로벌 현장 직무연수(2025년, 대림대학교 제공)

보건	보건안전학과	2년제	36
	치위생과	3년제	25
	응급구조과	3년제	60
	바이오헬스케어과	3년제	33
	보건의료행정과	3년제	74
	언어치료학과	3년제	60

대림대학교는 긴 역사와 함께 다양한 학과만큼이나 여러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기술 인력을 비롯해 정계·연예계·체육계 등 여러 영역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들이 다수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림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 4. 교육 환경과 복지에 힘쓰는 대학

대림대학교는 21세기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교 시설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조광희** : 우리 학교가 강의실이다가 에어컨을 최초로 놔줬을 거예요. 이 에어컨을 넣어준 게 교수님들이 여기 시원해야 나오셔서 연구도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연구실을 수암관에 한데로 묶어 놔줬어요. 그때 공동으로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설치해 줬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아 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에어컨 놓은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부터 20년이나 25년 전부터일 거예요. 최초로 먼저 놔줬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조사자** : 교실까지 에어컨을 놔준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조광희** :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대림대학교는 교수연구실이 넓은 편인데, 단지 교수가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상담도 하고, 학생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대림대학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조광희** : 학생들이 불평불만들이 있어서, 종아리가 굽어진다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저 정문서부터 있어요. 학생들이 상부까지 올라오는데 전혀 건지 않아도 되죠. 여름에 걸어서 오려고 하면요, 땀이 차 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조사자** : 에스컬레이터를 언제 설치하신 거죠?

**조광희** : 저게 맨 아래 거 설치하고, 증축하고 증축했거든요. 이거 설치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조사자** : 퇴계관 앞에 있는 거는 타 봤어요?

**조광희** : 그거는 최초에 위아래가 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가는 게 있고, 학생회관에서 저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운동장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은 2014년 전후. 운동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이삼 년.

대림대학교는 홍지관과 자동차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건물이 경사가 심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를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타고 이동하면서 학교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림대학교에는 모두 7개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있다. 1~4호기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5~7호기는 2022년에 개통되었다. 5호기는 운동장에서부터 퇴계관 서쪽까지 상향식 구조로 된 유리 돔형 에스컬레이터이고, 6호기와 7호기는 학생회관에서부터 임곡관까지 상·하행 양방향 유리 돔형 에스컬레이터이다.<sup>20</sup>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학생복지시설로는 휴게실, 자율활동실, 식당, 양호실, 샤워실, 서킷 트레이닝실, 비봉산의 자연을 이용한 실외 휴식 공원인 수암공원과 한림공원,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sup>21</sup>

**조광희** : 만족도는 좋아요. 시설에 관한 것도. 특히 강의실이나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나아요. 실습대라든가 의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시설에 관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IT 쪽에, 전 과로다가 아마 서울 경기 쪽에서 제일 빨랐지 않았나 싶어요. 컴퓨터 들여놓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페어해 주는 그 속도도 그렇고.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저기가 엄청, 학생들 교육에 기자재 투자 이런 거는 월등히 앞서가요.

대림대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래서 강의실이나 실습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시설이 깨끗하고 기자재 역시 월등히 앞서간다는 것이다.

**조사자** :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학교 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인재들을 양성해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광희** :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림이 처우도 좋고. 교수님들 봉급이 탑 쓰리 안에 들어요. 우리가 1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탑 파이프 안에 들어갔었어요. 직원들 처우도 거의 탑이에요.

**조사자** : 학교 전체가 아니면 전문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조광희** : 전 대학에서. 전문대학에서는 거의 탑이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연봉이 1억 2천이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요 오히려 안 오르고요. 다른 대학에서 우리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학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재단이 학교 교 문은 돈 안 가져간다고, 다른 대학에서는 자금 같은 거 다 공사해서 가져가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 외에는 쓰는 게 없어서 많이 줄 수 있던 거죠, 학교가. 재단에서 갖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대림대학교는 재단에서 학생 등록금에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에 관한 대우가 다른 대학보다 좋은 편이다. 그래서 대림대학교에 들어온 교수들은 거의 이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근 대학에서 대림대학을 벤치마킹하여 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어서 15년 전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서 함께 공연하였다. 지금은 합창단에 참가했던 교수들이 정년 퇴임하면서 합창단 활동이 중단되었다.

## 5. 대림대학교의 체육 활동과 대동제

### 1) 사이클팀 창단

대림대학교는 1979학년도부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체육 특기자 6명을 선발하여 사이클선수단을 발족하였다. 당시 실기 장학생으로 주장인 이상봉을 선발하였다.<sup>22</sup> 실기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상봉은 1979년 실업연맹회장기쟁탈 제1회 전국사이클도로경기 대회에서 3시간 12분 32초 4로 개인전 3위를, 대림공업전문대학은 단체전에서 9시간 43분 26초 6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sup>23</sup>

**조사자** : 입학하셨을 때 사이클팀 있었던 거 아세요?

**조광희** : 알죠.

**조사자** : 혹시 사이클팀 라는 거는 보셨어요?

**조광희** : 저는 '사이클팀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지 직접 관전 같은 거는 안 했어요. 사이클부가 그때 있었다는 거는 알죠.

조광희는 사이클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 사이클을 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스포츠팀이 없었던 대림산업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당시 국내 오토바이 시장에서 3파전을 벌이던 대림오토바이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3월 사이클팀을 창단한다. 1982년 대림 사이클팀은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대림공업전문대학 사이클팀과 협력하여 대표 선수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을 세운다.

**조광희** : 사이클팀에 지금 정년 안 됐죠. 저기 사회체육과에 신 교수라고. 아시안게임도 1위 했을걸요, 거기. 아시안게임 사이클로 1위 했어요.

**조사자** : 대림산업에서 나라에서 사이클팀을 만들라고 해서?

**조광희** : 육영사업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죠. 거기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친구가 여기 교수로 왔어요.

대림산업 사이클팀 소속이었던 신대철은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으로, 국내대회를 석권해 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개인도로(179.2km) 레이스 중 쥐가 난 다리를 핀으로 마구 찔러 피를 흘린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sup>24</sup> 신대철은 1991년 대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2024년 현재 스포츠재활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sup>25</sup>

## 2) 임곡대동제

대림대학교는 1978년 10월 10~13일 3일간 제1회 체육대회 겸 축제를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이후 매년 5월 '임곡체전'을 개최하여 학과별로 10여 종목의 체육 경기를 치르며 지덕체(智德體)를 연마하는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015 임곡체전(대림대학교 제공)



개교 20주년 임곡체전 개막식(1998년)



개교 20주년 임곡체전 단체줄넘기(1998년)



개교 20주년 임곡체전 사회체육학과 포크댄스(1998년)



개교 20주년 임곡체전 밴드부 공연(1998년)



제28회 임곡체전 개막식(2005년)



제28회 임곡체전 줄다리기(2005년)



2024년 임곡대동제 공연(대림대학교 제공)

그리고 가을에 개최되는 임곡축제는 공업학교의 특성에 걸맞게 학과에서 익힌 기능을 작품으로 발휘하는 기능경진대회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문학 강연회, 학습 및 예술제도 함께 펼쳤다.<sup>26</sup> 1991년 기존의 임곡체전과 임곡축제를 통합하여 10월 23일 임곡축제 및 임곡대동제를 개최하였다.<sup>27</sup> 2024년 제45회 임곡대동제는 5월 10일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다양한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되었고, 대림대학교 교내 동아리공연과 연예인 공연이 진행되었다.

**조광희** :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쪽에 민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엠프도 틀어놓고 그러잖아. 그럼 민원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 때 학생회에서 떡도 해가지고 여기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돌리고. 그런 것들이 민원 같은 것들이 쇠도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있음으로써 여기 상권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분들은 안 그러는데, 순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민원들이 나와요. 예전에 축제하고 그러면 평화보육원에도 떡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대림대학교 총학생회는 대동제가 끝나고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인근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고 한다. 매년 임곡대동제에서 놀이기구와 스낵바 운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익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비산1동행정복지 센터에 기탁하고 있다.<sup>28</sup>

대림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경제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총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註

- 1 「8개 전문학교 신설」, 『조선일보』, 1977년 12월 30일.
- 2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6~207쪽.
- 3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7쪽.
- 4 조광희(남, 1959년생, 대림공업전문대학 1회 졸업생, 대림대학교 교수), 2024년 5월 1일 구술.
- 5 「대림공전학장 현석주 씨」, 『경향신문』, 1982년 12월 30일.
- 6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8~209쪽.
- 7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4쪽.
- 8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5쪽.
- 9 「대림대 소식지」, 2012년 5월호.
- 10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4쪽.
- 11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9~230쪽.
- 12 「대학정원 4만9,490명 늘려」, 『경향신문』, 1978년 10월 7일.
- 13 「79학년도 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내용」, 『동아일보』, 1978년 10월 7일.
- 14 「내년 전문대 신입생 2만9천여명 증원」, 『경향신문』, 1980년 10월 1일.
- 15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14쪽.
- 16 「신설·증감된 91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 조정내용」, 『한겨레』, 1990년 10월 18일.
- 17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3쪽.
- 18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7쪽.
- 19 대림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daelim.ac.kr/>).
- 20 「[홍보]대림대학교 에스컬레이터 5호기 6호기 7호기 개통」, 『대림 뉴스』, 2022년 3월 3일.
- 21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33쪽.
- 22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8쪽.
- 23 「이영수 개인전우승 화장기쟁탈 사이클」, 『조선일보』, 1979년 3월 27일.
- 24 「국내대회 석권해온 베테랑-사이클도로 신대철」, 『동아일보』, 1986년 9월 29일; 「'86스타 (6) 사이클 신대철」, 『동아일보』, 1986년 12월 19일.
- 25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과 홈페이지(<https://dept.daelim.ac.kr/dsr/index.do>).
- 26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09~210쪽.
- 27 대림학원, 『대림학원 40년』, 2007, 222쪽.
- 28 「〈경기소식〉 대림대 총학생회, 축제 수익금 기탁」, 『연합뉴스』 2016년 12월 23일; 「안양시, 대림대 총학생회 및 동문-안양 예고 성금 비산1동 복지사각지대 기부」, 『뉴스프리존』, 2021년 1월 21일.

## 제4장

# 안양종합운동장의 조성과 운영

---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 1. '안양공설운동장'으로 시작된 안양의 운동장

안양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47년이다. 당시 한창 발전하고 있던 안양에 공설운동장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시급한 설치를 요청하였고, 안양면에서는 일제의 신사기지 3,000여 평을 공설운동장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어 안양체육회 회원을 총동원하여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신사기지'는 안양 토박이들이 '신사 마당'이라 부르던 공간(현재 안양4동 안양중앙교회 일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준공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48년 10월 이후 이곳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신문 기사로 보아, 같은 해 10월 이전에는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 10월 24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 행사의 하나로 제1회 전 시흥 지역 대항 배구대회가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sup>1</sup> 1949년 6월 21일 오전 10시, 그해 1월 제주도에서 전사한 안양 출신 김건조 육군 1등 중사의 면민장(面民葬)이 다수의 군·관·민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sup>2</sup> 그리고 9월 7일 오전 10시 안양면민의 다년간 숙원이었던 읍 승격을 기념하여 안양공설운동장에 모여 다채로운 축하 행



「안양에 공설운동장」(『경향신문』, 1947년 4월 13일)



「안양읍 승격 축하」(『자유신문』, 1949년 8월 28일)



1966년 안양동 공설운동장 터



1974년 석수동 공설운동장



1995년 비산동 종합운동장



1943년 안양 신사를 참배한 안양공립국민학교 입학생과 교사들(이석호 제공)

사를 거행하였다.<sup>3</sup> 1956년 7월 27일 오후 8시부터 안양공설운동장에서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고려대학교 조동필 교수의 ‘한국경제의 고민과 안전 문제’라는 연제로 경제 강연회가 열렸고, 이후 다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다.<sup>4</sup>

안양에 처음 조성된 공설운동장은 1950년대까지 신사 마당으로 불리던 공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말까지 안양은 한국전쟁 피해 복구에 주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 공설운동장이 안양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후의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1970년 4월, 안양읍 신안양리에 시흥군 공설운동장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애초에는 현재 안양9동 지역에 부지를 정하였으나, 입지가 운동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아 시흥군체육회가 시흥군청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석수동 럭키아파트 자리로 부지를 옮겨 운동장을 마련하였다.<sup>5</sup>

1977년 7월 대수해 당시 안양공설운동장에는 수재민을 위해 200동의 천막 가옥이 3일 만에 급히 설치되었다. 당시 군에서 서치라이트를 지원받아 대낮처럼 불을 밝힌 가운

데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바닥 전체에는 인천·부천·수원 일대에서 가져온 보도블록이 깔렸다.<sup>6</sup> 1978년 3월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선발팀을 초청하여 한일 친선축구대회를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초·중·고등부에서 홈그라운드인 안양팀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sup>7</sup> 이처럼 안양공설운동장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는 물론, 강연회·장례식·수재민 수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양공설운동장은 조성된 지 5년이 넘도록 ‘고르지 않은 지면과 관중석 하나 시설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란 고작 본부석 하나 마련돼 있어 사실상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제구실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시민 체력 향상에도 큰 지장을 주는’ 열악한 상태였다.<sup>8</sup> 시민의 날 행사는 물론 각종 행사 때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공설운동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970년대 말 안양시는 과천 청부종합청사를 비롯하여 반월공단 등이 조성됨에 따라 1980년대 초 인구가 25~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여 각종 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중의 하나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안양공설운동장 건설이었다.<sup>9</sup> 기존의 안양공설운동장은 2,790평 규모로 비좁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급경사의 산이 있어 부지 확장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시내 근교의 대지를 매입하여 현대 시설을 갖춘 새로운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sup>10</sup>

1970년대 석수동 안양공설운동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2.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조성 과정

1979년 안양시 주요 사업계획 중의 하나인 공설운동장 이전을 위해, 안양시는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3만 평의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여 1만 1,000평 크기의 3만 석 규모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그 재원은 기존 공설운동장의 매각 대금(12억 원)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운다.<sup>11</sup>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대체할 부지로 선정된 곳이 비산동이다.

**김창수** : 10만 평방미터였으니까, 3만 3,000평. 거기는 구름울마을이라고 큰 마을이 있었어요. 구름울 철거 과정에서, 부지 확보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죠. 구름울마을이 아주 큰 동네였어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토박이 마을이다 보니까. 그때 도시과장하고 7토지구획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이전 설명한다고 나갔다가 과장이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똥 뿌리고. 그때 국보위 시절인데.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름울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sup>12</sup>

당시 비산동 자연마을의 하나인 구름울(운곡)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종합운동장 부지로 수용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청 도시과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 당시 국보위가 동원되어 마을 주민들을 잡아들일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다. 시 입장에서는 과장이 맞은 게 전화위복이 되어 마을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수월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창수** : 계획이 그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88올림픽 연습장으로 쓴다고 그러가지고. 아마 예산도 시비 플러스 국비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88올림픽 보조경기장, 연습장으로 쓴다고 그러가지고. 그때 맞춰서 준공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1982년 2월 18일 『동아일보』의 「서울 오륜 경기장 배치 시안 마련」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축구 경기를 서울종합경기장·서울운동장·인천공설운동장·안양공설운동장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비산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였다.

안양시정 관련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은 1985년 안양시 역점시책업무 중의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기 전인 1970년대 구름울(운곡) 전경(이정범 제공)

하나였다. 경기장 규모는 1만 2,000평이고, 건립 기간은 1983년에서 1985년까지 3개 년으로 되어 있다. 공사비는 국비 39억 2,2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43억 8,200만 원을 합친 88억 400만 원이었다.<sup>13</sup> 안양종합운동장 최종 공사비는 총 111억 500만 원이 소요되었다.

안양시는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종합운동장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다.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총감독을 맡은 인물은 김창수로, 그는 문예회관을 비롯한 대형 공사를 총감독한 경험이 있었다. 김창수는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서울올림픽경기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설계와 시스템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안양종합운동장이 완성되었다. 김창수의 설명에 따르면, 종합운동장은 ‘접시 양쪽을 눌러 타원형으로 만든 형태’를 모티브로 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설계되었다. 준공 당시 안양종합운동장은 좌석 1만 8,216석으로, 경기권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경기장이었다. 그러나 체육회 사무실 등이 입주한 이후, 토지 이용 계획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예술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회고하였다.



건설부고시 제1981-154호 안양시 공설운동장 토지이용도(안양시청 제공)

**김창수** : 그게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할 때 에피소드가 있죠. 기초 가격. 통상 7% 정도를 설계가에서 깎아요. 경리관이라고 그래. 부시장이 최종 기초 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상 많이 깎아 7% 정도 깎는 게, 그걸 한 15%를, 따블로 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관행에서 벗어나니까, 다 아웃이 돼 버린 거야. 100%를 오바되니까. 딱 두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두산그룹에 있는 동무슨 건설회사하고 하나는 바지에요, 바지. 왜? 단독 입찰이 되면 입찰이 무효가 돼요. 경쟁 입찰이 안 되니까. 그래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요. 감사원 감사관이 스케일이라고, 삼각기둥으로 된 자로 부시장... 배를 푹푹 찢러. “예가를 15%를 까?” 이러면서. 전혀 사례에 맞지 않았던 거지. 그거는 실제로는 오더를 받은 거요. 둘만 딱 들어오니까. 저도 그런 입찰 처음 봤어요. (중략) 그거는 이미, 나는 새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유아무야 끝나더라고.

안양종합운동장 입찰 과정에 당시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이다. 통상 예가의 7% 정도를 삭감하는데 이때는 예가의 15%를 깎았다. 관행상 7%가 삭감될 줄 알고 가격을 적어낸 업체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15%에 맞춰 입찰가격을 제출한 회사 2곳이 경쟁을 벌여 결국 동산토건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안양시 관계자들은 일반적이지



1983년 안양종합운동장 기공식(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83년 안양종합운동장 기공식(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83년 안양종합운동장 기공 기념 MBC 안양시민위안대잔치(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1983년 안양종합운동장 기공 기념 MBC 안양시민위안대잔치에서 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는 안양 시민(안양시청 역사·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종합운동장 건설 공사(1985년, 이정범 제공)

얇은 예가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였다. 서○태 감사관이 예가 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으나, 감사원의 감사는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입찰 과정에 대한 추궁은 없었다고 한다.

**김창수** : 안양종합운동장에 가면 VIP석이 따로 있잖아요? 관람석 위치에 가면 VIP실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점검까지 하고, 대통령이 오는 경로, 관람하시는 경로. 그래서 방탄이니 무슨 소산(燒散) 때 띠 계획이니 해서 청와대 점검까지 받은 거예요. 그때 그 행사와 관련해서 쓸 계획으로. 경호실까지 있고.

안양종합운동장 중앙 관람석 위에 있는 VIP실은 1988 서울올림픽 당시 대통령이 직접 경기를 관람한다는 전제를 두고 설치된 시설이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안양종합운동장에서의 축구 경기가 무산되면서 대통령의 방문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립 과정에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으로서 정규 규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다.



1988년 안양종합운동장 전경(안양시청 제공)

**김창수** : 축구장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당초 설계 당시에 지반 조사가 소홀히 되었던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전체 바닥이, 모암 대가 발견된 거예요. 거를 그냥 조금만 따내고 그냥 앉힐 수도 있어요, 종합운동장을. 이거는 정말 행정 편의주의예요. 나중에 이쪽에 도로를 내야 하고요. 산을 헐어서 종합운동장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를 내야 해요. 그러면 발파해야 하고, 발파하면 진동파가 전달이 돼서 운동장 기초에 크랙이 와요. 그래서 발견되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시키고. “측량하고 물량 산출해서 와라.” 그리고 제가 시장하고 담판을 했어요.

안양종합운동장 설계 당시 보링 테스트(시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도중 땅속에서 커다란 기암이 발견되었다. 이를 다시 조사·설계하고 재입찰하면 시간이 크게 지연될 상황이었다. 현장 총감독 김창수는 현장 소장에게 견적을 산출하게 한 뒤 시장을 찾아가, “절차상 재설계가 맞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시장님 재임 시절의 큰 오점이 될 수 있으며, 총감독인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선(先)시공 후(後)정산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초 다른 회사가 시공하기로 했던 주변 도로 일부도 동산토건이 함께 시공하게 되었다.



1988년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일대(안양시청 제공)

김창수가 뽑은 공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잔디 관리였다. 당시에는 경기장용 잔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잔디 길이가 3cm 이상 자라지 않도록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까다로웠다. 또, 육상 트랙의 우레탄 포설 과정에서 표면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전체를 다시 시공한 일도 있었다.

1996년 4월, 종합운동장이 안양 LG치타스의 연고지로 사용되면서 최신 조명시설과 4기의 조명탑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는 사계절용 천연잔디로 교체했으나, 프로축구연맹의 평탄성 조사에서 경기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8일부터 3개월여에 걸쳐 5억 5,700만 원을 투입해 1만 4,876㎡ 규모의 노후 잔디 교체 공사가 진행되었다.<sup>14</sup> 2019년 4월 4일부터 약 한 달간은 관중 편의 증진을 위해 원정석을 제외한 3면에 가변석을 설치하였다. 가변석 최하단 관중석의 높이는 2m, 관람석과 사이드라인의 거리는 13.9m, 응원석과 골라인의 거리는 6.5m이며, 좌석 수는 3,486석이었다.<sup>15</sup> 2021년 1월에는 너비 24.96m, 높이 10.56m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었다. ‘풀컬러 LED’ 방식으로, 경기 중계 시 ENG 카메라를 통한 관중석 등 영상 분할 송출이 가능해졌다.<sup>16</sup>

### 3. 안양종합운동장의 주요 행사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해외 가수 공연, 프로축구 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종합운동장 준공 이후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5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렸으며, 1999년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멋과 신명의 한마당 큰잔치를 주제로 한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987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농악·민속극·민요·민속무용·민속놀이 등 5개 부문에서 마당 종목 13개 팀이 참가하였다. 대통령상은 경기 민속놀이 ‘여주 쌍용거줄다리기’, 국무총리상은 충북 민속놀이 ‘보은 흰돌물달리기’가 차지하였다.<sup>17</sup>

1988년과 1989년에는 안양종합운동장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조별 예선이 열렸다. 1988년 제17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는 88서울올림픽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 대회였다. 1988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는 15개국 16개 팀이 참가하여 4팀씩 4개 조로 나눠 조별 예선을 치렀다.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6월 20일 D조 이라크와 아르헨티나(힘나시아 라플라타)의 경기와 한국 B팀과 헝가리의 경기가 열렸다. 당시 대학 선발을 주축으로 한국 B팀은 3만여 관중이 운집한 경기에서 헝가리에 1대 2로 역전패하여 예선 탈락하였다.<sup>18</sup> 1989년 제18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는 7개국 8개 팀이 참가하여 4개 팀씩 2개 조로 나눠 조별 예선을 치렀다.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6월 18일 B조 경기인 덴마크와 체코의 경기와 한국 화랑과 우루과이 나시오날팀과의 경기가 열렸다. 한국 화랑은 대회 최강으로 꼽히는 우루과이 나시오날팀에게 1대 2로 패하였다.<sup>19</sup>

또한, 1989년 5월 내한한 미국의 인기 여가수 티파니가 부산, 안양, 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공연을 개최하였다. 5월 20일의 안양 공연이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미국의 10대 여가수 티파니의 한국 공연이 있었던 지난 20일 저녁 경기도 안양시 공설운동장. 이날 공연장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10대 청소년 남녀 팬들이 공연 한 시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 공연이 임박해서는 넓은 잔디운동장과 스탠드가 1만여 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다. 공연에 앞서 운동장에 설치된 가설무대의 초대형 확성기에서 미국의 최신 팝송들이 귀가 따갑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운동장 곳곳에는 ‘티파니, 사랑해요’ ‘안녕 티파니’ 등 영어로 쓰인 플래카드가 내걸려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다.

눈부신 조명과 함께 불꽃과 폭죽이 터지면서 티파니의 공연이 시작되자 청중들은 일시에 합창하듯 괴성을 질러대며 열광했다. 무대 맨 앞에 앉아 있던 열성 청소년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양손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7년, 안양시청 제공)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91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 시민의 날 육상경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올려 리듬에 따라 손뼉을 치자 뒤편의 청중들도 이에 가세, 거의 모든 청중이 박수를 쳐댔다. 그 모습은 흔히 영화나 TV에서 보는 미국 내의 유명 팝가수 공연 현장과도 흡사했다. 또 일부 청소년들은 티파니의 노래가 한 곡씩 끝날 때마다 연두색과 빨간색의 형광 막대(플라스틱 막대 안에 형광물질을 넣어 일정 시간 빛을 내도록 한 것)를 머리 위로 던지며 환호하는가 하면 ‘티파니’ ‘티파니’를 연호했다.

친구와 같이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티파니 공연을 보러왔다는 김모군(16·서울 K고 1년)은 “방송을 통해 서나 들던 티파니의 실제 공연을 보니 가슴이 뛴다”며 “다이내믹하고 환상적인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 끝나갈 무렵에는 술에 취한 듯한 일부 청소년들이 노래에 맞춰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거나 운동자 바닥에 그대로 벌렁 드러눕는 등 공연장의 소란은 극에 달했다. 8천 원씩의 입장료를 물고 들어와 시종 괴성을 지르며 열광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곳이 서울 근교 안양이 아니라 마치 미국의 어느 팝송 페스티벌의 광적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주한미군(21) 퇴폐 부채질하는 ‘GI문화’』, 『동아일보』, 1989년 6월 1일)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대중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기자는 티파니의 공연을 보며 시종일관 괴성을 지르며 열광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이 마치 미국의 어느 팝송 페스티벌의 광적 현장에 와



1999년 안양 LG치타스의 홈경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기술한다. 티파니의 내한 공연에 열광하는 한국 청소년의 모습에 기성세대들이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9월 8일~9일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 시군을 대표하는 31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상은 광명시 광명 농악이 차지하였다.<sup>20</sup>

1996년 4월 연고지를 안양으로 옮긴 LG 치타스의 96라피도컵 프로축구 정규리그 홈경기가 6월 16일 오후 3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안양 LG에 2대0으로 승리하였다.<sup>21</sup>

2013년 2월 2일 창단된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의 K리그 챌린지 첫 홈경기가 3월 17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경기는 FC안양과 고양HiFC가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 4. 안양종합운동장 운영

현재 안양종합운동장은 안양도시공사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안양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 필드와 우레탄 트랙을 갖춘 다목적경기장으로, 공인 1종 경기장이다. 경기장 면



2019년 안양종합운동장 전경(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적은 축구장 7,875㎡, 육상장 1만 9,040㎡이고, 관람석은 1만 7,143석이며, 수용인원은 2만 5,000명이다.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은 400m×8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축구장 면적은 3,600㎡이고, 테니스장면적은 4,020㎡로 수용인원은 700명이며, 씨름장 면적은 520㎡로 수용인원은 700명이다. 테니스장은 1991년 11월 20일 안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축구장은 현재 K리그 FC안양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수 출입구는 팀 색상에 맞춰 보라색으로 단장하였는데, 보라색은 안양의 지역특산물인 포도에서 유래한 색으로 안양시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60회 내외에서 일반 대관한다. 대관 기간은 3월~11월까지이고, 잔디 사용 허가 기간은 4월~11월까지이다.

축구장을 비롯한 안양종합운동장 시설 대관 요금은 체육행사와 체육 외 행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평일과 토·공휴일, 야간과 주간의 대관 요금도 다르게 적용한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위해 마련한 공간에 해방 직후 3,000여 평의 소규모로 조성하였던 안양의 공설운동장은 1986년 비산동에 1만 2,000평 규모의 안양종합운동장으로 발전하였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축구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

안양종합운동장 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FC안양 홈 개막 경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기도 하였지만, 안양종합운동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꾸준히 시설을 발전시켜왔다. 지금도 축구팀 FC안양의 홈구장으로 활용되며,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과 다양한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안양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종합 스포츠 시설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註

- 1 「본보 안양지국 후원 전시흥배축구대회」, 『경향신문』, 1948년 10월 23일; 「전시흥배구성향 고려석면팀 우승」, 『경향신문』, 1948년 10월 31일; 「시흥배대회성황」, 『조선일보』, 1948년 11월 3일; 「전시흥축구성황」, 『경향신문』, 1948년 11월 10일.
- 2 「전몰용사 면민장」, 『동아일보』, 1949년 6월 27일.
- 3 「안양읍 승격 축하」, 『자유신문』, 1949년 8월 28일.
- 4 「경제강연회 성황」, 『조선일보』, 1956년 7월 31일
- 5 안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향토체육사』, 2002, 23쪽.
- 6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Ⅰ)』, 2006, 146~147쪽.
- 7 「안양팀 서전장식 한일 친선축구대회」, 『동아일보』, 1978년 3월 25일.
- 8 「제구실 못 하는 공설운동장 관중석 없고 시설은 고작 본부석뿐」, 『경인일보』, 1976년 11월 4일.
- 9 「80년대 안양시」, 『경향신문』, 1979년 3월 14일.
- 10 「안양에 공설운동장」, 『매일경제』, 1978년 8월 7일.
- 11 안양시, 『선진안양의 발자취』, 1991, 597쪽.
- 12 김창수(남, 1954년생, 안양종합운동장 건설 총감독), 2024년 4월 24일 구술.
- 1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 비엔피(주), 2008, 999쪽.
- 14 「안양시의회 2018년 공유재산 심의 전 현장 방문」, 『아주경제』, 2018년 10월 24일.
- 15 「프로축구 안양,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완료 12일 안산과 홈개막전」, 『중부일보』, 2019년 5월 8일.
- 16 「최대호 안양시장 “FC안양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시민들 행복한 시간 기대”」, 『경기일보』, 2021년 1월 13일.
- 17 「민속예술경연대회 29일 안양서 개막」, 『매일경제』, 1987년 9월 29일; 「대통령상 여주 쌍용거줄다리기」, 『경향신문』, 1987년 10월 1일.
- 18 「88축구팀 시험대에-대통령배 국제대회 16일 킥오프」, 『경향신문』, 1988년 6월 14일; 「한국 B팀 8강 탈락」, 『매일경제』, 1988년 6월 21일.
- 19 「대통령배축구 '호루라기'…청룡-미국 첫경기」, 『한겨레』, 1989년 6월 17일; 「한국축구 '뒷심' 약하다」, 『매일경제』, 1989년 6월 19일.
- 20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의 민속예술』, 경기도, 1996, 342쪽.
- 21 「프로축구 수원 “선두 내보라”」, 『동아일보』, 1996년 6월 17일.

05

## 주민이 만들어가는 비산동의 문화

제1장 '산마을'에서 시작한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제2장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 제1장

# ‘산마을’에서 시작한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 1. 외환위기와 함께한 이주, 산을 따라 도착한 비산동

비산동은 안양시 동안구에 속하며, 안양시 내에서도 북서부에 있는 곳이다. 안양시의 팽창 과정에서 지금이야 1, 2, 3동으로 나뉘질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과거에는 안양의 변방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비산동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비봉산과 인접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주변에는 듽성듬성 집들 몇 채가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지금의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와 주변 지역은,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체육 시설을 비롯하여 카페와 식당, 그리고 체험 공간이 들어서면서 안양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거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에서는 ‘산마을’이라는 다소 토속적인 상호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 찜질방, 캠핑장 등 ‘산마을’이라는 상호가 붙은 곳은, 최인규가 비산동 안남미에 만들어온 그의 마을이다. 최인규는 비산동에서도 특히 발전이 더디었던 비산3동의 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에서 안양으로 이주한 시기는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던 1998년 무렵이다. 서산에서 의류업을 하던 최인규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하던 일을 접고, 안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오게 되었다.

최인규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안양시로 이사를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30대부터 수집해 온 민속품으로 박물관을 세울 만한 곳을 찾던 중에 교통이 편하고 산과 인접한 비산동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의 고모가 안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도 일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의 '산마을보리밭'(2024년, 이정범 제공)





‘산마을’ 대표 최인규

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최인규** : 저는 원래 고향인 서산에서 의류업을 했어요. 주로 옷을 구입해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하던 것을 접고 사업을 하며 모아놓았던 민속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 운영할 생각으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교통편도 좋고 산도 가까운 곳인 안양으로 자리를 했어요. 마침 고모님도 안양에 살고 있기도 했지요.<sup>1</sup>

오랫동안 수집해 온 민속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세울 계획으로, 최인규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 위해 강원도·서울·경기도 일대에 있는 산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오대산, 서울과 경기도의 도봉산·수리산·청계산·관악산 등을 돌아다니며 박물관 건립 장소를 물색하였다. 처음에는 강원도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양에 살던 고모님을 뵈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던 관악산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 주변을 살펴보다 비산동으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러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비산3동에 정착하게 된다.

최인규가 이주했던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산3동 지역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여느 산촌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마을까지 들어오는 버스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었으며, 마을 진입로 역시 지금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최인규가 박물관을 세울 대상지로 오래전부터 산을 고집하고, 그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등에 ‘산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낸 마을이 산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향인 서산시 운산면은 전형적인 산촌이었다. 최인규는 외환위기로 새로운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산과 인접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비산3동이 그의 그런 소망과 잘 맞는 장소였다. 비산3동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1년 가까이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적의 공간을 선택하였고, 그가 운영하는 식당 ‘산마을보리밥’이 있는 터를 매입하여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정착하게 된다.

## 2. ‘산마을보리밥’의 시작과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의 형성

1998년 비산3동에 자리 잡은 최인규는 이주 당시 계획했던 것처럼 이곳에 어떻게 박물관을 세우고 운영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향에서 가져온 수많은 민속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며 분주히 움직였다. 안양으로 이주한 이후 그런 고민으로 몇 달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을 무렵 안양에 거주하고 있던 처남이 그를 찾아왔다. 처남은 최인규에게 지금 사는 곳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식당을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최인규를 데리고 안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식당을 데리고 가서 직접 맛을 보게 해주었다. 실제로 최인규가 비산3동에 자리를 잡고 나서 얼마 지난 뒤부터 관악산과 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 비산3동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인규** : 잘 알겠지만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IMF 때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제가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등산을 다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관악산이나 비봉산으로요. 그런데 그 사태가 터지면서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요. 지금도 그렇지만 등산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취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998년 이후에 등산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산마을보리밥 식당 앞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더라고요.

처남의 소개로 찾아간 식당에서 최인규는 좋은 분위기를 느끼긴 했지만, 박물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때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랫동안 의류업을 해온 자신이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몇 차례 처남이 찾아와 식당을 운영해 볼 것을 권유했지만 최인규는 그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였다.

하지만 최인규는 비산3동 일대가 차츰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결국 식당을 개업하기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는 등산객의 영향과 비산동 일대가 팽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산3동 지역에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최인규와 그의 부인은 처남의 소개로 다녀온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가 벤치마킹하여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맛볼 수 있는 보리밥을 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마을보리밥’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개업하게 된다. 다양한 음식을 고민하다 보리밥이라는 다소 토속적인 음식을 정한 것은 최인규의 정서와 맞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인규가 운영하는 식당 외벽에 붙은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표지판

만, 자신이 오랫동안 수집한 민속품이 산마을보리밥과 잘 맞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식당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수집한 민속품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콘셉트를 구성하고,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민속품을 활용하였다.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개업한 식당은 처음 1년 동안은 어려움이 많았다. 식당 홍보가 되지 않은 원인도 있었지만, 난생처음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최인규는 식당을 개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방을 책임지는 부인의 음식솜씨가 좋기도 했고, 꼼꼼하게 준비했기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래서 개업 이후 힘든 와중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관악산이나 비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을 위한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없었기에 잘 운영하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

최인규가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식당 주변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정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도로는 비포장이었으며 소방도로도 없던 시절이었다. 자연스레 초창기에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차를 가지고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인해 주말이면 식당 주변은 교통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아래쪽에 차를 세워놓고 500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야만 하였다.

이후 최인규의 계획과 바람대로 보리밥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한식을 판매하는 산마을보리밥은 승승장구하였는데, 주말에는 1,5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최인규** :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처음 여기로 온 이유가 박물관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민속품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처남이 식당을 해보라고 하니깐요. 그래서 처음엔 별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꽤 많이.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하고 나서 오랜 기간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등산객들이 많아지면 식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민속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해서 보리밥을 가지고 식당을 차린 거죠. 안식구가 음식솜씨가 좋다 보니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속적인 것과 보리밥이 맞기도 하고요. 잠깐은 힘이 들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1,500명이 넘게 식당을 찾아왔어요.

보리밥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마을보리밥에서는 보리밥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보리밥과 함께하면 좋은 도토리묵을 비롯해 두부김치, 파전, 감자전, 제육볶음, 골뱅이무침 등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준다. 한정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돈까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인규에게 보리밥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 음식이기도 하지만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게 해준 소중한 음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소하게 박물관이나 운영하며 생활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값지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음식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최인규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산마을보리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리밥을 비롯해 함께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 모두가 깔끔하고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번 음식을 맛본 사람들 상당수가 다시 방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리밥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최인규가 오래전부터 모아놓은 다양한 민속품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데, 이 역시 다른 식당에서는 접하기 힘든 산마을보리밥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것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이다.



최인규의 수집품



### 3. 나눔의 실천과 지역 공동체 활동

산마을보리밥의 성공 이후 최인규는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판매하는 음식의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 지금은 베이커리카페·에전카페 등의 카페와 캠핑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인규의 사업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성실함과 투철한 봉사 정신, 그리고 투박하고 순박한 그의 성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식당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최인규와 그의 부인은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을 본 받은 것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최인규의 설명이다. 그리고 최인규는 칠순을 맞이한 지금도 그러한 생각과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다.

최인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안양 지역의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인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바쁜 중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장학회와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검찰청 선도위원회와 보안연맹 협력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청소년에 대한 최인규의 관심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그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양시 육상연맹을 창립한 것이다. 최인규를 비롯해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안양시에 건의하여 이 조직을 만들었다.

**최인규** : 잘 아시겠지만, 육상이라는 것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육상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축구나 야구, 농구처럼 인기가 많은 종목에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육상은 티가 안 나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단체장도 안 맡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시장님을 찾아가 상의를 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육상연맹이 만들어졌어요.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나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체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최인규는 일찍부터 여러 단체를 만들어 지역의 청소년에게 자신이 받은 경험과 기회



산마을 카페의 표지판



산마을캠핑장 입구

를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가 ‘아침뜰장학회’이다. 2010년에 발족한 이 장학회는 최인규를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며, 최인규는 2~4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단체는 변호사, 자영업자, 의사, 교육자 등 70명이 넘는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학회는 해마다 안양과 주변 지역 청소년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장학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이와 같은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최인규를 비롯한 회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관내 청소년에게 푸른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에는 30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50만 원씩 전달했는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인규** :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점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더 잘 되었고요, 장학금 비용으로 올해 1,500만 원 들었어요. 그 돈으로 30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씩 전달을 한 거죠. 장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줘요. 장학금을 전달할 때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주로 어려운 애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보조도 못 받고 이렇게 좀 어두운 곳에 뭐라 그럴까, 힘들게



안양사랑나눔회 이웃사랑 물품 전달식(2018년, 안양시청·포토갤러리 제공)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꼼꼼하게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최인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는 ‘(사)안양사랑나눔회’이다. 이 모임은 봉사활동과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치료를 해주고 있다. 안양사랑나눔회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웃음과 행복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비단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기도 하며, 10kg짜리 쌀 1,000포를 어려운 곳에 쓰도록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른들을 찾아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지속하고 있다.

안양사랑나눔회는 안양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업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터를 열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행사의 규모가 무척 컸다고 한다. 최인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보리밥 장터’를 진행하였는데,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보리밥과 건강빵 등을 판매하여 모은 금액 전부를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최인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사를 하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의 시작이 된 '산마을 보리밥'과 최인규

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얻어진 수익이 좋은 곳에 쓰이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했던 행사”라고 당시의 행사 소감을 밝혔다.

최인규는 또한 2022년에는 그가 참여하고 있는 ‘안양시 힐링 트레킹 틀안애’라는 단체가 진행한 ‘제1회 어려운 이웃돕기 일일 호프데이’의 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2023년에도 개최가 되었는데,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양시 힐링트레킹틀안애(회장 임혜숙)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산마을 베이커리(대표 최인규)에서 지난달 26일 제2회 어려운 이웃돕기 일일 호프데이를 진행해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수익금을 비산3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현 전국회의원,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의장, 국민의힘 최돈익 만안지역위원장, 허원구 안양시의원, 전·현직 시·도의원 등 안양 지역 정가의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또 한국새생명복지재단·신한모터스·현대부품대승상사가 협력하였으며, 여러 산악회 단체가 함께 했다.

힐링트레킹틀안애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트레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역사탐방, 지역 명소 알기, 지역민 비대면 장기자랑, 우리 마을 아름다운 꽃밭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고 나누어 쓰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이다. 임혜숙 회장은 “바쁜 연말이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해주신 회원들과 오늘 장소를 빌려주신 산마을 베이커리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수익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안양시 힐링트레킹들안애, 따뜻한 사랑나눔행사 개최』, 『경기뉴스』, 2023년 12월 13일)

최인규는 봉사와 나눔뿐만 아니라 비산3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비산3동에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런 노력의 하나이다. 비산3동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바람에 건축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상인과 힘을 합해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격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몇 차례 심사과정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다. 최인규와 주변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2015년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된다.

**최인규** : 이곳에서 장사하다가 보니 무언가 특별하게 여기를 발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보고 해서 이곳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그러다가 의원들도 도와주고 해서 한번 지정을 받아보자고 다 같이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특화거리가 시작되는 앞쪽에 있는 운동장부러 조성하고자 했는데 식당이 60%가 넘어야 되다 보니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리를 좁혀서 위쪽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위쪽은 80%, 90%니까요. 그렇게 조절을 해서 어렵게 특화 거리를 지정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 대표자들하고 모여 상인회도 만들고 해서, 여기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 4. 특화거리 그 이후, 마을의 내일을 그리다

1998년에 고향을 떠나 안양시 비산동에 터를 잡은 최인규는 초창기부터 해오던 보리밥 식당을 비롯해 카페, 캠핑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당 일을 시작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표지판과 식당 지도

한 초창기에는 다소 부침이 있었으나 사업가로서 독심과 남다른 안목, 그리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양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평가받는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부를 쌓아서만은 아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인 신념과 철학도 그렇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도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인규의 신념과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가 안양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를 포함한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기보다는 마음을 퍼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최인규** : 이곳에서 처음 보리밥 장사를 할 때부터 그랬는데, 저를 포함한 부인, 그리고 직원들은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며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마음을 준다는 것은 모든





걸 진실하게 쓰는 거예요. 재료도 속이지 않고 양심껏 그대로 가면 손님들이 그걸 잘 알아주고 자주 와 주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내가 마음을 주면 자연스레 손님들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음식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나는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돈은 받지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죠.

그의 이러한 신념과 철학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리밥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다른 분야로도 크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찾아온 손님들은 최인규와 직원들의 넉넉한 마음을 알아주듯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벅찬 와중에 그는 한때 30개 넘는 봉사·나눔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19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지금은 10개 정도의 단체만 관여하고 있다. 보통 주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고, 저녁이나 밤에 시간을 내서 단체 사무실을 찾는다.

최인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봉사와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재산이나 나이가 많은 것을 떠나 늘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고향을 떠나 비산동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낯선 타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인규는 안양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안양에 대한 애정이 있다. 지역의 청소년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긴 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 왔던 박물관을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 내에 조성하는 것이 그중에 하나이다. 그 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민속품을 가지고 민속촌이나 민속박물관을 설립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강하다. 이와 같은 공간이 생겨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곳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두 번째 소망은 안양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비산3동과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비산3동은 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체육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최인규는 이런 것을 잘 활용

하여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축제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현재는 생각을 같이하는 주변 상인들과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도인데, 조만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를 비롯해 주변 상인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이 한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최인규가 이름난 축제나 장소를 찾는 것도 결국 이러한 고민 때문이다. 여러 시설이나 공간이 잘 어우러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상인들과 수시로 만나 비산3동의 발전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4년 칠순을 맞이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인규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가 가진 긍정적인 사고와 성향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註

---

1 최인규(남, 1955년생, 산마을보리밥 대표), 2024년 12월 23일 구술.

## 제2장

#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 1. 이웃끼리 시작한 봉사, 마을을 만드는 씨앗이 되다

비산동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순수 봉사단체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조직으로 결성되었으며, 마을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직접 실행하는 안양의 대표적인 마을 활동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비산동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주도하여 만든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탄생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희망주부봉사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망주부봉사단은 이마트 평촌점에서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여 명의 주부를 모아 만든 단체이다.<sup>1</sup>

관양동에 위치한 이마트 평촌점은 2002년<sup>2</sup>에 문을 연 안양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이다.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마트 평촌점에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양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희망주부봉사단을 모집하게 된다. 희망주부봉사단은 이마트 평촌점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점에서도 운영되던 봉사단체로,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이다. 이 봉사단은 이마트의 지역 사회 환원 활동이자 지역 친화적 기업 활동의 일환 중 하나였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평촌점을 비롯해 전국 여러 지점에서 진행된 희망주부봉사단의 운영 방식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 가운데 일정한 인원을 선별한 다



제5회 안양시민축제 여성의용소방대 퍼레이드(200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22년에 출범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은총과 이정숙은 이마트 평촌점 희망주부봉사단에서 7~8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인물이다. 그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주로 사회봉사와 김장 봉사였다.

**김은총** : 처음에 평촌 이마트에서 희망주부봉사단을 모집해서 처음에 3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쪽 오면서 우리가 여기 비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바자회라든가 김장을 담가 나누는 등등의 행사를 같이 했어요.<sup>3</sup>

김은총과 이정숙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을 비롯해 이 모임에 지원했던 주부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양여성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안양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안양여성의용소방대는 1979년에 창단되었는데, 단순 화재 예방 및 관련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대에 따

라 역할이나 기능에 차이가 있긴 하나 현재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를 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와 독거노인 식사 제공 등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은총과 이정숙은 1997년부터 안양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이마트 평촌점에서 희망주부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렵지만, 이마트 평촌점에서 안양여성의용소방대에 모집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두 사람의 설명이다. 안양여성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던 50명의 대원 가운데 상당수가 희망주부봉사단에 선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당 시기에 희망주부봉사단에 뽑힌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모두 3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안양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었다.

**김은총** : 제가 1997년도부터 안양여성의용소방대라는 데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 평촌점에서 희망주부봉사단을 모집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자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봉사니까 해보자고 한 거죠. 당시 우리 소방대원이 50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30명 정도가 희망주부봉사단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들이 희망주부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희망주부봉사단의 활동은 소방대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대에서 함께 활동하던 대원들은 지역에 생긴 대형마트에서 일련의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점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특히 김은총은 소방대에서 함께 활동하던 대원들을 설득하여 희망주부봉사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마트 평촌점에서 희망주부봉사단을 출범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이마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봉사단에서 활동하던 주부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마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만든 셈이다. 둘째는 이마트 평촌점의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였다. 이마트 평촌점에서는 봉사단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은총** :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기네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활동도 이마트 평촌점의 홍보니까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도 주려고 했겠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요. 관내 복지관에도 후원을 많이 했어요.

희망주부봉사단에서 주로 했던 봉사활동은 바자회였다. 바자회에서 판매한 물품 가운데 상당수는 이마트 평촌점에서 지원하였는데, 봉사단은 지원 물품을 가지고 안양에 있는 여러 복지관과 협업하여 직접 그곳을 찾아가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조사자** : 선생님 어떤 활동을 많이 했나요? 당시에.

**김은총** : 제가 기억하는 건 바자회가 제일 컸어요. 복지관마다, 부흥복지관·비산복지관 이런 곳에서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조사자** : 이마트에서 준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네요?

**김은총** : 네. 유행 지난 것도 있을 테고, 새거지만 또 처치 곤란한 것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마 기부 행사를 했는데, 저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라요. 이마트에서 직접 받아서 한 거니까요.

(중략) 그런 걸 줘가지고 복지관에서 같이 바자회를 했어요.

희망주부봉사단에서 했던 또 다른 활동으로는 김장 나누기가 있다. 이 활동 역시 이마트 평촌점과 안양시 관내의 복지관이 함께 진행한 것으로 희망주부봉사단의 단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던 30명의 주부는 비록 힘이 들긴 하지만 전해준 작은 선물을 받고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곤 하였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안양천에 꽃을 심는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 이 부분은 이마트 평촌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희망주부봉사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다.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이 꽃을 보면서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마트 평촌점을 기반으로 했던 희망주부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심어주는 여러 역할을 하였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본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던 분들인 것도 있었지만, 이마트라는 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었기에 더욱 의미 있게 봉사할 수 있었다.

김은총과 이정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부들끼리 봉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 부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장할 때면 수육을 삶아 나눠 먹기도 했으며, 봉사활동을 마치고 삼삼오오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피로를 풀었다. 돌이켜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두 사람에게서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한 행복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어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활동가들(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것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던 희망주부봉사단은 7~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해체되었다. 이 모임이 더 지속되지 않고 도중에 중단된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함께 봉사했던 주부들은 이 단체를 적극 지지하거나 담당했던 직원(점장)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이 모임이 처음 생길 때와 달리 해체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통보는커녕, 특별한 마무리 행사도 없었다. 당시 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주부들은 이 부분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김은총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조사자** : 희망주부봉사단 활동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김은총** : 어려움보다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남아 있는 말이 뭐냐 하면 해단식을 하면, 그냥 '우리가 사정이 이래서 해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통보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부터 이게 연락이 안 오고 봉사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많은 인원들이 다 해산을 한 거죠. (중략) 나쁜 사람들이야. 점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안 했으니까요.

이마트 평촌점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희망주부봉사단은 2005년 무렵에 해체가 되었지만, 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주부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사라지면서 구심점이 약해졌지만, 이 모임 과정에서 연을 맺은 여러 복지관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2022년에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이 결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이러한 역사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주부들의 봉사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보다 확장되고, 의미 있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2022년에 희망주부봉사단에서 활동했던 주부들과 협의하여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을 만들었다.

**김은총** : 마을기획단이라는 이름만 22년도에 붙였을 뿐 그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다시 말하면 20년 전부터 봉사를 계속해 오던 우리들이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에는 봉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중략) 우리가 여기 비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바자회 라든가 김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봉사를 한 거죠. 그런 걸 계속해 오다가 여기 선생님들 하고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친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런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면 어떨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기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2022년에 탄생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처음에는 6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오래전부터 연을 맺어온 김은총과 이정숙을 중심으로 새롭게 4명의 주부가 더해져 함께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김은총과 이정숙은 안양시 여성의 용소방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해오다가 이 기획단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활동하는 주부들 대부분은 비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정숙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김은총과 봉사를 하는 것이 늘 즐겁고, 20년 넘게 연을 맺고 있는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기획단의 초창기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6명으로 출발한 비산동 마을활동 기획단은 한 명의 주부가 더 참여하여 지금은 모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 2. ‘비산동마을활동기획단’에서 ‘행복까지’로

2022년에 출발한 비산동마을활동기획단은 현재 7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정숙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비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이다.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모임이 추구하는 목표는 ‘마을 내 주민이 모임을 통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들은 기획단이 결성된 이후, 자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했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일 년 동안의 사업을 확정하였다.

해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2024년에는 감정(환경), 교육(나눔), 마을(쌍개울축제)가 핵심적인 활동인데,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일련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비산사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비산사회종합복지관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역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단체의 명칭과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봉사단체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마트 평촌점과 함께했던 희망주부봉사단처럼 바자회와 김장 나누기 등의 봉사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목표와 차이점은 이 단체의 명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히 주목할 용어는 ‘기획단’이다. 기획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는 ‘일을 꾀하여 계획하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목표 설정·방법 결정·실행·계획·수립의 과정으로, 조직의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이 여러 봉사단체에서 사용하던 ‘봉사단’이라는 용어 대신 ‘기획단’으로 이름을 명명한 이유는 결국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유하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직접 계획하여 일련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것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치은** : 정말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진 못 해요. 근데 요즘은 정말, 특히 비산/고동 같은 경우는 옆쪽에서 재개발이 엄청 크게 돼서, 정말 도음이, 옛날처럼 막 어려



# 2024년 행복 가치단 중점 활동

- 비산동 마을 활동 기획단 -

## 목표

마을 내 주민이 모임을 통해 강점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 중점 활동

마을 선생님

### 강점

환경

### 교육

나눔

### 마을

쌍개울 축제

#### 캠페인

플래노깅  
— 행복가치단 모임

펫티켓  
— 행복가치단 모임

에코백  
— 주민간 이웃

애착인형  
— 주민간 이웃

#### 안전

소방교육  
— 이정숙 이웃  
— 김기홍 이웃

#### 스마트폰

스마트폰  
활동  
— 안미숙 이웃

#### 마을축제

모임홍보  
— 행복가치단 모임

2024년 행복가치단 중점 활동 조직도

운 분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돌봄이 필요해요, 이러면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마을 축제도 하고, 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도 발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마을활동기획단의 주요 역할입니다.<sup>4</sup>

안양시 비산사회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구성원들은 모임의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기획’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감이 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성원이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산동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주민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실천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아직도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2~3년 동안 활동하면서 ‘기획단’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긴 했지만, 모임의 미래를 고민할 때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칭(異稱)을 내세우고 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들은 이칭이 아닌 ‘애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행복까치’이다. 행복까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까치’가 결합한 것으로, 기획단이라는 명칭보다는 훨씬 친근감도 있고, 누구나 들으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부터 본래의 명칭보다는 ‘행복까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김은총** : 기획단 그러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주부들이인데 기획단, 그러면 엄청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기가 조금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턱을 낮춰서, 기획단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테니까, 더 편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비산동을 알리고, 또 비산동 주민들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편해야 되니까. 주민들과 편하게 하려면 이름을 더 쉬운 것으로 한 번 해볼까 해서 저희가 애칭처럼 만든 게 뭐냐 하면 ‘행복까치’예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과 행복까치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질감이 있어 보이지만,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 및 방향성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처음 이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인가를 고



2022년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7월 정기회의(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민했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과 함께 ‘행복까치’를 이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여러 구성원의 생각이다. 그리고 ‘행복까치’라는 용어의 ‘까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구성원들은 이 용어를 행복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였다고 한다. ‘까치’라는 용어에는 ‘같이(同)’와 ‘가치(價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명칭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이들은 비산동 주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물어다 주는 까치로서 오래오래 활동하는 데 있어 이 명칭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의 방향성은, 이 모임의 명칭이나 이칭에서 알 수 있듯 비산동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발굴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봉사활동은 기본이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준다거나 혹은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에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산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진행하여 활동의 방향성과 목표를 수립한다는 점이다. 비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운영 방식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관과 민간단체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래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활동이나 사업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유연하게 기획하고 실행한다.

### 3. 기획부터 실행까지, 마을의 목소리를 찾아라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분들과 새롭게 참여한 여성들로 구성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2022년부터 비산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2022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김장 나누기와 함께, 소소한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축제 이름은 ‘쌍개울 마을놀이! 함께 즐겨요!’이다.

기획단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이 축제는 2022년 6월 11일에 안양천쌍개울 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이 운영되었다. 체험 활동으로는 제기 만들기를 비롯해 딱지 만들기, 3D펜 체험, 풍선아트 체험, 즉석 사진 인화 등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양이 모래를 무료로 나눠 주었으며, 플리마켓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시민들은 전단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다.

쌍개울마을놀이축제에는 200~300명의 안양 시민이 함께하였다. 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 대다수는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사가 더욱 자주, 그리고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비산동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구성원이 공감하였다.<sup>5</sup>

2023년의 주요 활동도 역시, 김장 나누기와 쌍개울마을놀이축제가 중심이었으며, 수시로 펫티켓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안양천 일대에서 펼쳐진 이 캠페인은 2022년에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안양천의 애완동물 배설물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안양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김은총** : 2023년 연초에 선생님들이 계획했을 때, 봄에 축제도 하고, 가을에는 김장을 하자 했어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펫티켓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저희 복지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했는데, 비산1·2·3동의 개똥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시적으로 비산동에서 펫티켓 캠페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안양천에 정말 개똥이 많은데, 수거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설치하자고 해서 진행을 한 거죠. 이것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안양시장님도 만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처음에는 안양천이 계속 범람해서 개똥이 흘러 내려가니까 무산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펫티켓 활동을 했어요.

비단 이 캠페인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들은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였다.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펫티켓 행사에서는 안양천의 개똥 문제를 알릴 목적으로 종이 상자를 주워다가 조끼를 만들고, 거기에 글씨를 적은 다음 직접 입고 걸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김은총** : 저희가 개똥 캠페인을 할 때 뭘 했냐면요, 박스를 가지고 직접 조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 조끼처럼 입고 다녔어요, 말하자면 박스를 재활용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입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했어요.

안양천의 개똥 문제는 비산1·2·3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다 보니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노력 덕분에 안양천 여기저기에 널려 있던 개똥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완견을 데리고 안양천으로 나오는 사람들 역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였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기획단 축제

# 쌍개울 마을놀이! 함께 즐겨요!

**마을활동이란?**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마을(비산동)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주민조직으로서, 다양한 마을활동을 기획·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b>일시</b>	2022. 06. 11. (토) 10:00 - 13:00
<b>장소</b>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
<b>대상</b>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b>행사내용</b>	체험부스 및 플리마켓 진행




<p><b>1. 체험부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놀이 체험(채기만들기, 딱지치기)</li> <li>- 풍선아트 체험</li> <li>- 3D펜 만들기 체험</li> <li>- 축적 사진인화 체험</li> </ul>	<p><b>2. 플리마켓</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 당일, 플리마켓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li> <li>- 행사 후 당일날 시점까지 가능합니다.</li> <li>- 신청하는 방법은 후원 센터(031-446-5936)로</li> </ul>
---	---

**문의** 비산권역팀 ☎ 031-446-5936

살아있는 문화를 소망이 모태를 무효로 드림이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로 100-1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비산1·2·3동 마을활동기획단

쌍개울 마을놀이 함께 즐겨요! 홍보물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쌍개울놀이축제 준비(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2022년 '쌍개울 마을놀이! 함께 즐겨요' 행사장(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또 다른 활동으로는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축제와 전통 놀이 체험을 들 수 있다. 전통 놀이 체험은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2023년 5월을 맞이하여 진행한 ‘가정의 달 마을 축제’에서 열렸던 프로그램이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3.05.13.(토) 마을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부모 세대와 아이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와 비산동 지역 이슈인 펫티켓, 환경을 접목시켜 진행되었다. 축제가 진행된 3시간 동안 약 2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모임의 장을 만들었으며, 펫티켓과 환경에 대한 퀴즈 맞추기 등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마을활동기획단은 GS파워의 후원으로 진행된 ‘가정의 달’ 마을축제로 주민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지역 이슈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전하였다. GS파워는 지속적으로 그린스케치 등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축제를 참여한 지역 주민은 “동네에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축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캠페인을 보니 확실히 이 근방에 펫티켓이 잘 지켜지지 있었는데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이 있으면 많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등의 소감을 전했다. 마을활동기획단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 모임으로 마을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다. 22년 ‘마을축제’·‘마을김장’ 등을 진행했으며, 23년에는 ‘펫티켓 캠페인’·‘마을축제’·‘마을김장’ 등을 실천 및 계획 중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마을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마을활동기획단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하였다. 마을활동기획단 ‘가정의 달’ 마을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소식은 비산사회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기획단 ‘가정의 달’ 마을축제 진행!」, 2023년 5월 15일)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놀이 체험도 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지역에 있는 놀이터를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는 매달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놀이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구성원들이 모두 준비하고 제작한 다음에, 그것을 놀이터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체험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비산1·2·3동에 있는 놀이터를 다니면서 솜바꼭질을 비롯해 제기차기, 물놀이(물총 싸움) 등의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활동의 정식 명칭은 ‘행복놀이터’이며, 말 그대로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놀이를 통해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활동 역시 다른 프



2023년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펫티켓 캠페인(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2024년 여름맞이 물놀이(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취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들은 놀이터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어린이와 학부모를 생각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무척 좋아하는데, 구성원들이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나중에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김은총** : 이쪽 동네는 애들이 좀 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 동네는 또 애들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부모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하고 놀이를 하면 엄마들도 나중에 같이 어울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되는데,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가령 여름에 물놀이할 때 필요한 물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도움을 받기도 한다.

행복놀이터 활동 과정에서는 개별 놀이터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 어떤 놀이터에는 그네가 있지만, 어떤 놀이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므로 우선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행사를 준비한다. 또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 활동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되며, 비산1·2동의 놀이터는 유아들이 많은 관계로 보통 오후 4~6시에 진행한다. 반면 비산3동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오후 2~4시에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 놀이에 참여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

리게 되고. 엄마들이 더 좋아하세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은 중·장년층이 많다. 나이 탓에 힘이 들긴 하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없는 힘이 난다고들 말하였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만으로 무척 행복하다고 한다.

**김은총** : 힘은 들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무척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저희한테 다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다 보면 몸이 좀 힘이 들긴 하나, 그러한 피로를 없애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행복이죠.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는 2024년부터 ‘행복놀이터’이외에도 ‘소소한 이야기’라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모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비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살며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 등이 이야기의 소재라 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평촌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시니어클럽(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과 ‘여름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등을 묻고, 그분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글과 삽화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추석을 앞둔 2024년 9월 초에는 사전에 후원받은 재료를 가지고 200인분의 전을 부쳐 비산동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였다. ‘소소한 이야기’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 평소에 먹기 어려운 음식인 전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들은 전을 전달하며, ‘올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았다.

**김은총** : 9월달에는 저희가 추석 전, 전 나눔을 했어요. 200인분을 만들어서. 우리 봉사단이 200인분을 전날부터 준비했어요. 준비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전을 부쳐서 다닌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중략) 그렇게 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상가마다 다니면서, 비산사회종합복지관과 함께 전을 부쳤는데 맛을 보시라고 전달했죠. 그러면서 ‘올 추석에 고향을 가시나요?’와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낼 계획인지’도 물어보았어요. 말하자면 추석 무렵에는 그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장사를 하

비산동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

행복까치



8월 「소소한 이야기」(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는 분들의 대답이 무척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명절에 없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까지 오는 날에 전까지 가져다주니까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 4. 작은 손으로 큰 일을 만드는 ‘함께’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2~3년 이란 짧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마을 활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유의미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단체가 대단한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성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 품을 들여서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들은 행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든 가서 구해온다. 그중 하나가 놀이 체험에 필요한 상자를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마련한 상자를 가지고 제기와 부채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캠페인 준비 회의(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김은총** :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상자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또 체험 과정에서 필요한 제기와 부채 역시 저희가 준비한 상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돈을 주고 별도로 예쁜 상자나 종이를 살 수도 없으니까. 그것들을 만들기엔 적합한 박스를 행사를 하기 몇 달 전부터 모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기와 부채를 만들 수 있는 종이를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색깔도 그렇고 두께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규격이 맞아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놀이를 비롯해 축제와 관련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생각보다 상자가 많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넉넉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겨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체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상자의 경우는 대개 이마트 비산점에 가서 가져오는데, 행사에 딱 맞는 것을 고르는 과정에서 청소하는 분에게 잔소리를 듣고 올 때도 종종 있다.

**김은총** : 사실 과자 박스 하나면 부채 1개를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두께가 맞는 박스를 구하려면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우리 구성원들은 주로 비산동 이마트를 가요. 비산동 이마트에 가면 폐품을 모아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종이 상자를 구해오는 거죠. 그러다가 왜 박스를 뒤집어 놓냐고 소리도 들어봤어요. 적당한 것을 고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쌓아 놓은 상자를 들추면서 찾아야 하기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혼도 나기도 했어요. 자기네가 다 정리해 놔는데 와서 그거 찾아내면 일이 더 많아질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는 거죠.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는 기획단의 구성원들과 비산동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의견을 모은 다음, 일련의 계획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준비하며, 최대한 저렴한 예산과 지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쌍개울 축제의 경우는 6개월 동안 날마다 아침 일찍 복지관에 출근해 오후 늦게 집에 갈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모든 것을 구성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손에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농담으로 우리도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팀장에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김은총** : 아파트 단지 내에 버려지는 폐품, 병뚜껑 이런 거 모은 다음, 돈 하나 안 들고 전부 다 재 활용해서 만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이야기 한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팀장님에게 우리도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그러냐면 모든 행사가 1~2달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의 날도 그렇고, 저기 쌍개울 축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손수만 들고 준비하다보니 나중에는 구성원들의 손에 다 물집이 생겼어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에서 활동하는 7명의 주부는 누구도 이 부분에 불만을 호소하지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이 폐품을 재활용해서 만든 놀잇감  
(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재활용을 통한 비산동 마을 활동기획단 행사 물품 제작  
(비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않은 채 묵묵히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몸은 비록 힘이 들지만,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축제와 놀이에 참여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즐기는 모습만 봐도 무척 기쁘다고 한다. 2~3년 동안의 활동이 비산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감사함을 전해주는 것 역시 구성원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집에 들어가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이 들긴 하지만 시민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표정을 보면 다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비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순수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무척 의미가 있긴 하나 체험이 아닌 물질적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종종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고 한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찾아가 봉사하다 보면 물질적인 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 또한 적지 않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것들이 많기에 구성원들은 가급적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차 언급한 바대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이 활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시에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

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이 모임을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획단의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것들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전을 부쳐 주민들에게 나눠준 행사 역시 여러 곳에서 후원해 준 것으로 진행하였다.

**김은총 :** 무슨 행사가 있으면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명절 나눔을 하려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죠. 그러면 밀가루 보태주시는 분도 있고, 호박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지원 내지 후원해 주는 거 가지고 전을 부쳐 나누는 행사를 한 거예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구성원 중에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주부가 있는가 하면,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참여한 이들도 있다. 서로 경력이 차이가 있긴 하나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봉사라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고, 좋은 분들과 함께 봉사하다 보면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김은총과 이정숙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봉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두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활동을 하면 자신 역시 행복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은총** : 봉사라는 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봉사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같이 봉사하면 서로 얼굴 보면서 행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봉사는 내가 받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은 2~3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또 다른 활동을 기획 및 준비하고 있다. 보다 지역 친화적인 활동을 비롯해 2024년에 시작한 ‘소소한 이야기’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들과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행복놀이터’ 활동 역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더욱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마음이 따뜻한 7명의 천사들과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보다 많은 행복의 씨앗이 비산동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뿌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무쪼록 비산동을 대표하는 이 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렸으면 하고, 비산동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다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註

- 1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순수한 모임을 지향하는 봉사단이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봉사단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종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을 맺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 2 2002년 9월 12일 월마트 평촌점 오픈, 2006년 10월 13일 이마트 평촌점 오픈.
- 3 김은총(여, 비산동마을활동기획단), 이정숙(여, 비산동마을활동기획단), 2024년 10월 22일 구술.
- 4 이지은(여, 비산사회종합복지관 팀장), 2024년 12월 22일 구술.
- 5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비산동 마을활동기획단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준비 및 진행」.

### 집필(가나다순)

고제경 수원도시재단 차장  
김은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김형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학술원장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영수 인하대학교 강사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 편집·교정

손예은

###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 안양시사 14 **비산동**

---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

###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3-2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中国图书馆

分类号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79.11

9 791194961232  
ISBN 979-11-94961-23-2  
ISBN 979-11-94961-09-6 (E)